

국립국어원 2006-1-10 경북(2)

2006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 연구 책임자 : 김무식
- ◆ 연구 보조원 : 김인규 · 정희경
- ◆ 조 사 지 역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국 립 국 어 원

2
0
0
6
년

경
북

지
역
어

조
사

보
고
서

국
립
국
어
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6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김무식

목 차

1. 조사 과정	3
2. 전사 원칙	8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발화	13
제 2 편 어 휘	146
제 3 편 음 운	207
제 4 편 문 법	261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녹음테이프	
3)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4) 조사된 질문지	
5)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6) 제보자 조사표	
7)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2006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청송군 진보면 괴정2리는 청송군의 동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다. 청송군 진보면은 북쪽으로 영양군 입안면, 동쪽으로는 영덕군 지품면, 서쪽으로는 안동시 임동면, 남쪽으로는 청송군 파천면과 청송읍과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진보면은 삼국시대에는 칠파화현(漆巴火顯)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경덕왕 때에 진보현(眞寶縣)으로 고쳐졌으며, 고려시대에는 보성부(甫城府)로, 조선시대에는 진보군(眞寶郡)으로 불리다가 1914년 부·군·면의 통폐합에 의하여 진보면(眞寶面)으로 고쳐져 오늘에 이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 인해 시장이 번성했으며 오늘날에도 34번 국도와 31번 국도가 동서와 남북으로 가로질러 인구의 이동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발달한 곳이다. 이 곳은 면소재지인 진안과 월전지역을 제외하면 대개 산지 지형이며 면의 북쪽에 반변천이 흐른다. 이 번 조사지역인 괴정2리는 산촌지역으로서 주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위주로 하는 곳으로서 자연부락 이름은 이목골이다. 이 마을은 예전에는 30여 가구 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10여 가구에 불과한 조그만 마을로서 대개는 자급자족을 하던 마을이었다. 주 제보자인 김진만 님을 비롯하여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밭농사와 일부 논농사를 생계로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특산물로는 담배와 가을배추, 고추 등이다.

오늘날 이 지역 사람들의 시장 상권은 면소재지에 있는 진보장이며 예전에는 주로 진보시장을 이용하고 인근의 청송읍의 장터, 안동의 시장, 영덕군 지품면 원정장도 이용할 정도로 교통이 발달된 지역이다. 이 지역 사람의 통혼권도 위에 제시된 시장 상권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제보자도 청송읍에 처가를 두고 있다. 이 지역 사람은 대개 조사지점에서 1km 떨어진 신촌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중학교는 주로 진보면 소재지의 학교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진보면 소재지와 안동시, 영덕군에까지 진학하고 있다. 교통편은 이 마을에서 진보면 소재지까지는 진보면 소재지에서 운행하는 대중버스와 영덕군에서 운행하는 대중버스편이 있으며 진보면 소재지에서는 인근 중소 도시로 연결되는 시외버스가 운행되어 비교적 교통의 소통이 원활한 곳이다.

1.2. 조사 기간

(1)조사 기간 : 2006년 6월 10일 ~ 8월 19일

(2)보완 및 확인 조사 기간 : 2006년 12월 9일 ~ 12월 10일

1.3. 제보자

(1) 주제보자

- 이 름 : 김
- 성 별 : 남
- 나 이 : 만 72세(1934년생 : 실제 나이 75세)
- 출생지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 거주지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5대째 살고 있음.)
- 직 업 : 농업
- 경 력 : 없음
- 학 력 : 무학
- 병 역 : 육군 약 4년간 근무(1954년 ~ 1958년)
- 소개 과정 : 면사무소 및 이장
- 특기 사항 :
 -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다른 곳에 거주한 경험이 없으며 학력은 없지만 한글을 깨우치고 있으며 무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리한 편임.
 - 가난한 집안의 맏이로 태어났지만 그 지역에서 비교적 자수성가한 편이며 이야기하기를 비교적 즐기며 사회성이 좋은 편임.
 - 어릴 때는 머슴 생활도 했으며 군 경력을 빼면 모두 이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를 했음.
 -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비교적 이해가 빠른 편이었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음.
- 언어 및 음성 특징 :
 - 발음이 비교적 또렷하며 목소리도 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차고 좋은 편임.
 - 묻는 질문에는 또박또박 잘 대답을 하는 편이었지만 질문 외에 스스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구술발화 조사 때는 조사자가 자주 참견하게 됨.
 - 나이에 따른 기억력의 문제로 인해 구술발화의 조사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부분의 조사에서는 가끔 개신형과 보수적인 어형 사이에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

(2) 보조제보자

- 이 름 : 김
- 성 별 : 여
- 나 이 : 만 70세(1936년생)
- 출생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행정 개편에 따라 청송면에서 읍으로 바뀜.)
- 거주지 :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만 18세까지 거주함.)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혼인 후에 지금까지 거주함.)

- 선대거주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송생동
- 직 업 : 농업
- 경 력 : 없음
- 학 력 : 무학
- 병 역 : 없음
- 소개 과정 : 면사무소 및 이장
- 특기 사항 :
 - 주제보자인 김 님의 부인으로 방언조사 초기에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으로 다소 비협조적이었으나 후반부에는 필요한 경우에 참여를 하였고 조사에도 호의적으로 바뀜.
 - 주로 직접 조사에 참여한 경우는 매우 적으며 대개 제보자의 기억이 흐릿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많이 했으며 경우에 따라 직접 참여한 경우도 있음.
 - 남편과 시누이를 의식해서 그런지 자신의 이야기(특히 시집생활 등)를 잘 드러내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항목에서는 잘 대답하였음.
 - 주 제보자에 비해 질문에 대해 이해하는 속도가 느렸으며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음성 특징 : 발음이 매우 또렷하며 목소리도 힘차고 좋은 편임.

1.4. 조사 현황

(1) 조사자 : 김무식(경성대학교 교수)/김인규(경북대학교 조교)

(2) 조사 일시

- 예비조사일시 : 2006년 6월 10일 ~ 7월 31일
- 본조사일시 : 2006년 8월 3일 ~ 8월 19일
- 보완 및 확인 조사 일시 : 2006년 12월 9일 ~ 12월 10일

(3) 조사 장소 : 주제보자의 집

(4) 조사내용

번호	구분/파일명	녹음시간/일시	녹 음 내 용	제 보 자
1	구술발화 1/ SGB_CS_01	1:22:40/8.3. 15:30~17:30	1.1.1.마을 둘러다보기 ~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주제보자/ 보조제보자
2	구술발화 2/ SGB_CS_02	1:19:40/8.4. 13:30~15:00	1.2.6. 회갑잔치 ~ 1.3.1. 논농사	"
3	구술발화 3/ SGB_CS_03	1:19:30/8.4. 15:20~17:00	1.3.2 발농사	주제보자
4	구술발화 4/ SGB_CS_04	1:32:55/8.5. 9:00~10:40	1.3.3.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
5	구술발화 5/ SGB_CS_05	1:26:50/8.5. 11:00~12:50	1.4.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 ~ 1.4.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

6	구술발화 6/ SGB_CS_06	1:17:45/8.7. 8:30~9:50	1.4.3. 옷 만들기 ~ 1.5.2 나물 채취와 요리	"/보조 제보자
7	구술발화 7/ SGB_CS_07	1:16:20/8.7. 10:00~11:30	1.5.3. 밀반찬의 조리	"
8	구술발화 8/ SGB_CS_08	1:16:00/8.9. 8:00~9:30	1.6.1. 집짓기 ~ 1.6.3. 금기 생활	주제보자
9	구술발화 9/SGB_CS_09	1:44:05/8.9. 9:50~11:40	1.7.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1.8.2 전통놀이	"
10	구술발화 10/ SGB_CS_10	0:38:50/8.9. 13:30~14:10	1.8.3 전설과 설화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보조 제보자
11	어휘 1/ SGB_CS_11	1:40:15/8.9. 14:40~16:40	20101 벼 ~ 20316 껌질	주제보자
12	어휘 2/ SGB_CS_12	1:20:55/8.10. 8:30~9:55	20401 곡식 ~ 20628 미숫가루	"
13	어휘 3/ SGB_CS_13	1:33:40/8.10. 10:10~11:50	20701 간장 ~ 20933 가운데	주제보자/ 보조제보자
14	어휘 4/ SGB_CS_14	1:43:15/8.11. 8:30~10:20	20934 시렁 ~ 21265-3 여남은 말	"
15	어휘 5/ SGB_CS_15	1:41:20/8.11. 10:30~12:20	21301 치마 ~ 21512 망월	"
16	어휘 6/ SGB_CS_16	1:24:10/8.11. 14:00~15:30	21513 쥐불놀이 ~ 21817-0-1 구레나룻줄	"
17	어휘 7/ SGB_CS_17	1:46:45/8.11. 15:50~18:00	21818 코 ~ 22116-1 문둥병	주제보자
18	어휘 8/ SGB_CS_18	1:19:10/8.12. 8:30~9:50	22117 부스럼 ~ 22306-1 아내	주제보자/ 보조제보자
19	어휘 9/ SGB_CS_19	1:21:30/8.12. 10:10~11:30	22307 형 ~ 22346-3 큰어머니	"
20	어휘 10/ SGB_CS_20	1:37:10/8.16. 14:00~15:40	22347 큰어머니 ~ 22541 방개	"
21	어휘 11/ SGB_CS_21	1:38:40/8.16. 16:00~17:50	22601 가축 ~ 22828 잔디	"
22	어휘 12/ SGB_CS_22	1:53:20/8.17. 8:00~9:55	22901 소나무 ~ 23121 찰흙	"
23	어휘 13/ SGB_CS_23	1:14:35/8.17. 10:10~11:40	23201 물 ~ 23352 이제	주제보자
24	어휘 14/ SGB_CS_24	0:41:50/8.17. 14:00~14:50	23019 개암, 23308 노을, 23308-0-1 노을을, 23314 더위, 23353 이미 ~ 23441 서풍	"
25	음운 1/ SGB_CS_25	0:58:50/8.17. 15:00~16:00	31001 테 ~ 31088 적:-	"
26	음운 2/ SGB_CS_26	1:26:40/8.17. 16:20~17:50	32001 막- ~ 32362 밖	"
27	문법 1/ SGB_CS_27	1:43:00/8.18.	40101 나 ~ 40229 커녕	"

	SGB_CS_27	8:30~10:20		
28	문법 2/ SGB_CS_28	1:46:55/8.18. 10:40~12:30	40230 은/는 ~ 40618 -겠-	"
29	문법 3/ SGB_CS_29	1:30:10/8.19. 8:00~9:40	40332 반말, 40701 부정 ~ 41021	"
30	문법 4/ SGB_CS_30	0:33:45/8.19. 10:20~11:00	41022 설마 ~ 41116 속담	"
31	보완조사1 SGB_CS_31	0:11:42/12.10. 11:00~12:20	22310외 3항목/일부 구술발화	"

1.5. 전사

(1) 1차 전사(2006년 9월) : 총 147시간 40분

구술발화 : 김무식/김인규/정희경(107시간)

어휘 : 김무식/김인규(32시간 20분)

음운 : 김인규(2시간 40분)

문법 : 김인규(5시간 40분)

(2) 1차 점검(2006년 10월) : 총 132시간

구술발화 : 김무식/정희경

어휘 : 김무식/정희경

음운 : 김무식

문법 : 김무식

(3) 2차 점검(2006년 11월) : 총 132시간

구술발화 : 김무식/정희경

어휘 : 김무식/정희경

음운 : 김무식

문법 : 김무식


(4) 3차 점검(2006년 12월) : 총 122시간

구술발화 : 김무식

어휘 : 김무식

음운 : 김무식

문법 : 김무식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전체 조사한 내용에서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어>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에(e)’와 ‘애(ɛ)’, 그리고 ‘으(i)’와 ‘어(ə)’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각 ‘에’와 ‘어’로 통일시켜 적고 필요한 경우에는 (+) 안에 그 사실을 표시하였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으로 고음(높은 소리)은 해당 음절 오른쪽 어깨에 '표시'를 했다. 상승조는 모음자를 중복해서 적고 뒷모음의 오른쪽 위에 '표시'를 하며, 하강조는 모음자를 중복해서 적고 앞 모음의 오른쪽 위에 '표시'를 했다. 고장조는 모음자를 중복해서 적고 두 모음의 각각의 해당 음절 오른쪽 위에 '표시'했다.



2006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아 여기 그 어르신 그 이 마으른 언제쯤 생겨꼬, 어떠케 생긴지, 알고 계신며느
쫘 이야기 해 주십시오.{어르신 이 마을은 언제쯤 생겼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시면 쫘
이야기 해 주십시오.}

10101 @ 또 어떤 성씨드리 마니 사시는지.{또 어떤 성씨들이 많이 사시는지.}

10101 # 이 동네:: 여쓰 인지 생기는는 언제 췌 생긴는지 그는 잘 모르고요.{이 동네가 여
기 언제 생기는는 언제 처음 생겼는지 그건 잘 모르고요.}

10101 #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우리 고조보, 고조보 때: 여거 내로 와선은 모예, 완니더.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우리 고조부, 고조부 때 여기 내려 왔었는 모양입니다, 왔습니다.}

10101 # 예, 고조보 때.{예, 고조부 때.}

10101 # 그래가지고 머 고조보를 우른, 나도 지금 모르고, 징조부도 잘 모르니더.{그래가지
고 뭐 고조부를 우리는, 나도 지금 모르고, 증조부도 잘 모릅니다.}

10101 # 예, 징조부도 모르고.{예, 증조부도 모르고.}

10101 # 그 우리 또 써어는 김녕깁가시더.{그 우리 또 성은 김녕깁가입니다.}

\$사적 대화

10101 @ 호우시 이 이 그 마으레 어떤 성씨드리 와 가튼 성씨드림미까, 예저네, 요즘말
고.{혹시 이 마을에 어떤 성씨들이, 왜 같은 성씨들입니까, 예전에, 요즘말고.}

10101 @ 예저네는 어뜨에 한 성이였습미까, 안 거라며는 여러 성씨드리 모여스 싸란쫘미
까?{예전에는 어떻게 한 성이였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성씨들이 모여서 살았습니까?}

10101 # 아: 여게::도 아: 우리 김녕깁가가 주로 사란니더.{여기도 우리 김녕깁가가 주로
살았습니다.}

10101 # 살고, 아 진성이시가 여게 한 지비 사란니더.{살고, 진성이씨가 여기에 한 집이 살
았습니다.}

10101 # 또 이 김메깁씨가 한 지비 사라꼬, 그 나무지는 머 거이 어 우리 김녕깁가가 여
사란니더.{또 김해깁씨가 한 집이 살았고, 그 나머지는 뭐 거의 우리 김녕깁가가 여기 살았
습니다.}

10102 @ 이 마을 이르미 무어심미까?{이 마을 이름이 무엇입니까?}

10102 #1 췌정동.{괴정동.}

10102 # 아이야.{아니야.}

10102 #1 머로.{뭐야?}

10102 #1 이무꼴.{이무꼴?}

10102 # 이무꼴시더.{이무꼴입니다.}

10102 # 이무골.{이무골.}

10102 @ 이모꼬른 어 어떠케해서 이르미 부처징검미까?{이무골은 어떻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겁니까?}

10102 #1 그 모리지, 머.{그건 모르지, 뭐.}

10102 #1 어예 아나?{어떻게 압니까?}

10102 # 이무꼬르러닌, 여거는 그 유래는 잘 모를시더.{이무골은 이것은 그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10102 # 머 어예어예어이 덴둥.{뭐 어떻게 됐는지.}

10102 # 그글 어른들인테 큰 이야기를 몬 뜨러 받니더.{그걸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못들어 봤습니다.}

10102 @ 검 예, 그 이모꼬리라고 부르고, 그러며느 월래 행정지명은 꽤정동이고.{그럼 예, 이무골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월래 행정지명은 괴정동이고.}

10102 #1 예아.{예.}

10102 # 예.{예.}

10102 @ 어 그리고, 그러며느 이 근처에, 이 아페 마으 아페 마으리라든지,아페 사니라든지, 디에 사니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데로 골짜기 이르미라든지, 나무 이르미라든지, 이릉그쭰 아시는 데로 함분 이야기해 주시죠.{그리고, 그러면 이 근처에, 이 앞에 마을이라든지, 앞에 산이라든지, 뒤에 산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 이름이라든지, 나무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 쭰 아시는 대로 한 번 이야기해 주시죠.}

10102 # 아 예.{아 예.}

10102 # 아 요 아페 보이는 사는 압산이고요, 압사~이시더.{아 요기 앞에 보이는 산은 압산이고요, 압산입니다.}

10102 # 그레곧 똥 디에 산 보이능 그, 이그는 딴사~이라고, 그근 *** 그랜니더.{그리고 또 뒤에 산 보이는 거, 이것은 뒷산이라고, 그것 *** 그러니다.}

10102 # 그레고 은제 지 저, 여서 바가 점 볼 때는 큰 사~이, 노픈 사~이 저게, 아 갈미보~이라 그레그딩노.{그리고 인제 저기, 여기서 볼 때는 큰 산이, 높은 산이, 저것이 갈미봉이라고 그러거든요.}

10102 # 갈미보~이라는 거, 웨 갈미보~이라 카문, 옴나레 어른들 그 갠 씨고 텡겔찌요?{갈미봉이라는 거, 왜 갈미봉이나 하면, 옛날에 어른들 그 갠 쓰고 다녔지요?}

10102 # 갠 씨곤, 비 올때 우에 또 이렘 씨능 게 또 이서요.{갓을 쓰고, 비 올 때 위에 또 이래 쓰는 것이 또 있어요.}

10102 # 비 암 만또루 얹따 씨문 히한항 그데이.{비 안 맞도록 이렇게 딱 쓰면 희한한 것이지.}

10102 # 그그 가따그 해서 저거 인저 갈미보~이라:꼬 은제 그랜니더.{그것 같다고 해서 저것을 인제 갈미봉이라고 인제 그랬습니다.}

10102 # 그레거 은제 이 이 아네 여 음 드러다보는 사~이, 아께 말 데로 참 아 하장꼬린테, 그그 머 어른들 인디 인테 드르볼때는, 그 사라미 호레~이가 무러가서 그어 그 가주가서 사람들, 동네 사라미 차저 텡기이까 그 가여 이 일씨가지고, 그으다 화장은 해가 무던따고 해가지고, 그 인자 화장꼬리라꼬, 이 예, 그으케 한니더.{그리고 인제 이 안에 여기를 들여다보는 산이, 아까 말대로 화장골인데, 어른들에게 들어볼 때는, 그 사람이 호랑이가 물어가서 거기 가져가서, 사람들, 동네사람이 찾아 다니니까 거기 가서 있으니까, 거기다 화장을

해서 묻었다고 해가지고, 인제 화장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0102 @ 화장골, 또 이쪽 재는?{화장골, 또 이쪽 재는?}

10102 # 아 재는 이물령재라 그래그덩요.{아 재는 이물령재라고 그러거든요.}

10102 # 그 그랜니다.{그랬습니다.}

10102 # 여쭙근 진쭙 처메 여 머 할 땐느 이물령재, 여게 인쭙 동네 이르미 이몽꼴따 보~ 이 임물령재라꼬 여 헨는데, 해꼬, 그 이물령재라능 건 이그또 이 유래는 학시리 모른니더. {이쪽에는 진짜 처음에 여기 할 때는 이물령재, 여기 인제 동네 이름이 이무골이다 보니 이물령재라고 여기 했는데, 했고, 그 이물령재라는 것은 이것도 이 유래는 확실히 모릅니다.}

10102 # 예, 모르고.{예, 모르고.}

10102 # 요, 뜰 디에 요가든 또 시 시르봉어라곤 또 이서요.{여기, 또 뒤에 여기 가면 또 시리봉이라고 또 있어요.}

10102 # 시리봉.{시리봉.}

10102 @ 시리봉?{시리봉?}

10102 # 네, 시리봉도 멩 즈 저 상거치 저랜 노프게 인는데.{네, 시리봉도 역시 저 산같이 저렇게 높게 있는데.}

10102 # 그그능 왜 시리봉이라 그모, 사는 노픈데 우 올라가든 이으 핑자이 쯔버요.{거기는 왜 시리봉이냐 하면, 산은 높은데 위에 올라가면 이것이 굉장히 좁아요.}

10102 # 또 머시우, 연나레 왜 떡찌는 시 시리짜내요?{또 무엇이, 옛날에 왜 떡 찌는 시루 있잖아요?}

10102 # 그 시리 어퍼 논거 거 가딱 해서, 그래가지고 그그또 은제, 유래가 인제 시리보~이다.{그 시루를 얹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인제, 유래가 인제 시리봉이다.}

10102 # 예, 그랜니더, 예.{예, 그랬습니다, 예.}

10102 @ 금 이 아페 개우른 이름 업쭙미까?{그러면 이 앞에 개울은 이름 없습니까?}

10102 # 여 개우레, 여그는 이르든 으 옥꼬, 인제 저 건네 아께 가 잠 제 그 당, 당나무꼬 라 카능 그는 제 아 이 동네 그어 당낭글, 정월 보름나리 인제 아 이 동네서 그 제사를 지내고 헤 헤께 떼미네 저 그 다~이라꼬 그랜니더.{여기 개울에, 여기는 이름은 없고, 인제 건너에 아까 그 참 그 당, 당나무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동네 그 당나무, 정월 보름날 인제 이 동네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이라고 그랬습니다.}

10102 # 지금 저, 지금도 안주 멩 그 당나무꼬리라꼬 그랜니더.{지금 저기, 지금도 아직 역시 당나무꼴이라고 그러니다.}

10102 @ 그 머 혹시 이쭙게 아까 화장꼴처럼 어 어디 저네오는 전서리나 머 그런 재민는 이야기는 업쭙미까, 이 동네에.{뭐 혹시 이쪽에 아까 화장꼴처럼 어디 전해오는 전설이나 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 동네에?}

10102 # 그른 이야기는 모 뜨러바니더.{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10102 # 예, 머 그 전서리 대애간 이에긴 모뜨러반[x니더x].{예, 뭐 그 전설에 대해서는, 이야긴 못 들어봤[x습니다x].}

10102 @ 우리 할문 우리 어머님도 그런?{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도 그런?}

10102 #1 모리디더. 우리 머어 느께 시집 와가지고, 멩 여거든, 더 시집 와가지고른 몰레 에.{모릅니다. 우리 뭐 늦게 시집 와가지고, 역시 여기처럼, 또 시집 와가지고는 몰라요.}

10102 #1 머 머 어예 덴똥 머 그전 따러탱기는 데로 하지요.{뭐 뭐 어떻게 됐는지 뭐 그저

따라다니는 대로 하지요.}

10102 @ 당나무 거기는 어트케 요즘 어 당제는 지내심미까?{당나무 거기는 어떻게 요즘 당제는 지내심미까?}

10102 # 지금 나 그 소낭기 서이 아나도 이젠 모 아늘께래요.{지금, 그 소나무, 세 명이 안 아도 이것을 못 안을꺼예요.}

10102 # 엄:처난 커뿌런썌요.{엄청나게 커버렸어요.}

10102 # 근데 그으 은제 우리 여거 저 구까 그그 그 머로 저거{그런데 그 인제, 우리, 여거, 저, 국가, 그거 뭐지, 저거}

10102 @ 보호수.{보호수.}

10102 # 여, 보오술, 은 전혀 저걸 은제 해 해 해판마리.{예, 보호수를, 인제 저걸 인제 했던 말이야.}

10102 # 해 난데, 그레 우리가 여 은제 동네서 으 제사를 지넬라 그이, 난자 지내이, 지넬라가 자걸, 정올파르 보~이 추버가주고 고다 은제 지불 져어썌요.{해 났는데, 그렇게 우리가 여기 인제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 따뜻한 곳에서 지내니, 지내려고 자꾸, 정월달이 보니 추워가지고 거기다 인제 집을 지었어요.}

10102 # 그 아네 뜨가 인지 제사 지낸다꼬.{그 안에 들어가서 인제 제사를 지낸다고.}

10102 # 근데 그가 고만 썌이 돌려감 세메늘 해 가주고, 해 뿌러띠, 그런지 고마 으낭기 주거 버런서요.{그런데 거기가 고만 돌려가면서 시멘트를 해 가지고, 해 버렸더니, 그런지 고만 소나무가 죽어 버렸어요.}

10102 # 아 그그 그 나무 그르케, 소낭기 큰는 낭긴데, 고마 주거빠렌니더.{아 그 나무 그렇게, 소나무가 컸던 나무인데, 고만 죽어 버렸습니다.}

10102 @ 여기는 머 혹시 머 새미라든지, 머 나무하러가며느 예전가트면 샘, 조은 샘이라든지, 머 그런, 뜨 큰 바이가튼, 그렁진 업슴미까?{여기는 뭐 혹시 뭐 샘이라든지, 뭐 나무하러가면 예전같으면 샘, 좋은 샘이라든지, 뭐 그런, 또 큰 바위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10102 # 바히가튼 거는 그렁 거는 업니더, 어꼬.{바위같은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꼬.}

10102 # 여게 물 때미래 엠, 마~이 참 이 동네 사래미 애크 마~이 머건니더, 머건데.{여기 물 때문에 애크, 많이 참 이 동네 사람이 애크 많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10102 # 아게 내 조그 하든 데로 거이 시피바꼬라카는데 {아까 내가 저기 하던 대로(내가 애크 하던 대로) 세떼기바골이라고 하는데.}

10102 # 세떼기바골.{세떼기바골.}

10102 # 거게, 그 알 드가면 인제 방구 상가네 무리 쫄쫄 나와서요.{거기, 그 안에 들어가면 인제 바위 사이에 물이 쫄쫄 나왔어요.}

10102 # 그른데 여 사래미 그 가 가주고 물로, 아느로 가 이고, 우리는 또 지게로 지고, 물로 그 거 꼬 마~이 마~이 가따 머건니더.{그런데 여기 사람이 거기 가 가지고 물을 안사람은 가서 이고, 우리는 또 지게로 지고, 물을 거기 것을 많이 갖다 먹었습니다.}

10102 @ 그럼 요즘 어트케 무 어디서 잡수슴미까?{그럼 요즘은 어떻게 물을 어디서 잡수십니까?}

10102 # 지그른 머 참 머 이거 머:네서 해 조 가주고, 우리간, 저 아네 저 백서터카는 데도 이서요, 백서터.{지금은 뭐 참 뭐 이거 면에서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저 안에 저 백석터라

고 하는 데도 있어요, 백석터.}

10102 @ 백석터.{백석터.}

10102 # 예.{예.}

10102 # 백석 음제 베서다라카능 거는 엔날레 거 사람으, 지금 지금 사라문 안 사지마는, 거 지금 저리 절 쪼어 가주오 한 지비 인는데, 백서그르 헨따꼬 해서 베서터라.{백석 인제 백석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거기 사람이, 지금 사람은 안 살지만은, 거기 지금 절을 지어 가지고 한 집이 있는데, 백석으로 했다고 해서 백석터라.}

10102 # 백석카능 거는 저 곡스글 백 가마이크 해따, 이게리요.{백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곡식을 백 가마니를 했다, 이겁니다.}

10102 # 그레가즈 그 은지 백스터라카고 그렌데 {그레 가지고 거기 인제 백석터라고 하고 그랬는데.}

10102 # 거게가 거그 인저 보로 마가 가주고 베이터 올로, 베리터칸데 올라 가는데 물땅구 른 해 가주고, 거 물 가다가주고 인제, 일로 인제 호슬 해 가주고 인 땅을 무더 가즈고, 은 쯔 그 물로 인제 이래 머꼬 인니더{거기가, 거기 인제 보를 막아 가지고, 백석터 올라, 백석터라고 하는 데, 올라 가는데 물통을 해 가지고, 거기 물 가뒤 가지고 인제, 이리로 인제 호스를 해 가지고, 이 땅을 묻어 가지고, 인제 그 물을 인제 이래 먹고 있습니다.}

10102 @ 무리 아주 조은 [x모양이쥬x].{물이 아주 좋은 [x모양이쥬x]?}

10102 # 아이, 물 쪼치요.{아이, 물 좋치요!}

10102 # 저 무리 고마 멍 사네서 나오는데, 저 그 저 감니봉카는데, 멍 거서 나오는 무리라. {저 물이 고만 역시 산에서 나오는데, 저기 갈미봉이라고 하는데, 역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야.}

10102 #1 자연산데요.{자연산인데요.}

10102 # 이이 우리 무리.{이 우리 물이.}

10102 # 무른 참 조은 조은 무리시더.{물은 참 좋은 물입니다.}

10102 @ 검 백석터에서 물 그 해가즈고 물땅구를 해논 데가 어디라 하셴슴미까?{그러면 백석터에서 물을 그렇게 해 가지고 물통을 해놓은 데가 어디라고 하셴습니까?}

10102 # 그게느 은제 우리 여 말하기는 그 사~이가 아 큰먼디기라 그레거드~요.{거기는 인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기로는 그 산이 큰먼디기라 그러거든요.}

10102 # 크다크 해서 은제 큰먼디기다.{크다고 해서 인제 큰먼디기다.}

10102 # 그거 은쯔 땡꾸를 처린, 처르난니더.{거기에 인제 물통을 차려 났습니다.}

10102 @ 그런 그엄 큰먼디기에서 아까 아 세떼바꾸 그레썸미까?{그러면 큰먼디기에서 아까 세떼기바쿨이라고 그랬습니까?}

10102 # 예예.{예예.}

10102 @ 그 쪼그로 해서 세떼때바꾸?{그 쪽으로 해서 세떼기바쿨?}

10102 # 아 알 아이 세'띠바군 그 무르는 우리 그 그 저네 이그 아 날 때, 무리 업슬 때 그 물로 참 우리간 이견 동우로 가주고 여다가 이 머꼬 헨니더.{아니 세떼기바쿨, 그 물은 우리 그 전에 이거 안 할 때,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참 우리가 이거 동이를 가지고 이여다가 이렇게 먹고 했습니다.}

10102 #1 아이지. 땅으루유.{아니지. 땅으로요.}

10102 # 그런데 그 그그 은제 그 부텡하고는 이 물 암 먹고 인젠 그 저 물르 머꼬 인니더.{그런데 그거 인제 거기부터하고는 이 물 안 먹고 인제 저 물로 먹고 있습니다.}

10102 @ 세뫼바꾸는 왜 세뫼바꿈니까?{세뫼기바꿈은 왜 세뫼기바꿈입니까?}

10102 # 세뫼바꾸라 그릉 그는 그 은제 풀 풀 이리민데, 머 선생님 잘 모르실게레요.{세뫼기바꿈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제 풀 이리민데, 뭐 선생님 잘 모르실거예요.}

10102 # 그 세뫼기라꼬 세뫼기라꿈 그게 즈 푸리이서요.{그 세뫼기라고 풀이 있어요.}

10102 # 그 풀 마~이 난다꼬 해서 거게가 인제 이 씨뫼바고리라꼬.{그 풀이 많이 난다고 해서 거기가 인제 세뫼기바꿈이라고.}

10102 # 그래 해따 니껴.{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10102 @ 혹시 머 어머님께서 우리 아번님 이야기 하신는 거 말고 예저네 나물뜨드러 가거나 나무하러 가시면서 또다른 머, 아까처럼 세뫼바꾸라든지, 이런 다른 산골짜기나 이런 거 또 기억나시는 거 업슴미까{혹시 뭐 어머님께서 우리 아버님 이야기 하신 것 말고 예전에 나물 뜯으러 가거나 나무하러 가시면서 또다른 뭐, 아까처럼 세뫼기바꿈이라든지, 이런 다른 산골짜기나 이런 것 또 기억나시는 것이 업슴미까?}

10102 #1 판 산 꼬짜기 어데 기억나능 거 업서요.{다른 산, 골짜기 어디 기억나는 거 업어요.}

10102 #1 항금 나물하러 가므 고라리 거 가고, 머.{항상 나물하러 가면 골안에 거기 가고, 뭐}

10102 @ 골하네예?{골안예요?}

10102 # 고라네, 그 인자 그 이따구.{골안에, 거기 인제 거기 있다고.}

10102 #1 그 인제 그 칸 데 그 고라~이라 카기도 하고 머 그랜니더.{거기 인제 그렇게 말한 데 거기를 골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10102 # 아저풀칸 데 거기가.{화정골이라고 하는 데 거기가.}

10102 #1 양 그러머 저 실보오카는 데 가고 머 그래여.{안 그러면 저기 시리봉이라고 하는 데 가고 뭐 그래요.}

10102 #1 나물하러더 땡기지더 아 해여.{나물하러도 다니지도 안 해요.}

10102 # 주로 나무하러 마~이 땡겨찌.{주로 나무하러 많이 다녔지.}

10102 # 나무, 삼동에 나무땡다, 그때는 이그 보이라도 아 나고, 안준, 나느 안주 여 브어게 낭글 헐 때고 인는데, 글땡 점부 낭글 때제내요.{나무, 삼동에 나무땡다고, 그 때는 이보일러도 안 하고, 아직, 나는 아직 여기 부억에 나무를 해서 때고 있는데, 그땡 전부 나무를 땡잖아요.}

10102 # 브어게고 머고.{부억이고 뭐고.}

10102 @ 마썰미다.{맞습니다.}

10102 # 예.{예}

10102 # 우리느 지그므사 브어께랑 다 해뿌러찌마는, 글땡 아느로 모두 낭글, 마구 한 단속 이래 무꾸 이고, 그 멀리, 저 갈물대배꺼즌 땡기믄 남 낭글 다.{우리는 지금이야 부억이랑 다 해버렸지만, 그 때 안으로 모두 나무를, 마구 한 단씩 묶어서 이고, 그 멀리, 저 갈미봉까지 다니면서 나무를 다.}

10102 @ 어디까지예?{어디까지요?}

10102 # 갈무리, 그 갈미봉.{갈미봉, 그 갈미봉}

10102 #1 갈무리, 갈무리.{갈미봉, 갈미봉.}

10102 @ 갈미봉?{갈미봉?}

10102 # 어, 예.{어, 예.}

\$ 사적 대화

10103 @ 어 그르코 이 말 사람드른 주로 어떤 이를 해아서 가즈고 사라가설씀미까, 절머 쓸 때?{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해오서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젊었을 때?}

10103 # 절물 때는 이걸 머로, 주로 보류, 보리.{젊을 때는 이걸 뭐야, 주로 보리, 보리.}

10103 # 또 서숙 아지요, 서숙?{또 조 알지요, 조?}

10103 # 그 감재.{그 감자.}

10103 #1 감재하고.{감자하고.}

10103 # 이글 세 가지르 해 가주 주로 이그 해 가주고 사례미 머꼬 사라꼬.{이걸 세 가지를 해 가지고 주로 이걸 해 가지고 사람이 먹고 살았고.}

10103 # 인제 또 지금 머 메 테 안 데지여.{인제 또 지금 뭐 몇 해 안 되지요.}

10103 # 그래 은젠 또 담배.{그래 인제 또 담배.}

10103 # 담배도 하마 한 지게 한 육십 년 안 안 너물라.{담배도 벌써 한 지가 한 육십 년 안 넘을까.}

10103 #1 너움 끼다.{넘을 거다.}

10103 # 내가 담배 치운 지가 하마 한 삼 너, 한 사십 너~이 안너물라.{내가 담배 안한 지가 벌써 한 삼 너, (+ 담배를 한 지가)한 사십 년이 안 넘을까.}

10103 # 그래가 담배하고, 은제 은 또 꼬추 은제 빈두루 까라 가주고, 글때는, 꼬치 할 때는 비닐루 양 깔고 고라 기~양 가라 가주고 해 머어꺼드요.{그래 해서 담배하고, 인제 또 고추 인제 비닐을 깔아 가지고, 그때는, 고추 할 때는 비닐을 안 깔고 고랑에 그냥 갈아 가지고 해 먹었거든요.}

10103 # 그르 지금 머 그르 비누르 깔고 해 가주 하~이 꼬치가 또 여근 잘 때찌.{그래 지금 뭐 그래 비닐을 깔고 해 자지고 하니까 고추가 또 여기 잘 되지.}

10103 # 주론 담배, 꼬추.{주로 담배, 고추.}

10103 # 예, 꼬추씨더.{예, 고추입니다.}

10103 @ 그럼 이 동네 인제 사람드리 머 아까 성 성황당도 인고 당제도 지네고 하선는따 헨는데, 이 마을 예전부터 우리 김영김씨 가문 사람들 위주로 마니 사선는데, 여기서 어 마을 사람드리 호시 머 어 공동체로 서로 조직해서 당제지혜나 머 게 가튼 거, 그릉 건 업씀미까?{그러면 이 동네 인제 사람들이 뭐 아까 성황당도 있고, 그 당제도 지내고 하셨다 했는데, 이 마을 예전부터 우리 김녕김씨 가문 사람들 위주로 많이 사셨는데,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 혹시 뭐 공동체로 서로 조직해서 당제지내거나 뭐 계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10103 @ 머 상 새이게나.{뭐 상여계나.}

10103 # 아, 이게 여기 그른 계가 인니더.{아, 이것이 여기 그런 계가 있습니다.}

10103 # 인제 저 상여, 주로 인 주로 은제 상여께지요, 갠데.{인제 저 상여, 주로 인제 주로 인제 상여께지요, 계인데.}

10103 # 꿩정이동, 여게 지금 현재 꿩정이도~이 이 쪽 너르가면 저 청석꺼리까짐, 청석꺼리가까는 데 꺼짐 이 우로 올라오른 켜 꿩정이도~이 거등뇨.{괴정이동, 여기 지금 현재 괴정이동이 이리 쪽 내려가면 저기 청석거리까지, 청석거리라고 하는 데까지 이 위로 올라오면 전부 괴정이동이거든요.}

10103 # 그러 은제 동서부로 갈런찌여.{그래 인제 동서부로 갈랐지요.}

10103 # 우리 이 우론 동이고, 저 알른 은제 서로 해 가지고, 사~에르 그 미는데, 그르이

여 차례 데면 지 자드가 미고, 또 여더 미고, 저 저 아래 사람도 차례 데머 요도 오고 저도 가고 인제 차례, 차례 데머 은제 그레 인제 세~에를 예, 저 안주까전 멩, 예예, 안주까전 멩 그레 하고 인니더.{우리 이 위로는 동이고, 저 아래로 인제 서로 해 가지고, 상여를 미는데, 그러니까 여기 차례가 되면 재들이 밀고, 또 여기도(우리도) 밀고, 저 아래 사람도 차례가 되면 여기도 오고 저기도 가고 인제 차례, 차례 되면 인제 그레 인제 상여를 예, 저 아직까진 역시, 예예, 아직까진 역시 그레 하고 있습니다.}

10103 @ 그러며는 아까 그 머 세~이게도 이꼬, 그 다으메 또 혹시 머 호느, 자녀들 호닌 시키 위에서 호닌게라든지 그른 거또 이썸미까?{그러면은 아까 그 뭐 상여계도 있고, 그 다으메 또 혹시 뭐 혼인, 자녀들 혼인시키기 위해서 혼인게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10103 # 꼬 뭇 다리:닌 몰시, 나는 그렁 건 야, 계는, 계는 업니더.{그 뭇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은, 예, 계는 계는 업습니다.}

10103 @ 검 머, 그 예를 드어선 아까 당제가튼 경우는 머 어떠케, 또 계를 모아서 하, 어떠케 계를 지냅미까, 양 그라면 어뜨켄 방시기 이썸미까?{그러면 뭇,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당제같은 경우는 뭇 어떻게, 또 계를 모아서, 어떻게 계를 지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방식이 있습니까?}

10103 # 아유, 그 은 당제는 이 동네서, 동네서 은켄 당제를 지내는데, 그근또 은제 정올따레, 정올 보름날, 대보름날, 보름날 은제 제사를 올리는데, 이 동네, 우리 동네 점 모에 가주고, 제산날 환 사밀 저네 모에서 누우 지비 깨꼬탕가, 이그 은제 그레 바서 은제, 누 지비 인제 깨 깨꼬탕 지브로 은제 정해 가주고 제사를 은제 모시고 그레 헨는데, 지금 머 점부다 나가뿌고 여 메쩍 안 데다 보~이 동네 쭈기 예서 그 종메제사로이 지내습니다.{아, 그 인제 당제는 이 동네에서, 동네에서 인제 당제를 지내는데, 그것도 인제 정월달에, 정월 보름날, 대보름날, 보름날 인제 제사를 올리는데, 이 동네, 우리 동네 전부 모여 가지고, 제산날 한 삼일 전에 모여서 누구 집이 깨끗한가, 이거 인제 그레 봐서 인제, 누구 집이, 인제 깨끗한 집으로 인제 정해가지고 제사를 인제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뭇 전부 다 나가버리고, 여기 몇 집 안 되다 보니 동네가 쉽기 위해서 그 종매제사를 지냈습니다.}

10103 # 종메제사라 카능 거너 우리 고마 올게마 지내고 머 우리가 은제 할 수 업쓰이, 몬 지네이 쫘 잘 바주주소, 바주세요 카고 절로 그레 하고, 지금부터는 제사를 암 모시고, 암 모시니더.{종매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만 올해만 지내고 뭇 우리가 인제 할 수 업쓰니, 못 지내니 쫘 잘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고 절을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는 제사를 안 모시고, 안 모십니다.}

10103 # 그케 그레 데이서.{그렇게 그레 되있어.}

10103 @ 그 무슨 제사라고 하셔썸미까?{그 무슨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10103 # 당제사라고.{당제사라고.}

10103 @ 아닌. 쯔 머 쯔매쥬?{아니, 저 뭇 종매제사?}

10103 # 안 추 종매.{아니 저 종매제사.}

10103 # 조매제르사라 카능 거는 머 올마, 올게마 지내고 움 우리가 머 참 히미 업서 몬 지네~이까, 몬 지네니더, 올게마 자시고 네여넬라 아주 고매 이저 뿌소, 카른 제 그레 전 조메제사라 인제 글지.{종매제사라고 하는 것은 뭇 올해만, 올해만 지내고 우리가 뭇 참 힘이 없어 못 지내니까, 못 지냅니다, 올해만 잡수시고 내년일랑 아주 고만 잊어 버리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레 저 종매제사라 인제 그러지.}

10103 @ 그럼 당 당제 예저네 지내실 떤스 어뜨 계를 독기뿌다는 동네 주민드리 다 어뜨

게 십시일반 내서 기그를 모아썸미까?{그러면 당제 예전에 지내실 때는 어떤 계를 두기보다는 동네 주민들이 다 어떻게 십시일반 내서 기금을 모았습니까?}

10103 # 그르지요.{그렇지요.}

10103 # 예, 내 가지고 은제 이 연 동네 그 자그미 업시~이까, 참 동네 집집마다 은제 얼메그 푸러 가지고, 예, 그래 헨니더.{예, 내 가지고 인제 이 여기 동네에 그 자금이 없으니까, 참 동네 집집마다 인제 얼마씩 풀어 가지고, 예, 그래 했습니다.}

10103 @ 여기 머 그럼 예저네 푸마시가통 거또 합니까?{여기 뭐 그러면 예전에 품앗이같은 것도 합니까?}

10103 # 하이구 이떠.{아이구 있지.}

10103 # 멍 지금도 멍 하고 연 멍 멍 하니더, 지금도.{역시 지금도 역시 하고 역시 합니다, 지금도.}

10103 # 인제 내가 농사르 마~이 하 하게 데머, 인제 사래민 모지레면 저 지비 가서, 올 우리에 줌 헤다 더얼 다으메 할 때 우리가 가가 해주꾸마, 이게 멍 글 푸마시거드요.{인제 내가 농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인제 사람이 모자라면 저 집에 가서, 오늘 우리 일 줌 헤다오, 또 다음에 할 때 우리가 가서 해 줄께, 이게 역시 그 품앗이거든요.}

10103 # 그 그런데 요세는 또 먼, 지그므는 그런 사래미 아무도 업서요, 앙하고.{그런데 요 사이는 또 뭐,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하고.}

10103 # 점부 사라를 하루 품 얼메, 이그 동네서 인제 그근 계리를 매 나썸, 하루 얼메.{전부 사람을 하루 품 얼마, 이걸 동네에서 인제 그건 계약을 맺어 났어, 하루 얼마.}

10103 # 이레 메 가주고 은제 품사람들 사 가주 하고, 지음 하고 인니더.{이레 맺어 가지고 인제 늬을 사 가지고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102 @ 하이툼 그 다으메 아까 저 미테 청석거리라고 하셔썸미까?{하여튼 그 다음에 아까 저 밑에 청석거리라고 하셨습니까?}

10102 # 예예예예.{예예예예.}

10102 # 이 칭 청석.{이 청석거리.}

10102 @ 우 그람 디 계정이동이 여기 이무꼴하고.{그럼 이 궤정이동이 여기 이무꼴하고.}

10102 # 아이야, 여기 이'무꼴.{아니야, 여기 이무꼴.}

10102 # 요 아래 모테 가든 요 세 똥네라.{요 아래 모퉁이에 가면 요 세 동네라.}

10102 # 요 미테 가든 시찜모테.{요 밑에 가면 시찜모테.}

10102 # 옴나레 그 세 찜 사러따 헤 가주고 그는 썸 세찜모테.{옛날에 거기 세 집이 살았다 헤 가지고 거기는 시찜모테.}

10102 # 고 은제 갈머리카는 거는, 제 읍 록 고그는 동네가 우리 여 이 게 반보다도 거게 저 호초~이 더 만타고 바이데.{고 인제 갈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제 거기는 우리 여기 두 개 반보다도 거기는 저 호수가 더 많다고 봐야돼.}

10102 # 고 갈머리카는 데.{고 갈머리라고 하는 데.}

10102 @ 아, 갈머리미까?{아, 갈머리입니까?}

10102 # 갈머리카는 거 으제 갈미봉, 고 그게 원 막빠리 이서따고 그 은젠 갈머리.{갈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제 갈미봉, 그게(갈미봉이) 막바로 있었다고 그 인제 갈머리.}

10102 @ 청석거리느 어딤미까?{청석거리는 어딤니까?}

10102 # 청시꺼리는 여 갈머리 몬 미쳐서, 도로 여페 곤 점빵.{청석거리는 여기 갈머리 못 미쳐서, 도로 옆에 거기 가게.}

10102 #1 도레 요게 걷 이 여 위 도레 여 니르가므 꼬 머 혜간이라, 뻘스 ***.{도로 요기 거기, 이 여기 위에 도로 여기 내려가고, 거기 머 회관이라, 버스 ***}

10102 # 아이래, 고 인 점빵 한 지비 이썸, 고기.{아니야, 거기 이 가게 한 집이 있어, 거기.}

10102 #1 점:빵 인딜 고 인지 청서꺼리.{가게 있는 집, 거기 인제 청석거리.}

10102 # 고게가 인제 청실꺼리.{거기가 인제 청석거리.}

10102 @ 웨 청서꺼림미까?{왜 청석거림니까?}

10102 # 청실꺼리는 어른들 이기 드르므는, 볼 땐, 옛날에 그가 인제 웨 저 주막찌비라꼬 술또 막걸리 파고, 그게서 추 주막찢또 하고, 그 놀기조타꼬 해 거가 청실꺼리다, 이러지. {청석거리는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볼 땐, 옛날에 거기가 인제 왜 저 주막집이라고 술도 막걸리 팔고, 거기서 주막집도 하고, 그 놀기좋다고 해서 거기가 청석가리다, 이러지.}

10102 # 아 오 머 어른들 거 가서 하 함 분석 일하다가 인제 그 모여 가주고 막걸리 한 잔씩 머꼬, 떡 노르파 해 가즈고 이 청서꺼리라 그레지.{뭐 어른들 거기 가서 한 번씩 일하다가 인제 거기 모여 가지고 막걸리 한 잔씩 먹고, 먹고 놀았다고 해 가지고 이 청석거리라 그러지.}

10104 @ 꼬아고 혹시 인젠 인 쪼게 고 이 이모꼬리나 이쪼 아까 이야기해땐 청서꺼리나 거 미테 갈머리나 이쪼 마을 사람드리 에 그 다른 동네에, 청송 진보 저 쪽 안동쪼기라든지, 도는 저쪽 하아구, 다른 동네 하고 비교해서 또는 안동이라든지, 아 이 영양이나 영덕하고 비교해서 쪼 다르게 이 지역마네 으든 민송노리가튼 거라든지 그런게 이썸미까?{그러고 혹시 인제 이 쪽에 이무굴이나 이쪼 아까 이야기했던 청석거리나 거기 밑에 갈머리나 이쪼 마을 사람들이 그 다른 동네에, 청송 진보 저쪽 안동쪽이라든지, 또는 저쪽 하고, 다른 동네 하고 비교해서 또는 안동이라든지, 이 영양이나 영덕하고 비교해서 쪼 다르게 이 지역만의 어떤 민속놀이같은 거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10104 # 민송노리는 글땐 마~이 해찌요.{민속놀이는 그 때는 많이 했지요.}

10104 # 지그므는 점부 알 안 하는데, 여게 그정이어도 그 악끼를 음 머 이거 이 저 징하고, 메구, 북, 장구, 다 이레 해 가주곤, 인제 걸리비라고, 왜 이 뜯 집찌베~이 땡기며 인제 굳 뚱들고 노우른 그 지베 도늘 열메 네노꼬, 머 쌀 또 네노꼬, 글땐 돈드 업찌여, 주 주로 쌀라 네난데, 그글 가주진 인제 그 동위 땡기믄, 뚱들고, 지찌베인 땡기고 인제 그으르, 싸를 머 한 마리든지, 두 말 주능 거, 그 파러서 이제 동네 자그믄 또 이레 쓰고 머 해 빠러찌.{지금은 전부 안 하는데, 여기 괴정이어도 그 악기를 뭐 이거 이 저 징하고, 팽가리, 북, 장구,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걸립이라고, 왜 이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제 그것 두드리면서 놀면 그 집에서 돈을 얼마 내놓고, 뭐 쌀 또 내놓고, 그땐 돈도 없지요, 주로 쌀을 내놓는데, 그걸 가지고 인제 그 동네 다니면, 두드리고, 집집마다 다니고 인제 그걸, 쌀을 뭐 한 말이든지, 두 말 주는 거, 그걸 팔아서 이제 동네 자금을 또 이레 쓰고 뭐 해 버렸지.}

10104 @ 그걸 머라고 불러썸미까?{그걸 머라고 불렀습니까?}

10104 # 그게 하.{그게 하.}

10104 @ 그 노리를.{그 놀이를.}

10104 # 그게 울 우리 여게 사투리말 인제 걸리비라 그래써여, 걸립.{그게 우리 여기 사투리로 인제 걸립이라 그랬어요, 걸립.}

10104 # 그래 우리 땡기믄, 우리 땡기고 인제 이레 뚱들고 이어그 쯔 버런는 게, 이가 이

거 인제 걸리비라고 이래쎄.{그래 우리 다니면, 우리 다니고 인제 이래 두드리고 이래 가지고 좀 벌었는 게, 이걸 인제 걸립이라고 이랬어.}

10104 @ 걸리븐 그아마 주로 언제 하십니까?{걸립은 그러면 주로 언제 하십니까?}

10104 # 주로 어 주로 은제 아 정울 인제 설 맹절이나 보름 맹절 건능 놀 때, 글 때 쫓 주로 마 헤쓰요.{주로 인제 정월 인제 설 명절이나 보름 명절, 그런 놀 때, 그 때 주로 많이 했어요.}

10104 #1 글때 이선저만 오세는 이거또 어꼬 저거또 업니다.{그 때 있었지만 요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10104 @ 예저네 어어 그 어 어머니 시집 오서 가즈고나 또 우리 어르신 절면쓸 때 걸립말고 또 다른 머 노리가통 거, 어 머 예를 드리서 서리나 보름말고 추서기나 또는 머 아 예 다노나 이를 때 다른 언 노리도 이써썸미까?{예전에 그 어머니 시집 오서 가지고나 또 우리 어르신 젊었을 때 걸립말고 또 다른 뭐 놀이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설이나 보름말고 추석이나 또는 뭐 단오나 이럴 때 다른 놀이도 있었습니까?}

10104 # 다른 노리는 어꼬 그 주로 은제 윤노리.{다른 놀이는 없고 그 주로 인제 윗놀이.}

10104 # 예, 이 동네 인제 모여 가주고 은제 윗을 놀고, 인제 주로 오을 다노 여 머 그네 매 가주고 머 띠고 머 마~이 건 마~이 해쎄.{예, 이 동네 인제 모여 가지고 인제 윗을 놀고, 인제 주로 오을 단오 여기 뭐 그네 매 가지고 뭐 뛰고 뭐 많이 했지.}

10104 @ 그 그네는 주로 어디서 뽕미까?{그 그네는 주로 어디서 뽕니까?}

10104 # 뽕 거어 저 당.{역시 거기 저 당.}

10104 #1 우요 우요 단나무꼴카는 데 거기.{여 여 당나무꼴이라고 하는 데 거기.}

10104 # 머 달라무카는 데 거 당, 다~에 그게 보른 낭기 그 아즈 메기 조아 가주 그어서, 거 또 그들또 조코 거서 은제 매가주 마이 쭈로 띠 띠쎄.{뭐 당나무라고 하는 데 거기 당, 당에 거기 보면 나무가 아주 매기가 좋아 가지고 거기서, 거기 또 그들도 좋고 거기서 인제 매 가지고 많이 주로 뛰었지.}

10104 @ 그레:엠편 뽕미까?{그네만 뛰었습니까?}

10104 #1 그렘마 뛰쎄요.{그네만 뛰었지요.}

10104 # 예.{예.}

10104 @ 머 그때 머 으 음시기라든지 머 헤가 그레 놀고 아 헤썸미까?{뭐 그때 뭐 음식이라든지 뭐 해서 그레 놀고 안 했습니까?}

10104 # 어, 아, 그, 인제.{어, 아, 그, 인제.}

10104 #1 아, 웨요, 고기도 핑가머꼬 노고 헤쎄요.{아, 왜요, 고기도 나눠먹고 놀고 했지요.}

10104 @ 어뜨케, 머 어뜨케 줌비헤가 하십니까?{어떻게, 뭐 어떻게 준비해서 하십니까?}

10104 @ 고도탐 이야기해 주십시오.{그것도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10104 @ 그네 뽕 때, 다노 때.{그네 뽕 때, 단오 때.}

10104 # 그네 뽕 양 그레고, 여게 은제 우리 인제 농사 다 헤라고 인제, 일때 썸미라 인제.{그네 뽕 뽕 안 그러고, 여기 인제 우리 인제 농사 다 해놓고 인제 이 때썸이야 인제.}

10104 # 푸꾸멍는다 카능.{푸꾸먹는다고 하는.}

10104 # 푸꾸몽는다 카능거는 농사르 은제 거이 다 헤노코, 다 헤노코 우리가 동미~이 하로 놀자, 하루 시 가주고 인 내이리부텀 일하자, 이래 가주고 그르 모옌, 뽕 거게섬, 그 자레서 그 당나문, 당남꼴, 당남 미테 거선 동네 사람 다 모예머, 글때는 도 너꼬 하~이까 지

지베둥 서~이꼐 머 업씨~이까 인제 마꺄리으 집서 해 가주고, 보리도 어꼬 헤너이 감자, 연날 웨 감자, 감자술로 하고 또 보리술로 하고, 그레 해 가주고 인젠 지짐메두 한 단지스 해 오고 또 앙 그레몬 제 호박 따단 적 부처 가주고, 적 부처 가제 그레 가이 올 사람 이꼬, 그레 가주고 인제 머 하이튼 숨 인제 벌꼬 놀고, 거서 뜯 징, 장구 뚜들곤 뚜 놀기오도 놀고, 그레 그레헨니다.{푸꾸먹는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인제 거의 다 해놓고, 다 해놓고 우리가 동민이 하루 놀자, 하루 쉬어 가지고 인제 내일부터 일하자, 이래 가지고 그레 모여서 역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당나무, 당나무골, 당나무 밑에 거기서 동네 사람 다 모이면, 그 때는 돈 없고 하니까 집집마다 성의껏 뭐 없으니까 인제 막꺄리를 집에서 해 가지고, 보리도 없고 하니까 감자, 옛날 왜 감자, 감자술을 하고 또 보리술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집집마다 한 단지씩 해 오고 또 안 그러면 이제 호박 따다가 전 부처 가지고, 전 부처 가지고 그레 가지고 올 사람 있고, 그레 가지고 인제 뭐 하여튼 인제 벌이꼬 놀고, 거기서 또 징, 장구 두드리고 또 놀기도 놀고, 그레했습니다.}

10104 # 그런데 지그르는 머 그른기 저 저너 업씨이.{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전혀 없으니.}

10104 @ 그으 푸꾸명는다 그랴?
{그걸 푸꾸 먹는다 그럼니까?}

10104 # 푸꾸.{푸꾸.}

10104 # 예, 푸꾸머언다카능 거는 우리가 은제 농사로 인지는 마무리, 안지 꼬트는 무런찌 마는 마 이젠 처음 은제 농사부치믈 다 해나스니, 인제 그 다 헨 해나씨이 우리 하로 쫘 시 가주고 일 하자, 그레 가주 수이 데므 은제 동, 우리 요이 요 동네마 그 은제 그레 모여 가주 은제 하루씩 놀고.{예, 푸꾸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제 농사를 이제는 마무리, 아직 끝은 멀었지만은 뭐 이제 처음 인제 농사부침을 다 해 났으니, 인제 그 다 해 났으니 우리 하루 쫘 쉬어 가지고 일 하자, 그레 가지고 의논이 되면 인제 동, 우리 요기 요 동네만 그 인제 그레 모여 가지고 인제 하루씩 놀고.}

10104 @ 그 그러면 푸꾸 머그실 때느, 그때느 그러면 보리타작하고, 감자 거두드리고.{그러면 푸꾸먹으실 때느, 그 때는 그러면 보리타작하고, 감자 거뒀들이고.}

10104 # 그 그러치요.{그렇지요.}

10104 @ 인자 어 모네기 해나 노코 인지 쪼금 여유이슬 때 그때 요즘쫘 그레하신다, 그지 예?{인제 모네기 해놓고 인제 쪼금 여유있을 때, 그때 요즘쫘 그렇게 하신다, 그렇지요?}

10104 #1 다 하고 다 헨**.{다 하고 다 헨**.}

10104 # 예, 글치, 모네기 다 해노코, 오 요 글치요 오.{예, 그렇지, 모네기 다 해놓고, 오 요 그렇지요 오.}

10104 # 예예.{예예}

10104 # 보리타작 다 할고, 감자 다 케 들라 노코, 모숭기 다 해뿌고, 인제 일떼쫘 데무 인제 쪼금 시가~이 이끄드.{보리타작 다 하고, 감자를 다 캐서 들여 놓고 모심기 다 해 버리고 인제 이때쫘 되면 인제 쪼금 시간이 있거든.}

10104 # 그르 인제 글떼 인제 모여 가 수이 해 가주고 인제.{그레 인제 그 때 인제 모여 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인제.}

10104 @ 기 논메기 쪼금 함 버 아시눔메기쫘 하고, 여이 그를정도?{그 논메기 쪼금 한 번 애벌메기쫘 하고, 그릴 정도?}

10104 # 예예예예, 예예, 마저, 예.{예예예예, 예예, 맞어, 예.}

10104 @ 그 그르고 그 아까도 쪼금 말쓰를 하셔쫘미다마는 어 그 여기 특산무른 머 어떤

게 이쓰미까?{그리고 그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기 특산물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10104 @ 아까 그 함 분 더 이야기 해 주시죠.{아까 그걸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10104 # 그 특산무른 여계는 땅 그는 어꼬 주로 꼬추, 담배.{그 특산물은 여기는 다른 것은 없고 주로 고추, 담배.}

10104 @ 꼬추, 담배.{고추, 담배.}

10104 # 예예, 꼬추, 담배.{예예, 고추, 담배.}

10104 # 담배를, 주로 담배르 마~이 헨데, 지그르는 머 참 여 다 나가 뿌고 메접 안 데이 메접 안 하는데, 주로 담배르 마이 해쓰.{담배를, 주로 담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참 여기 다 나가 버리고 몇 집 안 되니 몇 집 안 하는데, 주로 담배를 많이 했어.}

10104 # 담배를 마 해쓰.{담배를 많이 했어.}

10104 # 지그른 여 담배고야가 지금 엄는데, 우리 저 무꼬 이 저 이 저 하나 뿌이레이.{지금은 여기 담배건조장이 지금 없는데, 우리 저거 하나 뿐이에요.}

10104 # 여그 저 바테 저.{여기 저 밭에 저.}

10104 # 그 흘 가주고 저어 가주고여 이.{거기 흘 가지고 지어 가지고.}

10104 @ 담배고야미까?{담배건조장입니까?}

10104 # 담배고야카능 거 은제 담배 뜯 따 가주고 글때는 세끼에 여꺼 가주고 그인 뜯 안 네 드가 가주고 이 노피가 열뚜자 너머요, 노 노피가.{담배건조장이라고 하는 건 인제 담배 따 가지고 그 때는 새끼에 엮어가지고 그 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높이가 열두 자 넘어요, 높이가.}

10104 # 거 은제 칭대칭대로 다르 가주고 이레 해주 노코 그 철광을 또 이 불 뜨 가드론 청부다 해 해가주곤 사네가 나무 해다가 일쭈일, 일쭈일로 그 불로 폐이데이.{거기 인제 층층으로 달아 가지고 이레 해서 놓고, 그 철광을 또 이 불이 들어 가도록 전부 다 해 가지곤 산에 가서 나무를 해, 해다가 일쭈일, 일쭈일을 불을 때야 돼요.}

10104 # 불 때 가주고 담배르 다 말라네.{불을 때 가지고 담배를 다 말라냈네.}

10104 # 머 사~에 저 나무, 글텐 낭글 맘대로 헨떼기 때미네 머 네 사니씨른 내 사네 가 가주곤 낭글 비 가주곤 찢러서 깨가주고 그 말드로 그 제 노코, 밤이라도 나무 모지레른 그 질 지로 가이데이.{뭐 산에 저 나무, 그 땀 나무를 마음대로 해서 때었기 때문에 뭐 내 산이 있으면 내 산에 가 가지고 잘라서 (+도끼로)쪼개 가지고, 마르도록 재어 놓고, 밤이라도 나무가 모자라면 그걸(+나무를) 지러 가야 돼요.}

10104 # 저 다가 그 불려, 밤새도록 잠도 몬짜으 일쭈일간 그 불로 폐가주고 그 다 말라네고 그레 헨는데.{(+나무를)저 다가 그 불을, 밤 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일쭈일간 그 불을 때 가지고 다 말려내고 그레 했는데.}

10104 @ 그러므 그어기 어디 그 멈미까, 구두리나 그룽기 이썰미까?{그러면 거기 어디 그 뭇니까, 구들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10104 # 구두리 말고 그그 은제 철과~이라꼬 그 인제 쉼로 맹근 거 이서요.{구들 말고 그거 인제 철광이라고 그 인제 쇠로 만든 거 있어요.}

10104 #1 철과~이라 크제요, 야.{철광이라고 하지요, 예.}

10104 # 그른 제 이레 노코 이 이레 가주고 은제 꿀두거, 연 연기는 탄 디루 빠지드르 헤 노코 돌려가마, 그 아네 드가면, 드가지는 모테써 불 때 놔.{그걸 인제 이레 놓고 이레 가지고 인제 굴뚝은, 연기는 다른 곳으로 빠지도록 해놓고 돌려가며,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

지는 못 했어 불 때 놓으면.}

10104 # 그레 가주 말류코.{그레 가지고 말리고.}

10104 # 그렌데 지그르 다 뜨더 뿌고 인제 우리 조고 하나 하나 나머씨이.{그랬는데 지금은 다 뜯어 버리고 인제 우리 저거 하나 남았어요.}

10104 @ 아 이 동네 하나빠께 업네예?{아 이 동네 하나밖에 없네요?}

10104 @ 으예.

10104 # 그웬 지점메등 다 이선는데.{예, 그웬 집집마다 다 있었는데.}

10104 #1 요새는 잠부 버끌(+ 블럭벽돌의 뜻임.) 하지.{요새는 점부 벽돌을 하지.}

10104 #1 옛날 그 지어가 아 하거등.{옛날처럼 지어 가지고 안 하거든.}

10104 # 오센 마 점부 빠끄로 저어여지.{요새는 뭐 전부 벽돌로 지어야지.}

10104 #1 야, 버끄가 하지.{예, 벽돌로 하지.}

10104 # 우리 저 주 아페 저 꼬추말렌 저런 벌끄.{우리 저기 앞에 저 고추말리는 저런 벽돌.}

10104 #1 옛날엔 다 저가 담배헤바이 새끼 까가 새끼르 여꺼 가 다른찌요.{옛날엔 다 지어 가지고 담배하니 새끼 꼬아 가지고 새끼를 엮어 가지고 달았지요.}

10104 #1 그치, 오센 앙 그래요.{그렇지 요새는 안 그래요.}

10104 @ 요즘하고 옛날 꺼하고 그러며는 어느 거이 더 조썸미까, 담배 지른?{요즘하고 옛날 것하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담배 질은?}

10104 # 지그미 혼 나찌요.{지금이 훨씬 낫지요.}

10104 # 지그르 기름 떼고 잠 시큰 자고 가마 나뭇 자동을 다 말러뿌니까 핑자이 습찌요.{지금은 기름 떼고 잠 실컷 자고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다 말라버리니까 굉장히 쉽지요.}

10104 @ 그 다오메 아까 머 이야기 하순슌니다마느 꼬치하고 담배하고 그 저네 먼 떠 여기 서수기나 감자도 마~이 나와썸미까?{그 아음에 아까 뭐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고추하고 담배하고 그 전에 뭐 여기 조나 감자도 많이 나왔습니까?}

10104 # 감자, 감자는 주로 헤 가주군 머 이 팔고 그 근 어꼬 그 네 머글라꼬 지금.{감자, 감자는 주로 헤 가지고 뭐 팔고 그런 것은 없고 내가 먹으려고, 지금.}

10104 #1 머꼬 치야 뿌지.{먹고 치워 버리지.}

10104 #1 짜움 내 머글라꼬 싱냥 아녕겨.{전부 내 먹으려고, 식량 아닙니까.}

10104 @ 양시글?{양식을?}

10104 # 예.{예}

10104 # 지금 오세는 시꾸가 둘 뿌~이지마는 보통 한 지비 고머 열 시꾸는 거 거이 다 데 따고 바이다, 이 똥네 보며.{지금 요새는 식구가 둘뿐이지만은 보통 한 집이 고만 열 식구는 거의 다 됐다고 봐야돼, 이 동네 보면.}

10104 # 머 자숙뜯하고 머 이르며.{뭐 자식들하고 뭐 이르면.}

10104 # 그른데 여간해 가주고는 머 영간 헤 가주오는 참 연농사 저 가주 모지레지, 머 말.{그런데 여간해 가지고는 뭐 어지간히 헤 가지고는 참 일년농사 저 가지고는 모자라지, 뭐.}

\$ 사적 대화

10104 @ 그 여기르 어 아까 사니 켤장히 마녀서 혹시 산나무리라든지 이릉거는 특산물로 헤가 진보장이나 이런 데 안 팔어썸미까, 예전에?{여기는 아까 산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산물로 헤 가지고 진보장이나 이런 데 안 팔았습니까, 예전에?}

10104 #1 여:는 그렇 거 업니더.{여기는 그런 게(+그런 사람이) 없습니더.}

10104 #1 남테 사람 와 가 해 가 파지.{다른 곳의 사람이 와 가지고 해 가지고 팔지.}

10104 #1 우리 머 꺼도 몬 해요.{우리는 먹을 것도 못 해요.}

10104 # 여그에 여게 인는 사라프는 헤다 판 그는 점부 어꼬, 헤다 나물로 어 엄청나게 마
마~이 해찌요.{여기에 있는 사람은 해서 파는 것은 전부 없고, 해서 나물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요.}

10104 #1 한 부스 헤다 **. {한 번씩 해서 **.}

10104 # 그 장 머글라꼬.{그 늘 먹으려고.}

10104 @ 시꾸가 망코, 예.{식구가 많고, 예.}

10104 # 예, 예, 점부 머 머글라꼬.{예, 예, 전부 먹으려고.}

10105 @ 음 머 어르신 거 예저네 어르시니 어려쓸 때, 자라실 때 하고 지금 인제 어르시
니 머 연세가 마니 드셔썸미다마는 요즘 세상하고 이 마우리 예저네 그거 마을 그 크기, 사
람 수짜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 모스비라든지, 이릉 게 옛날하고 마~이 바껴썸미까, 어떠썸
미까?{뭐 어르신 그 예전에 어르신이 어렸을 때, 자라실 때 하고, 지금 인제 어르신이 뭐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만은 요즘 세상하고 이 마을이 예전에 그거 마을 크기, 사람 숫자라
든지, 그 다음에 마을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하고 많이 바꼈습니까, 어떻습니까?}

10105 # 마~이 바껴 뿌르고 마고 이 영 고마 반데가, 반데가 데어 뿌러찌요.{많이 바껴 버
리고 말고 영 고만 반데가, 반데가 되어 버렸지요.}

10105 # 여게가 요 무테 요게 일 개 반, 여게가 한 이십 호 요 요 사라심니다.{여기가 요
근방 요기 한 개 반, 여기가 한 이십 호 요가 살았습니다.}

10105 # 지금 집 거이 다 뜨께뿌곤 다 나가 뿌러찌요.{지금 집 거의 다 뜯겨 버리고 다 나
가 버렸지요.}

10105 #1 열 째 사러여, 열 째, ** 이모테가.{열 째 살아요, 열 째. ** 이 모통이예가.}

10105 # 열 째마 데, 이 사람, 이 사람 머르칸?{열 째만 데, 이 사람, 이 사람 뭐라고 하
나?}

10105 # 한 이십 쪼비 더 너먼는데.{한 이십 째이 더 넘었는데.}

10105 #1 아 인지 오세.{아 인제 요새.}

10105 # 아 지그미사.{아 지금이야.}

10105 #1 글때사 마네찌마는 오세는 열 쪼비니.{그때야 많았지만은 요새는 열 째(+입니
다).}

10105 @ 그머 열 째은 점부 어더게 예저네느 절믄 분드리 마난찌예, 어르신 어리쓸 때
는?{그러면 열 째은 전부 어떻게 예전에는 젊은 분들이 많았지요, 어르신 어렸을 때는?}

10105 # 예.{예.}

10105 #1 오세는 하나 아이머 두리고 그르이더, 마카.{요새는 하나 아니면 둘이고 그렸습
니다, 전부.}

10105 # 우리 여거그 그 그만침 마늘 때는 한 사십 텔라능가, 모르게썸.{우리 여기 그만큼
많을 때는 한 사십 텔라능가, 모르겠어.}

10105 # 사십도 안 데찌 저버여.{사십도 안 됐지 싶어요.}

10105 # 한 삼십 열메 머.{한 삼십 열마 뭐.}

10105 @ 요즘 예저네 비해서 이 썸 동네에 청년드리 썸 이썸미까?{요즘 예전에 비해서 썸
동네에 청년들이 썸 있습니까?}

10105 #1 오쎬 이게 여게 절믄 사람 하나또 업니더.{요새는 여기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
니다.}

10105 # 여 지금 육십 여선살 머근 사래미 게이 게을 절믄 사래미라.{여기 지금 육식 여섯
살 먹은 사람이 제일 제일 젊은 사람이라.}

10105 @ 어 거 육십 예순 일곱 무 뿌니 청년이시고.{육식, 예순 일곱 분이(+ 예순 일곱 드
신 분이) 청년이시고.}

10105 # 예예, 청녀~이제.{예예, 청년이지.}

10105 #1 마카 칠십 노인인데 머.{전부 칠십 노인인데 뭐.}

10105 @ 그러면 예저네 이 마우리 쫘 사름 한 사쓰음 사십너 정도 집 이쥬 때느 어 쫘 마
우리 번창해쥬미까?{그러면 예전에 이 마을이 쫘 사람 한 사십여 정도 집 있을 때는 쫘 마
우리가 번창했습니까?}

10105 #1 구때는 분다워쥬요.{그때는 번잡했어요.}

10105 # 하, 번잡해쥬요.{하, 번잡했지요.}

10105 #1 예.{예.}

10105 #1 마넌니더. 집찌믄 먼 한 집 시꾸아 여남씩 데씨 머 엄미너 마넌니껴?{많았어요.
집집이 뭐 한 집 식구가 여나믄씩 됐으니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10105 # 예, 아, 그때는 그 참 마저.{예, 아, 그 때는 그 참 맞어.}

10105 @ 녁 그 그때하고 요즘 머 비교해 보면 어뜨게 쫘 지내시기는 어떠쥬미까?{그 때하
고 요즘 뭐 비교해 보면 어떻게 쫘 지내시기는 어떠쥬니까?}

10105 # 글:때 데믄 요세 인 먼 차 아주 췌구 마 부자지요.{그 때 대면 요세 이 뭐 아주
뭐 부자지요.}

10105 # 글때 데믄 요세사 머 부자지요 머.{그 때 대면 요새야 뭐 부자지요 뭐.}

10105 # 오세는 바블 마음테로 실켄 머그이까 그 부자지.{요사이는 밥을 마음대로 실컷 먹
으니까 부자지.}

10105 # 그때는 늘 보리 해 가주오 보리바아~ 꼭 찌어 가 밥 해머꼬 머 그랜니더.{그때는
늘 보리 해 가지고 보리방아를 콕 찌어 가지고 밥 해먹고 뭐 그랬습시다.}

10105 @ 예저네 또 앙그런 나물 뜨더서 죽 쪼려?{예전에 또 안 그러면 나물 뜯어서 죽 끓
여?}

10105 # 예, 예, 마저요.{예, 예, 맞아요.}

10105 @ 그뎨 먼 그렁 거, 여기 예저네는 대개 아까 쪼 어른신 그 어 지반 어 췌씨들, 그
러이까 김녕김씨 주로 계시다 요즈믄 주금 이 동네에 예 김녕김씨뿐 한 며뿐 정도 데심미
까?{그 때는 뭐 그런 거, 여기 예전에는 대개 아까 그 어른신 그 집안 성씨들, 그러니까 김
녕김씨 주로 계시다가 요즘은 지금 이 동네에 김녕김씨분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0105 #1 메 췌 업서요.{몇 집 없어요.}

10105 # 다 가 뿌고 은젠 내 혼자 뿌~이레이.{다 가 버리고 이제 내 혼자 뿐이에요.}

10105 #1 이 마시레는.{이 마을에는.}

10105 # 다 나가 뿌러쓰.{다 나가 버렸어.}

10105 @ 예저네는 거이가 다 일바:, 먼, 가깝거나 먼 일가연는데.{예전에는 거의가 다 일
가, 먼, 가깝거나 먼 일가였는데.}

10105 # 예, 예, 마저, 예, 예예예.{예, 예, 맞어, 예, 예예예.}

10105 # 한두 점부, 열촌, 마:너므 열총까지 여 점 다 데여선는데, 점부 서울로, 거이 서

올로 가파고 바이데.{한둘 전부, 십촌, 많이 넘으면 십촌까지 여기 전부 다 되었었는데, 전부 서울로, 거의 서울로 갔다고 봐야돼.}

10105 #1 마니서요.{많았어요.}

10105 # 서울 우에 그 성남?{서울 위에 그 성남?}

10105 # 성남시가 덴지가 얼마 자 은 자 안 데자네요.{성남시가 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10105 # 글로 고만, 시텐다 그이 머 글로로 저부 거이.{그리로 고만, 시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리로 전부 거의}

10105 @ 예저네 여기 그 또 제가 황녕, 아이 이물꼴제?{예전에 여기 재가 황녕, 아니 이 물령재?}

10105 # 예, 이, 예, 이물령.{예, 이, 예, 이물령.}

10105 @ 가무 이 재가 여 이로 가면 영덕 너머 가는데 요 요즘은 차드리 마니 다니지만 예저네 그 사람드리 마~이 다녀썸니까?{그러면 이 재가 이리로 가면 영덕 넘어 가는데 요즘은 차들이 많이 다니지만 예전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까?}

10105 # 예이.{예.}

10105 # 엔나레는 차가 어끼떼미네 그르 그러서 마~이 탕견는데, 글떼 은제 머 장사하는 사람들 그 조금 점부 질머지고 탕기 장사헐는데, 이 제가 엄청나게 이거 먼 참말로 거비나 먼 켜 모~이래요, 마.{옛날에는 차가 없기때문에 걸어서 많이 다녔는데, 그 때 인제 뭐 장사하는 사람들, 그 조금 전부 쫓어지고 다니며 장사했는데, 이 재가 엄청나게 뭐 참말로 겁이 났던 재인 모양이에요, 마.}

10105 # 한두리는 이 너머 가지를 모테떼.{한두 사람으로는 넘어 가지를 못 했대.}

10105 # 그르 이제 메치 메치서 여 바르코 이따가 오 오모 오면, 가는 사람 이시마이, 한테 이레 몽쳐서 일고 여덜썸 데머 은제 이 켜를 녀꼬.{그러니 이제 몇이 몇이서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가는 사람 있으면, 한테 이렇게 몽쳐서 일곱 여덜썸 되면 인제 이 재를 넘고.}

10105 # 음, 마저.{음, 맞어.}

10105 @ 어이 도저기 나타나서?{도적이 나타나서?}

10105 # 그르치요, 도두기 나타나.{그렇지요, 도둑이 나타나.}

10105 @ 겐 예저네 이 쭈겐 그러머 청석꺼리 거 주마기 형성테면 거또 이 재 때무네 그러썸니까?{그럼 예전에 이 쪽에, 그러면 청석거리 주막이 형성됐던 것도 이 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10105 #그르쥬.{그렇지요.}

10105 # 주로 차가 업시~이가 그 거리탱기~이까.{주로 차가 없으니까, 걸어다니니까.}

10105 # 집 장사꾼들 점부 질머지고 인제 진보 그 장, 자~에 간다꼬 은제 오구 마~이 오구든.{장사꾼들 전부 쫓어지고 인제 진보 그 장, 장에 간다고 인제 많이 오거든.}

10105 @ 그람 진보장에 장꾼드리 와따가.{그러면 진보장에 장꾼들이 왔다가.}

10105 # 그 장보고 장보고 인 임 영덕사람도 이 마 주로 망크더~.{그 장보고, 영덕사람도 주로 많거든.}

10105 # 그 은제 장보고 또 다부론 너머 가고 고마.{그 인제 장보고 또 다시 넘어 가고 고만.}

10105 @ 요즘 그 아까 조금 풍습또 이야기 하썸슴미다마느 엔나레 비해서 요즈믄 겐 풍

습, 아까 이야기헐는 정월 대보르미나 설날레 그런 걸립이라든지 또는 단오 때 그네뛰기라든지 또는 풀, 푸, 풀무, 머꾸, 머꾸, 예, 예, 풀꾸먹기, 그 다으메 또 추석 때도 머 함미까? {요즘 아까 조금 풍습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풍습, 아까 이야기했던 정월 대보름이나 설날에 그런 걸립이라든지 또는 단오 때 그네뛰기라든지 또는 푸꾸먹기, 그 다음에 또 추석 때도 뭐 합니까?}

10105 # 예예, 퍼여, 예예, 푸꾸, 그야 머.{예예, 퍼여, 예예, 푸꾸, 그야 뭐.}

10105 # 추석 땐 아 나고.{추석 때는 안 하고.}

10105 # 아 나고예.{안 하고요.}

10105 @ 그언데 그런 거는 요즘 머 거이 안 함미까?{그런데 그런 것은 요즘 뭐 거의 안 합니까?}

10105 # 예, 오세는 지그르네 저너 예, 저너 업서.{예, 요세는 지금은 전혀 예, 전혀 없어.}

10105 @ 혹시 그 여기에 머 한식 땐는 머 함미까?{혹시 여기에 뭐 한식 때는 뭐 합니까?}

10105 # 한식나리?{한식날?}

10105 # 한식나리는 머 여여 보니까 은제 머 한식날 주로 은제 묘에 와서 마에, 청명 한식나리 모다 마이 하는 사람 더르 인는데, 글때는 마저, 메 묘 가서 손또 보고 마이 하는 사람 이써, 인니더.{한식날은 뭐 여기 보니까 인제 뭐 한식날 주로 인제 묘에 와서 많이, 청명 한식날에 모두 많이 하는 사람 더러 있는데, 그 때는 맞어, 묘에 가서 손도 보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1.2. 일생 의례

1.2.1. 제보자의 태생과 성장

10201 @ 그러며는 거 어르싱께서 어 태어나서 가지고 어 지금까지 여기 사라오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이소.{그러면은 그 어르신께서 태어나서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살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1 @ 예를 드려서 머 태어난 고시라든지, 나이라든지 또는 머 자기가 머슨 땐지, 머 또는 그런걸 함 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예를 들어서 뭐 태어난 곳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또는 뭐 자기가 무슨 땐지, 뭐 또는 그런 것을 한 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10201 @ 태어나싱 거 하고.{태어나신 거 하고.}

10201 # 아, 예.{아, 예.}

10201 # 나는 참 여기서 또 태어나꼬, 또 여계서 사무 계소 사물 자리꼬, 그런데 여계 여계 인제 유기오 동난 때, 유기오 동난 때 여 가운데 경차리 여 와 이선는데, 그 우여 이 이 사람들 우에 가주고 그 무저늘 잘무테 뿌런는 지 비행기가 고이 요 이 동네 포껴글 다 때르 부러써요.{나는 참 여기에서 또 태어났고, 또 여기에서 계속 사뭇 자랐고, 그런데 여기 인제 육이오 동란 때, 여기 강원도 경찰이 여기 와 있었는데, 그 어떻게 이 사람들 왜 어떻게 해 가지고 무전을 잘못해 버렸는 지 비행기가 이 동네 폭격을 다 때려 버렸어요.}

10201 # 거이 우리 울또 저 저 아페 여 이선는데, 거 메찌브 고마 포껴게 점 다 마저 뿌러

꼬, 그른 그른 저 경하인덱 이서요.{거의 우리도 저 앞에 여기 있었는데, 거기 몇 집이 고만 폭격에 다 맞아 버렸고, 그런 그런 저의 경험인데 (+ 경험)있어요.}

10201 @ 하라버지 올해 연세는, 어르신 연세는 어뜨케 데[x심미까x]?{할아버지, 올해 연세는 어르신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10201 # 내가 이 저 올겐 치 칠립 다서요.{내가 올해 칠십 다섯이요.}

10201 @ 그어면 이른 다선 가틈심머는 떠가 어뜨케 데심미까?{그러면 일흔 다섯 같으시면 떠가 어떻게 되십니까?}

10201 # 잔내비.{원숭이.}

10201 @ 거머 혹시 머 학교느 어뜨케 다니셔썸미까?{그러면 혹시 뭐 학교는 어떻게 다니 셧습니까?}

10201 # 하교를 하 몬다넬습니다.{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10201 # 업따 보~이.{업다 보니.}

10201 # 어른들 머, 우리 우리 우리가 형제가 오형제, 용남메레여.{어른들 뭐, 우리가 형제 가 오형제, 육남매예요.}

10201 # 딸 저저든, 따리 하네 이꼬, 형제가 만타 보~이 머 업찌요.{딸이 하나 있고, 형제 가 많다 보니 뭐 없지요.}

10201 # 하교를 몬 딸곤, 제우시대, 제육시대, 가니하교?{학교를 못 다니고, 제국시대, 제 국시대, 간이학교?}

10201 # 가니각교.{간이학교.}

10201 # 신촌 가니가교 그겐 입학해따가 초아버런찌요.{신촌 간이학교 거기 입학했다가 치 워 버렸지요.}

10201 @ 그 주로 인제, 그러머느 우리 호니는 머 어뜨케 하에서 우리 어머님하고 그 홀레 를 치르게 데썸미까?{그 주로 인제, 그러면은 우리 혼인은 뭐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님하고 그 혼례를 치르게 됐습니까?}

10201 @ 근냥 머 여내하셔썸미까?{그냥 뭐 연애하셧습니까?}

10201 #1 그때 여네가 인니껴?{그때 연애가 있나요?}

10201 #1 그때느 여네가 업서써여.{그 때는 연애가 없었어요.}

10201 #1 중신 보네가 해찌요.{중신 보내서 했지요.}

10201 # 그그는 내 함 븐 이해길 하지요.{그거는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하지요.}

10201 # 이거 군대서 네가 장계를 간는데, 네 군데 갈 때는 서기를 안 써여.{군대에서 내 가 장가를 갔는데, 내가 군대를 갈 때는 서기를 안 썼어요.}

10201 # 당기르 써써여.{단기를 썼어요.}

10201 # 당기 사천이백팔십오년도가, 음 팔십쑈 용년도라, 오연도라 유기 동난 나짜네요 {단기 사천이백 팔십오년도가, 팔십육년도인가, 오년도인가 육이오 동란이 났잖아요.}

10201 # 내그 팔십, 팔십육년도 군데가탄 마리아, 단기로.{내가 팔십, 팔십육년도에 군대에 갔단 말이야, 단기로.}

10201 # 군대 간는데 글때도, 내가 볼 때느, 우리 내가 보골텐는 사촌 자형, 내 사촌 자형, 자형~이 글때 여그, 그두 머 여 와 사네 와이 웨 순 꿈짜네여, 수뜨 참나무쑈.{군대 갔는데 그 때도, 내가 볼 때는, 우리 내가 볼 때는 사촌 자형, 내 사촌 자형, 자형이 그 때 여기, 뭐 여기 와서 산에 와서 왜 쑈 굽잖아요, 쑈, 참나무쑈.}

10201 # 서여 수 꾸브문서 그 왜 이렌 내가 이시~이거 인제 이 처녀는 저 짜 이꼬 하이

께, 이제 중시늘 이레 고내면 모이래요.{숯 구우면서 그 왜 이레 내가 있으니까, 이 처녀는 저 쪽에 있고 하니까, 이제 중신을 이렇게 권했던 모양이에요.}

10201 # 보도 아~ 해찌 머, 내 군대이꼬.{보지도 안 했지 뭐, 내 군대있고.}

10201 # 사진마 한 장, 네 군데일 때 이레 보내 자주 은제 사짐마 바찌.{사진만 한 장, 내 군대있을 때 이레 보내 가지고 인제 사진만 봤지.}

10201 # 사짐 보곰 멈 부모내들 멩 조타 그니까, 조타 그니까 멩, 거서 날짜 자바 가자 어느날 아무나리다, 휴가바드아 너르 온나, 이래이 그랜, 너르 온나카무 이래테.{사진만 보고 뭐 부모내들 역시 좋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역시, 거기서 날짜 잡아 가지고 어느날 아무날이다, 휴가받아서 내려 오너라, 이러니까 그래, 내려 오너라 하면서 이러대.}

10201 # 그래 가즈그 휴가를 바다 가즈고 인제 그 사진보고 은제 휴가를 바더찌요.{그래 가지고 휴가를 받아 가지고 인제 그 사진보고 인제 휴가를 받았지요.}

10201 # 일쭈일 바더 가즈고 인제 와 가주고, 행제칠 때도, 마다~아 드러선데도, 옌나렌 이그 구시그로 헐 헐는데, 사름 얼굴을 더퍼노이근 사문 몰레찌 머.{일쭈일 받아 가지고 인제 와 가지고, 행사치를 때에도, 마당에 들어섰는데도, 옛날엔 구식으로 했는데, 사름 얼굴을 덮어놓으니 사뭇 몰랐지 뭐.}

10201 @ 사진 보:시고, 어디 사진, 아 우리 어떤니믄 아주 미이니셔쓸 꺼 가튼데, 천누네 바나셔썸미까?{사진 보시고, 어디 사진, 우리 어머님은 아주 미인이셨을 것 같은데, 첫눈에 반하셨습니까?}

10201 # 글때 반코 머 어찌고 그그또 머 머 그그똥 몰러서요, 아주.{그 때 반하고 뭐 어찌고 그것도 뭐 그것도 몰랐어요, 아주.}

10201 #1 ****. 누군도 누군도 몰라찌.{****. 누군지 누군지도 몰랐지.}

10201 # 나이 나이 인젠 머 스물 한 사린 멈 멈 머.{나이 인제 뭐 스물 한 살이 뭐.}

10201 # 아이 스물너이.{아니 스물 넷.}

10201 # 마저, 군데가 이뻐 디 스물 너이.{맞아, 군대가 있을 때 스물 넷.}

10201 #1 여는 스물너이고 나는 여라호비고 그렌데이.{여기는 스물 넷이고 나는 열 아홉이고 그랬는데.}

10201 @ 아이고 그 머 어 그러며느 어머니므 그땐 호닌하실 때 사지니라도 보셔썸미까? {그 뭐 그러면은 어머님은 그 때 혼인하실 때 사진이라도 보셨습니까?}

10201 #1 먼 영무인도 몰래요.{뭔 영문인지도 몰라요.}

10201 # 사진 몸 빠찌.{사진 못 봤지.}

10201 #1 모 몬 영무인도 몰레찌 머.{뭐 뭔 영문인지도 몰랐지 뭐.}

10201 # 나는 사진 암 보내씨이까.{나는 사진 안 보냈으니까.}

10201 @ 어르시는 사진 보셔꼬?{어르신은 사진 보셨고?}

10201 # 머 처여 사지느 자주 올라우, 편제 소게 여 자주 와썸.{뭐 처녀 사진은 가지고 올라, 편지 속에 넣어 가지고 왔어.}

10201 # 그 와 자주구 바찌 머.{그게 와 가지고 봤지 뭐.}

10201 #1 그때 머 아니껴?{그때 뭐 압니까?}

10201 #1 먼 영무인더 머 아르야 ****.{뭔 영문인지 뭐 알아야 ****.}

10201 @ 사진 찡는데도 근냐 호닌봉 사지니라는 거 모르시고 근냥 찡건네.{사진 찡는데도 그냥 혼인용 사진이라는 걸 모르시고 그냥 찡었네.}

10201 #1 예.{예.}

10201 @ 어 어르, 그르 부몬니미 사진 찍끄라 해가주고 그레가 중매를 하서따 그쥬요?{어르신, 그레 부모님이 사진 찍으라 해 가지고 그레 가지고 중매를 하셨다 그렇지요?}

10201 #1 몰레요.{몰라요.}

10201 @ 그라면 지금 어 그레 호니늘, 우리 스물 네때 하시고, 여라오베 수구 호니늘 하서 가주고, 자시근 그엄머느 먼 형제나 두셔썸미까?{그러면 지금 그레 혼인을, 우리 스물 넷 때 하시고, 열 아홉에 혼인을 하서 가지고, 자식은 그러면은 몇 형제나 두셨습니까?}

10201 @ 아까 이야기 하긴 하셔썸미다마느.{아까 이야기하기는 하셨습니다만은.}

10201 # 자이 참 인제는 딸 자랑 썸 해이 데젠네.{자 참 인제는 딸 자랑 썸 해야 되겠네.}

10201 # 실제로 아겐 내 한 내 쏘게엔데 파리 일고비라.{실제로 아까는 내 한 나는 속였는데 딸이 일곱이야.}

10201 @ 파리 일곱임미까?{딸이 일곱입니까?}

10201 # 딸마 일곱이라.{딸만 일곱이야.}

10201 # 네 온 네 바른, 바른 참 이글 해 조야 데이끼.{내 오늘 내 바로, 바로 참 이야기를 해 줘야 되니까.}

10201 # 아들 하나인데 아들 양제 해썸니다.{아들 하난데, 아들 양자했습니다.}

10201 # 내 동상인는데 동상 아들로 내그 양제해 가지고.{내 동생있는데, 동생 아들을 내가 양자를 해 가지고.}

10201 # 딸마 시~이까, 양제해 가 지금 네가 결혼씨겨 가주고, 저 직짜으 저래가 가 인니더.{딸만 많으니까, 양자를 해 가지고 지금 내가 결혼시켜 가지고, 저 직장에 저래 가 있습니다.}

10201 @ 그어먼 지금 딸 일곱, 글도 머 요즘 머탄 사람드른, 머탄 사람들 그레도 머 딸, 아들 마너 바짜 머, 하으 머 속 서기는 아들보다는 그르돌 딸레드리 헉신 잘하고, 자르함지 안썸미까?{그러면 지금 딸 일곱, 그레도 뭐 요즘 뭇 한 사람들은, 뭇한 사람들 그레도 뭐 딸, 아들 많아 봤자 뭐, 뭐 속 썸이는 아들보다는 그레도 딸네들이 훨씬 잘하고, 잘하지 않습니까?}

10201 # 예, 따른 잘헤여.{예, 딸은 잘해요.}

10201 # 네 네인데는, 바서는 머 아들보다 참말로 나온 거 테요.{내한테는 봐서는 뭐 아들보다 참말로 나온 것 같아요.}

10201 @ 그 예저네느 그 어르신 그럼머느 형제분 중에서는 어 마지시고, 마지셔썸미까?{그 예전에는 그 어르신 그러면은 형제분 중에서는 만이시고, 만이셨습니까?}

10201 #1 예, 마지래여. 아 겔 마지래.{예, 만이에요. 아 제일 만이에요.}

10201 # 예, 예예, 예.{예, 예예, 예.}

10201 @ 그르셔썸머느 그땐 부몬님께서 우리 어먼니미 썸 떠 아들 몬 난는다고 썸 구바글 썸 바드셔게썸미다, 그지예?{그러셨으면은 그 때 부모님께서 우리 어머님이 썸 아들 못 낳는다고 썸 구박을 썸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지요?}

10201 #1 그땐 엔나레사 바짜요, 썸.{그 때 옛날이야 받지요, 썸.}

10201 @ 그르치요.{그렇지요.}

10201 #1 예.{예.}

10201 @ 요즘미야 먼 딸이든 아들뜨리든.{요즘이야 뭐 딸이든 아들이든.}

10201 #1 오세는 머 아드리고 따리고 상관업서여.{요새는 뭐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어요.}

10201 @ 그래서 그 다오메 그 지금 머 형제뿐드른 인제 다 그어, 어르신 형제분드른 어디 이 동네 안 사시고 다른 동네 다 나가가주고 계싱가?{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지금 뭐 형제분들은 인제 다 그, 어르신 형제분들은 어디 이 동네 안 사시고 다른 동네 다 나가 가지고 계십니까?}

10201 # 예, 은자 아께 네가 이리 마레찌만, 내 바로 다음 동사~이 여 인제 시점모테카는 데, 세점모테카는 데 거게 이꼬, 화나는 네 막 제일 망네이 동사으는 진보이꼬, 네째가 검머 고인 데 버리꼬, 그 세째는 저 대구 가 이꼬.{예, 이제 아까 내가 이래 말했지만, 내 바로 다음 동생이 여기 인제 시점모테라고 하는 데, 시점모테라고 하는 데 거기 있고, 하나는 내 제일 막내 동생은 진보 있고, 넷째가 거 뭐 고인이 돼 버렸고, 그 셋째는 저 대구에 가 있고.}

10201 @ 거 부몬님, 어르신 부몬님 고향은 어디 심미까?{부모님, 어르신 부모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10201 # 으 모치는, 봄 모치는 그그 고향으넌 저 신초~이고, 또 집 어르는 맹 고향이 여긴지 그는, 여긴지 저 안동 어딘지 그는 학시리 모르게서요, 예.{모친은, 모친은 고향은 저 신촌이고, 또 집 어르는 역시 고향이 여긴지 그것은, 여긴지 저 안동 어딘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10201 @ 아까 사대부조까지 여기서 사시따 아 하셔썰미까?{아까 사대부조까지 여기서 사셨다고 하시지 안 하셨습니까?}

10201 # 예, 아이래, 오대조 산소까지 여 이끄등.{예, 아니야, 오대조 산소까지 여기 있거든.}

10201 # 인는 그 보문 머 글떼으 여으서 사문 계선는지 그는 하 학시리 모르게서요. 예. {있는 것을 보면 뭐 그때 여기서 사뭇 계셨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10201 @ 으 그르시고, 그 다메 머 어르신 부몬님도 하신 니를 주로 여기서?{그러시고, 그 다음에 뭐 어르신 부모님도 하신 일은 주로 여기서?}

10201 # 예, 농업헤지.{예, 농업했지.}

10201 @ 농어블 하셔썰미까?{농업을 하셨습니까?}

10201 # 예예, 예, 농사를 저찌.{예예, 예, 농사를 지었지.}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2 @ 아까도 한 번 쪼금 여쭙어 바썰미다마느 우리 어머니믄 어디에서 태어나셔꼬, 어디에서 주로 자라셔썰미까?{아까도 한 번 쪼금 여쭙어 봤습시다만은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디에서 주로 자라셨습니까?}

10202 #1 야?{예?}

10202 #1 우 태어나기는 맹 거 송세~에서 태어나찌 머여.{우리 태어나기는 역시 거기 송생동에서 태어났지 뭘요.}

10202 @ 송세~이가 어디썰 땀미까?{송생동이 어디썰 됩니까?}

10202 #1 청송 송세이카는 데 이썰요.{청송읍 송생동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10202 # 주왕상 가는 그 이꾸래여, 마저.{주왕산 가는 그 입구에요, 맞어.}

10202 #1 이꾸래.{입구야.}

10202 @ 예, 그어 그 좋세~이, 그 마으레 데해서 쫘 자랑 쫘 해주십시오{예, 그 송생동, 그 마을에 대해서 쫘 자랑 쫘 해주십시오.}

10202 #1 그 자랑 몰래요.{거기 자랑 몰라요.}

10202 #1 머 머 어린, 그떼 나와가 머 끝 머그 머 어에덴도 몰래요.{뭐 뭐 어렸을 때, 그 때 나와서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10202 @ 그르도 거기 양 그러면 우리 어르신께서 처간 대게 가서쓸 때, 예 그 느끼미 이 마을하고 비교해서 어떤습디까?{그래도 거기, 안 그러면 우리 어르신께서 처갓택에 가셨을 때, 그 느낌이 이 마을하고 비교해서 어떻던가요?}

10202 # 아 여기보다는 동네도 마이 너리고, 그또 이른 꼴썩 꼴짜기라도 여보다는 또 마이 너리고, 막 머 거게는 여보다는 살기는 아주 참 조아요, 예.{아, 여기보다는 동네도 많이 넓고, 이런 꼴짜기도 여기보다는 많이 넓고 거기는 여기보다는 살기는 아주 참 좋아요, 예.}

10202 #1 동네는 커요. 동네 마이 크, 느리너.{동네는 커요. 동네는 많이 커, 넓어요.}

10202 # 조체 머.{좋지 뭐.}

10202 @ 거람 거기스 아까 이야기해뉼 청송 글 어 주양산 아래쫘게, 예, 거기서, 예.{그럼 거기서 아까 이야기해뉼 청송 거기 주왕산 아래쫘게, 예, 거기서, 예.}

10202 #1 예, 익꾸이시더, 거 바리.{예, 입구예요, 거기 바로.}

10202 @ 거기 태어나서 가주고 거기서.{거기서 태어나서 가지고 거기서.}

10202 #1 일루 시집오능게 가치래요.{이리로 시집오는 게 끝이예요.}

10202 @ 예, 여라웁살까지 거기서 쫘 게셔따 그지예?{예, 열 아홉살까지 거기서 쫘 게셨다 그렇지요?}

10202 #1 예, 예.{예, 예.}

10203 @ 아까 쫘금 이야기를 하셔썩다마는 중매를 으로 하시따고 헨는데, 그 중매는 누구 헤쓰, 아 자형이 하셔썩미까, 양 가뉼 중매제~이가 헤썩미까?{아까 쫘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중매를 하셨다고 헨는데, 그 중매는 누구, 자형이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중매쟁이가 하셨습니다?}

10202 # 아이 쫘 중매는 그 은제 사촌 자형~이, 그 어르이 헤썩요.{아이 저 중매는 그 인제 사촌 자형이, 그 어른이 했지요.}

10203 @ 어뜨케 사촌 자형께서 멩 그쫘게 장가를 가서썩미까, 어뜨케?{어떻게 사촌 자형께서 역시 그쫘게 장가를 가셨습니다, 어떻게?}

10202 # 장계를 강그 아니고, 그그도 혼, 사촌 자형 혼자뿐 아이고, 내 인제 처고모부, 이 양반 그른 고모부데제.{장가를 간 것이 아니고, 그 것도 혼자, 사촌 자형 혼자만이 아니고, 내 인제 처고모부, 이 양반에 대면 고모부되지.}

10202 #1 고모부데지.{고모부되지.}

10202 # 그 으른하고 또 이상호 곤상호란 말이떼. 여 와 수틀 꾸 두리 꾸어다 보이 인제 그 처고모부가 인제 인지 저래 가주고 인제 저이 저래 헤썩요.{그 으른하고, 또 이상호 권상호란 말이야. 여기 와서 솥을 둘이 쫘다 보니 인제 그 처고모부가 인제 저래 가지고 인제 저래 했지요.}

10202 #1 가치 일하고 해누~이께니.{같이 일하고 해 놓으니까.}

10203 @ 그엄 주로 이 동네분드른 그라면 호니를 할 때 어디 멀리까지 함미까 양 그라면 이 근처에서 주로 호니늘?{그럼 주로 이 동네분들은 그러면 혼인을 할 때 어디 멀리까지 함

니까 안 그러면 이 근처에서 주로 혼인을?}

10203 # 아주 먼 멀리 해썬요.{아주 뽀 멀리 했지요.}

10203 @ 어디, 주로 어디까지 합미까, 보통, 뽀 영덕또 할 수 이꼬, 지 안동도 할 수 이꼬.{어디 주로 어디까지 합미까, 보통, 뽀 영덕도 할 수 있고, 저기 안동도 할 수 있고.}

10203 @ 영양쪽?{영양쪽?}

10203 # 예예, 영양쫐그도 할 수 이꼬.{예예, 영양쫐에도 할 수 있고.}

10203 # 여 뽀 이 동네 동네하곤 그 항게 뽀로.{여기 뽀 이 동네와 동네하곤 그렇게 한 것이 뽀로.}

10203 @ 그 그러믄는 아까 여라옴베 만나시고 스물 네세 만나셔 가주고 바로 휴가나오셔 가주고 야콘가트너 아나시고 바로 혼인하셔썬?{그러믄는 아까 열아옴베 만나시고 스물넷에 만나셔 가지고 바로 휴가나오셔 가지고 약혼같은 것은 안 하시고 바로 혼인하셔썬까?}

10203 #1 야코이 머이껴, 글떼요.{약혼이 뽀니까, 그 떼요.}

10203 @ 사주는 보셔썬미까?{사주는 보셔썬미까?}

10203 # 암 바스.{안 뽀어.}

10203 # 마구 모, 암 바썬.{마구 뽀, 안 뽀지.}

10203 @ 어르신 암 보셔썬?{어르신 안 보셔썬고요?}

10203 # 아예.{예.}

10203 # 암바썬, 뽀빠썬.{안 뽀지, 뽀 뽀지.}

10203 @ 어르신들께셔 암 보셔썬미까, 뽀뽀님께셔.{어르신들께셔 안 보셔썬미까, 뽀뽀님께셔.}

10203 # 암 바썬요.{안 뽀지요.}

10203 @ 궁하뽀, 또 궁합 암 보기셔, 구~하뽀 머라고 하썬미까?{궁합은, 또 궁합 안 보셔썬, 궁합은 뽀라고 하던가요?}

10203 # 구학까지는 이그 잘 뽀리게썬요?{궁합까지는 이결 잘 뽀르썬어요.}

10203 # 뽀 아 양 갈체 주잉간 뽀뽀.{뽀 안 가르쳐 주니까 뽀지.}

10203 @ 아 어르신드리 뽀 조으니까 하시라고.{어르신들이 뽀 좋으니까 하시라고.}

10203 # 예, 예예 뽀야 양 갈체 준 뽀.{예, 예 뽀 안 가르쳐 주니 뽀.}

10203 # 너, 또 나도 또 뽀러보지도 아 해꼬, 뽀 어뽀도.{나, 또 나도 또 뽀어 보지도 안 했고, 뽀 어뽀가름.}

10203 # 뽀 어른들 조타 근데로.{뽀 어른들 좋다고 하는 대로.}

10203 #1 옴나리사 어데 뽀러보고 그랜니껴?{옴날이야 어디 뽀어보고 그랜나요?}

10203 #1 양 그랜니더.{안 그랜썬니다.}

10203 #1 어른들 시기 하는데로 가마이 이셔썬 뽀여.{어른들 시켜셔 하는 대로 가만히 옴지 뽀요.}

10203 #1 옴나레, 오세그트마 안 데지요.{옴날에, 요사이 같으면 안 데지요.}

10203 #1 오세근 택뽀 인니껴?{요새는 택이 옴나요?{택도 없다는 의미}}}

10203 @ 우리 뽀 어뽀니믄 그런믄는 이 그 거기뽀다, 여기뽀다는 어뽀님 태어나신 고시 월썬 이레 썬, 제가 보기에는 썬 살기가 조옴 거 가트네, 여기 오시가 썬 처옴에 어굴 아 해썬미까?{우리 뽀 어뽀님은 그러면은 거기보다, 여기보다는 어뽀님 태어나신 곳이 월썬 이레 썬, 제가 보기에는 썬 살기가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오셔셔 썬 처옴에 억옴 안 했썬미까?}

10203 # 나찌, 예.{나찌, 예.}

10203 #1 왜 어굴 아 해요.{왜 억울 안 해요.}

10203 # 1처메 오이상 궁 마 절테이드.{처음에 오니까 뭐 절 톡이다.}

10203 #1 친지비 사이꼬 체겹시 사련찌 머.{친가가 사니까 대책없이 살았지 뭐.}

10203 # 그그또 호, 이기 저기 저이 저 홀렉식 올린 날짜도, 그 그 아네 동네서 누가 이세를, 신촌까전 온 이세를 추러그로 이새빨 차를 마차 가주고 호이를 날짤 자변따꼬요.{그것도 혼례, 저 혼례식 올린 날짜도, 그 안에 동네에서 누가 이사를, 신촌까지 온 이사를 트럭으로 이삿짐 차를 맞춰 가지고 혼인을 날짜를 잡았다고요.}

10203 # 그 차가 이 이세를 소복: 시른데 그 우에 타고, 그 차를 빌려카고 인 와져, 차가 업스~이까.{그 차가 이삿짐을 소복히 실었는데 그 위에 타고, 그 차를 빌려타고 왔지, 차가 없으니까.}

10203 #1 그때 저 차가 인니껴?{그 때 차가 있나요?}

10203 # 글텐 차르고, 빠스라꼬는 머 .{그 때는 차라고는, 버스라고는 뭐.}

10203 @ 그 그럼머느 어르신 그거 전쭈게 홀레치루로, 처갓때게 가서 홀레 하셔찌예?{그러면은 어르신 저쪽에 혼례치르러, 처갓때에 가서 혼례 하셨지요?}

10203 # 예.{예.}

10203 @ 그람 그때 가실 켜느 어뜨게 가서썸미까?{그러면 그 때 가실 때는 어떻게 가셨습니까?}

10203 #1 그뎨 마저 하루 땡고 완찌.{그뎨 마저 하루 당겨서 왔지.}

10203 # 갈 때는 거러서.{갈 때는 걸어서.}

10203 #1 탄 지비 자구 가찌.{다른 집에서 자고 갔지.}

10203 # 여 여그서, 보자.{여기서, 보자.}

10203 # 거리가 함 열메 함 배겨 리 거진 안 데이나?{거리가 대략 얼마 대략 백여 리 거의 안 되겠어?}

10203 # 도리 갈라카머.{돌아 가려고 하면.}

10203 # 배길 덴 데 사무 거러서.{백여 리 되는 데 사뭇 걸어서.}

10203 # 내이리 인제 시골릴 나리문 오늘로 오른 나 나서 가가즈고 그 아페 이제 주막찌 베 가서 하빔자고 은제 *** **.{내일이 인제 식 올릴 날이면 오늘 나서 가 가지고 그 앞에 이제 주막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인제 *** **.}

10203 @ 그때 누구하고 가서썸미까?{그 때 누구하고 가셨습니까?}

10203 # 글때는 지베 어르니 아 자꼬르 일찍 하선 뿌르 가즈고 은제 오촌 당수기, 오촌 당숙하고 인제 가치.{그 때는 집에 어른이 작고를 일찍 하셔 버려 가지고 인제 오촌 당숙이, 오촌 당숙하고 인제 같이.}

10203 @ 아이고 걷 머 거 한 배겨 리를, 머 예저네 거끼도 하셔께찌마느, 그래 거리 가서 쓰면 머 히 힘도 다 빠지고 완전히 머 기진맥진 하셔께썸미다.{아이고 한 백여 리를 뭐 예전에 걷기도 하셨겠지만은, 그래 걸어 가셨으면 뭐 힘도 다 빠지고 완전히 뭐 기진맥진 하셨겠습니까.}

10203 # 하이구, 님 아이 글때는 먼 까인 머 절므이까.{하이구, 아니 그 때는 뭐 까짓 뭐 젊으니까.}

10203 # 안 처가 텅길 때드 함, 차 함 분 모 타바서.{아니 처가에 다닐 때도 한 번, 차 한 번 못 타봤어요.}

10203 # 차가 업시~이가.{차가 없으니까.}

10203 # 사무이 거르 텅겨찌, 처가 갈 때도.{사뭇 걸어 다녔지, 처가에 갈 때도.}

10204 @ 그리고 그 혹시 머 겨론하실 때 어 심 우리 어르시는 시 우리 어떤님한테, 심부한테 그때 예물을 쫘 준비하셔썸미까?{그리고 혹시 뭐 결혼하실 때 우리 어르신은 우리 어머님한테, 신부한테 그 때 예물을 쫘 준비하셨습니까?}

10204 #1 그때는 그렇 거 업써썸요.{그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10204 # 그릉 그 짐부 업써썸.{그런 거 전부 없었어.}

10204 # 암 이작 저짜 금 머 엠부리라꼬는 월래 머 아우 꼬도 업써.{그럼 이 쪽 저 쪽 그 뭐 예물이라고는 원래 뭐 아무것도 없어.}

10204 #1 워여 업써썸요.{원래 없었어요.}

10204 @ 어머님도 이쫘게 어르신한테 안 하셔꼬요?{어머님도 이쪽에 어르신한테 안 하셨고요?}

10204 #1 야. 아~ 해썸요. 그 때 머 이쓰여 마카 하제요, 글떼느.{예. 안 했지요. 그 때 뭐 있어야 다들 하지요, 그 때는.}

10204 @ 금 또너 그 혹시 두 부느 서로, 요즈미야 가락찌도 하고 톱 머 목꺼리도 하곰 마니 하지마느, 예저넌 마니 더 아 나션는데, 그럼머느 예를 드려서 그 처갓댁 그거 머 장인 어르니나 장몬니미나 또느 이쫘게 일찍 어르신 그 아번님 일찍 작고하셔따고 하션는데, 이 쫘 시간찌베 어른들한테 서로 예물하고도 아 하셔썸미까?{그럼 또는 두 분은 서로, 요즘이야 가락지도 하고 또 머 목걸이도 하고 많이 하지만은, 예전에 많이 안 하셨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처갓댁 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나 또는 이 쪽에 일찍 어르신 그 아버님은 일찍 작고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쫘 시가에 어른들한테 서로 예물하고도 안 하셨습니까?}

10204 #1 예, 오세는 글치말 그 머 그그또 업써썸요.{예 요세는 그렇지만 그 뭐 그것도 없어요.}

10204 # 그렇 거또 업션찌, 점보.{그런 것도 없었지, 전부.}

10204 #1 우리두 저 우리 시집와도 시어른 모리니더, 몰래요.{우리도, 우리 시집을 와도 시어른 모릅니다, 몰라요.}

10204 @ 그 인제 일찍 도라가셔서 그르타, 그지예?{그 인제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다, 드렁지요?}

10204 #1 예.{예.}

10204 @ 그머 예저네 혹시 그 그 주위에 분들 중에서, 머 예를 드려서 시간 쫘게 이러케 할 때는 또는 머 자제 딸네분들 시집보낼 때는 시가데게 머 쫘 혼수 예물 실랑한테는 안 하드라도, 어 시간 어른들한테 머 엠물가통 거 해가 보내셔썸미까?{그러면 예전에 혹시 그 주위에 분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가쪽에 이렇게 할 때는, 또는 뭐 자제 딸네분들 시집보낼 때는 시가에 뭐 쫘 혼수 예물, 신랑한테는 안 하더라도, 시가 어른들한테 뭐 예물같은 거 해서 보내셨습니까?}

10204 # 예, 딸 쫘 때는, 예, 해조썸요.{예, 딸 줄 때는, 예 ,해 쫘썸요.}

10204 @ 딸 치울 때?{딸 치울 때?}

10204 # 예.{예.}

10204 # 해 조야지요.{해 쫘야지요.}

10204 # 글떼는 하먼 시대가 이 머 요그 요거 바껴시니.{그 때는 벌써 시대가 뭐 바졌으니.}

10204 @ 그때하는 머, 그때도 지음 한 오래데찌예?{그 때하는 것은 뭐, 그 때도 지금 대략 오래됐지요?}

10204 #1 하고 오래텐니다.{이미 오래됐어요.}

10204 # 하이고 지그 머머 나이 한 한 오시비 거즌 데언는데.{아이고 지금 뭐 나이 한 오십이 거의 됐는데.}

10204 # 따릴, 마따리.{딸이, 만딸이.}

10204 @ 그럼 한 삼십너는 텔 가게썸미다, 그지여?{그러면 한 삼십 년은 돼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10204 # 글치요, 마저, 그러이까.{그렇지요, 맞어, 그러니까.}

10204 @ 스물 한 이시 보 녀니나 하 니십 년 너머꺼썸미다.{스물 한 이십 오 년이나, 한 이십 년 넘었겠습니까.}

10204 # 예.{예.}

10204 #1 아'드리 하매 군에 다 가따온지.{아들이 벌써 군에 다 갔다왔는데.}

10204 # 아드리 함 군대를 다 가따온데.{아들이 벌써 군대를 다 갔다왔는데.}

10204 #1 왜손자드리.{외손자들이.}

10204 @ 글때는 머 해 가주곤, 그거 시 시집 그거 어른들한테는 머, 예물 머 머 보내썸미까?{그 때는 뭐 해 가지고, 시집 어른들한테는 뭐 예물 뭐 보냈습니까?}

10204 #1 그때는{그 때는}

10204 @ 이불하고 이롱거 보내[x슴미까x]?{이불하고 이런 거 보냈[x슴미까x]}?

10204 #1 예, 그 그거뿌이지 머.{예, 그것 뿐이지 뭐.}

10204 # 이부른,{이불은,}

10204 #1 이불하고 옷하고 그 뿌이레이.{이불하고 옷하고 그것 뿐이에요.}

10204 # 오시나 이불.{옷이나 이불.}

10204 # 그럼 거 주로.{그런 거 주로.}

10204 #1 그거지 머요.{그거지 뭐요.}

10204 @ 그럼 예를 드려서 시어르니나 그르 또는 머 그 시어른 말고, 그 시 그 쪼게, 그르이까 어 사이 형제드르한테라든지 또는 머 그쪼 사인이의 머 당수기라든지, 이런 분들한 텔닝 주로 머 어떻게 주로 함미까?{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어른이나 또는 뭐 시어른 말고, 그 쪽에, 그러니까 사위 형제들한테라든지 또는 뭐 그쪽 사위의 당숙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주로 뭐 어떤 거 주로 합니까?}

10204 # 그으는 쥔 주로 머 양바리나 이기 저 와이샤수나 이롱 글 인제.{거기는 인제 주로 뭐 양말이나 이거 저 와이셔츠나 이런 걸 인제.}

10204 # 모 그때는 마카 그레여.{뭐 그 때는 모두 그래요.}

10204 #1 오세 시소글 따라가주 오세는 머 잘 해주고 더라 하지마느, 글텐 머도 이선니껴.{요새 시속을 따라 가지고 요새는 뭐 잘 해주고 하더라 하지만은, 그 때는 뭐도 있었나요.}

10204 @ 그 그럼머는 어르 그 쪼게 딸 인제 시집보낼 실 때 아주 섭섭해, 섭섭하셔썸텐데, 키워 가주고 주니까, 근데 호시 그때엔 머 저쪽 사이때게서 혼수 예무른 머 가주 와썸띠까 우리 어르신들한테느.{그러면은 그쪽에 딸 인제 시집보내실 때 아주 섭섭해, 섭섭하셨을 텐데, 키워 가지고 주니까, 그런데 혹시 그 때 뭐 저쪽 사위댁에서 혼수 예물은 뭐 가지고 왔던가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10204 # 지금 함 오래 데가짐, 멀 가져와데, 글 기어기, 잘 몰.{지금 벌써 오래 돼 가지고, 멀 가지고 왔는지, 그것을 기억이, 잘 모르겠네.}

10204 #1 금방 올 올 올 뜨뉴, 시집가가주고 올 때 머 수리나 한 병씩 가져오고 그레씨요.{금방 올 때는, 시집가 가지고 올 때 뭐 술이나 한 병씩 가져오고 그랬어요.}

10204 @ 이불하?{이불하고?}

10204 # 이불또 업써씨요.{이불도 없었어요.}

10204 # 예, 머, 그때.{예, 뭐, 그 때.}

10204 @ 그때느 처 그러머느 시집보내는 딸레 지베서 혈씬 더 예무를 마니 해주는 그네? {그 때는 그러면은 시집보내는 딸네 집에서 혈씬 더 예물을 많이 해준 것이네요?}

10204 # 글체요.{그렇지요.}

10204 #1 더 마이 헤찌요.{더 많이 했지요.}

10204 # 이거 딸 치우는 사라프는 쪼이 헤조여 데고, 저짜그는 마저, 앙꾸, 네 볼 때는 앙꾸도 안 아 헤찌, 짐 마저, 올 때 거저 머 참.{이거 딸 치우는 사람은 좀 해줘야 되고, 저 쪽은 맞어, 아무 것도, 네 볼 때는 아무 것도 안 했지, 참 맞어, 올 때 거저 뭐 참.}

10204 #1 그저 수리나 한 병씩 가져 오고 머머 그레쓰요.{그저 술이나 한 병씩 가져 오고 뭐 그랬어요.}

10204 #1 하마 옴나레 오래데가 머, 오세그툼 테기나 인니껴, 암만 업서도 잘 해주고 하는 데.{벌써 옛날에 오래돼서 뭐, 요사이 같으면 턱이나 있나요, 아무리 없어도 잘 해주고 하는 데.}

10203 @ 그 어 저거 호시 그 신행 때는 머 어뜨케 해썸미까, 신행 가고 할 때는, 예저네 어르신 혼일할 때.{저거 혹시 신행 때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신행 가고 할 때는, 예전에 어르신 혼인할 때?}

10203 # 우리가, 우리 할 때?{우리가, 우리 할 때?}

10203 # 그릉 거느 월래 생각또 모타고, 아주 머 아주 그릉거느 아주 아제 머 업서꼬 머 아주.{그런 것은 원래 생각도 못 하고, 아주 뭐 아주 그런 것은 아주 뭐 없었고 뭐 아주.}

10203 #1 오세는 신행 여행가고 머 글치만, 글뎌 그거 이썸니겨, 그런거 머.{요새는 신행 여행가고 뭐 그렇지만, 그 때는 그게 있었나요, 그런 게 뭐.}

10203 @ 아니 저기 인제 그러머 호닌하시고 어 그르가 막빠로 이리로 오셔썸미까, 당이 레?{아니 저기 인제 그러면 혼인하시고, 그래 가지고 막바로 이리로 오셨습니까, 당일예?}

10203 #1 예, 발 빠리 와씨요.{예, 바로 왔어요.}

1.2.3. 전통적 결혼식

10205 @ 그 다음메 인젠 예저네 그 홀레 치를 때, 홀레에 대해서 쫘 여쭙 불려 그러는데, 옴나레 그 어르신 홀레 치를 때, 어르신 그 홀레치르던 그런 풍스베 대에서 머 아는 데로, 어떠케 홀레를 치러는 지 함 분 이야기 해 주실 수 이썸미까?{그 다음에 인제 예전에 그 혼레 치를 때, 혼레에 대해서 쫘 여쭙어 보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어르신 혼레 치를 때, 어르신 그 혼레 치르던 그런 풍습에 대해서 뭐 아는 대로, 어떻게 혼레를 치렀는 지 한 번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10205 @ 처가 아까 팜 뱅리 거리 가가주고 처가집 앞페 그에 주마기서 하루 유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가서 홀레 안 치런써께씀미까?{처가, 아까 한 백 리 걸어 가 가지고 처가 앞에 거기 주막에서 하루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가서 혼레 안 치뤘습니까?}

10205 @ 그때 기억 나실런지 모르겄씀다마느 머 어뜩켄 준비해서 어뜨케 지냈을 합띠까? {그 때 기억 나실런지 모르겄습시다만은 뭐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던가요?}

10205 # 기억또 안 나요. 다 이저[x뿌고x].{기억도 안 나요. 다 잊어 [x버리고x].}

10205 @ 요즘 예식장에서 하지마는 그때는 어뜨케 해씀미까?{요즘 예식장에서 하지만은 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205 # 그때는 그 상을 복판에 예 이레 체리노코, 그 머 과실또 영꼬, 또 특끼나 은제 닭, 당 마리아, 닭 두 바리는, 그으는 피리 가따아 이리 언저 노코, 인제 그런 노코는 제 양짜 서 가주고, 그 저 홀레하는 사래미 그그 은제 저글.{그 때는 그 상을 복판에 이레 차려 놓고, 그 뭐 과실도 없고, 또 특히나 인제 닭, 닭 말이야, 닭 두 바리는, 그거는 반드시 갖다 이렇게 얹어 놓고, 인제 그래 놓고는 이제 양쪽에 서 가지고, 그 저 혼레하는 사람이 그 인제 저걸.}

10205 @ 홀개.{진행자.}

10205 # 예, 홀개 그거 은제 해 중단 마리, 해주믄 머 어테느, 어느짜그 실라~이 절하라캄 절해이 데고, 인제 심부가 절하라 금 절하고, 마절함 마절하고, 그럼 마치고, 그 인제 술로 서로 인제 익 이 상미트로 이글 여 가주고, 옐 서로 주고 먹꼬, 예 그 그 그래 부문 저 홀레가 인제 끝나는 게죠.{예, 진행자가 인제 해 중단 말이야, 해주면 뭐 어디는 어느 쪽은 신량이 절하라고 하면 절해야 되고, 인제 심부가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맞절하라고 하면 맞절하고, 그러면 마치고, 그 인제 술을 서로 인제 이 상미트로 이 것을 넣어 가지고, 서로 주고 먹고, 그래 버리면 혼레가 인제 끝나는 것이죠.}

10205 # 끝나구, 끝나, 끝 나뿌고 은제 처가찌베 그라른 은제 장판 드 가 가주, 바~아 드 가서 머 한 자구 안자따가 톱 마빠로 와이 데그드.{끝나 버리면 인제 처갓집에 인제 잠깐 들어 가 가지고, 방에 들어 가서 한 잠깐 앉았다가 또 곧바로 와야 되거든.}

10205 @ 거기 겹 우리 그 아까 이야기 하셔씀미다만, 홀레 치를 때 그 상을, 예 머 다글 반드시 올리논는다 아 하셔씀미까?{거기 그러면 우리 그 아까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혼레 치를 때 그 상을, 뭐 닭을 반드시 올려 놓는다고 안 하셨습니다까?}

10205 # 야, 예예.{아, 예예.}

10205 @ 그 상을 무슨 상 치른다 그럼니껴?{그 상을 무슨 상 차린다고 그럼니껴?}

10205 # 그게 그게 상 무슨 사~이란네 그그 그그 그그는 *****.{그게 그게 상, 무슨 상이라고 하는 지 그것은 *****.}

10205 @ 호시 초례상이라 그람미까?{혹시 초례상이라고 그럼니껴?}

10205 @ 초례.{초례.}

10205 # 홀레상이라 그러지요.{혼례상이라 그러지요.}

10205 @ 아 호, 홀레상, 예, 예.{아 호, 혼례상, 예, 예.}

10205 # 야, 아 그 사~을 마저, 홀레상이라 그지요.{예, 아 그 상을 맞아, 혼례상이라 그러지요.}

10205 @ 거머 홀레상 차릴 때 닭 두 바리는 반드시 올라가고?{그러면 혼례상 차릴 때 닭 두 바리는 반드시 올라가고?}

10205 # 예.{예.}

10205 @ 또 그 다으메 또 머 올리감미까 쌀 올리감미까?{또 그 다음에 또 뭐 올라갑니까, 쌀 올라갑니까?}

10205 # 머.{뭐.}

10205 # 쌀또 오라가지요.{쌀도 올라가지요.}

10205 #1 쌀 알꼬.{쌀 올리고.}

10205 #1 싸 리꼬, 몰래요, 머 기영 안 난.{쌀 있고, 몰라요, 뭐 기억이 안 난다.}

10205 # 또 저저이 사과, 배,{또 저 사과, 배,}

10205 @ 사과, 배, 과일?{사과, 배, 과일?}

10205 # 예, 그래, 그이야 그 그르 노코, 인제 잔, 잔 두 대 노코.{예, 그래, 그래 놓고, 인제 잔 두 대 놓고.}

10205 @ 머 혹시 머 무리나 이렇 거는 안 뜨드 노?{뭐 혹시 뭐 물이나 이런 것은 안 떠다 놓습니까?}

10205 # 왜, 물 무르는 그 실랑아페 심 심부아페.{왜, 물은 그 신랑앞에, 신부앞에.}

10205 @ 아 하나씩.{아, 하나씩.}

10205 # 예, 음 푸 사~에다 노코.{예, 상에다 놓고.}

10205 @ 그 무른 머하는 데 씹미까?{그러면 물은 뭐하는 데 씹니까?}

10205 # 근데 수군 노구, 수군 가다 노, 그은 머, 근 먼 니런도 모르고 인제 무레 손 당과 가주고 수구넌{그 때 수건 놓고, 수건 갖다 놓고, 그 것은 뭐, 그건 뭘 일인지도 모르고 인제 물에 손을 담귀 가지고 수건에}

10205 #1 몰래요.{몰라요.}

10205 @ 따꼬?{닭고?}

10205 # 예, 따꼬.{예, 닭고.}

10206 @ 그르 가, 그 그룩 하고, 그 예를 드러션 인저 홀레 치를 때, 머 어르신 홀레하실 때도 갠창코, 또는 머 예를 드러서 어르신 허 칭구드리나 또는 머 그 당시, 예, 전통, 아니, 예, 전통 홀레 치를 때, 잔치 안 함미까?{그래 가, 그렇게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인제 혼례 치를 때, 뭐 어르신 혼례하실 때도 갠창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 친구들이나 또는 뭐 그 당시, 예, 전통, 아니, 예, 전통 혼례 치를 때, 잔치 안 함미까?}

10206 #1 그때는 그그는 업써썩쇼.{그 때는 그거는 없었어요.}

10206 @ 잔치오온 버, 잔치온 사람들한테 주로 머 대접함미까?{잔치온, 잔치온 사람들한테 주로 뭐 대접함미까?}

10206 @ 어떤 음식 대접함미까?{어떤 음식 대접함미까?}

10206 # 아, 글때, 아아이 이 저 이 크일 할 때 손님, 오선 손님?{아, 그 때, 큰일 할 때 손님, 오선 손님?}

10206 # 국수, 주륵.{국수, 주로.}

10206 # 주륵 국수.{주로 국수.}

10206 # 크일하믄 머 지금도 국수몽는다.{큰일하면 뭐 지금도 국수먹는데.}

10206 # 산는 국수 그 이짜네.{산 국수 있잖아.}

10206 # 자~아 가모 이 ** 국수 ** 산는 거, 주로 그제.{장에 가면 이 ** 국수 ** 산 거, 주로 그제.}

10206 @ 아, 국쭈, 그 기계국쭈, 뽕바가진는, 그걸 감니까?{아, 국수, 그 기계국수, 뽕아 놓은 것을, 그걸 삼니까?}

10206 # 예예예, 예예, 예, 예, 그그 사다가.{예예예, 예예, 예, 예, 그걸 사서.}

10206 # 그 사다가 인제 손님 저께 다 다 저 오신 손님.{그걸 사서 인제 손님 접대 다, 오신 손님.}

10206 @ 대접하고?{대접하고?}

10206 # 예.{예.}

10206 @ 그때 혹시 머 국수말고는 다른 건 안 함미까, 머 거 돼지고기나 이렇거또?{그 때 혹시 뭐 국수말고는 다른 건 안 함니까, 뭐 돼지고기나 이런 것도?}

10206 # 돼지고기는 월레 머, 글텐 돼지고기 그똥 머 살 돈도 어꼬, 돼지고기 돈너 그 떠꼬, 준 주로 은제 수리고, 은제 그제라.{돼지고기는 원래 뭐, 그 때는 돼지고기 그것도 뭐 살 돈도 없고, 돼지고기 돈도 그것도 없고(돼지고기 살 돈도 없고), 주로 인제 술이고, 인제 그거야.}

10206 @ 그러며느 주로 그 국수하고, 어 그러하고, 혹시 머 떡구기나 머 이렇 거느?{그러면은 주로 그 국수하고, 그렇고, 혹시 뭐 떡국이나 뭐 이런 것은?}

10206 # 어이, 잘 산짐 뜯 주론 또 떠꾸또 하는 한 사람 이쨌요.{어이, 잘 사는 집은 주로 또 떡국도 하는 사람있지요.}

10206 @ 잘 사는 집?{잘 사는 집?}

10206 # 예.{예.}

10206 # 기양 삼 밥해서 멈, 밥소리도 멍는 사라르는 인제 떠꾸글 하고, 떡국 떡국하지.{그냥 밥해서 먹는, 밥술이나 먹는 사람은 인제 떡국을 하고, 떡국하지.}

10206 @ 조금 인제 잘 사는 지베는 떡국하고, 언 집 조금 머 이 경제저는 녁지 모탄 지베는 국수나 이런 쪼그로?{조금 인제 잘 사는 집에서는 떡국하고, 집이 조금 뭐 경제적으로 녁지 못한 집에는 국수나 이런 쪽으로?}

10206 # 예예예, 예, 국수지, 예.{예예예, 예, 국수지, 예.}

10207 @ 그 다으메 그 이 그때 홀레 치르고 천날빠메 머 혹시 머 재민는 이야기 업서썸미까, 천날뺨 지낼 때?{그 다음에 그 때 혼레 치르고 첫날밤에 뭐 혹시 뭐 재미있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첫날밤 지낼 때?}

10207 @ 그 신부하고 드러가슬 때 누우 장난치고 머 그러지 안 썸미까?{그 신부하고 들어갔을 때, 누가 장난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10207 # 그리엄 마 그 그렇거또 어꼬, 으 탄 바~아 시큰 노다가, 머 잠잘 때 데머 가가 가따 잠만, 잠마 자 뿌러쨌요.{그런머 그런 것도 없고 다른 방에서 실컷 놀다가 뭐 잠잘 때 되면 가서 그냥 잠만 자 버렸지요.}

10207 # 그 머 그렇건 저기 점부.{그 뭐 그런 것은 전부.}

10207 # 그레머 인제 저 베게 사라르 이거 므 문 뜯꼬 머 이레 이레 이 이 보고, 그렇거 그그 그렇거를.{그러면 인제 저 밖에 사람은 이걸 문 뚫고 뭐 이레 보고, 그런것을.}

10207 # 그거는 왜 그러냐, 이거 니 옛날부터 이거 해가 해가 온 예가기 떼미 이레 헤이 단다구.{그 것은 왜 그러냐, 이걸 옛날부터 해 온 풍습이기 때문에 이레 해야 된다고.}

10207 # 검 망 문 뜨꼬, 마구 무늘 이레 확 뜨더 뿌고.{그 막 문 뜯고, 마구 문을 이렇게 확 뜯어 버리고.}

10207 @ 아, 이 주무실라 하니까?{아, 주무시려고 하니까?}

10207 # 야.{예.}

10207 # 그래.{그래.}

10207 @ 거 그럼 머 그래 우제썸미까, 문 뜨길래?{그러면 뭐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문 뜯기에?}

10207 # 무 머 어예도, 머 걸 가마이 이씨찌 머.{뭐 어떻게 하지도, 뭐 그냥 가만히 있었지 뭐.}

10207 @ 으 그 혹시 머 발빠닥 마꼬 그러진 아 해썸미까?{그 혹시 뭐 발바닥 맞고 그러지는 안 했습니까?}

10207 # 그그는 처가 가서, 처가 가문 제 그 장난으로, 이 까즌 머 돔마 이씨문 넌 시큰 머어라 캄, 네가 돈마 풍 네 나뽀 곤찬는데, 돈 업따보~이 발빠다 시큰 마자여 데지여.{그것은 처가에 가서, 처가에 가면 이제 장난으로, 이까짓 뭐 돈만 있으면 너희들 실컷 먹어라고 하면, 내가 돈만 바로 내 놔 버리면 괜찮은데, 돈이 없다보니 발바닥 실컷 맞아야 되지요.}

10207 # 시큰 막 때리답 머 할 수 업썸, 저어가 찌 저거 찌 하다하다가 안테르 은젠 나노르, 저 술 가따구 먹꼬 해야 데지.{실컷 막 때리다가 뭐 할 수 없으면 자기들이 하다하다가 안 되면 인제 놔주면, 자기들 술 갖다가 먹고 해야 되지.}

10207 # 네 주메 똥, 네가 돈 업씨이까, 돔마 씨마, 어테가 곶마 더 사온나 그고, 먹 폭 조뿌문 데는데.{내 주머니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 고만 더 사오라고 하고 뭐 탁 쥐 버리면 되는데.}

10207 # 그릉 거는 마 이씨썸요.{그런 것은 많이 있었어요.}

10207 # 또 처가, 처가 가맘 머 만는 거는, 또 발빠당 만는 거는 그그는 머 아주 뽀토 이서찌.{또 처가에 가면 맞는 것은, 또 발바닥 맞는 것은 거것은 뭐 아주 보통 있었지.}

10207 @ 머 혹시 또 그러거 말고는 다른 머, 거는 업서썸미까, 처가때게 가서썸 때?{뭐 혹시 또 그런 거 말고는 다른 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처가댁에 가셨을 때?}

10207 # 땅 거는 머 처으, 네 군대서 가기 떼미네, 머 쥼 제대 와뿌~이까, 머 또 머 처가도 자주 몽 까꼬, 군, 머 처가도 벨루 몽 까찌요.{다른 것은 뭐 처음, 내 군대에서 갔기 때문에, 뭐 제대해 와 버리니까, 뭐 또 뭐 처가도 자주 못 갔고, 군대, 뭐 처가도 별로 못 갔지요.}

10207 # 군대 이따 보니까.{군대 있었다 보니까.}

10207 @ 검 그 어뜨케 그 발빠락 마꼬 할 때, 우리 어머님 안 도루, 머 가마이 보고 계신편까?{그러면 그 어떻게 그 발바닥 맞고 할 때, 우리 어머님 안 도와, 뭐 가만히 보고 계시던가요?}

10207 # 장모가 주로 와 가주고 그르지 마라 글지.{장모가 주로 와 가지고 그러지 마라고 그러지.}

1.2.4.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208 @ 그 으 그 예를, 그 결혼하고, 그러머는 거기서 일로 오셔 가고주 어디서 살림을 차려썸미까?{그 예를, 그 결혼하고, 그러머는 거기서 이리로 오셔 가지고 어디서 살림을 차렸습니까?}

10208 # 살림는 밤 바베 이 지비지요.{살림은 바로 이 집이지요.}

10208 @ 그 살림프 감머 어 마지시라서 어 그거 어르신 그 부몬님 물려 바더서 계소 이 지베서 사셔썸미까?{그 살림은 그러면 만이시라서 어르신 그 부모님께 물려 받아서 계속 이 집에서 사셨습니까?}

10208 # 아니여.{아니요.}

10208 # 폭격마자 뿌고, 지베 어른 도라가서 부제, 모친 모시고 이선는데, 이 지븐 내가 사가주 와제요.{폭격을 맞아 버리고, 집에 어른 돌아가서 버렸지, 모친 모시고 있었는데, 이 집은 내가 사 가지고 왔지요.}

10208 # 내가 보테 가주고.{내가 보테 가지고.}

10208 # 내 군대 가잔 저네.{내 군대 가기 전에.}

10208 # 이 집 사노코, 이 집 사너, 이 집 사너코 그 이드매 대번 군대 가 빠러씨이.{이 집 사 놓고, 그 이듬해 바로 군대에 가 버렸으니.}

10208 # 예, 이 저비 바르 사노코.{예, 이 집을 바로 사 놓고.}

10208 # 포경 마저 뿌고, 사무 나무 집 도르 텡기다가 그 이 지블, 혼자인, 아너른 혼자인는데, 판다 그래가 내가 이 지블 사 가주고, 내 이 모친하고, 내 동상들하고 머 주고, 그고 내가, 그 이드매 템 내가 군대에 가찌, 가, 가찌.{폭격을 맞아 버리고, 사뭇 남의 집을 돌아다니다가 이 집을, 혼자사는, 안어른이 혼자있는데, 판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사 가지고, 내 모친하고, 내 동생들하고 뭐 주고, 그리고 내가 그 이듬해 바로 내가 군대에 갔지.}

10209 @ 그럼 그 철 아이를, 그 우리 어머니미 처다이 가져썸 때, 우이 어르신께서 머 아이, 철 애 가져썸 때, 머 어떤 느낌이어꼬, 머 기어기 난는 닐 이쓰면?{그럼 그 첫 아이를, 그 우리 어머님이 첫 아이 가졌을 때, 우리 어르신께서 뭐 아이, 첫 애 가졌을 때, 뭐 어떤 느낌이었고, 뭐 기억이 나는 일 있으면?}

10209 #1 우리느 어는 영문인또 머 모리고 지내 나가도이 떼미네 몰래요.{우리는 어떤 영문인지도 뭐 모르고 지내 나갔기 때문에 몰라요.}

10209 #1 야, 참마리레요.{예, 참말이에요.}

10209 #1 어는 염무인도 모리고 지내나나고.{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지내 나왔으니.}

10209 @ 어 검 어디, 철 애 가절썸을 때 어르시느 구네 계셔썸미까, 앙 가면 제대하셔썸미까?{그럼 어디, 첫 애 가졌을 때, 어르신은 군에 계셨습니까, 안 그러면 제대하셨습니까?}

10209 #1 구네 이서씨요.{군에 있었어요.}

10209 # 군데 이서씨.{군대 있었지.}

10209 @ 검 어르신 처 애 예 가져서따라능 거 모르셔썸미까, 처메느?{그럼 어르신 첫 애 가지셨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처음에는?}

10209 # 몰라찌 머.{몰랐지 뭐.}

10209 # 글, 아이래, 내가 그 결혼하고 할빔잔는지, 그리고 다부 군대를 가 뿌러씨~이까. {그 것은, 아니야, 내가 결혼하고 하룻밤 잤는지, 그리고 다시 군대를 가 버렸으니까.}

10209 # 할빔 자고.{하룻밤 자고.}

10209 @ 검 애는, 처 애는 언제 보셔썸미까?{그럼 애는 첫 애는 언제 보셨습니까?}

10209 # 그거 머 언제 그랜노 몰래 내가 휴가 와 와가주 머 이렌는 지.{그거 뭐 언제 그랬는지 몰라, 내가 휴가 와 가지고 뭐 이랬는지.}

10209 @ 그 혹시 머 어먼니문 철 애 가지시고 어 머 입더시나 머 그렁 거는 마니 안 하셔썸미까?{그 혹시 뭐 어머님은 첫 애 가지시고 뭐 입덧이나 뭐 그런 것은 많이 안 하셨습니까?}

10209 #1 아 헨니더.{안 했어요.}

10209 @ 아 으?{안 하?}

10209 #1 야.{예.}

10209 @ 십게 하셔썸미까?{쉽게 하셨습니까?}

10209 #1 예.{예.}

10209 @ 그 그암무 그때 혹시 출산하실 때, 산파는 누가 해 주셔썸미까?{그러면 그 때 혹시 출산하실 때, 산파는 누가 해 주셨습니까?}

10209 #1 산파 머 지베서 나찌 머.{산파 뭐 집에서 낳지 뭐.}

10209 @ 에이, 지베서 그르도 누가?{에이, 집에서 그래도 누가?}

10209 # 모치~이 그래찌 머.{모친이 그랬지 뭐.}

10209 @ 누가?{누가?}

10209 #1 워러~이 그래찌 머요.{어른이 그랬지 뭐요.}

10209 #1 예.{예.}

10209 @ 시어른, 시어머.{시어름, 시어머님?}

10209 #1 시어르이.{시어른이.}

10210 @ 어 머 그 다크메 아이, 툄 애 나아슬 때 척꿍빠븐 머 주십띠까?{그 다음에 아이, 첫 애 나왔을 때, 첫국밥은 뭐 주시던가요?}

10210 #1 처꿍빠뎡 으 머 저게 머 무꾸국 끼리고 밥 해주고 하제요, 처꿍빠비사야.{첫국밥 역시 뭐 저기 무국 끓이고, 밥 해주고 하지요, 첫국밥이야.}

10210 @ 그 그 다크메 처꿍빠뎡 드시고 나서 머 미여꿍 꾸근 어치, 미여꿍하고 그래 주십미까?{그 다음에 첫국밥 드시고 나서 뭐 미역국은 어떻게, 미역국하고 그래 주십니까?}

10210 #1 예예.{예예.}

10210 @ 어 검 보통 그 애 나코 그 스 조리기가늘 어뜨케 한 어 스 삼칠 하셔썸미까, 머 얼마?{그럼 보통 그 애 낳고 조리기간을 어떻게 한 삼칠일 하셨습니까?}

10210 #1 예, 잠머 더 머 올케 해 머진니더.{예, 전부 다 뭐 올케 해 먹었어요.}

10210 #1 잘 헨니더.{잘 했어요.}

10210 #1 조레도 잘 하고 그때는.{조리도 잘 하고 그 때는.}

10210 @ 삼칠하셔썸미까?{삼칠일 하셨습니까?}

10210 #1 예.{예.}

10210 # 조레느 올케 모헤찌 머.{조리는 올케 못 했지 뭐.}

10210 @ 어 그 삼칠 하실 때느, 그럼머너 그 스 머, 예을 드러서 애 태어나슬 때, 예 어 지베 시어머닝게서 먼 빌고, 삼신할머니한테 빌고 그래 함미까?{삼칠일 하실 때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났을 때, 집에 시어머님게서 빌고, 삼신할머니한테 빌고 그래 함니까?}

10210 #1 예, 그레 헨니더.{예, 그레 했어요.}

10210 @ 그 어떠케 하는 지 함 이야기 쫘 해 주이소.{그걸 어떻게 하는 지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10210 #1 몰레 머 떠 올케 먼, 글뎡 드 드러도 이저뿌지 머요.{몰라, 뭐 올케 뭐, 그 때 들 어도 잊어 버렸지 뭐요.}

10210 @ 그엄너머.{그러면은.}

10210 #1 처름, 그때 머 나이 머 저레 스무살이라 머 그렌데요.{절없던, 그 때 뭐 나이 뭐

저래 스무 살인가 뭐 그랬는데요.}

10210 @ 거문 예즈, 혹시 어머니께서 딸네분 결혼하시고, 어 손잔 노코 이럴 땐 그 함 봉, 그럴 때도 가서 이야 한 번?{그럼 예전, 혹시 어머니께서 딸네분 결혼하시고, 손자 놓고 이럴 때 한 번, 그럴 때도 가서 이렇게 한 번?}

10210 #1 그 몰래여 멍기.{그 몰라요 뭔지.}

10210 #1 함마 머 오래 데가 지내니까꼬 몰래요.{벌써 뭐 오래 돼서 지나가서 몰라요.}

10211 @ 검 그 때 머 언 애들 건 돌잔치나 머 그릉 거느 함미까?{그럼 그 때 뭐 애들 그 돌잔치나 뭐 그런 것은 합니까?}

10211 #1 올 돌차제도 아 해썬요.{우리 돌잔치도 안 했어요.}

10211 @ 그 검 도레 그거 삼신할매한테 빌고느 함미까?{그러면 돌에 그거 삼신할머니한테 빌고느 합니까?}

10211 #1 예.{예.}

10211 @ 어 그를 때 상은 어떤 시그로 보통 그어 차림미까?{그릴 때 상은 어떤 식으로 보통 차립니까?}

10211 #1 야?{예?}

10211 @ 사아, 돌 그때, 앤 그 할 때, 삼신할매하고 빌 때는 어뜨케 차림미까?{상, 돌 그 때, 애 그거 할 때, 삼신할머니하고 빌 때는 어떻게 차립니까?}

10211 #1 그 체릴 꺼 머임 물 떠노코 기양 비지 머요.{거기 차릴 게 뭐 있나, 물 떠놓고 그냥 빌지 뭐요.}

10211 #1 삼신할매한테.{삼신할머니한테.}

10212 @ 그 다으메 어르신 혹시 인 이 마으레스는 예저네 인저 어 애드리 인자 자라 가주고 그 성, 어르니 텔 때, 팔레함미까?{그 다음에 어르신 혹시 이 마을에서는 예전에 인제 애들이 인제 자라가지고 어른이 될 때, 관례합니까?}

10212 @ 팔레식 가통 거 함미까?{관례식 같은 걸 합니까?}

10212 @ 어른, 어른데따고.{어른, 어른됐다고.}

10212 # 아, 팔레시그는 마저요.{아, 관례식은 맞아요.}

10212 # 팔레시근 금 마 한 사람도 이꼬, 아 한 사람도 이꼬, 팔레시그는 인제 날 바더 노코, 은제썸 은제 장게간다 그문, 글때 은제 구 과식, 가씨고, 근데 저 두르막 이꼬, 그 은제 어른드르데이 이어쓰 절하고, 예, 그래 하긴, 예, 그레 헨니다.{관례식은 그 뭐 한 하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관례식은 인제 날 받아 놓고, 언제썸 인제 장가간다 그러면, 그 때 인제 갓 쓰고, 두루막 입고, 인제 어른들한테 절 하고, 예, 그렇게 하긴, 예, 그렇게 했어요.}

10212 @ 어 그 팔레식 보통 한 먼 살 때썸 보통 함미까, 대개 한시는 사람드른?{그 관례식 보통 한 몇 살 때썸 보통 합니까, 대개 하시는 사람들은?}

10212 # 하 하능 거는, 건 머 으으 언제나 그 장게갈 때 데이데.{하는 것은, 그건 뭐 언제나 장가갈 때 돼야돼.}

10212 # 어 한 스물 메 쌀.{한 스물 몇 살.}

10212 # 근 글텐 또 어 우리 볼 때는 장계를 뜨 썸 빨리 간 테기지요.{그 땐 또 우리 볼 때는 장가를 썸 빨리 간 턱이지요.}

10212 # 수물 수물 선 너이 다서 썸 데 가무 가니까.{스물, 스물 셋, 넷, 다섯 썸 돼 가니까.}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10214 @ 그 혹시 그 시지블 가 가주고 제일 그 어려워똔 저프, 어떻게 제일 어려썸다?{그 혹시 그 시집을 가 가지고 제일 그 어려웠던 점은, 어떻게 제일 어려웠습니까?}

10214 @ 아까 여라오베 이 쪼그로 시집오시가 제일 힘드싱 거느 어땡거[x여썸미까x]?{아까 열 아홉에 이쪽으로 시집오셔서 제일 힘드셨던 것은 어떤 것[X이었습니까X]?}

10214 #1 글때는 글때는 다 마카 어려부제이요.{그 때는, 그 때는 다 모두 어려웠었지요.}

10214 #1 예, 다 어러번니다.{예, 다 어려웠어요.}

10214 #1 다 어러버꼬.{다 어려웠고.}

10214 #1 그르이 머 어예 머 어예어예 지내 나간는 거또 머 모리고, 머 사다가 보이 머 그래여.{그러니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지내 나왔는 가도 뭐 모르고, 뭐 살다가 보니까 뭐 그래요.}

10214 # 멍능 거 때미네 쥔 예로브도 마네찌 머.{먹는 것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많았지 뭐.}

10214 #1 우 시집 와 가느 머 글때는 마이 어러브쓰.{우리 시집와서는 뭐 그 때는 많이 어려웠어.}

10214 @ 주로 은제 어 경제저긴 그런 부분?{주로 인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

10214 # 예예, 머저 마저.{예예, 맞아 맞아.}

10214 #1 예.예.}

10214 @ 머 그 혹시 그런 부분도 그 해썸마느 예를 드려서 우리 어르시니 군대가 가주 게셔서 혼차 그래서 그런 어려우른 업썸미까?{뭐 혹시 그런 부분도 그러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이 군대에 가 가지고 게셔서, 혼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10214 #1 글 혼차 여 신누하고 자고 여 만날 그레찌.{그래 혼자 여기 시누이하고 자고 늘 그랬지.}

10214 #1 어른하고 자고 머.{어른하고 자고 뭐.}

10214 @ 어 그 그때 머 어 실랑 천날뺨 얼굴만 보고, 그레 헤어져 가주고, 어 그러며느 머 실랑 얼굴도 몰르션는 거 아님미까?{그 때 뭐 실랑 첫날밤 얼굴만 보고, 그래 헤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실랑 얼굴도 모르셨던 것 아님니까?}

10214 #1 모리 때도 이썸찌 머요.{모를 때도 있었지 뭐요.}

10214 @ 어 어 그암며는 아까 오신는 그 시누부니 칭구처럼 머 그쥔 그레 지내셔파, 그지 예?{그러면은 아까 오셨던 그 시누이분이 친구처럼 뭐 그래 지내셨다, 그렇지요?}

10214 #1 예아, 예.{예아, 예.}

10214 #1 예. 예.{예. 예.}

10214 @ 예저네 그 어머님 때 시집사리하고 요즘 머.{예전에 그 어머님 때 시집살이하고 요즘 뭐.}

10214 #1 오세하고 처~이 차이시더.{요사이 하고 천지 차이예요.}

10214 @ 예, 그 언즈 어떤 차잉께 까슴미, 함 이야기 해주이소?{예, 그 어떤 차인 것 같습니까,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10214 #1 ***.{***.}

10214 @ 예, 천지 차이랑는 거 함 이야기.{예, 천지 차이라는 거 한 번 이야기.}

10214 #1 어이고, 오세사 저그 머 지 마음대로 하지 머 누 실랑 마음대로 하디껴?{아이고, 요새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뭐 신랑 마음대로 하던가요?}

10214 #1 오세사 마카에 아느론 마음대로 하지.{요새야 전부 안사람 마음대로 하지.}

10214 @ 먼 또 어떻게 또 차이 마능 가쓸미까?{뭐 또 어떤 게 또 차이 많은 것 같습니 까?}

10214 #1 몰 그런 영분도 모리고 그레요.{몰라, 그런 영문도 모르고 그레요.}

10214 @ 엄 머 그래도 아까 이야기하셔썸미다마는 천지 차인데 하나는 실랑 마음대로 어 모타고 아 시 실랑 눈치 암 보고 혼자 다 하고.{뭐 그래도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천지 차인데, 하나는 신랑 마음대로 못하고, 신랑 눈치 안 보고 혼자 다 하고.}

10214 #1 ****.{****.}

10214 #1 그라잔니껴?{그러잖아요?}

10214 #1 오세 보소, 번하잔니껴, 머카.{요새 보세요, 뻘하잖아요, 모두?}

10214 #1 세워리 그리 덴는데 머.{세월이 그래 됐는데 뭐.}

10214 @ 또 머 어 머 먹 끝 쯤 이런 부분도 예전하고는 마니 달라져 가지고.{또 뭐 뭐 먹 고 이런 부분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 가지고.}

10214 #1 예, 먹꼬 이꼬 하능 거느 옐나레 데니껴?{예, 먹고 입고 하는 것은 옛날과 (비교 가) 되나요?}

10214 #1 옐나레사 참 머 무어께 마넌니껴, 오시 마넌니껴, 머 글코, 그레찌 머요.{옛날이 야 참 뭐 먹을 것이 많았어요, 옷이 많았어요, 뭐 그렇고, 그랬지 뭐요.}

10214 @ 그 시집사리 하실 때, 옐나른 그런머너, 아 거이 머 어 삼녀는 먼 어 기도 마꼬, 눈도 마꼬, 머 하라고 헨는데, 예 그렇거 비해서도 요즈른 쯤 마니 다릅미까, 어떠썸미까? {그 시집살이 하실 때, 옛날은 그러면은, 거의 뭐 삼녀는 뭐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뭐 하라 고 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도 요즘은 쯤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10214 #1 몰씨, 난 그그또 모리, 이녕쟁하이 어정쟁하이.{몰라, 난 그것도 몰라, 어쟁쟁한 게, 어정쟁한 게.}

10214 # 그때는 어 시집사리 사러따고 바이 테지요.{그 때는 시집살이 살았다고 봐야 되지 요.}

10214 # 어른드리 또, 마저.{어른들이 또, 맞아.}

10215 @ 그럼머느 어 그 어머니, 그 시집살, 아까 아 저쭈 주왕산 밋에서 여라오베 일로 오션는데, 머 예를 드려서 요즘도, 저도 그러썸미다마는, 어디 나썸 고세 가며너 참 힘들거 든뇨.{그러면은 그 어머니, 그 시집을, 아까 저쪽 주왕산 밋에서 열 아홉에 이리로 오셨는 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도, 저도 그랬습시다만은, 어디 낫선 곳에 가면은 참 힘들거든요.}

10215 @ 왜 그라만 제 생활하다가 그 모르는 데 가며느 영 힘 들 뜨시, 어머님 예저네 거 기서 계시다가, 이 거도 한 이십 년 가까이 생활하시다가 자라서 일로 오셔 가주고, 나썸 고신데, 제일 그 어려워똔 게 어떻거여썸미까?{왜 그러냐 하면 자기 생활하다가 모르는 데 가면은 영 힘들듯이, 어머님 예전에 거기서 계시다가, 거기도 한 이십 년 가까이 생활하시 다가, 자라서 이리로 오셔 가지고, 낫선 곳인데,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10215 @ 옐날, 친정에 이따가 일로 바로 시집보니까, 나썸 고세 오시니까?{옐날, 친정에 있다가 이리로 바로 시집오니까, 낫선 곳에 오시니까?}

10215 #1 머 마카 나썸이께네 머 어정쟁한게 머 잘 몰시더.{뭐 전부 낫서니까 뭐 어정쟁한 게 뭐 잘 모르겠어요.}

10215 #1 그때는너.{그 때는요.}

10215 @ 으 머 어 제일 어 그거 악 업 머 나쁜 부분 그렇 거, 그 다음에 또 제임 머 어 힘든 게 언젠가 힘들었습니까?{뭐 제일 낫선 부분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제일 뭐 힘든 게, 어떤 게 힘들었습니까?}

10215 #1 그때 힘든건 여어는 식수감 마이 따래끄등뇨.{그 때 힘들었던 건, 여기는 식수가 많이 달렸었거든요.}

10215 #1 그르이 바르로 물 이러 탕기는 게 글때 제일 스거퍼쥬요.{그러니 밤으로 물 이러 다니는 게 그 때 제일 서글쥬지요.}

10215 # 마저, 그젠 주로, 이 마저 머 * ** *. {맞아, 그 때는 주로, 이 맞아 뭐 * ** *.}

10215 #1 예, 바물 물 이러 탕긴니더.{예, 밤에 물 이러 다녔어요.}

10215 @ 나제는 이를 하시고?{낮에는 일을 하시고?}

10215 #1 무리 따래이께네 머 바르런 탕기고.{물이 달리니까 뭐 밤으로 다니고.}

10215 @ 거머 어디 아까 이 말씀하셧는?{그러면 어디 아까 이 말씀하셨던?}

10215 #1 아이 요게 이썬썬요.{아니 요기 있었어요.}

10215 #1 도람 미, 건네 요그 우무리라.{도로 밑, 건네 요기 우물이야.}

10215 # **도 우무리 하나 이서쥬.{**도 우물이 하나 있었지.}

10215 @ 아, 여 샘때로 하나 이서쥬미까?{아, 여기 샘같이 하나가 있었습니까?}

10215 #1 예, 예, 예나래 그 고 우고리, 그 물 가주고, 그 물 가주고 사무 이 동네 그 마느 식수를 하이 무리 마이 따래쥬.{옛날에 거기 거 우물이, 그 물 가지고, 그 물 가지고 사무 이 동네 그 많은 식수를 하니 물이 많이 달렸지.}

10215 # 우리 동네이 물 저그노이 머, 모지래 가지고 인제 저어 가다가 여다 머꼬, 저그더 여다 머꼬 ** ***. {우리 동네 물이 적어서 뭐, 모자라 가지고 인제 저 가서 여다 먹고, 저기에 여다 먹고 ** ***.}

10215 #1 예, 그랜니더.{예, 그랬어요.}

10215 @ 아 물 물 기르러 가는 그기 참 예저네 나썬데 와서 제일 힘 드르파 그지예?{아 물 길으러 가는 그것이 참 예전에, 낫선 데 와서 제일 힘들었다, 그렇지요?}

10215 #1 예, 쥬 힘들러썬여, 물 기리러 탕기고.{예, 제일 힘들었어요, 물 길으러 다니고.}

10215 @ 아, 저도 어릴 때, 예 머 아버지 이르 가 가끄른 시원한 물, 새메, 저 이 가서 떠 가지고 오라 하며 아주 시러헨는데, 머 혹시 또 그그 말고는 먼 또 어떻거, 물 기로, 물 이로 간는 거 하고 말고는 또 다른 건 업썬썬미까?{아, 저도 어릴 때, 뭐 아버지 이래 가지고 가끔은 시원한 물, 샘에, 저기 위에 가서 떠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아주 싫어했는데, 뭐 혹시 또 그거 말고는 뭐 또 어떤 것, 물 길으러, 물 이러 가는 것 하고 말고는 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10215 #1 그 보리바~아 쥬가 밥해멍는게 쥬 힘들러쥬 머요.{그 보리방아 쥬어서 밥 해 먹는 게 제일 힘들었지 뭐요.}

10215 @ 아, 마썬미다, 어디?{아, 맞습니다. 어디?}

10215 @ 보리빠~아는 어디?{보리방아는 어디?}

10215 # 음, 디들빠~아, 마 디들빠~아.{음, 디딜방아, 맞아 디딜방아.}

10215 #1 바~아까리, 디들빠까리.{방앗간이, 디딜방앗간이.}

10215 @ 디딜방아간.{디딜방앗간.}

10215 # 우리도 여 디들빠가 이서꺼드요.{우리도 여기 디딜방아가 있었거든요.}

10215 #1 예.{예.}

10215 @ 아, 여기 이썬썬미까.{아, 여기 있었습니까?}

10215 # 예.{예.}

10215 #1 예.{예.}

10215 @ 거머 디딜방아는 머 어머니미 디딜방아 어 눌러썬미까, 앙 카마 호바게 가서 헤 썬미까?{그러면 디딜방아는 어머니미 디딜방아, 어 눌렀습니까, 안 그러면 호박에 가서 했 습니까?}

10215 #1 찌어썰요.{찌었지요.}

10215 @ 은 직접 **. {직접 **?}

10215 # 마저, 발브먼.{맞아, 뽕으면.}

10215 #1 예, 야.{예, 예.}

10215 @ 아, 그그 디딜방아 거 또 예저네 고추도 그그 가추가?{아, 그거 디딜방아 거 또 예전에 고추도 그거 가지고?}

10215 #1 꼬치도 거 드르 다 뽕 꼬치장 꺼리도 거 빠아가 헤머꼬 머 다 그렌니더, 옌나레 는 머.{고추도 거기다가 다 뽕고, 고추장꺼리도 거기 뽕아서 해 먹고, 뽕 다 그랬어요, 옌날 에는 뽕.}

10215 # 예.{예.}

10215 @ 머 어 그릉꺼 머 시집오셔 가주우 뽕 만며느리니까 더 마니 하셔쥬쥬?{뽕 그러니 까 뽕 시집오셔 가지고 또 만며느리니까 더 많이 하쥬쥬쥬?}

10215 #1 예.{예.}

10215 @ 어 그 다음 머, 어 혹시 머, 그런 머 물 이로 가능거 하고, 여 머 방아 쥬는 거, 이렇거 말고, 혹시 머 어 어르신 안 게셔가주고 그런 부분 업썬썬미까?{그 다음 뽕, 혹시 뽕, 그런 뽕 물 이러가는 것 하고, 뽕 방아 쥬는 것, 이런 것 말고, 혹시 뽕 어르신 안 게셔 가지고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10215 #1 건 잘 모리지 머.{그건 잘 모리지 뽕.}

10215 @ 머 예 그르도, 예를 드러서 먼 저 가트머는 누가, 어 여뽕 실랑이라도 게신머느 훨씬 마으미라도 편할 께 가튼데.{뽕 그래도, 예를 들어서 뽕 저 같으면은 누가, 옆에 신랑 이도 게시면은 훨씬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10215 #1 마쥬요.{맞아요.}

10215 #1 그레쥬요, 글떼는.{그랬지요, 그 떼는.}

10215 @ 어 그럭 별로 안, 머 실랑 안 게셔도 머 어 겐차느션는 모야~이다.{어 그럼 별로 안, 뽕 신랑 안 게셔도 뽕 괜썰썰쥬던 모양이다.}

10215 # 시동상들 마이 이시이까.{시동생들 많이 있으니까.}

10215 #1 시동상드리 다 이선노이요, 시동상들 너이, 시누하고 다썰썰 이썬 보소.{시동생 들이 다 있으니까, 시동생들 뽕, 시누이하고 다섯이 있어 봐요.}

10215 # 네치 이시이까.{뽕이 있으니까.}

10215 # 한지비 머 처 한지비 거치.{한 집이 뽕 저 한 집 같지.}

10215 #1 어른하고 그레 가주 삼시 시끼 보리바~ 썰가 밥해멍는게 이리고.{어른하고 그레 가지고, 삼시 세끼 보리방아 썰어서 밥 해 먹는 게 일이고.}

10215 # 그뽕 바~아 쥬는기 그기 체고 애머거썰 접따.{그 뽕 방아 쥬는 게, 그게 최고 애 먹었지 썰다.}

10215 @ 머 요즈므 방아까네 가서 기계로 쪼으니까.{뭐 요즘은 방앗간에 가서 기계로 쪼으니까.}

10215 #1 예, 오셔서 망고 폐찬니껴?{예, 요새야 망고 편하지 않습니까?}

10215 @ 그때는 머 계속 그거 매 끼니를 다 쪼어야 데니까.{그 때는 뭐 계속 그거 매 끼니를 다 쪼어야 되니까.}

10215 #1 바~아 쪼야 데이.{방아 쪼어야 되니까요.}

10216 @ 어 그 다오메 이거 머 시 시아버지는 일찍 도라가셔따 하셔꼬, 그 다오메 시어머니 하고는 머 어뜨케, 머 어때썰미까?{그 다음에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하고는 뭐 어떻게, 뭐 어땀습니까?}

10216 #1 시어마이하고는 자 치네썰.{시어머니하고는 잘 지냈지.}

10216 #1 예, 시어마이하고 자 쪼넌니더.{예, 시어머니하고 잘 지냈어요.}

10216 @ 시어머니께서 아주 잘 이끄러 주시고?{시어머니께서 아주 잘 이끌어 주시고?}

10216 #1 예.{예.}

10216 @ 음 요즘 그어 시어머니, 이 동네에너, 요즘 예를 드려서 머 며느리들 이래 보고 너 예전네 비해서느 어뜨게 잘 해주능 거 가썰미까?{요즘 시어머니, 이 동네에는, 요즘 예를 들어서 뭐 며느리들 이래 보고는 예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잘 해주는 것 같습니까?}

10216 @ 시어머니드리, 요즘 시어머니들 모하능거 가썰미까?{시어머니들이, 요즘 시어머니들 못 하는 것 같습니까?}

10216 #1 오세 시어마이 몬 해주면 데니까?{요새 시어머니가 못 해주면 됩니까?}

10216 #1 잘 해조애 데제, 메늘 할때.{잘 해줘야 되지, 며느리 한테.}

10216 #1 잘 해조야 데니더.{잘 해줘야 됩니다.}

10216 #1 잠모담 밥또 몬 어더 몽 켜데, 잘 해조이 데제요.{잘못하면 밥도 못 얻어 먹을 건데, 잘 해줘야 되지요.}

10216 @ 그 그때 그리고, 아까 인제 시동생들 마느시고, 시누도 계시고 그런데, 업 그 어르신 형제분들하고는 어뜨케, 사이가 어떠썰미까?{그 때 그리고, 아까 인제 시동생들 많으시고, 시누이도 계시고 그런데, 그 어르신 형제분들하고는 어떻게 사이가 어떻습니까?}

10216 #1 사이 잘 지네썰요.{사이 잘 지냈어요.}

10216 #1 안뉴꺼정 잘 지내지더.{아직까지 잘 지냅니다.}

10216 @ 머 또 우리 어르시니 앙 계시니까 시동생분드리 또 더 형수니를 또 더.{뭐 또 우리 어르신이 안 계시니까 시동생분들이 또 더 형수님을 또 더.}

10216 #1 예, 잘 하니더, 예.{예, 잘 합니다, 예.}

10216 #1 잘 하니더.{잘 합니다.}

10217 @ 글 요즘 그 그 며누니드른, 머 예를 드려서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양자 두셔따고 하지마너, 머 그런 어 그 며느리나 또는 머 아니며는 또 머 다른 지바네 며느리들 보며너 며느리들리 쫘 잘 하능거 가썰미까 어떠썰미까?{그 요즘 며느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양자 두셨다고 하지만은, 뭐 그런 그 며느리나 또는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집안에 며느리들 보면은 며느리들이 좀 잘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10216 #1 우리 메늘또 잘 하니더.{우리 며느리도 잘 합니다.}

10216 #1 잘 하니더.{잘 합니다.}

10216 #1 예, 하능거느 잘 하니더.{예, 하는 것은 잘 합니다.}

10217 @ 그 예저네 인제 그 어머님 시집오셔 가주고 보니니 그 며느리 해 시 때 하시던

거 하고 예 요즘 요 요.{그 예전에 인제 그 어머님 시집오셔 가지고 본인이 며느리 때 하시던 거 하고 요즘..}

10217 #1 예, 그 하고 오세하고 데니껴?{예, 그 때하고 요새하고 {비교가) 됩니까?}

10217 @ 그르 으튼 차이가 나능거 가ضم미까?{그래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10217 #1 글때하고 오세하곤 차이가 망이 나지요.{그 때하고 요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10217 @ 그엄 머가 차이 남미까?{그럼 뭐가 차이 납니까?}

10217 #1 오똥이 옛날거치 하면 누가 열, 데니껴?{어떻게 옛날같이 하면 누가 여기, 되나요?}

10217 @ 아니 그럼, 그르도 머 어떤 부부니 차이 나느지 함 부 이야기 해 주이소.{아니 그럼, 그래도 뭐 어떤 부분이 차이 나느지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10217 @ 머 어뜨게 제일 큰 차이나능 게, 어똥 그, 차이, 큰 차이 남미까?{뭐 어떻게 제일 큰 차이나는 게, 어떤 게, 차이, 큰 차이 납니까?}

10217 #1 그께 오세는 메늘네가 언 글때그치 보리바~아 썩가 밥 해 머꼬 물 리고, 바므로 물 리고 하며, 누가 그라니껴?{그러니까 요새는 며느리가 그 때처럼 보리방아 쥘어 가지고 밥 해 먹고 물 이고, 밤으로 물 이고 하면, 누가 그러니까?}

10217 #1 오세는 그 양그리고, 차이가 마이 나지.{요새는 안 그러고, 차이가 많이 나지.}

10217 @ 그기 머 혹시 인제 그런 머 노동적인 그런 거또 그러고, 시부모에 대해서 어 예저네 공손하게 헐는 그런 부분 어똥 가ضم다.{거기 뭐 혹시 인제 그런 뭐 노동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시부모에 대해서 예전에 공손하게 헐던 그런 부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10217 @ 예저네 어머니미 시어머니한때 아침 저녁그로 머 행동하시는 거나 또는 요즘 머느리가 어머님한테 하시능 거 하고는 썩 차이가 남미까?{예전에 어머님이 시어머니한테 아침 저녁으로 뭐 행동하시는 거나 또는 요즘 머느리가 어머님한테 하시능 것 하고는 썩 차이가 납니까?}

10217 #1 차이 나지요.{차이 나지요.}

10217 #1 예.{예.}

10217 @ 으깬 예저네 어뜨 시그로 차이 남는가 함 이야기 해 주이소.{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났는가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10217 @ 요즘, 그래야 우리가 알지요.{요즘, 그래야 우리가 알지요.}

10217 @ 그래요 저도 썩 알고, 더 잘하고.{그래야 저도 썩 알고, 더 잘하고.}

10217 @ 하 부 이야기 해주시지요.{한 번 이야기 해 주시지요.}

10217 #1 오세는 시집와도 머 여내 머그 저래 하지만, 옛날레는 시집오며 아침 사판드리고 머하고 머 오세르 그께 업짚니껴?{요새는 시집와도 뭐 바로 뭐 그 저래 하지만, 옛날에는 시집오면 아침 사판드리고 뭐하고 뭐 요새는 그께 없잖아요?}

10217 @ 늘 인사올리고?{늘 인사올리고?}

10217 #1 예.{예.}

10217 @ 아 그 한 먼년 정도까지 하셔썩미까, 그럼?{아 그 한 몇 년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그럼?}

10217 #1 머 오래사 해 내니껴?{뭐 오래야 해 냅니까?}

10217 #1 오래스 몬 하지.{오래야 못 하지.}

1.2.6. 회갑 잔치

10218 @ 그 어르신 그 회갑잔치와 관련해 함 번 이야기 나눌려고 합니다.{그 어르신, 그 회갑잔치와 관련해 한 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0218 @ 보통 그 만 예순:니 데며는 황갑잔치 하지 안습니까?{보통 그 만 예순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지 안습니까?}

10218 # 네.{예.}

10218 @ 그 황갑잔치는 보통 어떻게 함니까?{그 환갑잔치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10218 @ 잔치는 어떤 시그로 함니까?{잔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10218 # 황갑잔치는 그 저네 어른들 이레 하시능거 이 볼 때는 지베서 주로 마이 해끄 더~.{환갑잔치는 그 전에 어른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때는 집에서 주로 많이 했거든.}

10218 # 지베서 은제 참 음세글 고기사다가 그 음세글 해, 지베서 해 가지고 인제 동네 사람 또 어데 아는 사람인데 인제 이 참 열라글 해서 오시라 그레 가지고 함 다~일 이레 참 하루 먹고 이레 이레 놓고 이찌거 헐는데, 지금으년 바서는 지베 하는 사람 아무도 어꺼더 요.{집에서 인제 참 음식을, 고기 사다가 그 음식을 해, 집에서 해 가지고 인제 동네 사람, 또 어디 아는 사람에게 인제 연락을 해서 오시라 그레가지고 한 번 당일 이렇게 하루 먹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 것 저 것 했는데, 지금 바서는 집에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10218 # 나도 해가블 여서 안 하고, 아:드리 차 내 가지고 저어그 멀리 가 해싸요.{나도 회갑을 여기서 안 하고, 아이들이 차를 전세내가지고 저기 멀리 가서 했어요.}

10218 @ 마썸.{맞습니다.}

10218 @ 요즘 머 그 아드님드리 편하려고 하는 건 지, 양 그러며느 더 잘 할려고 하는 지느 모르게스미다마는 바께서 잘 이근 머 저나 누구나 할 꺼 어씨 요즘 사람들 그레 잘 하능거 가습다.{요즘 뭐 그 아드님들이 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더 잘 하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밖에서 잘, 이진 뭐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요즘 사람들 그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10218 # 예.{예.}

10218 # 예.{예.}

10218 # 예.{예.}

10218 # 알긴 머 또 수께 할, 또 그으또 그레 하면 도~이 드러 글치 수깁 습쥬요.{아 이게 뭐 쉽게 할, 또 그것도 그레 하면 돈이 들어서 그렇지, 쉽긴 쉽지요.}

10218 # 머 지비 으음식 안 장만치, 머 손님 머 그 딴 손니몬 양가고 머 우리 참 대수가 손님네 차 한 내 내가지고 인제 어데 멀리 가서 참 이레 하고 **. {뭐 집에서 음식 안 장만 하지, 뭐 손님 뭐 그, 다른 손님은 안 가고 뭐 우리 참 대소가 손님들 차 한 대 전세내가지고 인제 어디 멀리 가서 참 이렇게 하고 **.}

10219 @ 그으기 머 엘 드러 그런며느 예전네 지베 지반에서 해갑잔치를 하신며느 주로 음식근 누가 함니까?{저기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예전에 집에, 집안에서 회갑잔치를 하시면 주로 음식은 누가 합니까?}

10219 # 본지베서 해야지.{본집에서 해야지.}

10219 # 전부 해가지거.{전부 해가지고.}

10219 @ 그르머 아들드리?{그러면 아들이?}

10219 # 예예, 머 아들딸레 딸레들하고 머 대소가 마굼음 네가 올 쯤베서 네가 네가 해갑 잔치한다커머 올찌비 점부 다 와서 점부 음서글 하고 다 그레 해.{예예, 뭐 아들 딸네, 딸네 들하고 뭐, 대소가 마구,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내가 회갑잔치한다고 하면 우리집에 전부 다 와서 전부 음식을 하고 다 그레 했어요.}

10218 @ 그으므 해갑잔치 때 보통 초대하는 그런 머 일가 친척은 어디까지 보통 보통 모심니까?{그러면 회갑잔치 때 보통 초대하는 그런 뭐 일가 친척은 어디까지 보통 보통 모십니까?}

10218 @ 오시러칼 때.{오시라고 할 때.}

10218 # 아 머 일가 친척은 머 물로~이고, 또 청구라든지, 또 알 만한데 암만 머러도, 머 디라도 안 사람 이시면, 오늘 내가 그레 하얌 놀러오라꼬 또 이 청아가지고, 그레므 또 다 와요.{아 뭐 일가 친척은 뭐 물론이고, 또 친구라든지, 또 알 만한 데 아무리 멀어도, 멀더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내가 그렇게 해서 놀러 오라고 또 이 청해 가지고, 그러면 또 다 와요.}

10218 # 우 와서 와서 은제 저레가주 가치 놀고.{우 와서 와서 인제 저래 가지고 같이 놀고.}

10219 @ 회갑 머 그 예저네 해갑잔치하머는 주로 회갑상을 차림니까?{회갑 뭐 그 예전에 회갑잔치하면 주로 회갑상을 차립니까?}

10219 @ 아들레드리?{아들네들이?}

10219 # 예, 글치여.{예, 그렇지요.}

10219 # 스 상을 체레지요.{상을 차리지요.}

10219 @ 상은 어떤 시그로 차림니까?{상은 어떤 식으로 차립니까?}

10219 # 보통?{보통?}

10219 # 상으는 머 주로 은제 이 초네'는 떡, 이 시르떠글 해가지고 인제 다머서 하곡, 과일 일절, 그릉그 하고 은제, 해서 내 망흔, 내가 은제 해갑한다 그믄 네 아페다 사~을 차리 노코 저어가 날 보고 은저 술 한잔스 버 노코, 절로 떠 아들레 딸레든지 누 가까운 사라믄 저를 함븐스 다 다 하고, 그레 하고는 은제 동네 사라미든지 누간 인 이우스 머 저 멀레서 손니미라든지 글텐 은제 한테 마다~서 참:: 피노코, 인제 술하고 이 나누고, 그 또 머 점두 러 머꼬는, 저데로 은제 또 진풍물 가따노코 은제 뚜들고 마구 놀겔 그레하지요.{상은 뭐 주로 인제 이 촌에는 떡, 이 시루떡을 해가지고 인제 담아서 하고, 과일 일체, 그런 것을 하고 인제, 해서 내 마음은, 내가 인제 회갑한다고 그러면 내 앞에다 상을 차려 놓고 저희가 나를 보고 인제 술 한 잔씩 부어 놓고 절을 또 아들네 딸네든지, 누구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절을 한 번씩 다 다 하고, 그렇게 하고는 인제 동네 사람이든지 누가 이웃이, 뭐 저 멀리서 온 손님이라든지, 그 때는 인제 바깥, 마당에서 참 퍼 놓고 인제 술하고 나누고, 그 것 또 이 뭐 종일 먹고는, 저희대로 인제 또 풍물을 갖다 놓고 인제 두드리고 마구 놀고, 그렇게 하지요.}

10219 [x흐글 네서요x].{[x흥을 냈어요x].}

10219 @ 그 상 해갑상은 그러머는 아까 말씀하신 데로 언제 아침 즈으메 아침메 함미까, 언제 보통 상 차리므 언제 함미까?{그 상, 회갑상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아침 짬, 아침메 함미까, 언제 보통 상 차림을 언제 합니까?}

10219 # 아침메 해찌요.{아침메 했지요.}

10219 # 아 아침 머꼬 아침 머꼬 은제 손님들 처해노음 은젼 아 거이 와따 시프모 은제 그 체리노콘 그레 하고는 그 사~을 네다가 인제 가치 인제.{아 아침을 먹고 아침을 먹고 인제 손님들 청해놓으면 인제, 아 거의 왔다 싶으면 인제, 그 차려 놓고, 그렇게 하고는 그 상을 내다가 인제 같이 인제.}

10218 @ 그: 그 보통 해갑상 차리나노코 저른 머 며뻔함미까?{그 그 보통 회갑상 차려 놓고 절은 뭐 몇 번합니까?}

10218 # 함 분.{한 번.}

10218 #1 투 뿌, 투 분 아이라, 함버이라?{두 번, 두 번 아니야, 한 번이야?}

10218 # 아이라, 함 분쓰기라.{아니야, 한 번씩이야.}

10218 # 함 분씩하지.{한 번씩하지.}

10218 #1 함 분쓰기지.{한 번씩이지.}

10218 @ 함분식 함미까? 예 {한번씩 합니까,예}

10219 @ 그러며느 그 아까 해갑상 그 음식뜨른 주로 머 아들레나 딸레드리 하는데, 보통 머 어떻 거 마니 함미까?{그러면 그 아까 회갑상 그 음식들은 주로 뭐 아들레나 딸네들이 하는데, 보통 뭐 어떤 것을 많이 합니까?}

10219 @ 해서 나누어 드شم미까?{어떤 것을 해서 나누어 드شم니까?}

10219 # 어 머 여 바서는 고마 제사, 제사지낼 때 그 상 체리드시 일 과일, 과이라 등 머 일절, 머 적 부치등가, 그럼 짐 머 제사상 가치 똑가테.{어 뭐 여기를 봐서는 고만 제사, 제사지낼 때 그 상 차리듯이 과일, 과일이라든지 뭐 일체, 뭐 적을 부치등가, 그러면 지금 뭐 제사상 같이 똑같아요.}

10219 # 그레 인제 체리 노코 저레 하고.{그레 인제 차려 놓고 저렇게 하고.}

10219 @ 머 떡 쫄뉴도 하고?{뭐 떡 쫄뉴도 하고?}

10219 # 예아, 떠그인 물론 머 떠근 아주 고마 참 필히 또 해야데고.{예, 떡은 물론 뭐, 떡은 아주 고만 참 반드시 또 해야 되고.}

10219 @ 머 또 혹시 머 예전네느 그러며느 주로 밥 가튼 거느 머로 제접함미까?{뭐 또 혹시 뭐 예전에는 그러면 주로 밥 같은 것은 무엇으로 대접합니까?}

10219 # 아 지그른, 지금이사 오세 기양 사이 밥 하지만 글때도 맹 저게래요.{아 지그른, 지금이야 요사이 그냥 사니까 밥을 하지만 그 때도 역시 저것이에요.}

10219 #1 바브는 머.{밥은 뭐.}

10219 # 국수라요, 국수수 **. {국수예요, 국수 **.}

10219 # 정שמ할 때는 은저 저르 은저 국수로 해고, 양 그러면 인는 사라므는 바블 해서 머 참 소머리라도 한 데이기 사다가 파 가주고, 그거 은제 국하고 은제 이제 바블 주로 이헨다 고.{점שמ할 때는 인제 주로 인제 국수를 하고, 안 그러면 있는 사람은 밥을 해서 뭐 참 소머리라도 한 덩이 사다가 고아서 주고, 그 것을 인제 국하고 인제 이제 밥을 주로 이랬다 고.}

10218 @ 그 요즈믄 그러며는 지베서 해갑 하시는 분드른 잘 업שמ미까?{그 요즘은 그러면 집에서 회갑 하시는 분들은 잘 없שמ니까?}

10218 #1 업श्य요.{없어요.}

10218 # 요시는 또 해갑또 하는 사람 어꼬, 주로 고마 칠수늘 마이, 마이 하지.{요새는 또 회갑도 하는 사람이 없고, 주로 고만 칠순을 많이 많이 하지.}

10218 @ 칠순, 그거또 머 지바네서 잘 안하고?{칠순, 그것도 뭐 집안에서 잘 안하고?}

10218 # 오버쭈언 머야 아나고, 어 고마 하더 하면 은제 식파~아 가이 하든지, 앙 그레머 어데 어여 참 아:들 마꺼 머 하기가 귀차나 그른지 즈거 돈 내가지고 고머 두리 어텔 보내 뿌든지.{요즘에는 뭐야, 안 하고, 어 고만 하면 인제 식당에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참 아이들이 모두 뭐 하기기 귀찮아서 그런지 저희 돈을 내가지고 고만 둘을 어디에 보내 버리든지.}

10218 # 으디 놀러 가따 오라카고.{어디 놀러 갔다 오라고 하고.}

10218 # 그른 수가, 예.{그런 경우가, 예.}

10218 @ 머 어르시느 뭐 그 예전처럼 회가블 지베서 이래 머 어른들 또는 아는 일가 친척 뜰 모아서 회갑잔치 하능게 조습미까, 앙가며 요즘 방식때로 머 그냥 어디 가서 하능게 나 스미까?{뭐 어르신은 뭐 그 예전처럼 회갑을 집에서 이렇게 뭐 어른들 또는 일가 친척들 모아서 회갑잔치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그러면 요즘 방식대로 뭐 그냥 어디 가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10218 # 아이 하 지금 네어이 나는 바서는 아드리 힘드이까 차라리 고마 헤가븐 동 가주고 차 한 대 내가이 가능게 가며 가마 안 자시믄 그 동마 주믄 다 해 들라주고 가는데 그게 조흐끄때.{아 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힘드니까 차라리 고만 회갑은 돈 가지고 차 한 대 전세 내가지고 가는 것이, 가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돈만 주면 다 해서 들여다주고 가는데, 그것이 좋을 것 같아.}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0 @ 어 므 또 그 인제 그 사라미 인제 도라가시며느 그 주로 장네를 치르게 데는데, 그 무어 지여게 따라서 이 장네가 조금씩 다르기 때무네 함 분 여쭈어 봄미다.{어 뭐 또 그 인제 그 사람이 인제 돌아가시면 그 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뭐 지역에 따라서 이 장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봄니다.}

10220 @ 그래서 음 그 어르신 이 동네에서 장네 치를 때 어떤 시그로 헤 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함 여쭈어 보게씀미다.{그래서 음 그 어르신 이 동네에서 장례 치를 때, 어떤 식으로 해왔는 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0220 @ 그래서 그 우리 옛날에 보통 어른드리 이거 초상의 나머느 보통 그 어 머 초상나고 나서 어떤 시그로 스 함미까?{그래서 그 우리 옛날에 보통 어른들이 이거 초상이 나면, 보통 그 어 뭐 초상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함니까?}

10220 예를 드려 사람미 수물 거두고 나면 머 바로 하능게 머 함미까?{예를 들어 사람이 숨을 거두고 나면, 뭐 바로 하는 것이, 뭐 함니까?}

10220 # 지그미나 머 그 저니나 멍 가찌 시폰데, 그 사라미, 아 어른들 참 도라가시든동 하믄, 보이까 우리는 그글 모르는데, 이 참 아는 사라므는 그 머 이 무조끈 마구 우름내 가주, 주거따꼬 막 우름 내 가이 우능 거또 아이고, 거서 또 한 사람 멀 머 헤가지고 머 불러가주고 초온부르고 머 불러가주고 그거 다 헤노코는, 글때는 이제 곡소리 네고 우라꼬, 그레 그레 하더우만 그아 보~이.{지금이나 뭐 그 전이나 역시 같지 싶은데, 그 사람이, 아 어른들 참 돌아가시든지 하면 보니까 우리는 그 것을 모르는데, 이 참 아는 사람은 그 뭐 이 무조건 마구 울음을 내가지고, 죽었다고 막 울음 내가지고 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한

사람 뭘 뭐 해가지고 뭐 불러가지고 초혼을 부르고 뭐 불러가지고 그 것을 다 해놓고는 그때는 이제 곡소리를 내고 울으라고, 그래 그래 하더구만, 가만 보니까.}

10220 @ 그러며느 예를 드려서 인제 그 보통:: 그 이 마으레서는 그러케, 예를 드려서 어 또 누가 도라가시며느, 상 나면 누가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하고 알려주시는 부니 이썸미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그 보통 그 이 마을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 또 누가 돌아가시면, 상 나면 누가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하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10220 # 다 글때는 여 다 이산는데, 지그르는 보이 머 그 어른, 그런 어른들 다 도라가시고 업서.{다 그 때는 여기 다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그 어른, 그런 어른들 다 다 돌아가시고 없어.}

10220 # 그러니까 오세는 지그를 바서는 머 아프니까 지비서 중는 사람 별로 엄는 거테요.{그러니까 요사이는, 지금으로 봐서는 뭐 아프니까 집에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0220 @ 병어네 가이.{병원에 가니까.}

10220 # 예.{예.}

10220 # 그르이 오세 초네 머 뜨급찌, 머 방, 지비 소지, 이레이까 고마 주로 이 병워네로, 오세 대략 바서는 병워네 가요.{그러니까 요사이 촌에 뭐 뜨겁지, 뭐 방, 집이 좁지, 이러니까 고만 주로 이 병원으로, 요새 대략 보면 병원에 가요.}

10220 # 지비서 중는 사람 별로 엄는 거테.{집에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10220 @ 그 장이사드리 요즈믄.{그 장의사들이 요즘은.}

10220 # 예예, 머 거서 먼 먼 머 ? 다 다해주이까.{예예, 뭐 거기서 뭐 뭐 뭐 뭐 다 다 해주니까.}

10220 @ 그 보통 그 혹시 금 어 인제 어르, 누가, 머 엄 머 보통 우리 사능 그른데도 보며너, 어른 도라가시고 나며너, 머 바로 처으메 머 어른 입쁜 옷하고, 이령걸 머 지붕이나 이룬데 올리고 하는데, 여기도 함미까?{그 보통 그 혹시 그 인제 어른, 누가 뭐 뭐 보통 우리 사는 그런 데도 보면, 어른 돌아가시고 나면, 뭐 바로 처음에 뭐 어른 입던 옷하고, 이런 것을 뭐 지붕이나 이런 데 올리고 하는데, 여기도 함니까?}

10220 # 예예예예, 야 여기, 미, 여도 맹 맹 그래 [X합니다X].{예예예예, 아 여기, 역시, 여기도 역시 역시 그렇게 [x합니다x].}

10220 @ 어떠케 함미까?{어떻게 함니까?}

10220 # 그래 은제 그케 은제 그걸 아는 사람, 그거 머가, 초오잉가 그거 불려야 데요.{그래 인제 그러게 인제 그것을 아는 사람, 그거 뭐가, 초혼인가 그거 불려야 되요.}

10220 # 여게 호슬 언젤라카면, 예.{여기에 옷을 얹으려고 하면, 예.}

10220 @ 호늘, 초혼?{혼을, 초혼?}

10220 # 예, 그 불려, 부르머 은제 오슬 영꼬, 오슬 언저노코 은제 글때 바~아 드려와서 은제 머 고글하고 저 울고 인 마저.{예, 그 불려, 부르면 인제 옷을 얹고 옷을 얹어 놓고 인제 그 때 방에 들어와서 인제 뭐 곡을 하고, 저 울고 인제, 맞아.}

10220 @ 그으는 그는 ** ** *.{그것은 그것은 ** ** *}.

10220 @ 그양 움마 언썸미까 그때느?{어 그러면 옷만 얹습니까, 그때는?}

10220 # 예, 움마 언저찌요.{예, 옷만 얹었지요.}

10220 @ 머 혹시 머 다롱거는, 머 머 혹시 머 상이나 이렇거 차리가 길모기나 이룬데 가따 노코, 그롱건 업스미까?{뭐 혹시 뭐 다른 것은, 뭐 뭐 혹시 뭐 상이나 이런 것을 차려서

길목이나 이런 곳에 갖다 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10220 # 안주 그 그릉건 [x아나고x].{아직 그 그런 것은 [x안 하고x].}

10220 # 머 가고 아침 저녁으로 때가 데른 그 참 상하고 ,은제 머 뭉는테로 가따 체리노코
은제 그 또 고글하고 그레짜.{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때가 되면 그 참 상하고 인제, 뭐
먹는 테로 갖다 차려 놓고 인제, 그 또 곡을 하고 그랬지.}

10220 @ 그르며는 그기 에 인제 그 도러가시고 그 여:플하진 안썸미까?{그러면 거기 인제
그 돌아가시고 그 염을 하지 않습니까?}

10220 # 예.{예.}

10220 @ 그 염물 할 때너, 그 염문 부 보통 머 어떤 시그로 하는, 어떤 시그로 함미까?
{그 염을 할 때는, 그 염은 보통 뭐 어떤 식으로 하는 어떤 식으로 함니까?}

10220 # 여프는 저:기 주로 은제 베로 가주 하자네요, 베.{염은 저기 주로 인제 베를 가지
고 하잖아요, 베.}

10220 # 베가 그게 열두 자 전다, 그 자 열 두자.{베가 그게 열두 자 든다, 그 자 열두
자.}

10220 # 마지르 해가주 영꼬, 일곱무께미로 무꺼이 데이.{마름질을 해 가지고 엮고, 일곱
뭉음으로 묶어야 돼.}

10220 # 일곱 무께이로, 멍 그거 머 여, 안주까지 여그는 지베서 하만 멍 그레 하는데.{일
곱 뭉음으로, 역시 그거 뭐 여기, 아직까지 여기는 집에서 하면 역시 그렇게 하는데.}

10220 # 그레 해해 가주고 은제 참 은젠.{그레 해 가지고 인제 참 인제.}

10220 # 과 가네 여코, 이레 헨는데.{곽 안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

10220 @ 그르며너 예를 드려 염하고, 머 소렴하고, 그럼 그 염물해서 과가네 너으면, 인제
대렴므 입관하자나예?{그러면 예를 들어 염하고 뭐 소렴하고 그 염을 해서 곽안에 넣으면,
인제 대렴을, 입관하잖아요?}

10220 # 예예예, 마저요, **. {예예예, 맞아요, 입관.}

10220 @ 그러면 익 이칸 하고 나며너 으 그 상보근 언제 입슴미까?{그러면 입관 하고 나
면 그 상복은 언제 입습니까?}

10220 # 상보그는 그.{상복은 그.}

10220 #1 주우 추흔 부리모 입짤나?{저거 초흔 부르면 입잖아?}

10220 # 그 추운, 그 추흔 부리고, 초흔 부리고 인제 고 갈 때는 글땡 은제 아 한 짹, 윈
짜, 아 이자브란네.{그 초흔, 그 초흔 부르고, 초흔 부르고 인제 곡 할 때는, 그 때는 인제
아 한 쪽, 윈 쪽, 아 잊어버렸네.}

10220 # 윈짜긴동, 이거 한짜네 소매를 양끼고, 기양 이래 메고, 글땡 은제 아 그 그를 쓰
고, 은저 고글.{왼쪽인지, 이 것 한 쪽에는 소매를 안 끼고, 그냥 이렇게 매고, 그 때 인제
그 건을 쓰고, 인제 곡을.}

10220 @ 그어며느 으 완저니 그럼 이러 오스 다임블 땡 은제?{그러면 완전히 그럼 이렇게
옷을 다 입을 때는 언제?}

10220 # 다 이블 때는 인제 과게 여어가지고 완전 저레 헤어 해뿌고느 은제.{다 입을 때는
인제 곽에 넣어 가지고 완전 저렇게 해버리고는 인제.}

10220 @ 아 그럼 인제 관아네 너어 가즈고 입관하고 난 다으메 은제 오 오슬 입꼬.{아,
그럼 인제 관 안에 넣어 가지고 입관하고 난 다음에 인제 옷을 입고.}

10220 # 예예, 글치요. 오슬 은제 이꼬.{예예, 그렇지요. 옷을 인제 입고.}

10220 @ 그때 인제 제사 지네미까?{그 때 인제 제사 지넬니까?}

10220 # 안주.{아직.}

10220 # 글때 나이 제사 안지네오, 안지네고 은제, 아 통을 올린다 그지, 인제 베께, 바~ 아는, 나를 추우문 모지마는 더블 뎨 은제 주로 은제 입관해 가주 인제 배께 내, 나간다무, 나가면 바~ 은제 상을 चे리 노코, 바~을 사~을 चे리 노코 은제 오 손님, 오는 손님 바다야 데그더~{그 뎨 아직 제사를 안 지내고, 안 지내고 인제, 아 통을 올린다고 하지, 인제 밖에, 방에는, 날이 추우면 모르지만 더울 때는 인제 주로 인제 입관해 가지고 인제 밖에 내서, 나간 다음 나가면 방에 인제 상을 차려 놓고, 방에 상을 차려 놓고 인제 손님, 오는 손님 받아야 되거든.}

10220 @ 조문 바꼬?{조문을 받고?}

10220 # 예예, 그래 그래 해찌.{예예, 그래 그래 했지.}

10220 @ 그 다오메, 그르 가 보통, 그르 인제 저 빈소 차려나 노코 어 조문도 바꼬, 그르 케 하고 은제, 함며너 보통 그 바린은 한 언제 함미까?{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보통, 그래 인제 저 빈소를 차려놓아 놓고 조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인제, 하면은 보통 그 발인은 언제 합니까?}

10220 @ 함 며치?{한 며칠?}

10220 # 아 며 바른카능 거는 그 은제 사밀짜이든지, 며 며 아주 오일짜~, 은제 으 그 장사 그안 나간: 나리, 나간 날 은제 발헌, 네.{아, 며 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제 삼일장이 든지, 뭐 뭐 아주 오일장, 인제 그 장사가 나가는 날이, 나가는 날이 인제 발인, 예.}

10220 @ 보통 여기는 메칠 장을 함미까, 보통?{보통 여기는 몇일 장을 합니까, 보통?}

10220 #1 오세사 다 사밀짜이지 머요.{요즘이야 다 삼일장이지 뭐요.}

10220 @ 예저네너여?{예전에는요?}

10220 #1 예저네너 오일짱 며 치릴짱 해꼬.{예전에는 오일장 뭐 칠일장 했고.}

10220 # 며 오일짱, 치릴짱꺼즘 하고 며.{뭐 오일장, 칠일장까지 하고.}

10220 @ 예저느 사밀짜은 아 해션?{예전에는 삼일장은 안 했었습니까?}

10220 #1 아 해찌여. 옛날 사미짜이라곤 업서써.{안 했지요. 옛날에 삼일장이라고는 없었어.}

10220 # 참 사밀짜는 [x업서써x].{참 삼일장은 없었지.}

10220 @ 예저네 어르신 시어머니나 그저네 그 어르신들 하실 뎨 거이 오일, 짬바도 오일 짱임미까?{예전에 어르신 시어머니나 그전에 그 어르신들 하실 뎨, 거의 오일, 짬바도 오일 장입니까?}

10220 #1 예, 이 마제요.{예 맞아요.}

10220 @ 그 그럼며너 인제 그 바린늘 하는데, 이 예를 드려서 그 바린제는 어디서 보통 지넬미까?{그러면은 인제 발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발인제는 어디서 보통 지넬니까?}

10220 # 바린제는 인제 예아.{발인제는 인제.}

10220 #1 으음사 뜰 췌 바린제 아이라?{음사 뜰 때 (+ 지내는 것이) 발인제 아니야?}

10220 # 그 인 행사 은제 꾸며 노코, 그 은제 그 지믈 다 메 노코, 은제 웅가글 더플 뎨 한 짜글 안 더꼬, 인제으 발헌제사 지내고, 글때 인제 인제 마저 접 더퍼 가주오 은제 참 즈물 머실해 가주어 은제.{그 인제 행상을 인제 꾸며 놓고, 그 인제 그 짐을 다 매어 놓고, 인제 운구할 관을 덮을 때 한 쪽을 안 덮고, 인제 발인제사 지내고, 그 때 인제 인제 마저 덮어 가지고 인제 참 짐을 챙겨서 가지고 인제.}

10220 @ 그럼머느 인제 바린해 가주고 으 장지로 앙 감미까, 그지예?{그러면은 인제 발인 해 가지고 인제 장지로 안 갑니까, 그렇지요?}

10220 @ 그러머너 장지:: 가기 정까지 이 머 보통 상여메고 인제 이래 가는데, 여기도 상여메지예?{그러면은 장지 가기 전까지 뭐 보통 상여 메고, 인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도 상여메지요?}

10220 # 예, 상여 메.{예, 상여 메지요.}

10220 @ 그얼머너 갈 똥아네도 머 그 쓰 은제 그이 가서 검, 장지에 가스너 머 주로 어떤 시그로 업 그 매장까지 함미꺼?{그러면은 가는 동안에도 뭐, 인제 거기 가서 그럼, 장지에 가서는 뭐 주로 어떤 식으로 매장까지 합니까?}

10220 # 인제 사네 가서는 이 오세 주로 코꾸레 다 쓰는데 글때는 머 코꾸레 올 때는 우 일러글 다 헐는데 요는 코그레인 가머 하마 어즈꾼 다 해나따고 코꾸레 하기 때메.{인제 산에 가서는, 요사이 주로 포클레인 다 쓰는데, 그 때는 뭐 포클레인 올 때는 우리 인력으로 다 했는데, 요새는 포클레인 가면 벌써 어쨌든 다 해 났다고, 포클레인이 하기 때문에.}

10220 # 가머 은제 그 시가 이서 머 열 뚜시라등강 열 시라등강.{가면 인제 그 시가 있어, 뭐 열두 시라든가 열 시라든가.}

10220 # 그 시가 은제 데므 은제 글때는 지물 다 풀고 은제 그 은제 화간 이 하고, 예.{그 시가 인제 되면 인제 그 때는 짐을 다 풀고 인제 그 인제 하관을 이렇게 하고, 예.}

10220 @ 그럼머느 그 하관하기 위해서 그 머 묘를, 터를 자꼬 하고, 이렇거는 주로 누가 함미까?{그러면은 그 하관하기 위해서 그 뭐 묘를, 터를 잡고 하는 이런 것은 주로 누가 합니까?}

10220 # 으 지과~이라고 은제 풍수지요.{어 지관이라고 인제 풍수이지요.}

10220 # 풍수가 은제 점부 다.{지관이 인제 전부 다.}

10220 @ 검 인제 풍수는 누구 모셔와야 데는데,{그럼 이제 지관은 누가 모셔와야 되는 데,}

10220 # 글치, 우리가 사와야지.{그렇지, 우리가 사와야지.}

10220 @ 예, 혹시 인제 인제 머 제가 상주다 그러머느 상주가 할기느, 뜨 장 머 사네 산소가 어디에 하랄고너 이야기 할 수 이찌마너 모까본다 아님미까?{예, 혹시 인제 인제 뭐 제가 상주다 그러면은 상주가 말하기는, 뭐 산에 산소를 어디에 하랄고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 못 가보지 않습니까?}

10220 @ 그릉 거는 누가?{그런 것은 누가?}

10220 @ 머 터 가서, 지 풍수 데리고 가서, 아 일하고 그릉근 누가 함미까?{뭐 터 가서, 지관을 데리고 가서, 일하고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10220 @ 시키는 사람, 풍수한테 시키는 사람 누가 함미까?{시키는 사람, 지관한테 시키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10220 # 그건 인제 상주가 하나이라도, 오새 보섬 머 지금 아들 머 하나베꼬 안 노~니, 머 하나라도 그 상주로 데루 가예지.{그건 인제 상주가 하나라도, 요사이 봐요 뭐 지금 아들 뭐 하나밖에 안 놓으니, 뭐 하나라도 그 상주를 데리고 가야지.}

10220 # 이 자리가 조우나, 안 데수나 상주가 그글, 그 인네 그 맘 마으미 이서야 데그더.{이 자리가 좋은가, 안 좋은가 상주가 그것을,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10220 # 그 상주를 데루 가서 인제 그 터를 비에코, 보고 여 조타 그머 은제 거서 은제 그 ***.{그 상주를 데리고 가서 인제 그 터를 보여주고, 보고 여기가 좋다고 하면 인제 거기서

인제 그 ***.}

10220 @ 터는 그러며는 보통 도러가시기 저네 어르시니 자바 노썽미까, 앙 그러며는 도러가시고 나서 아들레드리 잡슴미까?{터는 그러면은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어르신이 잡아 놓습니까, 안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네들이 잡습니까?}

10220 # 그런데 그 저네는 트를 안 자꼬 운젠제 도라가서야 도러가시믄 이 서 사네 갈, 가이텔 파~이, 도러가시므 인제 그그 가 가? 잡쪄요.{그런데 그 전에는 터를 안 잡고 언제든 지 돌아가셔야, 돌아가시면 산에 갈, 가야될 판이니, 돌아가시면 인제 그 가 가지고 잡쪄요.}

10220 # 지그믄 앙 글치만.{지금은 안 그렇지만.}

10220 # 지그믄 다 터를 사 노코, 바치라 사 노코, 지금 저레 하지만, 글때는 주거야 인제 그 사네 가서 은제 터를 어데가 데노 카며, 글때는 상주가 피리 따라 가이데쥬.{지금은 다 터를 사 놓고, 밭이라도 사 놓고,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그 때는 죽어야 인제 그 산에 가서 인제 터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 때는 상주가 반드시 따라 가야 되쪄요.}

10220 # 마상주 안 가드면 둘째 상주 가든 가네 접 피리 따르 가서 은제 보고 ***.{만상주가 안 가게 되면 둘째 상주가 가든지 간에 반드시 따라 가서 인제 보고 ***.}

10220 @ 그 그래서 그러며는 인제, 예 그러서 그 그기 가서 은제 묘를 인제 하과늘, 시르, 하관 시 시가늘 자버 가주고 풍수 하예 인제 하강하지 안썸미까?{그래서 그러면은 인제, 그래서 거기 가서 인제 묘를 인제 하관을, 시를, 하관 시간을 잡아 가지고 지관의 지시에 따라 인제 하관하지 안썸니까?}

10220 @ 하간할 때느 그 머 주로 어뜨케 함미까, 하관은?{하관할 때는 뭐 주로 어떻게 함니까, 하관은?}

10220 # 화가는 씨 대씨믄, 화가는 꼬 은제 다 해 가주고, 그 은제 마상주가 그 상오설 이래 해 가주고 누 흘글 뜨브 떠 버어쥬, 세 분.{하관은 시가 되었으면, 하관은 그 인제 다 해 가지고, 그 인제 만상주가 그 상복을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흙을 떠 부어쥬, 세 번.}

10220 # 그레 취토.{그레 취토.}

10220 # 또 떠 버 줌 취이또, 취또, 인제 세 분 하고, 그레고는 쥬 머 코쿠레이가 은제 저레 할라 **.{또 떠 부어 주면 취토, 취토, 인제 세 번 하고, 그레고는 인제 뭐 포클레인이 인제 저렇게 하고 **.}

10220 @ 만상주 말고 다른 머 상주는 아남미까?{만상주 말고 다른 뭐 상주는 안 합니까?}

10220 # 마상주가 그, 피리, 여 보이까, 마상주가 하는데, 마상주 업씨면 머 머 두째상주러도 하고 머.{만상주가 가, 반드시, 여기 보니까, 만상주가 하는데, 만상주가 없으면 뭐 뭐 둘째 상주라도 하고 뭐.}

10220 @ 아 마상쥬 웨 이쓰며는 다른 상주르 아나고, 마상주마 하고?{아 만상주가 있으면은 다른 상주는 안 하고, 만상주만 하고?}

10220 # 마저, 암, 머, 예, * **.{맞아, 암, 뭐, 예, * **.}

10220 @ 금 예를 드르서 그 하관할 때 이 동네는 어뜨케 관까지 가치 하간함미까, 앙 그러며는 이 그거 엄 헨는 고 시신만 함미까?{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관할 때 이 동네는 어떻게 관까지 같이 하관합니까, 안 그러면은 엄을 했는 그 시신만 합니까?}

10220 # 그으는 머 거 저 걸 그 지베 따러서, 그 지비가 머, 앙 그러믄 그 가서 은제 이과늘 다 빼뿌고, 초석짜리, 초성, 옌나르 초석, 와 왕거자리 그거 하나 피고 그양 운 사암이꼬, 대략 고마 관 쟈로 기양 ***.{그것은 뭐 그 집에 따라서, 그 집이 뭐, 안 그러면 거기

가서 인제 이 관을 다 빼 버리고, 초석자리, 초석, 옛날에 초석, 왕골자리, 그거 하나를 펴고 그냥 묻는 사람 있고, 대략 고만 관채로 그냥 ***.}

10220 @ 이 근처에는 주로 관하고 가치 그 화과를 하느 그는 방시기다, 그지예?{이 근처에는 주로 관하고 같이 하관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지요?}

10220 # 예, 네, 마저, 예, 예.{예, 예, 맞아, 예, 예.}

10220 @ 거며 예르 드러서 인제 어 하관하고 나며느 그 봉분을 만들지예, 그지예?{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하관하고 나면 봉분을 만들지요, 그렇지요?}

10220 # 예.{예.}

10220 @ 검 봉분 만들고 나서 어 상주드른 그림 머 하가나고 바로 도라옴미까, 앙 그람머 언제쯤 도루옴미까?{그럼 봉분 만들고 나서 상주들은 그림 뭐 하관하고 바로 돌아옴니까, 안 그러면 언제쯤 돌아옴니까?}

10220 # 그그 인제{그거 인제}

10220 @ 장지에서 일로 지베 드를 때느?{장지에서 이리로 집에 들어올 때는?}

10220 # 화간, 화간 해 뿌고는 저따 상을 따로 चे르나 저그가 한 짜게.{하관, 하관 해 버리고는 저기다 또 상을 따로 차려놔, 자기들이 한 쪽에.}

10220 # चे르노콘 은제 또 지베서 아 온 손님 사네도 마이 올그든.{차려 놓고 인제 또 집에서 안 온 손님 산에도 많이 오거든.}

10220 # 그 인제 손님 빠끼 왜슨 글 또 상을 चे려 노코 상주는 거 가 거 가 이꼬.{그 인제 손님 받기 위해서 또 상을 차려 놓고 상주는 거기 가 있고.}

10220 # 그 은제 들구려 이찌, 들구?{그 인제 달구라고 있지, 달구?}

10220 # 들구로 보며, 대략 보른 세 세 분, 세 चे르 찢는데, 들구 찢을 때 인제, 그 미게는 사라미 상주르 차즈른 그 상주 그 이따가 여 와서 은제 고글 하고 머 다르 얼마도 이레 척 내 노코 음, 예, 그래 헨너더.{달구로 보면, 대략 보면 세 번, 세 차례 찢는데, 달구 찢을 때 인제, 그 메기는 사람이 상주를 찾으면 상주가 거기 있다가 여기 와서 인제 곡을 하고 뭐 다만 얼마라도 척 내 놓고 음, 예, 그래 했어요.}

10220 @ 그어른 글 또 인제 하관하고 발, 바로 더르오심미까?{그러면 인제 하관하고 바로 돌아오십니까?}

10220 # 아이지요.{아니지요.}

10220 # 그그 은제 완저~이.{그거 인제 완전히.}

10220 @ 봉분 다 데야?{봉분이 다 돼야?}

10220 # 예.{예.}

10220 # 다 마쳐야.{다 마쳐야.}

10220 # 보고 은제 상주간 또 이레 도르보고 어디 미심다와 인테 이시른 여그 쫘 미시따 따 여 쫘 더 해 다, 보고 머 팬차늘 마느른 아으 데따.{보고 인제 상주가 또 이레 돌아보고 어디 미진하다 싶은 곳이 있으면 여기 좀 미진하다 여기 좀 더 해다오, 보고 뭐 팬창을 만하면 아이고 됐다.}

10220 # 그래 데고 인제 그 이라는 사암도 다 치우고 은제 글떼느 은저으 그어서 은제 또 평토라꼬 이서요.{그렇게 되고 인제 그 일하는 사람도 다 치우고 인제 그 때는 인제 거기서 인제 또 평토라고 있어요.}

10220 # 팽토.{팽토.}

10220 # 평토 제사.{평토 제사.}

10220 @ 그람 평토, 그 봉분 만드려 노코?{그럼 평토, 그 봉분 만들어 놓고?}

10220 # 예, 다 해노코.{예, 다 해놓고.}

10220 # 다 해노코 인제 근 편토을 지네고 지네고는 은제 상주는 지비로 은제 다 와이 데 지.{다 해놓고 인제 그 평토를 지내고, 지내고는 인제 상주는 집으로 인제 다 와야 되지.}

10220 # 다 오꾸고.{다 올 것이고.}

10220 # 그른제 그 또 동군드른 그으스 그 또 음식, 그으 그 그 근 평토 지넨 그 그근 또 가마 고대:로 나두고 간다마리.{그런데 또 동네일꾼들은 거기서 또 음식, 그 평토 지넨 그 것은(음식은) 또 가만히 그대로 놔두고 간단 말이야.}

10220 # 그레이또 그 이라는 사암드리 그어 즈 그어 한참 시이르 또 먹 꼬 머 글지 인제. {그렇게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 한참 쉬면 또 먹고 그러지 인제.}

10220 @ 아, 그엄 그 일단 평토제 지내기 정까지는 어 상주드른 거기 이써야 텐다, 그지 예?{아, 그럼 일단 평토제 지내기 전까지는 상주들은 거기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10220 # 예, 사무이, 사무 이래지.{예, 사뭇, 사뭇 있어야지.}

10220 @ 그아르 여기느, 이 동네느 그럼머느, 어 장네할 때, 바린하는 날 어 바깥상주만 장지에까지 감미까, 앙 가마 안상주도 다 감미까?{그러면 여기는, 이 동네는 그러면은, 장례 할 때, 발인하는 날 바깥상주만 장지까지 감미까, 안 그러면 안상주도 다 감미까.}

10220 @ 자, 그러이까 산소에까지?{장지, 그러니까 산소까지?}

10220 # 지금 야야, 그 저네는, 옴나렌 앙 간는데, 바깥상주만 점부 다 가는데, 지그른 안상주 다 가는 기여.{지금, 그 전에는, 옛날에는 안 갔는데, 바깥상주만 전부 다 갔는데, 지금은 안상주도 다 가는거야.}

10220 # 왜냐그른 지비서 이그 이그, 정심, 이글 사네 가 이라삼 정슴 해조이 데거던.{왜냐 하면 집에서 이거, 점심, 이걸 산에 가서 일하는 사람 점심을 해 줘야 되거든.}

10220 # 정서를 점부 아나간 점부 다 씨게다 명는다 마리.{점심을 전부 안 하고 전부 다 시켜다 먹는단 말이야.}

10220 # 이그 그르~이 안상주들 다 가이 데이.{이거 그러니 안상주들 다 가야 되지.}

10220 # 오세 줌, 지금 보, 오세보이 덤 다가는데, 옴나레는 안상주라그는 점 앙 가끄드. {요새, 지금 보니, 요새 보니 전부 다 가는데, 옛날에는 안상주라고는 전부 안 갔거든.}

10220 # 지비서 으제 음식하고 인제 해 가즈 은제 보내조야 우리가, 그 일하은 사암 점슴 머꼬 하기 떼미네.{집에서 이제 음식하고 인제 해 가지고 인제 보내 줘야 우리가, 그 일하는 사람 점심 먹고 하기 때문에.}

10220 # 근데 지그르느 보이 점부 다 와이.{그런데 지금은 보니 전부 다 와.}

10220 # 딸래고 머 메늘래고 다 거 와서 그 은제 음식 헨는 걸 가주완는 걸 딱 그 필레르 해조이 데이까.{딸네고 뭐 며느리네고, 다 거기 와서 인제 음식했는 거, 가져온 것을 분배를 해 줘야 되니까.}

10220 # 다 와 다.{다 와, 다.}

10220 @ 그엄 어 예저네는 머 어쨌든 안상주드른 머 음식또 장만해야 데고, ***를 해 가?{그러면 예전에는 뭐 어쨌든 안상주들은 뭐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를 해서?}

10220 # 예, 그르 점부 앙 가찌 머.{예, 그래서 전부 안 갔지 뭐.}

10220 # 예, 점부 아 나쓰여.{예, 전부 안 왔어요.}

10220 @ 그르 가주 인제 예 도러 오셔 가주고, 언제 평토제 지내곤 도러 오셔 가주고, 그 그 다음에느 언 머 도르오시 가주고느 머 제사를 지냅미까?{그래 가지고 인제 돌아 오셔 가

지고, 평토제 지내고 돌아 오서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돌아 오서 가지고는 뭐 제사를 지냅니까?

10220 # 예예.{예예.}

10220 @ 도려 오서 가주고?{돌아 오서 가지고?}

10220 # 즈 와 가주고는 제 반노~이라꼬, 또 반홍.{와 가지고는 이제 반곡이라고, 또 반곡.}

10220 # 반호~이라꼬, 지 바서는 제 글 다 체르노코, 은 떠 제사를, 은 떠 올케 인제, 글 때는 제 참말로 오른 제사라.{반곡이라고, 집에 와서는 이제 다 차려 놓고, 인제 또 제사를, 인제 또 올케 인제, 그 때는 인제 참말로 올은 제사야.}

10220 # 저 은제 사 삼문 제살 은제, 제사를 지네고.{저 인제 삼우 제사를 인제, 제사를 지네고.}

10220 # 지네고 은제 또 글 동군들, 일 하는 사래미, 또 이 지비가 그거 인, 또 올 니 수고 해꼬 하이, 올 또 인진 제사 지내 거 집 또 글로 또 디 일꾼들로 전부 단 청해요, 본지브로.{지내고 인제 또 그 동네일꾼들, 일 하는 사람이, 또 이집이 그것 인제, 또 오늘 수고했고 하니까, 오늘 또 인제 제사 지낸 집, 또 거기 또 일꾼들을 전부 다 초청해요, 본집으로.}

10220 # 인제으.{인제.}

10220 # 그 은저으 다 청하므, 가므 은제 그 제아 지내는 음숙하고, 술하고, 다 내노코, 온 욱 바서기 쫘 음시글 마~이 자시고 가라꼬 이래 그래 머.{그 인제 다 초청하면, 가면 인제 그 제사 지낸 음식하고, 술하고, 다 내 놓고 오늘 욱 봤으니 쫘 음식을 많이 잡수고 가라고 이렇게 그래 뭐.}

10220 @ 일판 그래 다 그걸 한다, 그지예?{일단 그렇게 다 그걸 한다, 그렇지요?}

10220 # 예, 예.{예, 예.}

10220 @ 어 그럼머느 그르케 인제 워러르이 일꾼들한테 인제 그거, 어 제사지낸는 거 인제 또 드리고, 그 담 지베도 인제 빈소를 차림미까?{어 그러면은 그렇게 인제 어른이 일꾼들한테 인제 그거, 제사지낸 거 인제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도 인제 빈소를 차립니까?}

10220 # 그어 인제 오세는 쯔, 글때는, 아 엔나레는 이그 삼년 내은 사암드 리꼬, 일련 내은 사암들 이션는데, 지그므는 사미리지요.{그 인제 요사이는, 그 때는, 옛날에는 이것을 삼년 내는 사람들이 있고, 일년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삼일이지요.}

10220 # 사밀 또아는 인제 그그 거 은제 그 그 용애르 그 채리 노코.{삼 일 동안은 그 인제 그 용어를 차려 놓고.}

10220 # 인제 사밀, 어 사무 때는 또 점부 그 모시그 가야 인제 다 은제 그 사리고 오고 마 그 크 머고 ** **.*.*.{인제 삼일, 삼우 때는 또 전부 그 모시고 가서 인제 다 인제 그것을 불사르고 오고(+옷 등을 태운다) 뭐 그 크 무엇이나 ** **.*.*.}

10220 @ 그럼머느 예를 드려서 지금 인제 그 아꺼 말씀드린 대로 어 인주 도려 오서 가주고 삼년상을 하든, 또 일련상을 하든, 요즘 사밀은 머 그글로 끝내는 경우가 마는데, 그 다 으메 예 묘지에 다시는 언제 감미까?{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인제 아꺼 말씀드린 대로 인제 돌아 오서 가지고 삼년상을 하든, 또 일련상을 하든, 요즘 삼일은 뭐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묘지에 다시 언제 갑니까?}

10220 # 예예.{예예.}

10220 # 사밀마네.{삼 일만에.}

10220 @ 사밀마네?{삼 일만에?}

10220 # 은제 사무우르 카는데, 사무러 카는데, 사밀마네 어 인테 글때는 그 상주네드리고 그 집 대수가 점부 다 가지요.{인제 삼우라고 하는데, 삼우라고 하는데, 삼 일만에 그 인제 그 때는 그 상주네들이고, 그 집 대소가(큰집, 작은집) 전부 다 가지요.}

10220 # 가 가주고 산소가 머 어예 잘 쓰엔나, 몬 쓰엔나 그 다 도로 보고 그 은제 또 사무우 거어서 가 또 체린노코 또 절하고, 예, 그레고느 인제 다 마치고.{가 가지고 산소가 뭐 어떻게 잘 쓰였나, 못 쓰였나 그거 다 돌아 보고 그 인제 또 삼우 거기서 또 차려 놓고 또 절하고, 예, 그리고는 인제 다 마치고.}

10220 @ 사무 사무제사는 그럼머느 어디 치베서 지넴미까, 앙 그람머너 저 산소에 가서 지넴미까, 보통어?{삼우, 삼우제사는 그러면은 어디 집에서 지넴니까, 안 그러면은 저 산소에 가서 지넴니까?}

10220 # 아 인 지비셔도, 지베서 인제 어 사무제어즈 지베션 또 지내요.{집에서도, 집에서, 인제 삼우제사를 집에서 또 지내요.}

10220 # 웨냐 그문 거닌 머 어른들 말 드르 볼 때는, 이 인제 우때 어르~이 이 아리떼를 도르 가사신니 잘 모시구 가소, 고 은제 그레 체리 노코 인제 또 그 우때 어른하고 그 망호네, 그 또 우여카고 은제 파리 체리 노코 은제 제사로 지내고, 글 또 사네 가서 은제 머, 그거는 머 제사 그르 안 지내저 머 자~이나 한 잔 버 노코, 절하고 머 머 그렌니더.{왜냐하면 뭐 어른들 말을 들어 볼 때는, 인제 윗대 어른이 아랫대가 돌아 가셨으니 잘 모시고 가십시오 라고 인제 그렇게 차려 놓고 인제 또 그 윗대 어른하고 그 망혼에, 그 또 그것하고 인제 따로 차려 놓고 인제 제사를 지내고, 그걸 또 산에 가서 인제 뭐, 그거는 뭐 제사 그레 안 지내지요 뭐, 잔이나 한 잔 부어 놓고, 절하고 뭐 뭐 그랬어요.}

10220 @ 어 그럼 인제 사무제 가고, 예저네 머 삼년상 하시는 그렁 경우에너 머, 삼년상의 어떠케 함미까, 보통?{그럼 인제 삼우제 그렇게 하고, 예전에 뭐 삼년상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뭐 삼년상은 어떻게 함니까, 보통?}

10220 @ 머 그암머 제사, 제물, 아 장네치르고 나선느 삼년상 똥아네 머 어떤 시그로 함미까?{뭐 그러면 제사, 제물, 아 장례치르고 나서는 삼년상 동안에 뭐 어떤 식으로 함니까?}

10220 # 삼년,{삼년,}

10220 @ 탈상할 때 까지?{탈상할 때 까지?}

10220 # 예, 탐녕상을, 삼년상을 낼 때는 올게 도르가서시몬 땡년 저 땡년까지 이서지자네여.{예, 삼년상을, 삼년상을 낼 때는 올해 돌아가셨으면 땡년, 저 땡년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10220 # 그레이께네 네~여네 가가서 글 도르가신 날짜르 데로 또 제사르 지내여.{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그 돌아가신 날짜 대로 또 제사를 지내요.}

10220 # 제사 지내면 머 도 참 머 대소가이라든지 머 아는 사라므는 또 제사 물로 다 오지여.{제사 지내면 뭐 또 참 뭐 대소가라든지 뭐 아는 사람은 또 제사 먹으러 다 오지요.}

10220 # 오고, 그레곤 똑 그그 그대르 사~을, 제상 다 체르 노코, 상주는 삼 년 또아는 땡거늘 씨고, 그 아침 저너그로 그 어이 참 아 인 체리 노코, 또 고글 하고 삼 녀늘 그리 제사를 글기 그레 쯔 지내서요.{오고, 그리고는 또 그대로 상을, 제사상을 다 차려 놓고, 상주는 삼 년 동안을 역시 건을 쓰고, 아침 저녁으로 차려 놓고, 또 곡을 하고, 삼 년을 그레 제사를 그렇게 그레 지냈어요.}

10220 @ 그엄 삼 년 동안 인제 아침 저녁으로 상석 올리고 곡 하고?{그럼 삼 년 동안 인제 아침 저녁으로 상석을 올리고 곡 하고?}

10220 # 예예예예, 예.{예예예예, 예.}

10220 @ 끄언 머 사 상주 상, 그라마 인제 삼년동안 어디 웨출, 출타도 못 함미까, 어떠썸미까?{그럼 뭐 상주, 그러면 인제 삼 년 동안 어디 외출, 출타도 못 함니까, 어떻습니까?}

10220 # 글때는 다 옌나레는 상주는 위레 월레 어디든 볼 릴도 보롬 안 텡겨찌요.{그때는 다 옛날에는 상주는 원래 어디든 볼 일도 보려 안 다녔지요.}

10220 # 금 마둑 옌나레 그랜는데, 그 중녀네 볼 때, 삼년 낸 삼, 꾸만 볼 일 안 보고 안 데저, 금 이발또 아 나고 할 수 업, 삼녀느 이발 아 할 순 어꼬, 그르 인저 상보글 다 버서 노코 맹 이런 평보글 이꼬, 인제 볼 릴 볼 볼 때 이심 보고, 종에이 볼 릴 보린 안 나가자, 안 나서지 머 상주는 삼 년 또안.{옛날에 그랬는데, 그 중년에 볼 때, 삼년 낸 사람, 그만 볼 일 안 보고는 안 되지요, 그럼 이발도 안 하고 할 수 없고, 삼년을 이발 안 할 순 없고, 그러니까 인제 상복을 다 벗어 놓고 역시 이런 평복을 입고, 인제 볼 일 볼 때 있으면 보고, 종일 볼 일 보려는 안 나가지, 안 나서지 뭐 상주는 삼 년 동안.}

10220 @ 그은 느 인저 그 그글 인제 탈상할 때느 보통 어뜨케 함미까?{그럼 인제 그거 인제 탈상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함니까?}

10220 @ 머 일 러늘 하든 삼년상을 하든 또느 머 탈상을 할 꺼 아님미까, 그지예?{뭐 일년을 하든 삼년상을 하든 또는 뭐 탈상을 할 것 아님니까, 그렇지요?}

10220 # 글치요, 탈상을 해이 데지.{그렇지요, 탈상을 해야 되지.}

10220 @ 그 그때느 어뜨케 하미타?{그때는 어떻게 함니까?}

10220 @ 그엄 머 탈상이라 그럼미까, 머라고 부릉까?{그럼 뭐 탈상이라 그럼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10220 # 여여예, 탈상, 예, 탈상이라 그지여.{예, 탈상, 예, 탈상이라 그래요.}

10220 # 탈사~인테 삼 녀늘 삼 녀늘 널 끄뜨며는 또오 인제 그 무, 그 글때는 인제는 자 어른이이까, 인제는 마지막, 금 참말로 나 안니는 머 암 모시고 하이 마지막으로 가신 어른인데, 그땐 아주 참 머 잘 체르 노코, 제사르 아주 참 크게 아주 이레 지내지여.{탈상인데 삼 년을, 삼 년을 널 것 같으면은 인제 그 뭐, 그 때는 인제는 어른이니까, 인제는 마지막, 참말로 나 이제는 뭐 안 모시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가신 어른인데, 그 때는 아주 참 뭐 잘 차려 놓고, 제사를 아주 참 크게 아주 이레 지내지요.}

10220 # 글때은 또 아는 사라문 다 오니까.{그 때는 또 아는 사람은 다 오니까.}

10220 # 그땸 므 제사는 이그 열라글, 열라글 모 하지.{그 때 뭐 제사는 이거 연락을, 연락을 못 하지.}

10220 # 열락하느 할 수느, 안 호고 나무는, 타성은.{연락은 할 수는, 안 오고, 남은, 타성은.}

10220 # 아는 사라무느 은제 아 이 지비가 온 제사다 그고 와가서 은제 무사~을 하고, 그래고 인제 제사를 다 지내고는 거 또 사네 가서 은제 완저이 절 하곤 은제 상복하고 머 암 모지므 거션 다 사리고 이거 그래.{아는 사람은 인제 아 이 집이 오늘 제사다 그러고 와서 인제 문상을 하고, 그리고 인제 제사를 다 지내고는 또 산에 가서 인제 완전히 절 하고는 인제 상복하고 뭐 못 입을 것을 거기서 다 사르고 이거 그래.}

10220 @ 그 인제 그럼며느 상복하고 머 그렇 걸 그 산소에 가서 태움미까?{그 인제 그러면은 상복하고 뭐 그런 것을 그 산소에 가서 태웁니까?}

10220 # 네예.{예.}

10220 # 태우고 이그 삼 년 똥아는 이근 뽀 적 글때는 점부 베로 가주고 이그 상오슬 해
해이비 해 해이그 때미네, 옴나레느 아즈 큰 다 태온테, 구끄 그 중녀네 보니까 이그 안 태
우고, 또 어른 이시~이까, 모치레든지 머 부치라든지 계시면, 그글 점부 빠라 가주곤 다 보
간해 날따고, 인네 고 고 다오메 어른 도가시믄.{태우고 이거 삼 년 동안은 이거 저 그 때
는 전부 베를 가지고 이거 상복을 해 입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주 다 태웠는데, 그 중년
에 보니까 이거 안 태우고, 또 어른이 있으니까, 모친이라든지 뭐 부친이라든지 계시면, 그
걸 전부 빨아 가지고 다 보관해 왔다가, 이제 고 다음에 어른 돌아가시면.

10220 # 어른 업시므 아주 고마 사네서 달 태우고, 예.{어른 없으면 아주 고마 산에서 다
태우고, 예.}

10220 # 어른 계시믄 점부 다 저 빠러서 은제 보관해 나따가 은제 뜨 어른 도러가시믄 그
운 이꼬, 그래.{어른 계시면 전부 다 빨아서 인제 보관해 왔다가 인제 또 어른 돌아가시면
그 옷 입꼬, 그래.}

10220 @ 그야면 그기 인제 삼년상 그 탈상할 때 제사 아까 제사니까 어뜨게 초대는 모 하
능 거고?{그러면 거기 인제 삼년상 탈상할 때 제사, 아까 제사니까 어떻게 초대는 못 하는
것이고?}

10220 # 예.{예.}

10220 @ 그 아 일가라든지 머 아옹 가까운 분드른?{그 일가라든지 뭐 아는 가까운 분들
은?}

10220 # 예, 아는 사라므는 다 오지.{예, 아는 사람은 다 오지.}

10220 @ 오는데, 그럼머느 보통 올 때 머 그냥 옴니까, 앙 그러면 머 쭈 머 하나, 제수 하
나씩 들고 옴니까?{오는데, 그러면은 보통 올 때 뭐 그냥 옴니까, 안 그러면 뭐 하나, 제수
하나씩 들고 옴니까?}

10220 # 아, 그 그 먹 칭그러 쪼 쫘 다 하작찌.{아, 그 뭐 챙겨서 쫘 다 해야지.}

10220 # 그드이 그끄 부다미 쩌금.{그 때는 그 것이 부담이 조금.}

10220 # 삼 녀늘, 삼 년 낸다캄, 그 지이, 한 지비, 삼 년 낸다카면, 삼 녀 늘 아는 사람믄
다 와이 텐단 마리.{삼 년을, 삼 년 낸다고 하면, 그 집이, 한 집이 삼 년 낸다고 하면, 삼
년을 아는 사람은 다 와야 된단 말이야.}

10220 # 그르이 그그또 머 저금 저근 일또 아이라.{그러니 그것도 뭐 적은, 적은 일도 아
니야.}

10220 # 추추이그는 다 갑 열메다 가주 와이 텐다고.{부의금은(+ 축의금으로 표현되어 있
지만 오류임.) 다 얼마쯤은 가지고 와야 된다고.}

10220 # 기양 오진 아 하지.{그냥 오지는 안 하지.}

10220 @ 아, 그럼 제사, 인제 탈상할 때느 쫘 머 명가, 오시는, 들다 보러 가는 일가드리
든, 아는 사암드른?{아, 그럼 제사, 인제 탈상할 때는 쫘 뭔가, 오시는, 들여다 보러 가는 일
가들이든, 아는 사람들은?}

10220 # 이어예, 예.{예, 예.}

10220 @ 머 다무 술 한 병이라 들고?{뭐 다만 술 한 병이라도 들고?}

10220 # 글치, 그르치요, 마저요.{그렇지, 그렇지요, 맞아요.}

10220 # 아이레 머 삼 년, 삼년사~을 그릉그 아이레.{아니야, 뭐 삼 년, 삼년상을 그런 게
아니야.}

10220 # 그어 땀 삼년상을 네서든 두 해, 예, 두 해 또아는 삼년 맹 어 그레찌.{그 또 삼년상을 내었으면 두 해, 예, 두 해 동안은 사뭇 역시 그랬지.}

10220 # 답 수리라도 함 명 간 들고와이데이.{다만 술이라도 한 명 들고 와야 되요.}

10220 # 들고 가도구마 다우.{들고 가더구만, 다들.}

10220 # 기양 모 노고.{그냥 못 오고.}

10220 @ 그럼머느 인제 그 보통 제수, 제::수가튼 경우는, 제물가튼 경우는 탈상하고 이럴 때는 누가 장만함미까?{그러면은 인제 그 보통 제수, 제수같은 경우는 제물같은 경우는 탈상하고 이럴 때는 누가 장만합니까?}

10220 # 으그 그으는 제 그 대수가, 그 입 대소, 가까운 사람 머 사초~이든지 머 음 육 초~이든지 금 마~인 대소가 이스까레예.{그것은 인제 그 대소가, 그 집 대소, 가까운 사람, 뭐 사촌이든지 육촌이든지 그 많이 대소가 있을 거예요.}

10220 # 그 인제 일 보는 사람 머 장, 므 장 그튼 그 이 볼 사람 이시든, 니가 좀 압짜~아서가 저그 쫘 바 조라 캄 그 사례민 제 절찌고 은제 체금지고 은제 딱 하고.{그 인제 일 보는 사람 뭐 장, 뭐 장 같은 것 볼 사람이 있으면, 네가 좀 앞장을 서서 저 것 좀 봐 줘라 하면 그 사람이 전적으로 인제 책임지고 인제 딱 하고.}

10220 @ 그 뚜 걸 그 돈 가튼 거, 경제저그로 돈 지원 가튼 경우는 상주가 함미까, 앙 그러머는 누가 따로, 머 어떤 도, 어떤 지방에느 어 보며느 머 딸래드리 하는 집, 동네도, 동네들도 이꼬 머 그러튼데, 이 이쪽 고장에서는 어뜨게 상주가 다 함미까, 앙 그아면 딸래들도 하고 그래 함미까?{그 돈 같은 것, 경제적으로 돈 지원 같은 경우는 상주가 함니까, 안 그러면은 누가 따로, 뭐 어떤 도, 어떤 지방에는 보면은 뭐 딸네들이 하는 집, 동네도, 동네들도 있고 뭐 그렇튼데, 이 쪽 고장에서는 어떻게 상주가 다 함니까, 안 그러면 딸네들도 하고 그렇게 함니까?}

10220 # 그 은제 그그는 머 형제가 만든지 딸래가 이시든, 인제 머 제사 다가오면 머 답 열매라도, 뭇 머 십마 이 데든지 머 마인 사르더 뱅마 닌 써든지, 그 은제 마쌍주르 존 저가떠주지요.{그 인제 그거는 뭐 형제가 많든지 딸래가 있으면, 인제 뭐 제사가 다가오면 뭐 다만 얼마라도, 뭐 십만 원이 되든지 뭐 많은 사람은 백만 원을 쓰든지, 그 인제 만상주를 갖다 주지요.}

10220 # 그으 가주 보태 쓰라꼬.{그거 가지고 보태 쓰라고.}

10220 # 그레분 제 머 그 돈 머 드로든 인제 마상주가 잠 장보러 갈 때는 마상주가 인제 그 도늘 가주고 은제 장 볼 보러그곤 예, 그르케 하고.{그러면 인제 뭐 그 돈 들어오면 인제 만상주가 장보러 갈 때는 만상주가 인제 그 돈을 가지고 인제 장 보러 그러곤 예, 그렇게 하고}

10221 @ 어 예저네 인제, 어르신 말씀하셔썸다마느 예저네느 이르케 그거 아 장례절차도 복잡해꼬 머 한 삼년상 하시는 분들도 이꼬, 또놈 일 런 하시는 분들도 이꼬 그런데, 요즘은 이 마으레서 그럼머느 으 장례할 때느 거이 어뜨케 머, 삼년상이나 일련상 이르케 하는 경우는 잘 업썸미까, 앙 그람 어떠썸미까, 옛날하고 마니 달라져썸미까?{예전에 인제, 어르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그거 장례절차도 복잡했고 뭐 한 삼년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일 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이 마을에서 그러면은 장례할 때는 거의 어떻게 뭐, 삼년상이나 일련상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썸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썸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썸니까?}

10221 # 마:이 달라져썸요.{많이 달라졌썸요.}

10221 # 지금 아 네 금녀네도 누가 참 네가 저 찌 이 문상 가 보이까, 으 멀리 또 머 또 대구인은 사례민데 여 와선는데, 다~이레, 당이레 고마 ***.{지금 내가 올해에도 누가 참 내가 저 문상 가 보니까, 멀리 또 대구있는 사람인데 여기 왔었는데, 당일에, 당일에 고만 ***.)

10221 # 아이레 그근 내 폐는 꼬테, 다~이레.{아니야 그건 내가 편한 것 같아요, 당일에.}

10221 # 그걸.{그것.}

10221 @ 아, 당이레?{아, 당일에?}

10221 # 예, 당일에 고마, 그날 장산나리, 그으서 굶마, 이으 보이, 머 축 추기짜네요.{예, 당일에 고만, 그 날 장사날에, 거기서 고만, 이거 보니, 뭐 축 있잖아요?}

10221 # 충마 그래 쓰므 텐다 드레.{축만 그래 쓰면 된다 그래.}

10221 # 충마.{축만.}

10221 # 그 쓰 거주구 곱머 다~이레.{그걸 써 가지고 고만 당일에.}

10221 @ 머 탈상까지?{뭐 탈상까지?}

10221 # 예, 당이레 고마 싹 다 해 뿌리.{예, 당일에 고만 모두 다 해 버려.}

10221 @ 건 탈상할 때 그 혼백함 가튼 경우느 어뜨케 함미까?{그 탈상할 때 혼백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0221 # 그으는 혼배 그튼 그는 그 은제 미 여페 이 파고, 은제 고 여페 가따 모 오르 오른쪼킨드 웬쪼킨드 근 모레.{그 것은 혼백 같은 거는 그 인제 묘 옆에 파고, 인제 그 옆에 가져다, 뭐 오른쪼킨가, 왼쪼킨가 그건 몰라.}

10221 # 그그 가따 인즈 무꼬.{거기 갖다 인제 묻고.}

10221 @ 그걸, 머 그렇걸 머한다 그렇검미까, 그걸?{그걸, 그런 걸 뭐 한다 그런겁니까, 그걸?}

10221 @ 톱배 묻는 걸?{혼백 묻는 걸?}

10221 @ 흠배캅 묻는 걸?{혼백함 묻는 걸?}

10221 # 그응 거 묻는 거는 머.{그건 묻는 것은 뭐.}

10221 @ 매혼한다 함미까?{매혼한다 합니까?}

10221 # 쓰 이거 싸름 다~이레 하능 거 그그 치자시 모르겐네, 그 그 머여.{이거 당일에 하는 거, 그거 자세히 모르겠네, 그 그 뭐야?}

10221 @ 당일랄도 그렇 거 함미까?{당일날도 그런 거 합니까?}

10221 # 여, 하지요.{예, 하지요.}

10221 @ 그아므 근 바로?{그럼 거기는 바로?}

10221 # 그 오세는 그 흠배 그튼 그 업짜네.{요새는 혼백 같은 거 없잖아.}

10221 # 고마 이그 스 사지~이자네.{고만 이거 사진이잖아.}

10221 @ 영정이쓰이까?{영정있으니까?}

10221 # 예.{예.}

10221 # 영정 가즈 하기떼미네.{영정 가지고 하기때문에.}

10221 @ 그르 가 예 요즈므 당일랄 머 해버리고 머.{그래 가지고 요즘은 당일날 뭐 해버리고 머.}

10221 # 여아, 머 다~일 점부 하테여.{예, 뭐 당일 전부 하데요.}

10221 @ 그엄며느 예전네느 머 문상 가튼, 요즘 문상하는 사암들하고 예전 문상하는 거하고 쯤 다름미까, 어떠썰미까?{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문상 같은, 요즘 문상하는 사람들하고

예전 문상하는 거하고 좀 다른니까, 어떻습니까?}

10221 @ 문상 방식이?{문상 방식이?}

10221 # 방스근 또까째여.{방식은 똑같지요.}

10221 # 또까테이.{똑같아요.}

10221 @ 또까꼬예?{똑같고요?}

10221 # 여아.{예.}

10221 @ 그 다음 머 예 요즘 머 부고, 부고 가튼 거느 ,예저네느 부고를 만드러가 돌려씀
미까?{그 다음에 뭐 요즘 뭐 부고 같은 것은, 예전에는 부고를 만들어서 돌렸습니까?}

10221 # 예, 돌려째요.{예, 돌렸지요.}

10221 @ 부고를 누가 만듭미까?{부고를 누가 만듭니까?}

10221 # 그어 저 이 여 그 웨 저 크 큰닐, 그 위 찻찻하는데 이짜네요?{그 저 왜 큰일(+
집안의 대사), 그 왜 찻(+ 청첩장을 뜻함.)집하는데 있잖아요?}

10221 # 그어 가튼 그 사암들 다 헤 조, 그 머.{거기 가면 그 사람들 다 헤 줘 ,그 뭐.}

10221 @ 그엄 무 그엄 인조 장네 그거 총괄 채김자가 이썸미까?{그럼 장례 총괄 책임자가
있습니까?}

10221 @ 총괄해서 지 장네절차 지히하는 사라미?{총괄해서 장례절차 지휘하는 사람이?}

10221 # 아, 그 인제 그 부고 쓰는데?{아, 그 인제 그 부고 쓰는데?}

10221 # 여, 이찌요.{예, 있지요.}

10221 # 그 저 그 지비, 그 지비 고마 향여리 게일 노픈 사람.{그 집이, 그 집에서 고만 향
열이 제일 높은 사람.}

10221 # 그 집 지반네.{그 집 집안 안에서.}

10221 # 향열 겔 노픈 사람이든지, 그그 인제 저 저 저걸 아 안 체코 좌사르 안 체코 여
그 그러고 인제 고 초 자잘 헤쓰코.{향열 제일 높은 사람이든지, 그거 인제 저걸 얹히고, 좌
사를 얹히고 그리고 인제 고 조절을 했었고.}

10221 @ 요즈믄 부고 가튼 건 돌림미까?{요즘은 부고 같은 거 돌림니까?}

10221 # 지금두 야, 지금두 돌리지.{지금도 예, 지금도 돌리지.}

10221 @ 지금도 돌림미까?{지금도 돌림니까?}

10221 # **.{**.}

10221 @ 그은느 그 엔 그 우 이 웅구하거나 이렇거 할 때, 엔날하고 요즘하고는 머 아 비
슷함미까, 머 다름미까?{그러면 웅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옛날하고 요즘하고는 뭐 비슷함
니까, 뭐 다름니까?}

10221 # 지금은 쯔 틀레치여.{지금은 쯔 다르지요.}

10221 # 웬냐그면 엔나레능 저 서른 둘잉기 이따 마리아.{왜냐하면 옛날에는 서른 둘인 것
이 있었던 말이야.}

10221 # 카주 큰 틀 서른 두른데, 오세는 아 여러 서시, 십늑 명.{아주 큰 틀, 서른 둘이
들었는데, 요세는 열 여섯이, 십육 명(+ 상여를 메는 사람의 숫자임.).}

10221 # 십늑 명 틀로 고레 멩그러꼬.{십육 명 틀을 그레 만들었고.}

10221 # 어쯔 지그므는 모르 팔 명틀 멩근다 그레이, 지그므느.{지금은 팔 명 틀을 만든다
고 그레이, 지금은.}

10221 # 아주 자꾸 이너이 작 벨로 하이~까 은제 팔 문 매도 반뵤 미고 갈 수 이끄든.{아
주 자꾸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인제 팔 명이 매도 잘 매고 갈 수 있거든.}

10221 @ 영구, 웅구하능게?{영구, 운구하능게?}

10221 # *** ***,{*** ***,}

10221 @ 그 다인 머 머고 이 하관할 때나 어 봉분 만들 때, 옛날하고 요즘하고 좀 달라진 거 이썸미까?{그 다음에 하관할 때나 봉분 만들 때, 옛날하고 요즘하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10221 # 그릉 거 안 달려징 건 업써이, 예전부터.{그런 것은 달라진 것은 없어요, 예전부터.}

10221 @ 하과는 머 거이 가꼬예?{하관은 뭐 거의 같고요?}

10221 # 예, 두 맹 가테요.{예, 역시 같아요.}

10221 @ 봉분 만들 때도 머 거이 비스함미까?{봉분 만들 때도 거의 비슷합니까?}

10221 # 아이, 여, 봉구?{아, 여, 봉분?}

10221 @ 예, 봉분 올릴 때?{예, 봉분 올릴 때.}

10221 # 올릴 때 이그 옛날보단 더 말 모으지요.{올릴 때 이걸 옛날보다 더 많이 모으지요.}

10221 # 오센 이그 이 일러글 안 하고 꼬구레이 하기 때미네.{요사이는 이 것을 인력으로 안 하고 포클레인이 하기 때문에.}

10221 # 누 우르 아~히 누근 봉구눔 마이 마사, 그른니 이쓰 모 마~이 모오디.{누가 우리가 안 하니까 봉분은 많이 모아다오, 그러니 이 저 많이 모으지.}

10221 @ 아, 예저넵 비해서 봉분 크기가?{아, 예전에 비해서 봉분 크기가?}

10221 # 예. 하으 더 크지 머.{예. 더 크지 뭐.}

10221 @ 마니 커져꼬?{많이 커졌고?}

10221 # 야.{예.}

10221 @ 예저네 일러그로 하다 보니 히미 드르석 자간는데?{예전에 인력으로 하다 보니 힘이 들어서 작았는데?}

10221 # 예예, 마저요.{예, 맞아요.}

10221 @ 요즘 마니?{요즘 많이?}

10221 # 머.{뭐.}

10221 @ 예.{예.}

10221 # 마너.{많아.}

10221 @ 그 봉분 ? 만드려 노우 튼튼하기도 예전보다 더 튼튼함미까?{그럼 봉분 만들어 놓으면 튼튼하기도 예전보다 더 튼튼합니까?}

10221 # 아이, 근 튼튼항그는 멍 똑까꼬.{아니, 그건 튼튼한 거는 역시 똑같고.}

10221 # 멍 우리간 올르가가이 들구 찌고, 이 발끼 때때미네 이그는 코구레이 가지 망 놀리는 그 아이고 우리가 올르 가가즈 이 들구 찌꼬 발꼬 하기 때미네 그으는 머 옛날이나 오세나 근 또까테여.{역시 우리가 올라가서 달구를 찢고, 밟기 때문에 이 것은 포클레인을 가지고 막 누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라 가서 달구를 찢고 밟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옛날이나 요새나 그건 똑같아요.}

10222 @ 그게 혹시 그 방금 그 봉분 만들 때 급 머 찢는 거 머 들구찢는다 그럼미까?{그게 혹시 방금 봉분 만들 때 찢는 걸 뭐 달구찢는다 그럼니까?}

10222 # 예예, 그 들구 찢그.{예, 달구 찢고.}

10222 @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썸미까?{그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10222 # 부른 노래 이쨌요.{부르는 노래 있지요.}

10222 @ 그 무슨 노래라 그럼니까?{그걸 무슨 노래라고 그럼니까?}

10222 # 하 무슨 그 노래는 모르는데, 요세는 이그 노그를 해 가주고 노금기르 간 다르 노코, 요 유요 아페 차고, 이 사래미 하넹거 아이고 노그므로 고마 하기 떼미레.{무슨, 그 노래는 모르는데, 요사이는 이거 녹음을 해 가지고 녹음기를 갖다 놓고, 요기 앞에 차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녹음으로 고만 하기 때문에.}

10222 # 아주 오세는 점부 노그므로 해가 가주.{아주 요사이는 전부 녹음을 해 가지고.}

10222 @ 아, 사래미 직접 부르는 게 아니고예?{아, 사람이 직접 부르는 게 아니고요?}

10222 # 으, 아이지 머.{예, 아니지 뭐.}

10222 @ 아 그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함니까?{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함니까?}

10222 # 그 머 큰 노래라폰 땅 건 어꼬 그은 머 들구 저 쪼일 떼 그 노래이까 금 머 들구 노래라고 바야지.{그 노래라곤 다른 건 없고 달구를 쪼을 때 그 노래니까 달구노래라고 봐야지.}

10222 @ 머 들구노래 혹시 항 구절 기억나능 거 업슴니까?{달구노래 혹시 한 구절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10222 # 머 운네 금 머 그 소리라건 머 그건 머, 그릉건 우리가 머 또 기 다머 머 드릴 릴 또 어꼬 멩 마 머 이기 잘 모르젠디터.{우리는 소리라고는 뭐, 그런 건 우리가 뭐 또 귀담아 들을 일도 없고 뭐, 잘 모르겠어요.}

10222 @ 혹시 그 머 어르신, 으 저도 머 어 칭구 업 아브지 도러가셔슬 떼 머 상여를 매 바썰다 마느, 어르신도 상에 함 매 보셔썰mica?{혹시 어르신, 저도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메 봤습시다만은, 어르신도 상여 한 번 메 보셨습니까?}

10222 # 안주까지 메쨌요.{아직까지 메지요.}

10222 @ 으, 아이우, 지금 연세 이래 마느신편데도예?{으, 아이구, 지금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편데도요?}

10222 # 예, 그 사래미 업씨~이까.{예, 사람이 없으니까.}

10222 # 그르이 이 동서부로 올 아께디 이 저, 동서우로 갈라나기떼미리 우리 여이 인노이 쟁자~이 저거 마~이 사이 데이.{그러니까 이 동서부로 우리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동서부로 갈라 놓았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사람을) 많이 사야 되요.}

10222 # 그르이 아주 참 내가 몽 꿈지기고, 몬 나갈 행페~이 데몬 먹 골또~이라도 넌, 몬 나그몬 골똥 네이 데이.{그러니 아주 참 내가 못 움직이고, 못 나갈 형편이 되면 뭐 벌금이라도 내고, 못 나가면 벌금을 내야 돼요.}

10222 # 골똥 내지마느 내그 지브서 여 굶니고 하머는 골똥 내 뿌먼 저 사암드리 저 지비서 저레 하머서 웨이 이른텔 안 나오노 카기 떼미 나 나가이데.{벌금 내지만은 내가 집에서 움직이고 하머는 벌금 내 버리면 저 사람들이 저 집에서 저렇게 하면서 왜 이런 데는 안 나오느냐 하기 때문에 나 가야 돼.}

10222 # 히미 드러도 나가서 은제 으 가치 해야데.{힘이 들어도 나가서 인제 같이 해야 돼.}

10222 @ 열거 머 으 힘, 머 그글, 도늘 뜨나서?{힘, 뭐 그걸 돈을 떠나서?}

10222 # 어, 그 돈 문제 아이라.{아니, 그 돈 문제가 아니야.}

10222 # 여가 양 그러머 가 돈 머 음 므 내 뿌고 양 가지요.{안 그러면 가서 돈 뭐 내 버리고 안 가지요.}

10222 # **마느 그그 그 그래 모 함 모 한다 카이.{**만은 그래 못 한다니까.}

10222 @ 그 혹시 그 인제 웅구할 때, 상여매고 갈 때, 머 저도 머 따러 함 분씩 불러 봐
썸미다마너, 호시 그 노래 함 불러 보셔썸미까?{혹시 인제 웅구할 때 상여 메고 갈 때, 뭐
저도 따라 한 번씩 불러 봤습시다만은, 혹시 그 노래 한 번 불러 보셨습니까?}

10222 # 예, 불러 바제요.{예, 불러 봤지요.}

10222 @ 그 머 함 부 하워 항 구절 기억나능 거 이썸미까?{뭐 한 번, 한 구절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10222 # 그그눔.{그거는.}

10222 @ 아니, 노래는 암 부르시도, 그냥 말로라도.{아니, 노래는 안 부르시더라도, 그냥
말로라도.}

10222 # 그으 그 그그는 너::허, 너::허, 너:허님:차 너허 인제 이기 예.{그거는 너허, 너허,
너허님차, 너허, 인제 이기, 예.}

10222 # 그래 은제 양짜그 은제 이짜 부르믄 이짜 인제 너:허, 이짜 너허님쳐, 이리이리 이
자꾸 ****.{그래 인제 양쪽에서 인제, 이쪽에서 부르면 이쪽에서 인제 너허, 이쪽에서 너허
님쳐, 이래 이래 자꾸 ****.}

10222 @ 겼 그 혹시 머 머 거 소리 매기는 사람도 이썸미까?{그럼 혹시 소리 매기는 사람
도 있습니까?}

10222 # 머그 사임 이찌요, 곱.{매기는 사람 있지요, 거기.}

10222 # 이, 저, 너, 아, 우리가 인제 인제 인제 노옹기카능 거는 우 우리 동네 사래미 안
하고 은제 저 그 지관 풍수인테 이 얘기 해뿌믄 글 한 구척 이서.{아, 우리가 인제 녹음기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안 하고 인제 저 지관, 풍수에게 이 이야기를 해 버리면
거기 한 모듬이 있어.}

10222 # 머 한 사아미.{뭐 하는 사람이.}

10222 # 그 사암드리 오머 점 노그를 해 가주구 하고.{그 사람들이 오면 전부 녹음을 해
가지고 하고.}

10222 # 아 머 그그 아이구 우리 동네서 하면 우리 동네 사래미 그그 인제 압짱서가주고
인제그 털구르 미게는 사래미 이꼬.{우리 동네에서 하면 우리 동네 사람이 인제 앞장서 가
지고 인제 달구를 매기는 사람이 있고.}

10222 @ 이 웅네에도 아까 머 털구 어 거 머 노래 부를 때, 털곰, 아직도 부른 분도 계시
기는, 부, 계시능, 그 매기는 사암도 이썸미까?{이 동네에도 아까 뭐 달구노래 부를 때, 달
구, 아직도 부르는 분이 계시기는, 그 매기는 사람도 있습니까?}

10222 # 머예, 이떠, 아, 마저, 이찌, 예, 이찌여.{뭐예, 이찌, 아, 맞아, 있지, 예, 있어요.}

10222 @ 하시고, 잘 하십미까, 그 분?{하시고, 잘 하십니까, 그 분?}

10222 # 예, 잘 해여.{예, 잘 해요.}

10222 @ 그 다음메 머 저 그럼 예를 드려서 상여매고 갈 때도 어 어이 그거 상여노래 매
기는 분도 계십미까?{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상여매고 갈 때도 상여노래 매기는 분도
계십니까?}

10222 # 예.{예.}

10222 @ 그 분도 잘 하십미까?{그 분도 잘 하십니까?}

10222 # 잘 해여.{잘 해요.}

그 사래미.{그 사람이.}

10222 @ 연세가 한 드 어뜨게 땀미까?{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10222 # 거근 머, 그 사람도 머 참 내하곤 땀 동가, 동가빈데, 그 사른 그 그 사라를 참 머 아주 머 이 동네 꼬페이데음, 뽀페팅기르 아주 미게는 사르미라.{거기는 뭐, 그 사람도 뭐 참 나하고 역시 동갑인데, 그 사람은 참 뭐 아주 이 동네 뽀혀다니면서 아주 메기는 사람이야.}

10222 @ 싸우 급 브 메기는 으 쏘리를 잘 하신다 그지예?{메기는 소리를 잘 하신다 그지예?}

10222 # 예, 예, 아주 잡 자 래여.{예, 예, 아주 참 잘 해요.}

10222 @ 급머 혹시 메기능 구절 항 구절 기영나능 거 아 우썸미까?{그럼 혹시 메기는 구절, 한 구절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10222 # 그 우르느 그 그.{그 우리는 그걸.}

\$ 웃음, 조사자 이야기

10222 # 그으땀 미 사람 미긴다가 압짜아 서아 기양 쓰그 구 가머서 미게는 거 아이고 쓰 이 차례 데른 이근 미고 땀 소르를 해이데이.{그런데 이 사람 메기다가 앞장을 서서 그냥 썩 가면서 메기는 게 아니고, 차례가 되면 이 것을 메기고 역시 소리를 해야 돼.}

10222 # 근 내 차례데면 내 빠져 가주고 압짜아 서 가주고 머 아 소리 미게는 거 아이고, 내가 차례 땀 땀 에게 미고도 땀 소리해이 데이.{내 차례가 되면 내가 빠져 가지고 앞장을 서 가지고 뭐 소리를 메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차례 되면 역시 어깨에 메고도 역시 소리해야 돼.}

10222 # 이게 조이 데그던.{이어 줘야 되거든.}

10222 @ 아이구, 그어브 그 힘드 히 정말 힘드시젠네?{아이구, 그러면 정말 힘드시겠네?}

10222 # 한 힘 드고 막, 그래 어튼 때느 데빠이저빠 아그 고만 빠자라 하내이 빠즈가잔 머 암비고 하젠나 그 아페 서 가주 미게라 카브 그래 모.{힘 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만 빠져라, 하나가 빠져 가지고는 뭐 안 메고 하겠나, 그 앞에 서가지고 메겨라 하고 그래 뭐.}

10222 @ 위낙 꼬 동네에 절른 부니 앙 게셔가 그러타, 그지예?{위낙 동네에 젊은 분이 안 게셔서 그렇다, 그렇지요?}

10222 # 예, 예.{예, 예.}

10222 @ 아이고, 이 그 그 혹시 그 부는 머 언제 함 다으메, 그 분 함 부, 소리 함 분 드를 수 이께썸미까?{아이고, 그 혹시 그 분은 언제 한 번 다음에, 그 분 한 번, 소리 한 번 들을 수 있겠습니까?}

10222 # 모르지, 그으는 머 이 어디 누가 어 지 진 머시 한 나는 모르까, 앙 그르브 그.{모르지, 그거는 뭐 어디 누가 뭐 하며는(죽으면) 모를까, 안 그러면 그걸.}

10222 @ 그 그냥 이래 모셔가주고느 근 던 매기는 소리 한 분 썩 해 달라고 하며너 해주 실랑가요?{그냥 이렇게 모셔 가지고는 메기는 소리 한 번 썩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까요?}

10222 # 으예, 머, 그 모르게썸지요, 그건 머 *** ***. {예, 뭐, 그건 모르겠지요, 그건 뭐 *** ***.}

1.2.8. 제사에 대한 이야기

10223 @ 그엄 이 머 제사에 대항 거 하느 썩 여썸 보게썸미다.{그럼 뭐 제사에 대한 것

하나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10223 @ 그 보통 제사는, 머 어이 여기서느 얻 주로 언제 언제 지냄니까, 제사느?{보통 제사는, 뭐 여기서느 주로 언제 언제 지냅니까?}

10223 @ 은 초상나을 때 말고.{초상났을 때 말고.}

10223 @ 초상 인제.{초상 인제.}

10223 # ** ** 기지사 은웁 ** ** 마저.{** ** 기제사 인제 ** ** 맞아.}

10223 @ 기제사 이꼬예?{기제사 있고요?}

10223 # 기지사 지낼 때때느 인제 우르는 그 멍 머 여 대략 바서 글치, 저 서 산날로, 오늘 도러가서시른 어제날로 은제 지여게 제사를 인제 올리고.{기제사 지낼 때는 인제 우리는 그 뭐 대략 봐서 그렇지, 저 살아계신 날로, 오늘 돌아가셨으면 어제를 인제 저녁에 제사를 인제 올리고.}

10223 @ 기제사 이꼬 또또 또 머 언제 또 제사 올림니까?{기제사 있고 또 뭐 언제 또 제사 올립니까?}

10223 # 기제사하고 은제 그 은제 파럴 추성날하고.{기제사하고 인제 그 인제 팔월 추석하고.}

10223 @ 추성날?{추석날?}

10223 # 또 인제 여이 음력 설라리.{또 인제 음력 설날.}

10223 @ 예, 설랄?{예, 설날?}

10223 # 예.{예.}

10223 # 글때느 설라리, 추석때년 은제 조상제사 은제 하목 다 모서 노코 은제 글때 인제 차례를 인제 차례 제사를 진 찌내고.{그 때는 설날, 추석 때는 인제 조상제사를 인제 한꺼번에 다 모서 놓고 인제 그 때 인제 차례를 인제 차례 제사를 지내고.}

10223 @ 그어느 어 머 설제사 이러케 안 하고 차례라고 함니까?{그건 뭐 설제사 이렇게 안 하고 차례라고 합니까?}

10223 # 아, 여그는 머 우리는 머 으 저게 설랄 금 제사라 그렌데, 머 우 이 판데르 보이 먹 차례라 그렌데, 우릴 안즈여 제사르 지내.{아, 여기는 뭐 우리는 뭐 설날 제사라 그러는데, 뭐 이 다른 데를 보니 뭐 차례라 그러는데, 우린 아직 여기는 제사를 지내.}

10223 @ 아, 여기는 설이든 추서기든 그냥 차례라고 아 나고 제스?{아, 여기는 설이든 추석이든 그냥 차례라고 안 하고 제사?}

10223 # 아이래이, 예예, 제사허지 마저.{아니예요, 예예, 제사 하지, 맞아.}

10223 @ 그 으 그리곰 머 예을 드려서 어 슬랄 추성날 그 다으메이 기제사 어 말고 혹시 또 머 다른 제사느 업습니까?{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날, 추석날, 다음에 기제사 말고 혹시 또 뭐 다른 제사는 없습니까?}

10223 # 딴 딴 제사른 ***.{다른 제사는 ***.}

10223 @ 예를 드려서 머 한 사대조 오 까지 보통 기제사는 언지 몇대조까지 모심니까?{예를 들어서 뭐 한 사대조까지, 보통 기제사는 몇대조까지 모십니까?}

10223 # 아 지금 메테 전마 해도 우리도 그레꼬 참 오대조까지 제살 사문 모산는데, 지금도 나도 멍 우리 참 큰 큰지비, 큰 대가~이 저 짐보 인는데 인 사암도 참 안 참 내 참 중 제지만 마이 배운 사례미고, 또 전두한 대통녕 할 레 그 저 대이원꺼징 한 사례미, 출마레가주고, 그 큰지비기때매 쿵기배서 점 다지낸는데 지그므는 이야 볼 레는 그어 저 매온카제인 제사 안 지내고 ****.{아, 지금 몇 해 전만 해도 우리도 그랬고 참 오대조까지 제사를

사뭇 모셨는데, 지금도 나도 역시 우리 참 큰집이, 큰 대가가 저 진보에 있는데, 이 사람도 참 내 종제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전두한 대통령 할 때 대의원까지 한 사람이, 출마해 가지고, 거기가 큰집이기 때문에 큰집에서 전부 다 지냈는데, 지금은 볼 때는 매혼이라고 하지, 인제 제사 안 지내고 ****.}

10223 # 그 멈 멈 올 켜 니네고 올 보 올게 버듬 지네고 다음부텀 안 지네이더, 그 켜가이 추글 해가주 일꼬 인제 그 제사를.{그 뭐 올해까지 지내고 다음부터 안 지냅니다, 그 제관이 축을 해 가지고 읽고 인제 그 제사를.}

10223 # 지금 바가는 마 점 대력 조보까지마 제사를 다 지내는 그테요.{지금 봐서는 마 전부 대략 조부까지만 제사를 다 지내는 것 같아요.}

10223 @ 거므 그 위때조는 머 혹시, 기제산 안 지내지마는 다른 머 혹시 은제 함 머 제사 안 지냄미까?{그러면 그 윗대조는 뭐 혹시, 기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또 다른 뭐 혹시 인제 한 번 제사 안 지냄니까?}

10223 @ 다 모아서?{다 모아서?}

10223 # 안, 그 좀매사르 지내 뿌은 그 으른 제사는 사무 아지네뿌지.{안, 그 좀매제사를 지내 버리면 그 으른 제사는 사뭇 안 지내 버리지.}

10223 @ 혹씨 머 어 가을 추수끝나고 나서 머 시제나 이릉 거 안 함미까?{혹시 뭐 가을 추수끝나고 나서 뭐 시제나 이런 거 안 함니까?}

10223 # 그렇거는 여 쓰 아 안 해여.{그런 것은 여기서 안 해여.}

10223 @ 어 머 묘사가튼 거 안 함미까?{뭐 묘사같은 것은 안 함니까?}

10223 # 그 저네는 옴나레는 걸 인제 아 사네 텡김 제사를 인제 그 이 시월 시사라 그는데, 시사, 시월따레능 제 시사로 은제 꼭 사네 데금, 떡글 해석 과일하고 머 한 짐수 질므지 으 가서 은제 제사 즈 다 지내서요.{그 전에는, 옛날에는 인제 산에 다니면서 제사를, 인제 그 시월 시사라고 그러는데, 시사, 시월달에는 인제 시사를 인제 꼭 산에 다니며, 떡을 해서 과일하고 뭐 한 짐씩 짊어지고 가서 인제 제사를 다 지냈어요.}

10223 # 지그므는 인제 고마 이 산소 푸르를 때 포 포나 머 과이리나 하고 은지 술 한 잔 하 가져가스 잠 한 제 버 노코 산소 푸르을 때때, 고막 거어선 그래 이제 제사를 지내뿌고는 고만 다 끝나뿌제.{지금은 인제 고만 이 산소가 푸를 때, 포나 뭐 과일이나 하고 인제 술 한 잔 가져가서 잔 한 잔 부어 놓고 산소 푸를 때, 고만 거기서 그래 인제 제사를 지내 버리고는 고만 다 끝나 버리지.}

10223 # 점부 다 그래여.{전부 다 그래요.}

10223 # 그레고 은제 또 으튼 지입 보면 파럴 추석나린 지베서 안 지내고 인제 묘에 가서 은제 제사 지낸 사암도 이꼬.{그리고 인제 또 어떤 집을 보면 팔월 추석 날 인제 집에서 안 지내고 인제 묘에 가서 인제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10223 @ 그럼며는 그 별초하러 가서 마?{그러면은 별초하러 가서 뭐?}

10223 # 네예.{예.}

10223 @ 시사대신 하 제사?{시사대신 제사를?}

10223 # 예예, 글 글치요, 마저, 예, 하, 예.{예, 그렇지요, 맞아, 예, 하, 예.}

10223 # 지금 마저 이거 이 흥사는 간소가 마::이 데찌여.{지금 맞아, 이거 이 흥사는 간소화가 많이 됐지요.}

10223 # 엄청나게 데 뿌러찌.{엄청나가 돼 버렸지.}

10223 @ 옴나레 비해서?{옛날에 비해서?}

10223 # 예, 마이 데 뿌르고 말고지.{예, 많이 돼 버리고 말고지.}

10223 @ 혹시 여이 이 동네뿐드른 그어 우리가 보통 그거 가을레 추석 저네 보통 별초하러 양 감미까 그지예?{혹시 여기 이 동네분들은 우리가 보통 가을에 추석 전에 보통 별초하러 안 갑니까 그렇지요?}

10223 # 예.{예.}

10223 @ 별초하고 혹시 보메도 머 스 성, 묘 돌보러 감미까?{별초하고 혹시 봄에도 뭐 묘 돌보러 갑니까?}

10223 # 모리, 인 인 도이지는 모 여 이른데는 다름 안 가.{몰라, 이 도회지는 몰라도 이런 데는 다른 (때는) 안 가.}

10223 # 양 가고 인제 도회지 인지 이따가 야:들 함 부씩 오므 은제 머 어른 산소라등가 인제 산소 함 차저보러가든 가까 양 그르든 조:매 양 가지.{안 가고 인제 도회지 인제 있다가 아이들 한 번씩 오면 인제 어른 산소라등가 인제 산소 한 번 찾아보러 가면 갈까, 안 그러면 웬만해선 안 가지.}

10223 @ 한식 때 혹시?{한식 때 혹시?}

10223 # 한식 때도 암 머.{한식 때도 아무 뭐.}

10223 @ 여기느 예?{여기는 예?}

10223 # 예.{예.}

10223 # 하 한식 때는 머.{한식 때는 뭐.}

10223 @ 보튼 잘 안?{보통 잘 안?}

10223 # 예.{예.}

10223 @ 쓰 별초하러 가을레 주로 가신다 그지예?{별초하러 가을에 주로 가신다 그렇지요?}

10223 # 예예.{예.}

10224 @ 그 다으메 보통 그 엄 기제사, 머 어르신 요즘 지내심미까?{그 다음에 보통 기제사, 뭐 어르신 요즘 지내십니까?}

10223 # 예예, 지금.{예, 지금.}

10223 # 마저, 어른하고 인제 *** 이시.{맞아, 어른하고 인제 *** 이시.}

10224 @ 검 기제사 지내실 때 어떤 어떤 순서대로 함미까?{그럼 기제사 지내실 때 어떤 어떤 순서대로 합니까?}

10224 @ 기제사 지반마다, 제사 방식또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데.{기제사는 집안마다, 제사 방식도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데.}

10223 # 제물 채리능 말 하능 기 멀 멀 마라노?{제물 차리는 걸 말 하는가, 뭘 말 하는가?}

10224 @ 제물 채리능 거또 그르코.{제물 차리는 것도 그렇고.}

10223 # 아!{아!}

10224 @ 그 다음미, 제물 차리고 그 다으메 머 머 절하는 거또 순서가 안 이썸미까?{그 다음에, 제물 차리고 그 다음에 뭐 절하는 것도 순서가 안 있습니까?}

10223 # 예, 글 순서 이찌.{예, 그 순서가 있지.}

10224 @ 예, 그 함 부 제물 차르능 거 부름 머 한 자 함 이야기해 주십시오.{예, 그거 한 번 제물 차리는 것부터 뭐 인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24 # 우리는 우슬로 채리은 데, 우슬로 은제 이 그어져 바다 자신 어른 우추그로 은제,

우츠그로 인제 논는 거 은제, 어 대추, 밤, 그 은제 배, 조율이시, 예, 고 고대로 고 고래 디
쭈욱 체리 나가고 거 인제, 우슬로 체른 사람도 이꼬, 이그 제사 저 사라믄 다 틀래요.{우리
는 우설로 차리는 데, 우설로 인제 그 저 받아 잡수시는 어른 우측으로 인제, 우측으로 인
제 놓는 것은 인제, 대추, 밤, 그 인제 배, 조율이시, 예, 고대로 그렇게 차례로 차례 나가고
그 인제, 우설로 차리는 사람도 있고, 이거 제사 사람은 다 달라요.(집안마다 방식이 다름을
의미함.)}

10224 # 그 또 좌설로 테리는 사암도 이꼬 머 머 인제 틀래는데.{그 또 좌설로 차리는 사
람도 있고 뭐 인제 다른데.}

10224 @ 그럼머는 그 인제 저 보통 이 으 켜 그 스 제사상에 인제 음식글 올려서 인제 이
진서를 해 노안썰더 이저 음식 올리고 그 다임 머 함미까?{그러면은 그 인제 저 보통 제사
상에 인제 음식을 올려서 인제 이 진설을 해 놓았을 때, 이제 음식 올리고 그 다음에 뭐 함
니까?}

10224 # 그 다으미는 인제, 글 다 체리노콘 은제 주소~이 인제, 그 그 그 집 바서는 머 아
들, 마지라덩가, 인제 그런 사례미 인제 아 인제 강신, 인제 이 우리는 여 마쓰메 강신베레
카능 건 은제 요 마다라드리등가 은제 어른등 가페 인젠 제사지낼 땐 마지가 켈 아페 안자
가주고 술 자늘 한 잔 버어 가주고, 버 노콘 은제 절루 두 분 해, 그를 그제 은제 강신베렌
데, 두 분 하고, 두 분 하곤 은제 그 나머지는 머 지손들 머이 머 형이라등가 머 마~이 시
먼 가제 인제 참 참썬는데, 글때는 가치 인제 절 은제 다 하고.{그 다음에는 인제, 그 것을
다 차례 놓고 인제 주손이 인제, 그 집에서 바서는 뭐 아들, 딸이라든가, 인제 그런 사람이
인제 강신, 인제 우리는 여기 말로 강신배레라고 하는 것은 인제 이 딸아들이라든가 인제
어른들 그 아페 인제 제사지낼 때 딸이가 제일 앞에 앉아 가지고 술 잔을 한 잔 부어 가지
고, 부어 놓고 인제 절을 두 번 해, 그것을 인제 강신배렌데,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인제
그 나머지는 뭐 자손들 뭐 형이라든가 뭐 많이 있으면 같이 인제 참 참신하는데, 그 때는
같이 인제 절 인제 다 하고.}

10224 @ 검 강신하고 그 다으메 금 점부 다 모여서 인지 참신배레함미까예?{그러면 강신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모여서 인제 참신배레합니까예?}

10224 # 예예, 참신해여. **** *** ** **.{예, 참신해여. **** *** ** **}.

10224 @ 검 혹시 머 여기는 어 신주를 모심미까, 앙 그러면 지방을 썬미까?{그럼 혹시 뭐
여기는 신주를 모십니까, 안 그러면 지방을 썬니까?}

10224 # 지방을 쓰지.{지방을 쓰지.}

10224 @ 감 집 강신하기 저네 지방을 모심미까, 앙 감며 강신하고 나서 지방 모심미까?
{그럼 강신하기 전에 지방을 모십니까, 안 그러면 강신하고 나서 지방을 모십니까?}

10224 @ 지방?{지방?}

10224 # 머 뭍 모심, 아이레.{뭐, 아리레.}

10224 @ 지방을 써 가주고?{지방을 써 가지고?}

10224 # 아 머 그 아주 제사 상 체르 놀 때 아주 사저네 가따 지브너여 저엄서.{아 뭐 그
아주 제사 상을 차례 놓을 때, 아주 사전에 갖다가 집어서 넣어.}

10224 @ 그엄 상 채리고 인제 지방 썬는 걸 그연 어 병풍쪼게 모시고.{그럼 상 차리고 인
제 지방 쓴 거 병풍 쪽에 모시고.}

10224 # 예예, 예.{예, 예.}

10224 @ 그 다으메 강신하고?{그 다음에 강신하고?}

10224 # 예예.[예.]

10224 @ 다오메 그 멍미까 어 참심배레 점부다 하고?{다오메 그 뭇니까, 창신배레 전부다 하고?}

10224 # 아아, 제사지내능그 그므 다 은제 저리 해달라 마리지요?{제사지내는 거 그러면 다 인제 저래 해 달라는 말이지요?}

10224 # 그래 은제 그그 은제 만주소~이 인제 절 두 분 머여 한 다오메 인제 그 지손들 마~이 이시믄 그 인제 글텐 참시는 은제 가치 함 번 하고, 또 그 다오메 인제 그걸 또 아 그어 저게 참신한 사래미, 주소~이 두 분 그트믄 자늘 두 잔 다 버노코 이 사래미 또 절 두 분 또해여.{그래 인제 그 인제 맞주소이 인제 절을 두 번 먼저 한 다오메 인제 그 지손들이 많이 있으면 그 인제 그 때는 참신을 인제 같이 한 번 하고, 또 그 다오메 인제 그거 저기 참신한 사람이, 주소이 두 번 같으면 잔을 두 잔 다 부어 놓고 이 사람이 또 절을 두 번 또 해요.}

10224 # 또 하고 인제 그 다오메는 이제 그 그 저게 그그 머리카노, 그으 저게 여 밥 하르고 은제 뚜껑 다 이걸고, 은제 구게 인제 밥 세 술 떠 노코, 이래 히레 해 가주고, 그너그 그르노콘 은제 글때는 인제 가치 인제 우 국궁을 은제 이 함묵 하고.{또 하고 인제 그 다오메는 이제 그 저기 그 뭐라고 하나, 그 저기 밥하고, 인제 뚜껑을 다 열고, 인제 국에 인제 밥 세 술을 떠 넣고, 이래 이래 해 가지고, 그래 놓고 인제 그 때는 인제 같이 인제 국궁을 인제 한 번 하고.}

10224 @ 국궁하고 하지예?{국궁하고 하지요?}

10224 # 예.{예.}

10224 # 그래고 인제 또 어 이 그 저 구궁하고 은제 구궁 다오메는 은제 인제 부보기라고 이래 허리 반 꾸우서 가 이 저 이 절 하지요.{그리고 인제 또 국궁하고 인제 국궁 다오메는 인제 부복이라고 이래 허리 반을 굽혀서 이렇게 절 하지요.}

10224 # 고래하고, 고래한 다오메 인제 수저 은제 나으 나세 다 하고는 그 인제 절 고만 함 묵 두 분 다 하믄 글텐 인제 제살 은제.{그렇게 하고, 그래한 다오메 인제 수저 인제 다 물리고 나서는 그 인제 절 고만 한 번에 두 번 다 하면 그 때는 인제 제사를 인제.}

10224 @ 끝나끄다?{끝 난 거다?}

10224 # 예예, 마치고.{예, 마치고.}

10224 @ 그야고 인제 끝나고 나서 음복 함미까?{그리고 인제 끝나고 나서 음복 합니까?}

10224 # 녀, 글때는 인제 다 내 가뿌지, 인제 땅 근, 즈아지넌능거 다 네가고 인제 상 이짜로 땡기 노코, 글때는 제 점부 이 꾸르 안자서 이언 기양 안즈머 안 데고 꾸르안자 가즈고 한 잔 스 인제 복쭈카제요?{예, 그 때는 인제 다 내어 가버지, 인제 다른 것은, 제사지낸 것을 다 내어 가고 인제 상을 이 쪽으로 당겨놓고, 그 때는 이제 전부 끓여 앉아서, 이건 그냥 앉으면 안 되고 끓여 앉아 가지고 한 잔씩 인제 복쭈라고 하지요?}

10224 # 제사지넌느 복쭈제 복쭈 한 잔 하고 글때는 인제 복쭈한 자스 다 하므 인제 글때 은제 폐게 안자 가주 인제 머 이 지 지 머 술 량 대로 머거 주븐 대로 인제 즈 자꾸 인지 **. {제사 지냈는 복쭈인데 복쭈를 한 잔 하고, 그 때는 인제 복잡하지, 한 잔씩 다 하면 인제 그 때 인제 편하게 앉아 가지고 인제 뭐 이 술 양대로, 먹고 싶은 대로 인제 자꾸 인제 **.}

10224 @ 그 복쭈 내릴 때는 누갈 쯔 따라 줌미까?{그 복쭈 내릴 때는 누가 따라 줍니까?}

10224 # 그그능 멍 미테 고마안 막 게일 나이 저근 사르미 자꾸 음제 흘 따라쭈 테기지

요.{그 것은 역시 밑에 고마 막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자꾸 따라주는 덕이지요.}

10224 @ 호쓰으 그 폭시 찜 머 축또 함미까?{혹시 축도 합니까?}

10224 @ 축또 이름미까?{축도 읽습니까?}

10224 # 아 이금 어튼 축또 이른 사라민테 우리는 우리넌 추근 추근 아 이고 마 지방마 써서 이란데.{축도 읽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축은 안 읽고 뭐 지방만 써서 이렇게 하는데.}

10224 @ 거머 혹시 그 어 아까 그 음복하거나 또은느 음복하기 저네 혹시 그 음시기나 술 가튼 거 들고 바까테 가서 어뜨케 머 함미까?{그러면 혹시 아까 음복하거나 또는 음복하기 전에 혹시 그 음식이나 술 같은 걸 들고 밖에 가서 어떻게 뭐 합니까?}

10224 # 어군느 그릉 거느.{우리는 그런 것은.}

10224 @ 어쓰 저승사자느한테 이러케 주기 위에서 머 바비나 나 머 떡가튼거나 앙 가머 어 술가튼 걸 어뜨케 바끼 내 노커나 어뜨케 그렁거 함미까?{저승사자한테 이렇게 주기 위해서 뭐 밥이나 뭐 떡 같은 것이나 안 그러면 술 같은 것을 어떻게 밖에 내어 놓거나 어떻게 그런 것을 합니까?}

10224 # 이 꺼 그릉 건 업써여.{그런 것은 없어요.}

10224 @ 이 동네느 그렁 거느 안 함미까?{이 동네는 그런 것은 안 합니까?}

10224 # 예. 예. 예. [x그렁거 점부x].{예. 예. 예. [x그런 것은 전부x].}

10224 @ 그 으튼 동네에 또 그렁 거 따는 동네도 예.{어떤 동네에는 또 그런 것을 따르는 동네도 예.}

10224 # 아이고 마저요. 이그는 제사를 참 머 가가 매영 엄 머 가가 창 험제르 칸테, 금 머 그른 사람도 이실란도 오르 우리는 마저요, 그르지.{아이고 맞아요. 이 것은 제사를 참 뭐 가가 뭐야 뭐, 가가형제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맞아요, 그러지.}

10224 @ 쫘 머 하는 지반마다 뚜 다 드리고.{뭐 하는 집안마다 다 다르고.}

10224 # 예, 예, 다 틀레요.{예, 예, 다 달라요.}

10225 @ 그엄 제사음시근 보통 그거 누구 주 줌비함미까?{그럼 제사음식은 보통 누가 준비합니까?}

10225 @ 그 어뜨케 음 마지 마지가 줌비미함미까, 다 모여서 함미까?{그 어떻게 만이가 준비합니까, 다 모여서 합니까?}

10225 # 주 주로 은젠 내가 제사 지네면, 내가 켈 큰지비다 보이 점부 다 오지, 올 찌비.{주로 인제 내가 제사 지내면, 내가 제일 큰집이다 보니 전부 다 오지, 우리 집에.}

10225 # 와가제 은제 가치.{와서 인제 같이.}

10225 # 머그 머 자~은 또 우리가 우리대로 내 혼차 가 가준 장을 다 이 바다가 인제 고기 사고 머 이렇거 다 해 각꼬 떡하고 머 다 할 건 다 해 노코 인제 곧 점보 인제 지여게 다 여 오주 오지, 다 해 노우면.{뭐 장은 또 우리가, 우리대로 내 혼자 가서 장을 다 이렇게 봐서 인제 고기 사고, 뭐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떡하고 뭐 다 할 건 다 해놓고 인제 전부 저녁에 다 여기에 오지, 다 해놓으면.}

10225 # 지여게 와서 은제 밤마 해 가주 은제 가치 제사 지내고.{저녁에 와서 인제 밥만 해 가지고 인제 같이 제사 지내고.}

10225 @ 으 금 머 아까 어머니께서 쫘 그르케 엠 머 일찍 시집 오셔가주고 아 쫘 마지, 만중부다 보니까 제수도 혼저 줌비하시고 애를 마니 잡수서께썸미다.{아까 어머니께서 그렇

게 뭐 일찍 시집 오셔 가지고 만이, 만종부다 보니까 제수도 혼자 준비하시고 애를 많이 잡 수셨겠습니까..}

10225 # 제사는 마저 혼자 *****.{제사는 맞아, 혼자 *****.}

10225 @ 그 호씨 그 덩미까, 제수씨나 이런 분드르 오셔가, 으 저 그 차 일찍 오시갠 전 부치고 이를 때 장만 안 도움미까?{혹시 뭇니까, 제수씨나 이런 분들은 오셔서, 일찍 오셔서 전 부치고 이럴 때 장만을 안 돕습니까?}

10225 # 왜 음 머 가까이 이시면 또 와가쥬 전도 부치고 ** *.{왜 뭐 가까이 있으면 또 와서 전도 부치고 ** *.}

10225 @ 겹 도 머 예를 드려서 돈 가튼 경우너 머 쫘 그 어 동생부니느 이런 분드리 버어 쫘 그어 보토 떠 제수 장만하는데 보테라고 쫘 주심미까 양 그아며 어르신 혼자 다 감당해 그래 하심미까?{그럼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경우는 뭐 좀 동생분이나 이런 분드리 좀, 제수를 장만하는데 보테라고 좀 주십니까, 안 그러면 어르신 혼자 다 감당해서 하십니까?}

10225 # 뭐 땀 지비는 머 그랜드 안 그랜드 몰떠.{뭐 다른 집은 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몰라.}

10225 # 우리는 우리네 제사든다 그먼 머 참 담 열매꿈 서~이대로, 오~을 쩌 여거 보테 쓰라 카고 머 서로가 은혜 주고 바꼬 그고 마저, 그리히 예.{우리는 제사한다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성의대로, 오늘 저녁에 여기 보테써라 그러고 뭐 서로가 인제 주고 받고 그러고 맞아, 그래 해, 예.}

10225 @ 약 형제 형제 우애가 조으시 가주고 예.{아, 형제 우애가 좋으셔 가지고 예.}

10225 # 야, 그러고 머 우리는 머 새~일 때라도, 아 해머거도 그 마이 여 찻끔스근 조가자 이그 가 가르엄 머 응 고게도 상 근 사다 고기르 한그르 한 차 꼭 끼르 머거라 카고 머 그래 하지.{예,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생일 때라도, 안 해 먹어도 조금씩은 줘서 이거 가지고 고기도 한 근 사다가 국 끓여먹거야고 하고 뭐 그래 하지.}

10225 # 꿈 우리는 마저, 그래 그래.{우리는 맞아, 그래 그래.}

10225 @ 인제 켜쨌 이그또 머 지반마다 다 다른 이야긴데 제사가 월래 양 그러슴미?{인제 이것도 뭐 집안마다 다 다른 이야긴데, 제사가 원래 안 그러셨습니까?}

10225 @ 지반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른데, 예를 드려서 이 어르신 지바니나 또는 어르신 이 동네에서 제사상에 올리지 마는, 아 올리면 안 데는 음식뜰 이썸미까?{집안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 집안이나 또는 어르신 이 동네에서 올리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까?}

10225 # 예. 그 마이 달라요.{예. 그 많이 달라요.}

10225 @ 머 물꼬기라든지 음식 쫘에서 안 올리는 음식 까튼기 이썸미까?{뭐 물고기라든지, 음식 중에서 안 올리는 음식 같은 것이 있습니까?}

10225 @ 평소에 드시는 것 중에서?{평소에 드시는 것 중에서?}

10225 # 머 땀 널 먼 우리는 머 그릉 거는 엄는 거테.{뭐 다른 일, 뭇 우리는 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

10225 # 고기는 머 아무 고기라도 다 사 쓰이께.{고기는 뭐 어떤 고기라도 다 사서 쓰니까.}

10225 @ 물꼬기. 머 예를 들며 칼치나 이렇거또 올리.{물고기, 뭐 예를 들어 갈치나 이런 것도 올립니까?}

10225 # 어 꼬 칼치 그튼 그느, 그으난 누우라도 그느, 칼친 안 써찌.{아니 그 갈치 같은

것은, 그것은 누구라도 그거는, 갈치는 안 썼지.}

10225 @ 그이가 그릉 거, 안 올리는 거예.{그러니까 그런 거, 안 올리는 거요?}

10225 # 아아아아아, 안쓰는 고기로.{아, 안 쓰는 고기로.}

10225 # 엔나레느 우루 구 월레 비늘이능 거느 점부 안 써쨌요.{옛날에는 우리 원래 비늘 있는 것은 전부 안 썼지요.}

10225 @ 비늘 인는 거는예?{비늘있 는 거는요?}

10225 # 예, 비늘 인는 거너.{예, 비늘 있는 거는.}

10225 # 그른텐 지그므는 머 금 머 이젠 머 머 바다 자신 어른보다 고등해노이 여 우리 미테 사레미 잘 머그이까, 이그 마디따 마따 거니 점부 고테이로 사주 이셈.{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는 받아 잡수는 어른보다 고등어 해 놓으니까 우리 밑에 사람이 잘 먹으니까, 이거 맛있다고 하니까 전부 고등어로 사지 요사이는.}

10225 # 갈치는 절때 암 머.{갈치는 절대 안 먹어.}

10225 # 갈치, 공치, 치짜등거느 월레 안 스지.{갈치, 쏹치, 치짜가 든 것은 원래 안 쓰지.}

10225 @ 아직도{아직도}

10225 # 아이 안 쓰자이간{아직 안 쓰지.}

10225 @ 아 머 고등어는 예저네도 안 써쨌마느 요즘{아 머 고등어는 예전에는 안 썼지만은 요즘}

10225 # 안 머건는데{안 먹었는데}

10225 @ 사암드리 조아하니까{사람들이 좋아하니까}

10225 # 으, 그르치{으, 그렇지}

10225 @ 쓰지마느, 갈치, 쏹치르 아직도{쓰지만은 갈치, 쏹치는 아직도}

10225 # 으.{으.}

10225 # 치짜 등거느 그는 월레 알리고 아 안 쓰고, 고드어도 월레 안 써쨌요.{치짜 든 것은 그 것은 원래 안 올리고 안쓰고, 고등어도 원래 안 썼어요.}

10225 # 으그 비니릉 월레 안 썬는데.{이거 비늘 있는 것은 원래 안 썼는데.}

10225 # ? 지근면 모우 무 제사지내이께넌 머 움 머 그 어른도 안 자시고, 멍 우리가 다 머거야 데이간, 그 무어보이, 마시썬니 그거 사쥬 머.{지금은 뭐 제사 지내니까 뭐 그 어른도 안 잡수시고, 역시 우리가 다 먹어야 되니까, 그 먹어보니, 맛있으니 그거 사 주면 뭐.}

10225 @ 혹시 또 그 그른 물꼬기말고 어 또는 그거 머미까, 반드시 또 빠지면 안 데능 거 또 이썬미까?{혹시 또 그림 물고기 말고 또는 그거 뭍니까, 반드시 또 빠지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10225 @ 제사상에 머 이런 음식금 꼭 풀러 가여 데는데, 빠지며느 예전 가트며 어른드리 막 호늘 내고 이런 머가 장만 뭐 안 해따곤 나무라고 이런 음식또 이썬미까?{제사상에 뭐 이런 음식은 꼭 올라 가야 되는데, 빠지면은 예전 같으면 어른들이 막 혼을 내고 뭐가 장만 뭐 안 했다고 나무라고 이런 음식도 있습니까?}

10225 @ 반드시 올라가야 데능 거또?{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것도?}

10225 @ 아까 이야기해뻔 머 과일 가튼 거, 조율이시, 이릉 거느 반드시 올리간?{아까 이야기했던 뭐 과일 같은 거, 조율이시, 이런 것은 반드시 올라가야?}

10225 # 거 그렇 거는 머, 그렇 건 업시마 안 데지요.{그거 그런 것은 뭐, 그런 것은 없으면 안 되지요.}

10225 @ 그러 과이리 그러트시 머 혹시 예 탕이라든지 정이나 이릉 거 중에 빠지으면 안

데능 기 이썸미까?{과일이 그렇듯이 뭐 혹시 탕이라든지 전이나 이런 것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10225 # 아 빠짐 안 데능 거 이썸미, 그 은제.{빠지면 안 되는 게 있지요, 그 인제.}

10225 # 뚜 우릴 바서는 탕, 탕 그거 세 접시, 세 세 세 공기, 불매~이 그 이서이 데고 간장이서이 데고 그 그릉그 빠지머님 제 쪼 즈 즈 절때로 안 데.{우리를 바서는 탕 세 그릇, 분명히 있어야 되고, 간장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빠지면 절대로 안 돼.}

10225 # 땅 그는 머 해 머 이 장보다 돔 빠지 수 이 그레 그릉 건는 머 고마 저레 하는데 그그는.{다른 것은 뭐 장을 보다 보면 빠지는 수가, 그레 그런 것은 고만 저레 하는데, 그거는.}

10225 @ 간장은 반드시 오라제?{간장은 반드시 올라가야?}

10225 # 예, 간장 은제 그 탕하고 머.{예, 간장 인제 그 탕하고 뭐.}

10225 @ 혹시 머 제사 음식 고추가루 썸미까?{혹시 제사 음식에 고추가루 썸니까?}

10225 # 고주갈 안 쓰지.{고추가루 안 쓰지.}

10225 @ 고즈가루 썸 안 템미까?{고추가루 쓰면 안 됩니까?}

10225 # 예, 야, 앙 그 안 서찌.{예, 예, 안 썼지.}

10225 # 꼬치가린 절때로 안 써찌.{고추가루는 절대로 안 썼지.}

10225 @ 검 김치느 올림미까?{그럼 김치는 올립니까?}

10225 # 김치느 절때르 아 올리지.{김치는 절대로 안 올리지.}

10225 @ 업 버 혹시 백김치나 이렇거또?{혹시 백김치나 이런 것도?}

10225 # 아 김치는 월래 하쥬.{김치는 원래 안 하쥬.}

10225 @ 아예 머?{애초에 뭐?}

10225 # 아, 여, 우리는 머.{아, 여, 우리는 머.}

10225 @ 올리슨 안 데는?{올려선 안 되는?}

10225 # 예.{예.}

10225 # 백김치 아이라 그어는 머 생 거 그 그언나 그릉근는 아주 고마 아주 안써찌.{백김치가 아니라 그거는 뭐 생 거 그것은 아주 고만 안썼지.}

10225 @ 호씨 그 뭐 이 동네는 머 무너나 이렇 거느 빠져도 템미까?{혹시 뭐 이 동네는 문어나 이런 것은 빠져도 됩니까?}

10225 # 무너도 업시 머머 빠질수 드 이꼬 그어는 머 이심머는, 피료, 머 거 무너는.{문어도 없으니까 뭐 빠질 수도 있고 있으면은, 필요, 뭐 문어는.}

10225 @ 명태는너?{명태는요?}

10225 # 명태느 그 포이까, 포이까 그건 마.{명태는 포니까, 포니까 그건 마.}

10225 @ 반드시 드르가이데고?{반드시 들어 가야 되고?}

10225 # 예, 썸이데고.{예, 썸야 되고.}

10225 # 글 으찌 머.{그걸 어떻게 뭐.}

10225 @ 탕은 머르로 만듭미까, 주로?{탕은 뭘로 만듭니까, 주로?}

10225 # 탕 주로 은제 음 무수, 인제 소고기 인제 그레 썸러가 이래 여코 그레찌.{탕은 주로 인제 무, 인제 소고기 인제 그렇게 썰어서 이래 넣고 그랬지.}

10225 @ 그 무수하고 소고기 해?{그 무하고 소고기 해?}

10225 # 예예예.{예.}

10225 @ 그은데 예를 드려서 탕하고 그 담메 나무른 머 어떻 거 올림미?{그런데 예를 들

어서 탕하고 그 다음에 나물은 뭐 어떤 거 올립니까?)

10225 @ 나물 안 올려 템미까?[나물은 안 놀려도 됩니까?]

10225 # 왜 나물흔, 나물 업시마 안 데지여.{왜 나물은, 나물은 없으면 안 되지요.}

10225 # 나물토 콩 이스 데지요.{나물도 꼭 있어야 되지요.}

10225 @ 나물 어떤 거 올림미까?{나물 어떤 거 올립니까?}

10225 # 그 꼬 콩나물 이스야 데지요.{콩나물 있어야 되지요.}

10225 # 그 저 배추 그어 은제 금 머 썸마삼 무짜이 데지요.{그 저 배추 그거 인제 삶아서 무쳐야 되지요.}

10225 # 또 머 어 나물또 꼭 세 가진 데이데이.{또 뭐 나물도 꼭 세 가지는 돼야 돼요.}

10225 # 예, 글까즌.{예, 그것 까지는.}

10225 @ 세 무슨 나무리든?{무슨 나물이든?}

10225 # 예예.{예.}

10225 # 무슨 나무리든지 꼭 세 가진 데이 데.{무슨 나물이든지 꼭 세 가지 돼어야 돼.}

10225 @ 탕도 세가지 이상?{탕도 세 가지 이상?}

10225 # 예예.{예.}

10225 # 아이래.{아니야.}

10225 # 세 가지 아이고 두 우르 두 러른 자시믄 두 그럭, 세 어른 자시믄 세 그르 인제 요르 따로따로 은제 그리 그래 하니다.{세 가지가 아니고 두 어른 잡수시면 두 그릇, 세 어른 잡수시면 세 그릇 인제 요래 따로따로 인제 그래 합니다.}

10225 @ 반드시 잉 올라가야?{반드시 올라가야?}

10225 # 예.{예.}

10225 @ 떡도 반드시 올려감미까?{떡도 반드시 올라잡니까?}

10225 # 야, 떠그는 피리 올리 가이지.{예, 떡은 반드시 올라 가야지.}

10225 # 떠그는 머 머 아주.{떡은 뭐 아주}

10225 @ 떡 빠지믄는 이그는 나이?{떡 빠지면은 이거는 난리?}

10225 # 떠근 빠지므 안 데지요.{떡은 빠지면 안 되지요?}

10225 # 머 암만 업서도 떠근 머 어예 해도.{뭐 아무리 없어도 떡은 뭐 어떻게 해도.}

10225 @ 날리 남미가?{난리 납니까?}

10225 # 예.{예.}

10225 @ 보통 어뜬 떡 올림미까?{보통 어떤 떡 올립니까?}

10225 # 보통은 마 떠근 이그 머로 머 시룩또근 시리떠기라 카고, 머 이근 머 절퍼~이라 카나, 그 하고 찰뎡 머 해 떼고, 떠근 머 아무 떠기라도 금 머.{보통 뭐 떡은 시루떡은 시루 떡이라고 하고, 뭐 이건 뭐 절편이라고 하나, 그거 하고 찰떡 뭐 해도 되고, 떡은 뭐 아무 떡이라도 그 뭐.}

10225 @ 떠근 예를 드러슴 머 이레가 썸르서 올림미까, 양 그암며느 이르케 그제로 이르케?{떡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썰어서 올립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10225 # 그대로.{그대로.}

10225 # 큰 데, 아이래.{큰 데, 아니야.}

10225 # 인제 으 쌀가루르 은제 빠아다 지비서 떠글 찌자네요?{인제 쌀가루를 인제 빵아

서 집에서 떡을 찌잖아요?}

10225 # 찌므 인제 시르떡 찌므는 그 은제 요래 요래 해 가주고는 이근 여 하베다 다머.
{찌면 인제 시루떡 찌면 인제 요래 요래 해 가지고는 이걸 여기 함에다 담아.}

10225 @ 네모반드타게?{네모 반듯하게?}

10225 # 예예, 다머 가주고 인제 그 ***.{예, 담아 가지고 인제 그 ***.}

10225 @ 금 머 에 찰떡 가튼 경우느 어떠케 올, 어떤 형태로 올림니까?{그럼 예를 들어 찰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올립니까?}

10225 # 찰떡근 지비서 몬타고 인제 저어서 바까네 가서 인제 그 헤달라 카므 은제 그 요
마끔하게 해 가주, 끼리 이막화 오자네요.{찰떡은 집에서 못 하고 인제 방앗간에 가서 인제
해 달라고 하면 인제 요만큼하게 해 가지고, 길이 이만큼하게 오잖아요.}

10225 # 끼리 이마끔 하믄 데 그대르 하베 인제 거 다가.{길이가 이만큼 하면 그대로 함에
인제 거기 다가.}

10226 @ 그 담메 엠 머 조금 이야기느 해 주서썸미다마느 엔날뿐다 요즘 제사는 썸 썸 달
라져썸미까?{그 다음에 뭐 조금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면은 옛날보다 요즘 제사는 썸 달라졌
습니까?}

10226 # 제사른.{제사는.}

10226 @ 별로?{별로?}

10226 # 예.{예.}

10226 # 제 제사는 낸 내 서~이까.{제사는 내가 서니까.}

10226 # 그는 머 별로.{그거는 뭐 별로.}

10226 @ 검 제사 지내느 방식근 예저니나 지그미나 똑가꼬?{그럼 제사 지내는 방식은 예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10226 # 예, 마저 지그므 머, 예.{예, 맞아 지금이나 뭐, 예.}

10226 @ 음식 종류느 쪼금씩 달라지고, 그지예?{음식 종류는 쪼금씩 달라지고, 그지예?}

10226 # 아이 그 글 달려잉 거 어서.{아니 그것도 달라진 것 없어.}

10226 # 그는 머 네 네가 으그느 제사는, 내 성이꾼 헤 헤 헤이테이가 마저.{그 것은 뭐
내가 그거는 제사는, 내가 성의껏 해야 되니까 맞아.}

10226 # 이그 이그는 별 달르징그 업써.{이거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10226 @ 머 혹씨 인제 어르시니 지금 계속 인제 머 절머서썸 때부터 제산 썸 보니니 어르
신께서 물려바드서부터 지금까지 썸 일관테게 성이꾼 하서찌마너 혹씨 다른 업찌비나 이런
데 어 머 예저네 머 누건 도르가시고, 어른 두르가시고 나서 점믄 사لامي 제사 물려 바드
가주고 제사가 썸 바깥금 그른 지반도 이썸미까?{뭐 혹씨 인제 어르신이 지금 계속 인제 뭐
젊으셨을 때부터 제사를 본인이, 어르신께서 물려받아서부터 지금까지 썸 일관되게 성의껏
하셨지만은 혹씨 다른 옆집이나 이런데 뭐 예전에 누가 돌아가시고 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젊은 사람이 제사 물려 받아 가지고 제사가 썸 바뀐 그런 집안도 있습니까?}

10226 # 나무 제사는 이거 기지사는 앙 가보~이까 이근 뜨 근 모리지요.{남의 제사는 이
것 기제사는 안 가 보니까 그건 잘 모르지요.}

10226 # 이금 저금 전녀 모르지.{이건 전혀 모르지.}

1.3. 생업 활동

1.3.1. 논농사

10301 @ 그엄 머 그 어르신 건 음 인지 머쓰 주로 저 생업쁘어븐 농사 진는 이야기 쯔 머 드려도 데게썸미까?{그러면 뭐 어르신 인제 주로 생업, 농사짓는 이야기 쯔 머 드려도 되겠습니까?}

10301 # 예예, 예예.{예, 예.}

10301 @ 혹시 여기는 보니까 노니 쯔 머 어 만:치 안 썸미까?{혹시 여기는 보니까 논이 쯔 많지 않습니까?}

10301 # 노는 그클 만 찬치어.{넌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10301 # 게고리 이을따 보~이 올로 쯔 너르가무 올래 머 또 머 저 토~이 요 소다 보이까 논 그클 만친 아네, 예.{개골이 이렇다보니 요리로 쯔 내려가면 요래 뭐 또 폭이 좁다 보니 논이 그렇게 많지는 안아요, 예.}

10301 @ 그엄 논 노는 주로 어디쯔 요 게울쯔게?{그럼 논은 주로 어느 쪽에, 여기 게울쯔에?}

10301 # 예, 먼 나는 노~이 월래 또 머 저이 저 미테 가이제이, 참{예, 뭐 나는 논이 원래 저 밑에 가야 돼요, 참.}

10301 @ 어디?{어디?}

10301 # 고 은저 아께 내 거 시점모테가는 데 이쯔?{고기 인제 아까 내가 시점모테라고 한 곳 있지요?}

10301 # 발 그 동네 아페 그 도르 여페.{바로 그 동네 앞에 그 도로 옆에.}

10301 # 나 난 노~이 그 그게.{난 논이 거기에.}

10301 @ 아 시점모테 그게 그?{아, 시점모테 거기에 그?}

10301 # 예, 예, 예.{예, 예, 예.}

10301 @ 그 어르신께서 직접 장만하셔썸미까, 앙 그암 물려 바드셔썸미까?{그 어르신께서 직접 장만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물려 받으셨습니까?}

10301 # 아 그으는 네 네가 참 자수성가해.{아, 그거는 내가 참 자수성가 했지.}

10301 @ 논 그 아까 세점모테 그으기 노네 그 할 때 품종 벼 품종은 얻 머 어떻 거 시 주로 심썸미까?{논, 그, 아까 시점모테 거기 논에 할 때, 벼 품종은 뭐 어떤 것을 주로 심습니까?}

10301 @ 예전에, 요즘 안 하시는 지 모르게썸 예저네 하실 때?{예전에, 요즘 안 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하실 때?}

10301 # 유예저네 할 때는 머 주로 예저네느, 연나레느 웨 그 이 노임베라고 이서썸요, 노임베, 이그 들 트리 쑹쑹낭 거, 허영 거.{예전에 할 때는 뭐 주로 예전에는, 옛날에는 왜 이 노임베라고 있었지요, 노임벼, 이거 털이 쑹쑹 난 거, 허연 거.}

10301 # 그글 그 글맨 그롱거 해찌머 오세는 그롱거 점부 엄는데.{그 것을 그 때는 그런 걸 했지만 요새는 그런 거 전부 없는데.}

10301 # 주로 은제 오:대로하고 요세는 지금 즈 즈게 하여~을 마이 해.{주로 인제 오대로

하고, 요새는 지금 하영을 많이 해.}

10301 @ 그 어뜨 쩌 쫌 빨리 퍼니은 조생조~임미까, 앙 가만 쫌 느께 피는?{그 어떻게 쫌 빨리 피는 조생종입니까, 안 그러면 쫌 늦게 피는 품종입니까?}

10301 # 이그는 쫌끔 느께 하느이.{이거는 조금 늦게 하는.}

10301 # 그래노이 쫌 느께 폐고 하머는 이근 밤마시 이끄던, 밤 마디따고 이걸 하는데 이그 하여~이 이게 밤마시 조으이, 조으니다.{그러니까 쫌 늦게 피고 하면 이게 밥맛이 있거든, 밥 맛있다고 이 것을 하는데, 이게 하영이 밥맛이 조아요.}

10301 # 이 아주 느께 폐는 거지.{아주 늦게 피는 거지.}

10301 @ 그암 이 쫌게는 조생종은 별로 안 하고 거이 머 이 쫌게 계신 분더러 느께 피는 만생종을 마니 함미까?{그럼 이 쪽에는 조생종은 별로 안 하고 거의 뭐 이 쪽에 계신 분들은 늦게 피는 만생종을 많이 함니까?}

10301 # 조생종도 하는 사람 이찌요.{조생종도 하는 사람이 있지요.}

10301 # 이그는 조생조으는 제 그 매사~를 주로 인제 하기 때메 근 이 나리기 쫌스 조크더.{이거는 조생종은 매상을 주로 인제 하기 때문에, 이걸 나락이 아주 좋거든.}

10301 # 절로 머 나르 그마임 조따구.{저절로 뭐 나락이 그만큼 좋다고.}

10301 @ 아 조즈?{아 좋아?}

10301 # 그르 시, 예, 그그는 가주 감 무조꺼 일똥이라.{그렇지, 예, 그거는 가져 가면 무조건 일둥이야.}

10301 # 모구대 그튼거 이 조생종.{목우대 같은 거 이 조생종.}

10301 @ 조생종은 그엄머느 얻 밤마슨 쫌 별롭미까?{조생종은 그러면은 밥맛은 쫌 별롭니까?}

10301 # 아, 밤마슨 별로지.{아, 밥맛은 별로지.}

10301 @ 그어인 날쭈는 마~이 쫌 더 나고?{그럼 수확량은 많이 쫌 더 나고?}

10301 # 마 마이, 쫌 그체, 쫌 더 나고, 예.{많이, 그렇지요, 쫌 더 나고, 예.}

10301 @ 머 범 보기도 조아서 도늘 더 쳐줍미까?{뭐 보기도 좋아서 돈을 더 쳐줍니까?}

10301 # 야언, 바 큼, 예.{예, 그만큼, 예.}

10301 # 이 하여~어는 매상 바찌를 아 하잔.{이 하영은 매상 받지를 안 하잖아.}

10301 # 나래이 글끔 조치 앙크드.{나락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

10301 @ 밤마슨 조은데?{밥맛은 좋은데?}

10301 # 밤마슨 조은데.{밥맛은 좋은데.}

10301 @ 저이서 안 바다드이.{저기서 안 받아들이니.}

10301 # 예.{예.}

10301 @ 으이 겐 이 동네분들도 으 겐 자기 드실 꺼는 주로 마으 늑 뼈를 말 만생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상델 꺼는 쫌끔 조생종 쫌그로 오데르나 그른 벼 마니 함미까?{그럼 이 동네분들도 그럼 자기 드실 것은 주로 늦벼를, 만생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상델 것은 조금 조생종 쪽으로 오대로나 그러 벼를 많이 함니까?}

10301 # 그른데 그글 메산 은지는 또 그글 암 바주이 떼네 그글 그르케 안 한단 말.{그런데 그걸 매상을 인제는 또 그렇게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10301 # 점부 고마 머 으르게나 머 밤마딘능 거 한다꼬 마 화영을 주로 마이 [x하니다x].{전부 고만 뭐 어떻거나 밥 맛있는 거 한다고 하영을 주로 마이 [x하니다x].}

10302 @ 그 벼농사 지을 때 뽕통 그 제일 첨메 씨를 머 어뜨케 함미까?{벼농사 지을 때

보통 제일 처음에 씨를 뭐 어떻게 합니까?}

10302 @ 제임 먼저 한궁 게 머부터?{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10302 # 아 그케 파여, 파종할 때여?{아 그케 파종할 때요?}

10302 @ 제일 먼저 머부터 합니까?{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10302 @ 씨느 씨나락 준비합니까?{씨나락 준비합니까?}

10302 # 씨나락도 지음 쥔 점부 은제 머네서이 인제 우리 신청해 가주고, 내가 머 하계따 카문 제 그어선 가중 우리가 그거 글 사가주그 해야지.{씨나락도 지금 전부 인제 면에서 인제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 가져 오면 우리가 그걸 사가지고 해야지.}

10302 @ 예저네는 그?{예전에는 그?}

10302 # 이 옰나레는 지비 해시면 머 십 며이 이십 녀이고 그 가주 사무 계속해찌.{옛날에는 집에서 했으면 뭐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그거 가지고 사뭇 계속했지.}

10302 @ 그걸 근냥 뭐 그 어디 모파네 가서 그냥 뿌림미까, 앙 그럼머느 쥘 다 어뜨에 그저네 씨나락 어뜨게 그 워 또 어뜨에 가 해야템미까?{그걸 그냥 뭐 어디 모판에 가서 그냥 뿌립니까, 안 그러면은 쥘 다 뭐 어떻게 그 전에 씨나락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302 # 옰나레는, 그 저네는 점부 모 노네다 물 떼 가주고, 소 가주고 씨레가 씨러서, 고 파~하 골라 가주고, 이레 마~을 저 가주고 그 나락씨르 거 머 거득 그테르 떼러서 다마가 주고 은제.{옛날에는, 그 전에는 전부 논에다 물을 대 가지고, 소 가지고 씨레로 썰어서, 거기를 평평하게 골라 가지고 이레 망을 저 가지고 그 나락씨를 뭐 그대로 떼렸어, 담아가지고 인제.}

10302 # 무.{물.}

10302 @ 어데 무레 쥘 다?, 당귀나따가, 씨를?{어디 물에 쥘 담귀 놓았다가, 씨를?}

10302 # 무, 예, 무레, 예아, 머.{물, 예, 물에, 예, 뭐.}

10302 # 한 사날, 하 이틀 씨기 다마나따가 인제 모자랄 때는 그그대로 무레 때르 가주고 비짜루를, 싸리비를 가주고 뭐 또 투투 뚜드르.{한 사나흘, 한 이틀씩 담아왔다가 인제 모자랄 때는 그거대로 물에 때려 가지고 빗자루를, 싸리비를 가지고 툭툭 두드려.}

10302 # 뚜드른 거 저 야간 베젠다 마리.{두드리면 약간 배긴단 말이야.}

10302 @ 아 쥘 가라양께예?{아 쥘 가라앉게요.}

10302 # 예예.{예.}

10302 # 그 쥘 백 베게저.{그 쥘 배기지.}

10302 # 그르 가주곤 천 헤.{그래 가지고.}

10302 # 해 가중 모 쥘 가주고 이레 무꺼 가주고 이레 모를 승건는데, 지그르는 핑자이 습쥘요.{해 가지고 모를 쥘 가지고 이레 묶어 가지고 이레 모를 심었는데, 지금은 핑장히 습쥘요.}

10302 # 무레 안 드가고 이 하우스, 이우 주주 저르건 하우스 이레 헤 노코 이 또 모파이 또 이 이 말끔향이 이서.{물에 안 들어가고 하우스, 이 저 저런 하우스를 이렇게 해 놓고 이 또 모판이 또 이만큼 한 것이 있어.}

10302 @ 아, 계량중?{아, 계량중?}

10302 # 예.{예.}

10302 # 그 그다 은젠 또 살 흘또 또 상토 우리 또 점 사다해.{거기에 인제 또 흙도 상토, 우리는 또 전부 사다 해.}

10302 # 사 가주고 그다 여서 은제 썰 씨르그 뿌려 가주고, 하우스을 가따가 싸글 네가서
인 가따 피노면 한 일쭈이르시며 고마 이엿 싸기 투워 올라와여.{사 가지고 거기에 인제 씨
를 뿌려 가지고, 하우스에 가져다가 싸을 내어서 갖다 퍼놓으면 한 일쭈일있으면 고만 싸이
톡 올라와요.}

10302 # 그럼 또 빨리 조코.{그러면 또 빨라서 좋고.}

10302 @ 뽕씨는 그럼마 한 언젹 보통 뿌림미까?{뽕씨는 그럼 보통 한 언제 보통 뿌립니
까?}

10302 # 아, 뽕'씨는 즈 주로 저 고구.{아, 뽕씨는 주로 저 곡우.}

10302 @ 예, 고구.{예, 곡우.}

10302 # 예, 고구 무례.{예, 곡우 무렵에.}

10302 @ 고구 지나섬미까, 고구 저네 함미까?{곡우 지나서 입니까, 곡우 전에 합니까?}

10302 # 고구, 고구 지내더 데고 고구 저네 인저 주로 고무 고구 무례, 고그 이때 이틀레
라이나 고구 이틀 저 저이나 후나 은제 호 고래 주로 은제 **. {곡우, 곡우 지나도 되고, 곡
우 전에 인제 주로 고만 곡우 무렵에, 곡우 이틀 안이나 곡우 이틀 전이나 후나 인제 그렁
게 주로 인제 **.}

10302 @ 그레가 인제 뽕씨 뿌리고 그 다오메 혹시 뽕씨 아까 말씀하셧씀니다마느 그 예를
드르 뽕씨 그럼며 뿌리기 저네 어 당귀 노코 농가리부터 함미까?{그렇게 해가지고 인제 뽕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혹시 뽕씨에 대해 아까 말씀을 하셧지마는 그 예를 들어 뽕씨 그리
면은 뿌리기 전에 담귀 놓고 논갈이부터 합니까?}

10302 @ 농가리하고 뽕씨 당귀 노썰미까?{논갈이하고 뽕씨 담귀 놓습니까?}

10302 # 뽕씨부텀.{뽕씨부터.}

10302 # 뽕씨거툼 무례 하 고마 한 여를 다마나 저거 큰 널 너리게 다 한 여를 다마나따
가 한 여를 다마노느 싸기 차악 오기 올라와.{뽕씨부터 물에 고만 한 열흘 담아나 저렇게
큰, 넓은 곳에 한 열흘 담아놔다가, 한 열흘 담아놓으면 싸기 그대로 올라와.}

10302 # 그레 가주 은제 모짜리버텀 해노코, 다: 해노코 은제 언제쪼, 오을, 머 예를 들머
오을 한 이시빌경 쪼 은제 모 수문다카르 인제 고 은제 하루 저이나 이틀 저이나 물 떼가주
노늘 다 씨러 나여.{그레 가지고 인제 못자리부터 해놓고, 다 해놓고 인제 언제쪼, 오을, 뽕
예를 들면 오을 한 이십 일 경 인제 모 심는다고 하면 인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물을
대서 논을 다 썰어 놓아요.}

10302 # 씨러가조 인제 하론 이트른나니 딱 안차가주고 끝페느 은제 기계루가접 또 모자
리 모두 *** 손놔두고 가 끼게러 다 ****.{썰어 가지고 인제 하루나 이틀이나 딱 앓혀가지
고 그 때는 인제 기계 가지고 또 못자리 모두 *** 손은 놔두고 기계를 다 ****.}

10302 @ 그 혹시 모팜 만들 때, 농 갈, 모팜 만들 땐 어뜨케 만듭미까?{그 혹시 모팜 만
들 때, 논 갈, 모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10302 # 모팜늘 만드 만들 때?{모팜을 만들 때?}

10302 @ 예, 예전시그로 뽕씨 뿌리기 위에서 모 모스 모스 모팜이그 모팜이라 그럼미까?
{예, 예전식으로 뽕씨 뿌리기 위해서, 이거 모팜이라 그럼니까?}

10302 # 여여, 모팜. 모짜리.{예, 모팜. 못자리.}

10302 @ 예, 모짜리 어뜨케 만듭미까, 처음메 할 때느?{예, 못자리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
메 할 때는?}

10302 # 글.{그걸.}

10302 @ 마른 노네?{마른 논에?}

10302 # 어 마음 마르 언테 물 떼 가주고, 머 오 요세느 기계느 이시이 글치마느 글때는 머 이 기계고 업시음 주로 소로 가지 헨테, 소로 미게아 소로 인제 씨레가 씨러서 썩::하이 골랴 노코 그이 인지 새끼르 가주고 새끼르 파서 은제 줄론 요래 딱 쳐.{마른 논에 물을 대 가지고, 요새는 기계가 있으니 그렇지만 그 때는 뭐 기계가 없으면 주로 소를 가지고 했는데, 소를 먹여서 소를 인제 씨레 가지고 썰어서 평평하게 골라 놓고 인제 새끼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서 인제 줄로 요래 딱 쳐.}

10302 # 캄매동 이레 네 함 마침 은제 모사리, 모 은제 그 텀마침 여 카늘 료 고르 마크 추 줄로 딱 쳐노코느 고 은제 줄 아네 인제 금 몹씨르 은제 따 한 상알 다마나따가 뿌 뿌르므 은제 으다가 가따 뿌르노코 사라 뿌르 노코, 인니 비짜르러 가주고 베게'드로 은제 탁따 똑 뚜드르 노코, 그러 이시믄 저 오래시믄 저 검 물 소게서 은제 싸기 인제 트러 올라와. {칸마다 이렇게 내 한 만큼 인제 못자리, 모 인제 될 만큼 칸을 그렇게 맞춰 줄을 딱 쳐놓고는 그 인제 줄 안에 인제 그 모 씨를 인제 한 상을 담아놔다가 불으면 인제 거기다가 갖다 뿌려 놓고 사르르 뿌려 놓고, 인제 빗자루를 가지고 (범씨가 땅에)박히도록 인제 탁탁 두드려 놓고, 그래 있으면, 오래있으면 그 물 속에서 인제 짝이 인제 트러 올라와.}

10302 @ 고 혹시 씨레질하기 여네느 그 갈미까?{그 혹시 씨레질하기 전에는 그 갑니까?}

10302 # 여, 또 가'라애지.{예, 또 갈아야지.}

10302 # 소 가주 떼 가라 가주고 헤이 데.{소 가지고 역시 갈아 가지고 해야 돼.}

10302 @ 머 쟁기느?{뭐 쟁기느?}

10302 # 여, 저 민 쟁기르 가주고.{예, 저 쟁기를 가지고.}

10302 @ 가르 가주고 그 다으메 씨레질함미까?{갈아 가지고 그 다음에 씨레질 합니까?}

10302 # 예. 야예.{예. 예예.}

10302 @ 씨레질 하고 머 끄침미까 양가면 다룽거까 또 머 드 골라야 텀미까?{씨레질 하고 뭐 끝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 또 뭐 골라야 됩니까?}

10302 @ 씨레질마 하며 텀미까?{씨레질만 하면 됩니까?}

10302 # 아이레, 이견 노늘 아이 처메는 소 가주오 세우 스 소부로 가주 인지 가르 가주고, 다 함베, 함불 가르 가주고 나그 모짚테므, 인제음 물로 데 가주고 씨러 가주고 물 떼서 은제 소 가주고 인지 씨레가 씨러뿌고 고 골라뿌고 몹씨 빼려뿌믄 그으션 지 모이 조아지믄 은지 뜨 그글 모를 또 다 썩이데.{아니야 이견 논을 처음에는 소 가지고 소부로 인제 갈아 가지고, 다 함부로 갈아 가지고 나중에 못자리 되면 인제 물을 대 가지고, 썰어 가지고, 물 대서 인제 소 가지고 인제 씨레가지고 썰어 버리고 고르게해 버리고 모씨 뿌려 버리면 거기서 인제 모가 좋아지면 인제, 또 그걸 모를 또 다 썩야돼.}

10302 # 아 오큼씩 썩 가지 무꺼 가주고 땅 노네 갈 떼는 은자 딴 노네 은제 그 그 가따 은제 또 논 씨러 가주 저게 인젼 모숭굴 하지.{한 움큼씩 썩 가지고 묶어 가지고 다른 논에 갈 때는 인제 다른 논에 인제 그걸 가지고 인제 또 논 썰어 가지고 저기 인제 모심기를 하지.}

10302 @ 그 느어 머 혹시 이 여기는 머 번지느 사용함미까, 번지?{그 뭐 혹시 여기는 번지는 사용합니까?}

10302 # 번지카능거 이어 머름?{번지라는 게 뭐지?}

10302 # 모짜리 할 때 하능 거가?{못자리 할 때 하는 건가?}

10302 @ 예에야.{예.}

10302 # 알 그으또 사용하지요.{아니 그것도 사용하지요.}

10302 # 그 가주고 이지 매 가지 이지.{그거 가지고 이래 매 가지고 이래.}

10302 # 뚜드른 나가든, 그래여이 노빠다기 펜: 하지, 모자구할 때.{두드리고 나가면 그래야지 논바닥이 평평하지, 못자리할 때.}

10302 @ 씨레 하고 그걸 번지함미꺼?{씨레 하고 그걸 번지합니까?}

10302 # 예, 쓰이, 예예.{예, 씨레, 예.}

10302 # 씨르 가주고.{썰어 가지고.}

10302 @ 거리마 제일 먼저 노네 물 데각 가라업꼬, 쟁기로 그 다으르 씨레질 하고.{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물을 대서 갈아엎고, 쟁기로 그 다음에 씨레질 하고.}

10302 # 우에 씨레질 해 가주고 그 은제 새끼줄 쳐노코 은저 번지로 은제 탁탁탁 이게 뚜르러가 펜하주 골라가주 글떼 인젼 모짜리 이래 인젼 모시를 빼림.{씨레질 해 가지고 그 인제 새끼줄 쳐 놓고 인제 번지로 인제 탁탁 이래 두드려서 평평하게 골라 가지고 그 때 인제 못자리 이래 인제 모 씨를 뿌리면.}

10302 @ 그 다으메 인제 다시 그어 머 모를 찌 가지고.{그 다음에 인제 다시 그거 뭐 모를 찌 가지고.}

10302 # 예예.{예.}

10302 @ 그 다으메.{그 다음에.}

10302 # 논 또{논 또}

10302 @ 다시 논{다시 논}

10302 # 가라가주고 은저 그 물떼서 노또 씨르 노코 페:낙 씨르노코는 은제 모 찌 가주고 은제 그 또 머{또 갈아 가지고 인제 그 물 대서 논또 썰어 놓고 평평하게 썰어 놓고 인제 모 찌 가지고 인제 그 또 뭐}

10302 @ 가 모싱기 하면?{모심기 하면?}

10302 # 예, 모숭기 하지.{예, 모심기 하지.}

10302 @ 금 머 인저 모싱기하고, 그 다으 어 모싱기하고 남며느 예저네는 어트케 논 쯔 그 아 풀 가튼 거또 쯔 뽀꼬 해썰미까?{그럼 뭐 인제 모심기하고, 다 다음에 모심기하고 나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논 쯔 풀 같은 것도 쯔 뽑고 했습니까?}

10302 # 아, 다 메찌, 호무로 가주 다 메찌여.{아, 다 매찌, 호미를 가지고 다매찌요.}

10302 @ 아, 그금{아 그건}

10302 # 머 참.{뭐 참.}

10302 @ 머 그글 머 한다 그럼미, 그어너?{그걸 뭐 한다고 그럼니까, 그것은?}

10302 # 그으 그 놈덴다 그래찌여.{그걸 논맨다고 그랬지요.}

10302 @ 아, 놈내느 그예?{아, 논매는 거요?}

10302 # 예.{예.}

10302 # 그래 은데 호물 가즈 메다가 톱 기계, 와 이리 미느 기계가 나와서 기계 가즈 하다가, 머 기계간 또 하다 기계 또 무 자뿌고 오세는 머 점브 야글 치니까, 전므 그 풀랴글 쳐푸이강 묵 점무 아 올라오지.{그래 인제 호미를 가지고 매다가 기계, 왜 이래 미느 기계가 나와서 기계 가지고 하다가, 뭐 기계로 하다가 기계 또 뭐 치워 버리고 요새는 뭐 전부 약을 치니까, 전부 풀약을 쳐 버리니까 전부 안 올라오지.}

10302 @ 그 다으메 머 엄 이 그검 물가튼 경우는 여기는 물데기는 시워썰미까?{그 다음에 뭐 물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물 대기가 쉬웠습니까?}

10302 # 하, 애 머거쨌오.{하, 애 먹었지요.}

10302 # 머 비가 아주, 하 비가 와야 모숭길 하고 이걸 보기 지네도 비 비 아노른 이그 모숭기를 모해짜네, 여게.{뭐 비가 아주, 비가 와야 모심기를 하고 초복이 지나도 비가 안 오면 모심기를 못 했잖아, 여기는.}

10302 @ 가무르며?{가물면?}

10302 # 예, 지그르느 머 이 모시 이서노이까, 마거 노이까 인제 하는데, 글떼 엔나레느 이 개고래 초보기 지네도 비 아오른 모숭기를 모해쨌.{예, 지금은 뭐 못이 있으니까, 막아 놓으니까 인제 하는데, 그 때 옛날에는 이 개울에 초복이 지나도 비 안 오면 무심기를 못 했어.}

10302 # 꼭 운 내 초복 초복 무레도 모숭기 해반는데 모룩 머 그래 하 답다바가 송거만는데 몸 모거스.{내 초복 무렵에도 무심기 해 봤는데, 모를 뭐 하도 답답해서 심어봤는데, 못 먹었어.}

10302 # 고테로 고마 모 고마 키도 앙 크고 머 고테로 가고 페 올라뿌~이 이스 이사꺼리도 어꼬, 머 똑 파레이 대 그텀 갈라나낭 고래.{그대로 고만 키도 안 크고 뭐 그대로 퍼서 올라오니까, 이삭거리도 없고, 뭐 파리 대같이 갈라 놓은 것처럼 그래.}

10302 # 먹또 모 테.{먹지도 못 해.}

10302 @ 그 복날까지 모내기 모 하며느 머 거기 주로 머 심썰미까?{복날까지 모내기 못 하면은 거기 주로 뭐 심습니까?}

10302 # 하여 함 봉무래 수문다케도 그게 조흥게 아이레이.{아이, 이미 복 무렵에 심는다고 해도 그게 좋은 그게 아니야.}

10302 @ 그암 머 다룽 거 심썰미까?{그럼 뭐 다른 것을 심습니까?}

10302 # 예, 주 주로 그래뽀먼느 어 은제 모하른 제 서숙.{예, 주로 그래 버리면 인제 못 하면 인제 조.}

10302 # 서숙까르에지.{조 갈아야지}

10302 # 땅금 모 하지.{다른 건 못 하지.}

10302 @ 그음 머 예를 드려서 금 무 그때 인제 벼베기는 머 벼베기너 한 언제썰 보통 함미까?{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 때 인제 벼베기는 언제썰 보통 함니까?}

10302 @ 여이서너, 바통{여기서는, 보통?}

10302 # 아, 보자.{아, 보자.}

10302 # 언제썰 하노?{언제썰 하나?}

10302 # 벼베기가 스 한 시월?{벼베기가 한 시월?}

10302 # 시월 초예?{시월 초예?}

10302 # 구월 말 시월 초예 인니.{구월 말 시월 초예 인제.}

10302 @ 벼베기는 머 주로 머 어떠케 함미까?{벼베기는 뭐 주로 어떻게 함니까?}

10302 # 엔나레느 점부 우리가 소늘 다 베쨌요.{옛날에는 전부 우리가 손으로 다 베쨌요.}

10302 # 소늘 다 베가주고 여 뜬 기계타이라고 요 요마끔항거 요래 무꺼 가주고, 노~이 암만 머러도 내가 저 미테 이산데, 저걸 점부 지게로 저 저올려서 이그 마당까지, 마다~아다가 빼까리 이레 체르 노코 인제 기계, 웨 발른 기계 이짜 왈왕 카능기 이 발른거?{손으로 다 베 가지고 기계단이라고 요만큼 한 거 요래 묶어 가지고, 논이 아무리 멀어도 내가 저 밑에 있었는데, 저걸 전부 지게로 저서 올렸어 마당까지, 마당에다 벗가리를 이렇게 차려 놓고 인제 기계, 왜 밟는 기계 있잖아, 왕왕하면서 이렇게 밟는거?}

10302 # 그 가지 점 머 다 홀터끄.{그 것을 가지고 전부 다 훑었거든.}

10302 # 그켄테 지그르는 머 기계가 조으이 놈빠다 그 그테로 드가가 마 주르르 텅기르 홀터 가주곤 안 내려 가가드 여 가따 말류면 텐다.{그랬는데 지금은 뭐 기계가 좋으니 논바닥에 그대로 들어가서 주르르 다니면서 홀터 가지고 안 내려 가도 여기 가져다 말리면 된다.}

10302 @ 아, 요즘 인제 그이 기계가 드러가 가주고 탈곡까지 다 해간?{아, 요즘 인제 그 기계가 들어 가가지고 탈곡까지 다 해서?}

10302 # 예예예, 탈가지 어 다 해고 머.{예, 탈곡까지 다 하고 뭐.}

10302 # 그그 오세는 또 그래 가주고 차도 이레 갠 테노코 바다 벼어 가주고, 유 우리 마당꺼진 차가 드 와 가주고 이그 고망 나랄 그 그대로 이레 벼 중단마리.{그 요사이는 또 그래 가지고 차도 이렇게 대 놓고 (벼를)받아 부어 가지고, 우리 마당까지 차가 와 가지고 이거 고만 벼를 그대로 이레 부어 중단 말이야.}

10302 # 글 바다 가유 우운느 고만 하무데지.{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는 고만 하면 되지.}

10302 # 머 얼마나 수븐지 머 머 돔마 이시믈 머.{뭐 얼마나 쉬운지 뭐 돈만 있으면 뭐.}

10302 @ 끄 그땀 예를 드러 벼베기 해 가주고 인제 벼판 무꺼 가주고 말려가?{그 땀 예를 들어 벼베기를 해 가지고 인제 벼단을 묶어 가지고 말려서?}

10302 # 글치요.{그렇지요.}

10302 # 아주 비가주 놈빠다아다 일 하노쿰 비가주고는 놈빠다익 그테로 착 피 나 빠러이.{아주 벼어가지고 논바닥에다 이렇게 한 움큼 벼어 가지고는 논바닥에 그대로 착 피 놔 버려요.}

10302 # 차 오르노이 암만 노~이 마네도 비나따아.{참 이레 놓으니 아무리 논이 많아도 벼어 왔다가.}

10302 # 그르노이 머 날씨 몸 만네믈 싸기 나고{그래 놓으니 뭐 날씨 못 만나면 싹이 나고.}

10302 @ 비가 오고여?{비가 오고요?}

10302 # 비가 오며.{비가 오면.}

10302 # 날씨 잘 만나면 한 한 일쭈일 말류면 고맘 그 무꺼디리는데 비 와뿌믈 고만 절따 이그드.{날씨 잘 만나면 한 일쭈일 말리면 고만 그 묶어들이는데, 미 와 버리면 고만 절단 이거든.}

10302 @ 머 가을 노네 비오며느 믈 절따임 그지예?{뭐 가을 논에 비오면 뭐 절단입니다, 그렇지요?}

10302 # 예.{예.}

10302 @ 아이거 그 요즈믈 그래도 머 옛날 사암들 비하며너 농사짓는 거또 마니 조아저떠이 그지예?{아이고 요즘은 그래도 뭐 옛날 사람들 비하면은 농사짓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 그렇지요?}

10302 # 어에이, 조아지고 마고시드.{에이, 좋아지고 말습니다.}

10302 # 얼마나 조하 전는지 참 머.{얼마나 좋아 졌는지 참 머.}

10302 # 모내기르 하나 머머.{모내기를 하나 뭐뭐.}

10302 @ 노는 그거, 아까 노네 그 모내기하기 위에서 농 그 스 어 가라어꼬 하느 그얼 머 한다 그래썸미까?{논은 그거, 아까 논에 그 모내기하기 위해서 갈아엎고 하느 그걸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10302 # 그으는 농가'안'다 그래지여.{그거는 논간다 그러지요.}

10302 @ 논 농가라 가주고 그 엄 머 모내기 할 수 이또록 만들지 안 쓸미까?{논 갈아 가지고 모내기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10302 # 아, 건 은제 노는 오세돈 오세눔 소도 어꼬 머라 그짐 안 하이 글지 점번 기계르 저음 뜯 다 가는데, 기계르 은제 가 가르갈라 그 미 기계라 함 든 남 가홀게 아즈 나락 다 비뿌고 은제 은 짐 무엄 뽕 무꺼 뿌고, 글때 인제 갈가제 라꼬 은제 노를 노탈 츠 처 나 뿌 레이.{아, 그 인제 논은 요사이는 소도 없고 거의 안 하니까 그렇지 전부 기계로 다 가는데, 기계로 인제 갈아달라고 하면 기계로 하면, 가을게 아주 나락 다 베 버리고 인제 뽕 묶어 버리고, 그 때 인제 가을갈이라고 인제 논을 전부 쳐 놔 버려요.}

10302 # 처 노코 그르 노콘 은제 보메 인제 고마 물마 데가주 논뚝 해 뿌고 모숭굴 때 데 든 물 뜨 짝 데노근 언제쯤 수문다카든 인제 고마 기계로 또 와이지 우리 논 쯔 썩르 다 카 든 글때 와 노를 딱 썩르 노모, 또 이그 이 모숨문 사민데 가 가주고 우리건 은제쯤 모수무 느 머~이 모쭈 송거다, 그럭 머 그 사암 와 가주느 농 만 조~아 안저 가주고 쯔 먹 뽕뽕 도리, 메뿐 안 도르 텅긴 느 머 금 다 송거 뿌찌.{처 놓고, 그래 놓고 인제 봄에 인제 고만 물만 대 가지고 논둑 해 버리고 모심을 때 되면 물 짝 대 놓고 언제쯤 심는다고 하면, 인제 고만 기계로 또 우리 논 쯔 썩어 다오, 그러면 그 때 와서 논을 딱 썩어 놓으면, 또 이 모 심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우리 언제쯤 모심을 것이니 모를 쯔 심어 다오, 그러면 그 사람과 가지고 뽕 자리 앓아 가지고 뽕 빙빙 돌아, 몇 번 안 돌아 다녀도 뽕 금방 다 심어 버리지.}

10302 @ 모 다 송그는 겹미까?{모 다 심은 겹니까?}

10302 # 예, ? 다, 아이 이거도 모도 둔 타고 텅기는 썩 오세 차라또 얼마나 그 조호노? {예, 뽕 다, 아니 이것도, 모도 타고 다니는 요사이 차라 또 얼마나 좋아?}

10302 # 타고 텅기능 그 머 그마 뽕뽕 도르 텅기든 금 머 장군 송거 뿌찌.{타고 다니는 거 뽕 빙빙 돌아 다니면 잠깐 심어 버리지.}

10302 # 아, 기계로 송구니까예?{아, 기계로 심으니까요?}

10302 # 예.{예.}

10304 @ 그 예저네는 그림머너 먼 기계로 하기 저네너 그 논네 그 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도구는 어떻 거 이썩미까?{그 예전에는 그러면은, 기계로 하기 전에는 그 논에 그 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도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304 @ 머 농 그거 머 모내기 하도록 금 물하고 머 가르 어꼬 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떻게 이썩미[x까x]?{뽕 그거 모내기 하도록 물하고, 갈아 엮고 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304 # 그근 도구는 인제 그 쓰어래라꼬.{그건 도구는 인제 썩레라고.}

10304 # 썩레는 인제 그거 그그또 머 어데 가주고 할 구건, 네 소는 네가 멩그러가주고 썩레 은제 소를 아페 뽕기고 나르 디에서 은제 이 이레 노를 므 텅김 막 썩러 가주고, 썩러 가조 페나 골라노코는 글텐 은제 머 기계도 어꼬 할 때는 머 이우제 사라미아도 은제 읍 푸 마시르 해 가주고 온 뽕 우너 네이리 언제 모숭굴 모예이 모 쯔 송거다 그럼제 썩 와서 수 무머 은제 그 그래 그 은제 그래 인제 수무고 그래찌여.{썩레는 인제 그 것도 뽕 어디 가서 합니까, 내 손으로 내가 만들어 가지고 썩레 인제 소가 앞에서 당기고 나는 뒤에서 인제 이레 노를 뽕 다니면 막 썩어 가지고, 썩어 가지고 평평하게 골라 놓고는 그 때는 인제 뽕 기계도 없고 할 때는 이웃에 사람이라도 인제 품앗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내일 언제 모심을

모양이지 모 좀 심어 다오, 그러면 인제 모두 와서 심으면 인제 그래 그 인제 그래 인제 심고 그랬지요.}

10304 @ 씨레도 이꼬 그 다음 또 머 어떻게 이쓰?{씨레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10304 # 소부.{소부.}

10304 @ 소부?{소부?}

10304 # 예.{예.}

10304 @ 소부는 머어? 머하는 겁니까?{소부는 뭐 어떤, 뭐하는 겁니까?}

10304 # 소부도 내가 멩그러찌.{소부도 내가 만들었지.}

10304 # 나무쟁기라 그 여그도 나무쟁기르 카기도 하더 소부도 카ियो.{나무쟁기라 그러고, 여기도 나무쟁기라고 하기도 하고 소부라고 하기도 해요.}

10304 # 그래 은제 알소부라카능거이, 켜르 텅거느 이그는 인제 시자~아 가머 은제 그 파기떼므 그 사다가 버 까뜰 으 고오 모 고마 마추므 테고, 요세돈 또 이그이 저 나무쟁이 이그는 또, 나무쟁기가 아이고 또 켜러가저 점 다 멩그러농그뜨 시자 금 또 파라여.{그래 은제 알소부라고 하는 것은, 쇠로 된 것은 이거는 인제 시장에 가면 인제 팔기때문에 그걸 사다가 거기 갖다 거기 맞추면 되고, 요새 또 나무쟁기 이거는 또, 나무쟁기가 아니고 쇠를 가지고 전부 다 만드려 놓은 것도 시장에 가면 또 팔아요.}

10304 # 그 사다해라 그 점 무어끼는 무거버도 그그또 은제 사다노코 점 점 다 이찌여 겁마 제의.{그거 사다하면 좀 무겁기는 무거워도 그것도 인제 사다 놓고 다 있지요, 그건 뭐거의.}

10304 @ 그잉간 세로 만든 쟁기도 이꼬?{그러니까 쇠로 만든 쟁기도 있고?}

10304 # 여아.{예.}

10304 @ 소부도 이꼬?{소부도 있고?}

10304 # 예.{예.}

10304 @ 그 다음메 씨레도 이꼬?{그 다음에 씨레도 있고?}

10304 # 거 씨레이꼬.{예, 씨레있고.}

10304 @ 또 머 그 다임 머 또 흑신 또 쓰능 건 어떤거 이썸미까 머?{또 뭐 그 다음 뭐 또 흑시 뭐 쓰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10304 # 뜨 금 머 그극 먼 노네그 씨리능 그으뿌이고 머머 주로 호무고, 과~이, 머 과~이.{그 뭐 그 것은 뭐 논에서 쓰는 것은 그 것 뿐이고 뭐뭐 주로 호미고, 광이, 뭐 광이.}

10304 @ 광이?{광이?}

10304 # 예.{예.}

10304 @ 그 담 머 세스 세스랑도 썸미까?{그 다음에 뭐 쇠스랑도 썸미까?}

10304 # 세스랑카능 거능 그으느 은젠 논 제 소 가주구 씨러노으며 좀 인제 노픈 데 그나 그 할 때 내 그으 가즈 텅기므 인제 또 텅기므 인제 이레 이레 골류녕거 그으또 이서, 마저, 그 거 꼬 머.{쇠스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거는 인제 논에 자신의 소 가지고 썰어 놓으면 좀 인제 높은 데 그걸 할 때 그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제 또 다니면서 인제 이레 이레 고르는 거 그거도 있어, 마저, 그것도 뭐.}

10304 @ 머 흑시 그근 안 썸미까?{뭐 흑시 그건 안 썸미까?}

10304 @ 여긴 머 그 고무레 난 썸미까?{여기는 뭐 고무레는 않습니까?}

10304 # 고무레가 머로?{고무레가 뭐지?}

10304 # 곧 고무레는 머 은제 곱마 이 그룽건 마 안 썬는데.{고무레는 뭐 인제 그런 건 안 썬는데.}

10304 @ 그 흑신 머 어 보스븐 스 함미까, 보습?{그 흑시 뭐 보습은 함니까, 보습?}

10304 @ 여는 샵 으 사븐 썬미까?{여기는 샵은 썬니까?}

10304 # 이 차부~이 샵쓰지요?{이 참으니까 샵을 쓰지요.}

10304 @ 사비라 함미까?{샵이라 함니까?}

10304 @ 양오 수굼포라 함미?{안 그러면 수군포라고 함니까?}

10304 # 여 아 사브 사 그 수굼포르 카기도 하고 사비라 걸.{여, 아, 샵, 샵, 수군포라고 하기도 하고 샵이라고.}

10304 @ 그 어느 걸 더 마니 썬미까?{그 어느 걸 더 많이 썬니까?}

10304 # 예?{예?}

10304 @ 여기 샵을 마니 함미까, 수굼포 마니 함미까?{여기서는 샵을 많이 함니까, 수군포를 많이 함니까?}

10304 # 여그는 수굼포라꼬 마이 라지.{여기는 수군포라고 많이 하지.}

10304 # 여느 우 우리느 여 사투리 고마 수굼포라 그래.{여기 우리는 여기 사투리로 고만 수군포라 그래.}

10304 # 직 지그문 막 사비라 그는데.{지금은 막 샵이라 그러는데.}

10304 # 아, 그거 그거 업시문 노푼 모 하자네.{아, 그거 없으면 논둑을 못 하잖아.}

10304 @ 오 우 머 우 그 흑신 머 어 머 가래이렁거또 썬미까?{그 흑시 뭐 가래 이런 것도 썬니까?}

10304 # 가래가능거느 금 머로?{가래라고 하는 것은 그 뭐지?}

10304 # 그어 저 아페 땡기고 이어 이 추 줄로 땡기고 이겨 이 하 하능거?{그 저 앞에 당기고 이거 이 줄을 당기고 이거 이렇게 하는거?}

10304 # 그게라?{그거야?}

10304 # 머로?{뭐야?}

10304 @ 으 길게 이래 때?{길게 이렇게 돼 있는?}

10304 # 가래가능 그게 머인데이?{가래라고 하는 그게 뭐지?}

10304 # 줄 아페 둘 땡기고 하네 이레 데고이 하능 거?{줄을 앞에서 둘이 당기고 하나가 이렇게 대고 하는 거?}

10304 @ 아니 그흐는 아인테예.{아니 그건 아닌테요.}

10304 # *** 마저 그룽건 여그는 녀 업서 마저.{*** 맞아, 그런 건 여기는 전부 없어 맞아.}

10304 @ 그업머느 급 노네 물 텔 때 쓰는 도구느 어떻게 이썬미까?{그러면은 눈에 물 텔 때 쓰는 도구는 어떤 게 있습니까?}

10304 @ 노네 물 텔때 사용하는, 어느 쓰는 도구들, 연장들?{눈에 물 텔 때 사용하는, 쓰는 도구들, 연장들?}

10304 # 누어 언 년 노네 저 물 텔 때는, 하 지그미사 그 저 거래 마가가조 보를 잘 해나 이지마는, 참 머 이거 며네텐제 와 가주구 세멘 해가 보를 잘 해나지만, 옌나레는 그 보 아~할 텐느 우리가 저 낭글 비다가 거라테머 코:: 말뚜그 쳐 가주고, 요 왜이 때 이짜나, 때 아제네, 때, 때로 가져 띠다고, 사네가 질므 질무지고 와 가주고 아페 뚜 뚜드러르, 물 안 새드르 팍: 뚜든 노코 보르 은제 완저이 멩거 노콘 은제 돈 도라레서 물로 데 가주고 주로

은제 그 수군포 그 은제 사 까주고 은제 그거 다.{논에 저 물 델 때는, 지금이야 저 거랑을 막아서 보를 잘 해놔지만, 참 뭐 이거 면에서 인제 와 가지고 시멘트를 가지고 보를 잘 해놔지만, 옛날에는 그 보를 안 할 때는 우리가 저 나무를 베 다가 거랑에다 뭐 꼭 말뚝을 쳐 가지고, 요 왜 잔디 있잖아, 잔디 알잖아, 잔디, 잔디를 떼와서, 산에 가서 깊어지고 와 가지고 앞에 꼭 두르려, 물이 안 새도록 팍 두드려 놓고 보를 인제 완전히 만들어 놓고 인제 도랑에서 물을 대 가지고 주로 인제 그 수군포 그 인제 삼 가지고 인제 그걸 다.}

10304 @ 수군포 가주고 은저 보 만드려 가주오 물 떼고?{수군포 가지고 인제 보를 만들어 가지고 물 대고?}

10304 # 예예예.{예.}

10304 @ 금 머 범 물 델 때느 보를 그 멈미까, 가치 함미까, 양 가먼 자이 혼자 부 만드려가 씌미까?{그 뭐 물 델 때는 보를 그 뽀니까, 같이 함니까, 안 그러면 자기 혼자 만들어서 씌니까?}

10304 # 그으 내가 음 보 내 노네 내 혼차그툼 내 혼차 해이 데고.{그건 내가 보, 내 논에 내 혼자 같으면 내 혼자 해야 되고.}

10304 # 그 누가 그미테 누구 가치 하면 제 은제 담 두우르 이시몬 두리 가치 해이데고. {그 누가 그 밑에 누구 같이 하면 이제 인제 다만 둘이라도 있으면 둘이 같이 해야 되고.}

10304 @ 검 무른 그럼 얻 으 우떠케 텀미까?{그럼 물은 그럼 어떻게 댈니까?}

10304 @ 누구 먼저 하고 그으또 순서가 이쑤미까?{누구 먼저 하고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까?}

10304 # 아이, 그 그그느 은제 노이 인제 우예 사람 머~여 이시몬 녀 우에 놉 버툼 머여 은제 노늘 물 떼 가주고 은 노늘 다 썩르냐야 은제 은 물려라, 더 미테 은젠 물로 주면 제 이 ** ****.{아니, 그거는 인제 논이 인제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있으면 위에 논부터 먼저 인제 논을 물 대 가지고 논을 인제 다 썰어 봐야 인제 물을 내려 밑에 인제 물을 주면 인제 이 ** ****.}

10304 @ 예저네느 그암 논니 위에 논니 아랜논 뽀다는 조아따 그지여?{예전에는 그럼 논이 위에 논이 아래 논 보다는 좋았다, 그렇지요?}

10304 @ 무리 이스며느?{물이 있으면은?}

10304 # 조:호 머 무리 마 항상 이히이 조용거는 그는 몰래더, 항상 찬 부리 드가이가 근 조용거뜰 덤 아 조홍건 아이지.{좋은, 뭐 물이 항상 있으니 좋은 것은 그건 몰라도, 항상 찬 물이 들어가니까 그건 좋은 것도, 좋은 것 아니지.}

10304 @ 아 나락한데느?{아 벼한데는?}

10304 # 어 이 노네는 그 나락 조홀라 그문 무리 쯔 참무리 아이고 쯔 뜨뜨테야 그 나락기 인제 빨리 조아지고 그그 은제.{어, 이 논에는 나락이 좋으려고 그러면 물이 쯔 찬물이 아니고 쯔 뜨뜻해야 그 나락이 인제 빨리 좋아지고, 그게 인제.}

10305 @ 그 다투메 음 모내기하고 나서 노넵 푸리 으 나 마니 마 안 생김미까?{그 다음에 모내기하고 나서 논에 풀이 많이 안 생깁니까?}

10305 @ 머 잡폴드리 논네 모내기 하고 나며너?{뭐 잡폴들이 논에 모내기 하고 나면은?}

10305 # 예예. 예.{예. 예.}

10305 @ 그 모싱끼하고 나며너?{그 모내기하고 나면은?}

10305 @ 그릴 때 그 풀 라면 어뜨케 함미까?{그릴 때 그 풀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10305 # 지금메도 약 처가지 안데면, 머 풀란테 더러 이씨몬 다 매야지.{지금메도 약을 처

서 안되면, 풀 나는 데가 더러 있으면 다 매야지.}

10305 # 은 뽀브이 디여.{뽀아야 돼요.}

10305 @ 그걸 머 그걸 머 한다고 함미까?{그걸 뭐 한다고 함니까?}

10305 # 그그 논맨다 그르지여.{그거 논맨다고 그르지요.}

10305 @ 논매르 논매능 거느 함 메뽀뽀 뽀미까?{논매는 것은 대략 몇번 뽀니까?}

10305 @ 예전가트며 요즘말고?{예전 같으면 요즘말고?}

10305 # 아 이게 예전 그트른 세븐까지 메찌여.{아, 이게 예전 같으면 세 번까지 뽀지요.}

10305 @ 세 번 정드예?{세 번 정도요?}

10305 # 처으메느 호머 가주곤 다 텅기르 허브노코, 은제 두 분째는 그 물렁물렁 하니까, 송가주 고맘 마구 이래 이래 저서뿌고, 그 언젠 세불론 세불론맨다카른 지 세 분째 매 뿌머 인제 필매르 기심 푸리 하아도 업찌여.{처음에는 호미 가지고 다 다니면서 휘저어 놓고, 인제 두 번째는 그게 물렁물렁 하니까, 손 가지고 고만 마구 이래 이래 저어 버리고, 그 인제 세벌매기, 세벌논 맨다고 하면 인제 세 번째 마구 뭐 매 버리면 인제 피었던 기심, 풀이 하나도 없지요.}

10305 # 막 후저서 뿌르르 은제.{막 휘저어 버리면 인제.}

10305 @ 그 호우시 처음 논매기 하능 걸 머라곤 우 부르미까, 여이서너?{그 혹시 처음 논매기 하는 것을 머라고 부릅니까, 여기서는?}

10305 # 여그는 논매기한다 그르지.{여기는 논매기한다 그르지.}

10305 @ 그녀?{그냥?}

10305 # 논맨다 그르지.{논맨다 그르지.}

10305 @ 논매고 두 번째 하능거느녀?{논매고 두 번째 하는 것은요?}

10305 # 어 그그느 은젠 은제 논 전는다 카고.{어 그건 인제 논 짓는다고 하고.}

10305 @ 논 전는다 카고예?{논 짓는다고 하고요?}

10305 # 그 아미 송 가주고느, 호무 업씨~이 인제 고마 이래 일릉일릉어리스 저서 뿌름 데이.{그 아무래도 손 가지고는 호미 없으니까 인제 고만 이래 일릉일릉거려서 저어 버리면 되니까.}

10305 @ 세 번째 하능 거느?{세 번째 하는 것은?}

10305 # 세 분째 하능 거 은제 세불논맨다 그고.{세 번째 하는 것은 인제 세벌논맨다 그르고.}

10305 @ 여기는 흑신 머 얻 초벌, 두벌, 이른 시근, 아시, 이릉그너 아신논매고 이릉그느 안 씹미까, 이런 마라?{여기는 혹시 뭐 초벌, 두벌, 이런 식은, 아시, 이런 것은, 아시논매고 이런 것은 안 씹니까, 이런 말은?}

10305 # 아이 웨우 쓰지 여그도 뽀 써요.{아니, 왜요, 쓰지, 여기도 역시 써요.}

10305 # 마 아이논 호모 호부뽀 아이논맨다 그고.{마 아이논, 호무로 후빌 때는 아이논맨다 그르고.}

10305 @ 아이논맨다요?{아이논맨다고?}

10305 # 예.{예.}

10305 # 그 은제 두 분 째 저을 때느 그 두불론맨다, 고 은제 세 분째 세불론맨다 인제 그 또 그그석 그러게 그래여.{그 인제 두 번째 저을 때는 그 두벌논맨다 세 번째 세벌논맨다, 인제 그 또 그것은 그렇게 그래요.}

10305 @ 아, 그엄 아이논맨다?{아 그럼 아이논맨다?}

10305 # 두불로멘다.{두벌논멘다.}

10305 @ 그 다투메?{그 다음에?}

10305 # 세불로멘다.{세벌논멘다.}

10305 @ 그르케도 말씀하고 또 양 그러머 아까처럼?{그렇게도 말씀하고 또 안 그러면 아까처럼?}

10305 # 아, 예, 구봄 마 전는다 카고 은제.{아, 예, 그점 마 젓는다고 하고 인제.}

10305 @ 놈매고?{놈매고?}

10305 # 예, 아리론배고 인제 전는다고.{예, 아이논매고 인제 젓는다고.}

10305 @ 그 다투미 전는다 하고?{그 다음이 젓는다 하고?}

10305 # 야.{예.}

10305 # 그지 세불론멘다카고.{끝에 세벌논멘다고 하고.}

10305 @ 그 다음 머 혹시 그 여기서는 놈맨담 말고 머 김맨다 이렇 글또 이야기 함미까? {그 다음 뭐 혹시 그 여기서는 논맨다 말고 뭐 김맨다 이런 것도 이야기 함니까?}

10305 # 여 여그는 김맨다 소린 아 해.{여기는 김맨다 소리는 안 해요.}

10305 @ 안 하지예?{안 하지요?}

10305 # 예.{예.}

10305 # 여언 놈맨다 주로 논맨다[x그러지x].{여기는 논맨다, 주로 논맨다[x그러지x].}

10305 @ 그 풀 가튼 걸 머 어 여이서눔 머라고 부릅미까?{그 풀 같은 걸 뭐 여기서는 뭐 라고 부릅니까?}

10305 @ 노네 풀라눔 걸?{논에 풀 나는 걸?}

10305 # 그저 노네 풀란다 그래헤쨌.{그저 논에 풀난다 그래했지요.}

10305 @ 머 여이서는 머 언 지슴이나 먹 그릉 근 이야기 안 함미까?{뭐 여기서는 뭐 지슴 이나 뭐 그런 건 이야기 안 함니까?}

10305 # 기싱카눔 거느 은제 바테 나눔 거 은제 기시미라 그고.{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밭에 나는 것을 인제 기심이라고 하고.}

10305 @ 으 노네 나눔 거?{논에 나는 거?}

10305 # 프어 른 노네 나눔 거 무조금 푸리 마이 나이께 은 온 늴 논 쫘 매자꼬 인자 이. {뭐 뭇 논에 나는 거, 무조건 풀이 많이 나니까 오늘 논 쫘 매자고 인제 이.}

10305 @ 아, 예, 그름 반매눔 거 하고 이그 놈매눔 그 하고 그푸리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 지예?{아, 예, 그름 밭매는 것 하고 이거 논매는 것 하고풀을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렇지요?}

10305 # 예예예예, 예, 예.{예, 예, 예.}

1.4. 의생활

1.4.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

10401 @ 오느른 그 음 어제 잠시 또 이야기를 하 째짜미 하시기는 하셧는데 주로 오느른 오세 데해서 그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오늘은 그 어제 잠시 또 이야기를 째째미 하시기

는 하셨는데 주로 오늘은 옷에 대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401 # 네::.{네::.}

10401 @ 예저네 그 음 모과를 여기서는 명이.{예전에 음 목화를 여기서는 명이.}

10401 # 네, 명.{네, 명.}

10401 @ 예, 이 명을 가지고 오슬 해 이버찌 안습니까?{예, 이 명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지 않습니까?}

10401 @ 그래서 이 명은 주로 언제 심꼬 어떠 어떠케 심습니까?{그래서, 이 명은 주로 언제 심고 어떻게 어떻게 심습니까?}

10401 # 아: 명, 여는 인제 이과 절로 이과가, 이과 지내면 명을 인제 무조건 바테 여로 바서는 간:다 그런데 간:다.{아: 명, 여기는 인제 입하 절기로 입하가, 입하 지내면 명을 인제 무조건 밭에 여기로 봐서는 간다고 그런데 간다.}

10401 # 그 어제든 이야기했지만 그 브억 재를 브억 재를 인제 한 삼태미 정도 갈따 퍼다 퍼다 버가지고 거 탄 거 업스면 물로 물로 분꼬 그 명:씨'하고 갈치 이레 바테 인제 뿌리게 조케 부실부실하게 해가지고 그 서꺼 가 가지고 고를 타고 명씨를 뿌려 노코 또 과~이로 묻꼬 예 그래 노으면 인제 명이 올라오고.{그 어제든 이야기했지만 그 부억 재를 인제 한 삼태기 정도 가져다 퍼다 퍼다 부어가지고 다른 것이 없으면 물로 물로 붓고 그 명씨하고 같이 이렇게 밭에 인제 뿌리게 좋게 부실부실하게 해가지고 그 섞어 가지고 가서 골을 타고 명씨를 뿌려 놓고 또 팽이로 묻고 그렇게 해두면 인제 명이 올라오고.}

10401 @ 그 예를 들어서, 어 브억제하고 명씨하고 서꺼 가지고 그러면 뿌립니까?{그 예를 들어서, 부억 재하고 명씨하고 섞어 가지고 그러면 뿌립니까?}

10401 @ 안 그러면 하나하나 요러케 시 놓습니까, 노아가 심습니까?{안 그러면 하나하나 요렇게 씨를 놓습니까, 놓아서 심습니까?}

10401 # 이거또 인제 쪼매 가는 것도 마~이 가니까 메 소 가지고 소부로 인제 골로 타서 이레 망태에다가 봉세~이 거튼데 다마가지고 이레 빼련찌.{이 것도 인제 조금 가는 것도 많이 가니까 늘 소 가지고 쟁기로 인제 골로 타서 이렇게 망태에다가 먹동구미 같은데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렸지.}

10401 @ 음 어 인제 주로 뿌'린다 그쵸?{음, 인제 주로 뿌린다 그쵸?}

10401 # 예예.{예.}

10401 @ 애예.{예.}

10401 @ 음 그래서 그러면 이 모과를 이 뿌려가지고: 명을 뿌려가지고 거 하며는 한 명은 언제쯤 그러면 거두어 드립니까?{음, 그래서 그러면 이 목화를 뿌려가지고, 명을 뿌려가지고 하면 명은 언제쯤 그러면 거두어 들입니까?}

10401 # 아:: 명은 아:: 머 그거 이거 언제 추버야 데거든 서리 오면 서리 마즈면 안된다 말이야.{아:, 명은 아:, 뭐 그거 이거 언제 추워야 되거든 서리 오면 서리 맞으면 안 된다 말이야.}

10401 # 서리 오잔, 서리가 언제쯤 온다 그러면 오고 올따 시프면 거 서리가 올 때까지 고마 온다 시플 때까지 바테 나두면 밭에 머예 달린 거는 피고, 피면 바테서 인제 고 명, 고 명, 고 핀는 걸 따가지고 오고 따가지 오고 차례차례 따가지 오고 꼬테거는 서리가 안 맞도록 나두로 가져 비서' 비가지고 인제 타 말려 말류면 그게 또 이레 안 피도 말류면 이게 또 완전히 피진다 마리아.{서리 오자, 서리가 언제쯤 온다 그러면 오고 올 것 같다 싶으면 서리가 올 때까지 고만 온다 싶을 때까지 밭에 놓아두면 밭에 먼저 달린 것은 피고, 피면 밭

에서 인제 그 명, 그 명, 그 피었는 것을 따가져 오고 차례차례 따가져 오고 끝에 (핀)것은 서리가 안 맞도록 낮으로 가지고 베서 베가지고 인제 다 말리면 그게 또 이렇게 안 피었어도 말리면 이게 또 완전히 피진다 말아야.

10401 # 그래 인제 그거는 오슬 해 입어도 조은 거는 아~이고 좀 뽕뜨그리하지 인제.{그래 인제 그것은 옷을 해서 입어도 좋은 것은 아니고 좀 뽕뽕하지 인제.}

10401 # 뽕뜨그리기하고 쳐메꺼는 아주 깨끗하고 보: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오슬 해 입고.{뽕뽕하고 처음 것은 아주 깨끗하고 보얹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옷을 해 입고.}

10401 @ 그럼 명은 중간에 거 씨안 뿌'려가지고: 어 심어노:코 어 중간에 어떻게 거름이라든지 가꾸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두도 머 됩니까?{그럼 명은 중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심어 놓고 중간에 어떻게 거름이라든지 가꾸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두어도 됩니까?}

10401 # 아이, 그거또 거파'야지요.{아이, 그 것도 가꾸어야지요.}

10401 # 거파야 데고 그 으 비료가 업실 때는 그 인제 분전', 인부늘 그글 인제 그 단지에다 인제 퍼 질머지고 가서 인제 그 영 올라온 데 거 주고 또 거르믄 마~이 여야데 안 여으면 이거또 안 데~이까.{가꾸야 되고 비료가 없을 때는 그 인제 인분, 인분을 그 것을 인제 그 단지에다 인제 쏘어지고 가서 인제 그 명 올라온 데 주고 또 거름을 많이 넣어야 되지 않 넣으면 이것도 안 되니까.}

10401 # 이걸 잘 데야 데니까, 마저.{이걸 잘 되야 되니까, 맞어.}

10401 @ 그럼 명도 하여튼 분저니나 이런 거 예 * 일반 거름이나 이런 걸 마니 주야 * 된다 거지예.{그럼 명도 하여튼 인분이나 이런 것, * 일반 거름이나 이런 것을 많이 줘야 * 된다 그렇지요.}

10401 @ 예:{예.}

10401 # 조야데지.{줘야 되지.}

10401 @ 그래서 아까 그 명을 그러머는 그거 인제 머 피:머는 하야케 피버리는데 피기 전에 인제 거 버러지기 전에, 명:에 거 버러지기 전에 고 따먹지 안습니까?{그래서 아까 그 명을 그러면 그것이 인제 뭐 피머는 하얹게 피어버리는데 피기 전에 인제 벌어지기 전에, 명:에 벌어지기 전에 그 따먹지 안습니까?}

10401 @ 거 머.{거 뭐.}

10401 # 아 고거는.{아, 그것은.}

10401 @ 먹기도 합니까?{먹기도 합니까?}

10401 # 아이, 먹고 마고제.{아이, 먹고 말고지.}

10401 # 우린 그 온 해 입는다고 이거 모 따먹꼬려 하~이 그러치.{우리는 그 옷 해 입는다고 이 것 못 따 먹게 하니 그렇지.}

10401 @ 예:{예.}

10401 # 뽕 아들 머거보면 요거 이제 곧 떨어지고 일방 메쳐 이슬 때 요만할 때 따 머으면 그리 다고 마시 *** 흐흐.{아이들이 먹어보면 이 것 이제 꽃이 떨어지고 일방 맺혀 있을 때 이만할 때 따 먹으면 그리 달고 맛이 *** 흐흐.}

10401 @ 예, 그 거글 **.{예, 그 거것을 **.}

10401 @ 예, 그걸 그러면 고 명는 거 고걸 머라고 부릅니까?{예, 그걸 그러면 그 먹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10401 @ 여기는 부르는 이름 업습니까?{여기는 부르는 이름 없습니까?}

10401 # 거 명는 거 그거는 부르는 이름 업고 멘 명이라고 그렌는데.{그 먹는 것 그것은 부르는 이름은 없고 똑같이 명이라고 그랬는데.}

10401 @ 예::.{예::.}

10401 # 아, 명 아이라 아, 다래, 명 명따래.{아, 명 아니라 아, 다래, 명 명다래.}

10401 @ 그러치예, 명 다래라고 그러지예.{그렇지요, 명 다래라고 그러지요.}

10401 # 명, 명 다래.{명, 명 다래.}

10401 @ 예, 예, 예 그레도 여기도 명다래라고 하네예.{예, 그레도 여기도 명다래라고 하네요.}

10401 # 예, 고거 인제 따머글 ** 정도 테면 인제 명 명다래.{예, 그 것 인제 따 먹을 ** 정도 되면 인제 명 명다래.}

10401 @ 예, 안 그러면 그냥 다래 또는 명다래.{예, 안 그러면 그냥 다래 또는 명다래.}

10401 # 명따래 그리고 인제 피뿌면 그러면 완전 명이다.{명다래, 그리고 인제 피었으면 그러면 완전 명이다.}

10401 @ 그러치예, 피며는 피며는 몬 먹그니까, 예.{그렇지요, 피면은 피면 못 먹으니까, 예.}

10401 @ 예: 그래서 응::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모과를 그 명을 따가와가지고 이견는 거 버려전걸 잘 이근 걸 예: 어떠케 말릅니까 안 그러면 안 말리고 그대로 저장해놔다가 어떠케 씨: 씨안 빼내고 이러케 합니까 어떠케 합니까?{그래서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목화를 그 명을 따서 와가지고 익었는 것, 벌어진 것, 잘 익은 것을 어떻게 말릅니까, 안 그러면 안 말리고 그대로 저장해놔다가 어떻게 씨:, 씨앗 빼내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0401 # 하주 말려야 데지.{아주 말려야 되지.}

10401 # 안 말류면 그거 저장해 노면 다 그거 아네 씨가 마~이 인키 때문에 다 서거뿌지요.{안 말리면 그 것 저장해 놓으면 모두 그 것 안에 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 섞어버리지요.}

10401 @ 예::.{예::.}

10401 # 아주 말랴야 말랴가지고 말려가지곤 머 여르메는 할 시가~이 업시까네 머 인제 겨울게 또 그걸 해야 또 머 오슬 해입기 때미네 겨울게 해야 데지.{아주 말려야, 말려 가지고 말려 가지곤 여름(+ 아마도 가을인데 잘못 발화한 것으로 보임.)에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인제 겨울에 또 그것을 해야 또 옷을 해 입기 때문에 겨울에 해야 되지.}

10401 @ 겨우레 그러며는 소::를 만들기 위해서 쭈 어떠케 합니까?{겨울에 그러면 숨:을 만들기 위해서 쭈 어떻게 합니까?}

10401 @ 머 명 따가 와가 말려가 해 노아따가 겨우레 어떠케 해서 오슬 해입습니까?{뭐 명을 따가지고 와서 말려서 해 놓았다가 겨울에 어떻게 해서 옷을 해 입습니까?}

10401 # 거 인제 명을 거 말려가지고 팍: 저장해놔따가 겨울게 하는데 그 저 췌기란 게 이서 췌기라꼬 멘 그거또 거어: 어 아 우리가 그 기술짜가 그거 인제 멩그러, 남글 참나글 가지고 멩그러는데 인제 거 머~을 이레 여코 이거 돌리면 차꾸 여으면 이거 인제 명씨는 아포로 고대로 떠러지고 이거는 머~은 저짜글 고마 그테로 피해가꼬 자꾸 나가고 저거 여코 돌리면 데는기라.{그 인제 명을 말려 가지고 폭: 저장해 놓았다가 겨울에 하는데 그 저 췌기라는 게 있어, 췌기라고 그것도 우리가 그 기술자가 그것 인제 만들어, 나무를 참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인제 그 명을 이렇게 넣고 이것을 돌리면서 자꾸 넣으면 이것 인제 명씨는 앞으로 그대로 떨어지고 이 것은 명은 저쪽을 그만 그대로 피해가고 자꾸 나가고 저 것

을 넣고 돌리면 되는 것이라.}

10401 @ 에::.{예::.}

10401 # 그레 가지고 인제 다: 인제 명씨를 발켜'네'시면 그걸 가지고 또 활 인제, 활'.{그래 가지고 인제 다 인제 명씨를 가려 내었으면 그 것을 가지고 또 활 있제, 활.}

10401 @ 에 에::.{예, 예.}

10401 # 활 이거 활, 활 쏘는 활!{활 이 것 활, 활 쏘는 활!}

10401 @ 에.{예.}

10401 # 또 그 활보다는 틀렌치.{또 그 활보다는 틀리지.}

10401 # 인제 따글 가지고 이 크닥 이레 멘그러는데 이런데 노코 그거 가지고 자꾸 텅구지, 이런데 노코 텅구면 요만헨텐게 이만해진다 마리다.{인제 닥을 가지고 이 커다랗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데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텅구지(+ 치지), 이런 데 놓고 텅구면(+ 치면) 요만한 게 이만해진다고 말이다.}

10401 # 요만헨텐게 고마 자꾸 텅구게 마련, 예저네 그거 머 머 한 가마~:이 정도 티우면 이 방 머: 거의 찰 정도로 머 그거 그만치 부푸지.{요만헨던 게 고만 자꾸 텅구게 마련이지, 예전에 그것 한 가마니 정도 텅구면면 이 방 뒤편 거의 찰 정도를 뒤편 그것 그만치 부풀지.}

10401 # 부푸면 그거 가지고 인제 어엔나 그면 인제 그 수꾸 수꾸 대 왜 이거 ** 우예 찢라뿌고 안 미테 찢라뿌고 대궁이도 가느당게 요런 게 이따.{부풀면 그 것을 가지고 인제 어쨌나 그러면 인제 그 수수, 수숫대 왜 이것 ** 위는 잘라버리고 안은 밑에 잘라버리고 대궁이도 가느다란 것이 요런 게 있다.}

10401 # 그걸 가지고 인제 저레 터러가지곤 인제 무저노코는 쪼메콤 떠다가 이레 늘거노코 인제 그 수수 대궁이 가지고 대고 이레 비비면 고고 또로로 말릴코 인제 그러면 또 놀리면 수꾸데가 고대로 빠진다 마리아.{그 것을 가지고 인제 저렇게 털어가지고는 인제 몽쳐놓고는 조금씩 떼다가 이렇게 늘어놓고 인제 그 수수 대궁이 가지고 대고 이렇게 비비면 그것이 도로록 말리고, 인제 그러면 또 놀리면 수숫대가 그대로 빠진다 마리아.}

10401 # 빠지면 요거 인제 아 요레 차꾸 무지지요, 이걸 고레 전부 다 비비야 데 이걸.{빠지면 요것 인제 아, 요렇게 자꾸 몽치지요, 이 것을 고루 전부 다 비벼야 되 이것을.}

10401 # 고레 비벼가지고 찢 이제 무울'레 물'레 하고 인제 그 세 인제 가락이라 그지.{그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물레, 물레하고 인제 그 쇠 인제 가락이라 그러지.}

10401 # 가락하고 그거 또 고 아네는 인제 수꾸 저저 서숙, 집 그 대구~이를 가지고 요만치 고 가라게 드러갈만치 요만치 딱 찢라가지고 뚜드려서 고 가라게 인제 꼬 딱 찢거 가지고 고레 오레 인제 비벼난 놈 요거 하나씩 요만큼하게 손가락만큼하다 마라.{가락하고 그것 또 그 안에는 인제 수수 저 조, 짚 그 대궁이를 가지고 요만큼 그 가락에 들어갈만큼 요만큼 정확히 찢라가지고 뚜드려서 그 가락에 인제 그 정확히 찍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인제 비벼난 것 이 것 하나씩 요만큼하게 손가락만큼하다 말이다.}

10401 # 고 하나씩 가즈고 요레 데고 데고 이거 돌리고 이거 땡기노으만 시리 그대::로 빠져나온다 카이.{그 하나씩 가지고 요렇게 데고, 데고 이 것을 돌리고 이 것을 당겨놓으면 실이 그대로 빠져나온다고 해.}

10401 # 나오면 또 이레 가즈고 또 그 또 가쁘고 이거 이놈 마는 거 다할 때까지 멍 이레 가즈고 돌리고 이거 인제 실로 멘그러가 감고 감고 이레서 인제 또 굴거면 이만하면 이걸 또 빼네 나두고 또 그레 멍글고 또 멍그러 이 이레 멍그러 노은게 보면 머 이레 다 해노아시~ 이게 만치.{나오면 또 이렇게 가지고 또 그 또 감어버리고 이 것 이 것을 마는 것

다할 때까지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돌리고 이 것 인제 실로 만들어서 감고, 감고 이렇게 해서 인제 또 굶으면 이만하면 이것을 또 빼어 놓아두고 또 그렇게 만들고 또 만들어 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보면 뭐 이렇게 다 해 놓았으니, 이 것이 많지.}

10401 @ 예:.{예.}

10401 # 쯤 이거 거 거 그대로 고마 얘기 전부 다 하까요?{저 이거 그대로 고만 얘기를 전부 다 할까요?}

10401 @ 예, 예. 해주십시오.{예, 예. 해주십시오.}

10401 @ 예, 조습니다:.{예, 조습니다.}

10401 # 그레 인제 그레가지고 다 해가지고는 이거 또 며~을 이거 **(+ 군소리임.) 인제 마다~: 가따 노코 이거도 마라야 텐다 마리아.{그레 인제 그레 가지고 다 해가지고는 이것, 또 명을 이 것 ** 인제 마당에 가져다 놓고 이 것도 말아야 된다 말이야.}

10401 @ 음:.{음.}

10401 # 여게 인제 베짖 베짖 정도 되면 요 바디가 요 구무가 얼텐데 요 주 줄로 이거 베 째로 오래 해가지고 타: 마라가지고 인제 한 피리면 그저 자가 요만하게나 요거 요만한 자로 사:십짜가 한피리라.{여기에 인제 베를 짖, 베를 짖 정도가 되면 요 바디가 요 구멍에 얼마인데, 요 줄로 이 것 몇 개로 오래 해가지고 다 말아가지고 인제 한 필이면 그저 자가 요만하게나 요만한 자로 사십 자가 한필이라.}

10401 @ 음:.{음.}

10401 # 사:십짜가 요레 베 짜가지고.{사십 자가 요렇게 베를 짜가지고.}

10401 @ ** 예:.{** 예.}

10401 # 고래 인제 사:십짜 될 정도로 해가지고 그 인제 베를 나라가지고(+ 마라가지고형의 발음실수로 판단됨.) 또 불로 삼도~ 불로 피워 가지고 인제 그 베로 저 풀로 해가지고 그거 또 하 전부 빼득하도록 풀로 해가지고 전부 다 미겨야 데.{그렇게 인제 사십 자 될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인제 베를 말아가지고 또 불로 삼동에 불로 피워 가지고 인제 그 베로 저 풀로 해 가지고 그것 또 전부 빠빳하도록 풀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먹여야 돼.}

10401 @ 음:.{음.}

10401 # 그 인제 또 소:리란게 이서 그저 풀 미기는 술:.{그 인제 또 술이란 것이 있어서 그저 풀을 먹이는 술.}

10401 @ 예:.{예.}

10401 # 그레 불로 해가지고 불 해논는 거는 인제 풀, 풀말란(+ 풀발란의 발음 실수임.) 풀발란 거거 인제 마리도록 마리라꼬 그레 말랴가지고 인제 도토마리 해가지고 또 이레 감:꼬 마리면 감:꼬 자꾸 메 느러가꾸 사십짜 데는 걸 다 해가지고 그러면 인제 도토마리에 인제 이만:하게 두리가 크지 머.{그렇게 불로 해 가지고 불을 해 놓는 것은 인제 풀, 풀발란 풀을 발른 그것 인제 마르도록 마르라고 그렇게 말려 가지고 인제 도토마리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감고 마르면 감고 자꾸 똑똑 늘어가지고 사십 자 되는 걸 다 해 가지고 그러면 인제 도토마리에 인제 이만하게 두리가 크게 되지 뭐.}

10401 # 그리 큰 걸 인제 방~:다 베틀 채리고 그림꼴 언저 가주고 거 저 또 부기 이서 ** 더가따가 나가따가 하는 게 여:기 그도 멘 이거 이거 헨는걸 이거 가따가 도 부게 언즐 때는 또 이걸 이레 물레 자산 걸 그거또 그대로 하면 안 데고 똑 저게 꾸'우리라꼬 꾸리라꼬 또 이레 소느로 베 한필 짖 때까지 그 꾸리를 다 감아야 데.{그렇게 큰 것을 인제 방에 다 베틀을 차리고 그런 것을 얹어 가지고 그 저 또 북이 있어 **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

이 여기 그도 똑같이 이 것 이 것 했는 걸 이 것 가져다가 또 북에 얹을 때는 또 이 것을 이렇게 물레로 자은 것을 그 것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저게 꾸:리라고 꾸리라고 또 이렇게 손으로 베 한 필을 찢 때까지 그 꾸리를 다 감아야 돼.}

10401 @ 예: {예.}

10401 # 소느로 이레 가'마가지고 인제 그 다 부게 여가지고 짜면 그레 짜면 인제 그게 베가 테면 그 베를 가즈고 또 쓰: 다 짜고는 그 무레 다마서 또: 그게 그 머 독끼 인는지 엄는지 그는 모르지만 그거 무레 담가가 쓴'꼬: 그레 헤 헤가지고는 글 때는 다 말려가지곤 글 때는 인제 오슬 인제 헤가지고 인제 ***. {손으로 이렇게 감아 가지고 인제 그 다 북에 넣어 가지고 짜면 그렇게 짜면 인제 그 것이 베가 되면 그 베를 가지고 또 다 짜고는 그 물에 담아서 또 그게 뭐 독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물에 담구어서 썰고 그렇게 헤 가지고는 그 때는 다 말려가지고 그 때는 인제 옷을 인제 헤가지고 인제 ***.}

10401 @ 거 그러머는 무명: 물레에 인제 무명실 명시를 헨는 걸 전부 다 부게 너을려머는 ** ** *. {그 그러면 무명, 물레에 인제 무명실, 명실을 했는 것을 전부 다 북에 넣으려머는 ** ** *.}

10401 # 그거 인저 마저. ***** 예 꾸리라 그런데 그저 꾸리로 소느로 오레 가므머 고 부게 드러갈만:하게 또 고레 또 감게 요레 가므면 고레 가마가지고 하나 될만: 하면 인제 한게 한게식 해노코 그걸 다 찢 때 베를 얼만침 이거 한 필 다 찢라그면 멘 난 데야 텐다카는 걸 예산 데고 그레 인제 비벼 가지고 머 열피리고 수무피리고 그레해야지 머 한두필 가 데도 안하고 식구 마느면 온 다 헤이블라 그**. {그거 인저 맞아. ***** 예, 꾸리라고 그러는데 그저 꾸리로 손으로 이렇게 감으면 그 북에 들어갈 만하게 또 그렇게 또 감겨, 이렇게 감으면 그렇게 감아 가지고 하나가 될 만하면 인제 한 개, 한 개씩 해 놓고 그걸 다 찢 때 베를 어느 만큼 이 것 한 필 다 찢려고 하면 몇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걸 예산을 하고 그렇게 인제 비벼 가지고 뭐 열 필이고 스물 필이고 그렇게 해야지, 뭐 한두 필 가지고 되지도 않고 식구 많으면 옷 다 해 입으려고 그**.}

10401 # 흐 흐흐흐. {흐 흐흐흐.}

10401 @ 흐흐흐. {흐흐흐.}

10401 @ 그: 그 정말 이리 만습네요.그 드러보 *****(+ 제보자의 말이 갑자기 나와서 겹쳐져 파악하기 힘들.).{그, 그 정말 일이 많으네요. 그 들어보 *****.}

10401 @ 그 예 풀 먹일 때 쓰: 술: 아~이습니까?{그 풀 먹일 때 쓰는 술 있지 않습니까?}

10401 # 예예. {예.}

10401 @ 술: 그거는 머까 만듭니까?{술, 그것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10401 # 그거 술: 아: 술: [x카는x] 사네 가먼 하:: 그제 소울' 멩그는, 소울' 멩그는 그런 또 풀 데구가 이서여.{그거 술 아, 술 [x카는x] 산에 가먼 그제 술 만드는, 술 만드는 그런 또 풀 줄기가 있어요.}

10401 # 풀데구~이 그거는 크도 안 하고 요만하~이 그런데 꼬치 또 아::주 그거 고바요. {풀줄기 그것은 크지도 않고 요만한 것이 그런데 꽃이 아주 그것이 고와요.}

10401 # 아주 꼬치 그 곱꼬 그 꼬치 조은데 세: 그제 이르든 이르든 네 잘 모르겠는데.{아주 꽃이 그 곱고 그 꽃이 좋은데 그제 이름은,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10401 @ 음: {음.}

10401 # 그레 그걸 케 가지고 인제 메:: 씨뿌고 말라서 인제 술 그 또 술: 멘드는 사라문 따로 이찌 건.{그렇게 그걸 케 가지고 인제 똑꼭 썰어버리고 말라서 인제 술, 그 또 술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지 그건.}

10401 # 아주 그는 기술짜라야 테니까.{아주 그는 기술자라야 되니까.}

10401 # 그 또 그 지비 멩그는 지베 가 인제 가따주고 조가지고 술: 하나 멩그러 달라 그러면 그 또 또 얼마 그거또 기양 멘드러 주는 건또 아~이고 돈 얼마 받고 인제 그레 해가지고 멩그러가지고 인제 안 그러면 사다 하든지 머.{그 또 그 집이, 만드는 집에 가 인제 가져다주고 주어가지고 술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 또 얼마, 그 것도 그냥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얼마 받고 인제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인제 안 그러면 사다 하든지 뭐.}

10401 @ 거 푸른 그람 머 가지고 만듭니까?{그 풀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만듭니까?}

10401 # 주로 머 땅거 업시~이 서숙 거 서숙 심** 가지고 줍쌀로 하지*.{주로 뭐 다른 것 없으니까 줍쌀 그 줍쌀 심** 가지고 줍쌀로 하지*.}

10401 @ 예: {예.}

10401 # 줍쌀리 그지 서숙살로 ***. {줍쌀리라 그러지, 서숙쌀로 ***.}

10401 @ 예: 그 서숙 까주고 풀 만들면 풀도 마니 만드려야 데게습니더.{예, 그 줍쌀 가지고 풀을 만드려면 풀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10401 # 마~이 만그려야 데지. {많이 만들어야 되지.}

10401 # 머 어 어. {뭐.}

10401 # 인제 할라 그라머 머 버지기로 머 저거로 큰 버지기로 한: 번지기로 머 그 쪼넨 소틀 한 소슬 *** 바야지. {인제 하려고 그러면 뭐 자배기로 뭐 저것으로 큰 자배기로 뭐 그 조그만 술에 한 술을 *** 바야지.}

10401 @ 음, 그라면 무명: 그거 예를 드려서 아까 베트레 해서 베를 짜지 안습니까? {음, 그러면 무명, 그것 예를 들어서 아까 베틀에 해서 베를 짜지 않습니까?}

10401 @ 아까 한 이 정도 포그로 해서. {아까 한 이 정도 폭으로 해서.}

10401 # 한 자 쫘 넘께나. {한 자 조금 넘거나.}

10401 @ 예. {예.}

10401 # 마저요. {맞아요.}

10401 @ 한자 호 자반 정도 포그로 해서 사십짜가. {한 자 혹은 한자반 정도 폭으로 해서 사십 자가.}

10401 # 자반 정도 마저. {한자반 정도 맞아.}

10401 # 야. {예.}

10401 # 기리는 인제 골 때 자로 요만 자로 제 가며 하는데 골로 인제 사십짜가 한필라 그레. {길이는 인제 그 때 자로 요만한 자로 재가며 하는데 그 것으로 인제 사십 자가 한 필이라 그러지.}

10401 @ 예: {예.}

10401 # 필로 한 필이라 그레. {필로 한 필이라고 그러지.}

10401 @ 그라마 그 한 필 짜가지고 썬설라 그라면 그거또 상당히 힘들겡습니다. {그러면 그 한 필 짜 가지고 썬으려고 그러면 그 것도 상당히 힘들겡습니다.}

10401 # 아:, 힘드지요, 그도 사십짜 그것또 마라 마구 푸러 노으면 머 업구 메다수 의시미 마니 들데. {아, 힘들지요, 그것도 사십 자 그 것도 말아서 마구 풀어어 놓으면 뭐 없고 미터수가 의심이 많이 드네.}

10401 @ 그런데, 그냥 메 멩무레 썬서니까 안 그라면 무레 다른 거까 비누나 그런거까 신

습니까?{그런데, 그냥 맹물에 씻습니까 안 그러면 물에 다른 것이나 비누나 그런 것으로 씻 습니까?}

10401 # 그럴 때는 비누도 별로렌찌,비누도 업슬 때라.{그럴 때는 비누도 별로였지, 비누도 없을 때라.}

10401 # 마, 고만 맹무레 주로 맹무레 하고 안 그러면 이거 브억 제: 나무 떼이니까 브억 제를 가지고 근제 제무리라고 그러지.{마, 고만 맹물에 주로 맹물에 하고 안 그러면 이 것 아궁이 재, 나무를 떼니까 아궁이 재를 가지고 그 때 잿물이라고 그러지.}

10401 @ 음.{음.}

10401 # 인제 크다란 버지기에 버지기 거튼데 미테 인제 구무 똥꼬 그 아네 인제 제 안 빠지도록 지피나 멀 이레 깔고 저레 노코 그 우에다 물로 분꼬 하면 그 제가 노:라케 우리 가지고 그 무리 제무리 그제 그 제 그제 그 물 나오면 독따 카이.{인제 커다란 바가지에 바 가지 같은 것에 밑에 인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인제 재가 안 빠지도록 쥘이나 무엇을 이렇 게 깔고 저렇게 놓고 그 위에다 물로 붓고 하면 그 재가 노랑게 우러져 가지고 그 물이 잿 물이 그제 그 때 그제 그 물이 나오면 독하지.}

10401 # 그 물로 해야 그 또 빠려야 데.{그 물로 해야 그 또 빨아야 돼.}

10401 # 맹무레 기양 빠라야 마저.{맹물에 그냥 빨아야 맞어.}

10401 @ 으 그러마 인제 브억 제 그레 가지고 젼물로 빨며느:으 거 *** 세까리 더 히집니 까?{그러면 인제 아궁이 재를 그렇게 가지고 잿물로 빨면은 거 *** 색깔이 더 희집니다.}

10401 # 그러치, 세까리가 보아 데지.{그렇지, 색깔이 보양게 되지.}

10401 # 글 떼 우리 머 여 클 때만 해도 비누가 업시~이 전부 젼물로 바타가지고 이런 온 또 명오시나 참 그저 삼베오시나 젼물 아~이면 그 빠, 빠지를 못해여.{그 때 우리가 뭐 클 때만 해도 비누가 없으니까 전부 잿물로 받쳐가지고 이런 옷도 명웃이나 참 그저 삼베웃이 나 잿물이 아니면 그 빨지를 못해요.}

10401 @ 음.{음.}

10401 @ 그런데 젼무른 주로 나무 떼어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밀지비나 보리지비나 이 런 거 태워서 합니까?{그런데 잿물은 주로 나무를 떼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밀짚이나 보리짚이나 이런 것을 태워서 합니까?}

10401 # 밀짚 보리짚은 데도 안 하고 순 나무, 나무 떼가지고 나무 인자 저런 브어게다가 음: 하리 적 여어가지고는 제가 만치 안코 하~이 그걸 쳐네지 안 하고 가마~이 나따 며칠 그레 만:토록 자꾸 인제 저녁매둥 때:고 *** 마:너면 인제 퍼네 가지고 인제.{밀짚 보리짚은 되지도 았고 순 나무, 나무를 떼 가지고 나무 인제 저런 아궁이에다가 음, 하루 저녁 넣어 가지고는 재가 많지 았고 하니 그걸 쳐내지 았고 가만이 놓아다가 며칠 그렇게 많도록 자꾸 인제 저녁마다 (불을)때고 *** 많으면 인제 퍼내 가지고 인제.}

10401 @ 예.{예.}

10401 @ 그 브억 제는 아주 요'긴하게 마~이 사용 된네요.{그 아궁이 재는 아주 요긴하게 많이 사용 되었네요.}

10401 # 마~이 사용 마~이 데꼬말고.{많이 사용, 많이 되었고 말고.}

10401 @ 그 젼물로도 스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씨알 뿌릴 때 거르므로 거름임니까 그 건 머로 웨?{그 잿물로도 스고 아까 말씀을 하시기로는 그 씨앗 뿌릴 때 거름으로 거름입니 까, 그것은 무엇으로 왜?}

10401# 예: 마시니더.{예, 맞습니다.}

10401 # 그리 인제 그건 거름 테기지.{그렇게 인제 그것은 거름 턱이지.}

10401 # 그건 독끼가 이시~이까 그걸 머 물로 바다 네뽀고 우라 네뽀고 하는 게 아~이고 그거 그테로 브역제로 해가지고 그거 이제 서끄으~이까 그거 멘 비료 효과한 하고 이제 가 따꼬 예 그레 생각하는기지.{그 것은 독끼가 있으니까 그걸 뭐 물로 받아 내버리고 우려 내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것 그대로 아궁이 재로 해 가지고 그 것 이제 섞으니까 그 것이 똑같이 비료 효과하고 이제 같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10401 @ 그럼 예를 드려 아까 인제 주로 머 명은 그어: 실로 베를 짜가지고 머 무명베만 사용합니까?{그럼 예를 들어 아까 인제 주로 뭐 명은 실로 베를 짜가지고 뭐 무명베만 사용합니까?}

10401 @ 안 그러면 숨:으로도 나뽀기도 하고 또 머 실로도 자사서 실로도 무명실로도 쓰고 그러케 합니까?{안 그러면 숨으로 놓아두기도 하고 또 뭐 실로도 짜서 실로도 무명실로도 쓰고 그렇게 합니까?}

10401 @ 안 그러면 주로 베 짜는데만 쓸니까?{안 그러면 주로 베를 짜는데만 쓸니까?}

10401 # 인제 베 짜는 거는 오슬 해입꼬 또 저 이불 숨:, 소미라 그런 지금 소미라 그러지.{인제 베를 짜는 것은 옷을 해 입고 또 저 이불 숨, 숨이라 그런 것은 지금 숨이라 그러지.}

10401 # 글 때는 우리는 여 소게라 그러지.{그 때는 우리는 여기서 숨이라 그러지.}

10401 @ 아, 소게?{아, 숨?}

10401 # 소게, 헤헤헤헤.{숨, 헤헤헤헤.}

10401 @ 예, 맞습니다.{예, 맞습니다.}

10401 # 소게 드러따 해서 소게.{속에 들었다고 해서 숨.}

10401 @ 예.{예.}

10401 # 소게지 그거또 인제 활로 텅구먼 인제 병그러케 해가지고 인제 이불 소게 여코 이레 멘드는데 그거 해 노으면 거 그러케 떠실 수가 업찌.{숨이지 그 것도 인제 활로 텅기면 인제 둥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이불 속에 넣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을 해 놓으면 그렇게 따듯할 수가 업지.}

10401 # 오세는 그런거 업시~이 글치 지그미라도 이시면 그게 도이~ 엄청나게 마~이 갈께레요.{요사이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갈 것이에요.}

10401 @ 소게가 요즘 또 머 예전만큼 조은 소게도 잘 업코.{숨이 요즘 또 뭐 예전만큼 좋은 숨도 잘 업고.}

10401 # 어:업찌, 오세는 전부 다 소게 나와도 이 명소게가 아이~고 나이롱이자네요.{업지, 요사이는 전부 다 숨이 나와도 이 명숨이 아니고 나일론이잖아요.}

10401 # 그치 시폰데 아마 나이롱 호호호호.{그렇지 싶은데 아마 나이롱, 호호호호.}

10402 @ 으 으: 그 다메 그 이 명 가지고는 그러케 하고 그 다옴에 여르메는 주로 머 어떤 옷 입습니까?{그 다음에 그 이 명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주로 뭐 어떤 옷 입습니까?}

10402 # 여르메는 어제 그레찌마는 그 웨 게랍 그레찌 삼'.{여름에는 어제 그랬지마는 그 왜 겨릅, 그랬지, 삼'}

10402 @ 예, 예.{예.}

10402 # 여르메는 인제 사물 가지 사물 가지고 인제 해결했는데 지금 마저 지금즈믄 인제

삼 그레 가지고 삼 이킬 때라.{여름에는 인제 삼을 가지고 삼을 가지고 인제 해결했는데 지금 맞아, 지금쯤은 인제 삼 그레 가지고 삼을 익힐 때라.}

10402 # 인제 한참 뜨거울 때 인제 한다 마리지.{인제 한참 뜨거울 때 인제 한다 말이지.}

10402 # 삼도 사르는 그거 인제 보메 초보메 거 인제 삼씨'이' 오세 그 말하면 그 이게 머로?{삼도, 삼은 그 것 인제 봄에, 초봄에 그 인제 삼씨 요사이로 그 말하면 그, 이 것이 무엇이지?}

10402 # 머 데마초라 카제.{뭐, 데마초라고 하지.}

10402 @ 예, 데마.{예, 데마.}

10402 # 그제 우리 안죽또 저 한: 피기 나 이떠라꼬요.{그 것이 우리 아직도 저 한 포기가 나 있더라고요.}

10402 # 떡 보이~.{척 보니까.}

10402 # 그거 이제 그 사물 삼씨'이'를 헤메둥 그걸 바다가즈고 조은 거는 가으르 삼씨'이' 한다꼬 요레 바틀 마~이 하먼 가으레 빠:익 도라 숨겨 노코 이거는 네너네 씨아슬 헤가지고 이거 또 사물 한다고, 그레 복판네는 비다가 그거 참 미끈하고 그거 참 보면 늘씨'인'하이다, 마.{그것 이제 그 삼을 삼씨를 해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좋은 것은 가을에 삼씨 한다고 이렇게 받을 많이 하먼 가을에 빙 돌아 심어 놓고 이 것은 내년엔 씨앗을 해 가지고 이 것을 또 삼을 한다고, 그렇게 복판에는 베다가 그 것 그 것이 참 미끈하고 그 것을 참 보면 늘씬하다, 마}

10402 @ 예.{예.}

10402 # 고이 하나 업'꼬 마저 쪽조 그레 인제 그레가지고 삼이퍼리 여게로 삼이퍼리라고 그러는데 또 아 건 여게는 데카리꼬 나무칼로 멩그러가지고 또 세칼로 하먼 안 데고 나무칼로 멩그러가지고 인제 들고 이퍼리 참: 다: 쳐뿌고 또 요마:크만 무꺼 가지고 이게 요레 무꺼 가지고 아 요레 무꺼는 거는 수므단 가지고 한 단, 크게 한 단씩 이게 한 단 아주 참 힘신 사라미라야 이걸 사:물 두단 저따 마리아.{공이 하나 없고 마저, 쪽쪽(+ 아주 쪽쪽 곧다는 말임.) 그렇게 인제 그렇게 해 가지고 삼이파리 여기 말로 삼이파리라고 그러는데 또 여기는 대칼이고 나무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쇠칼로 하먼 안 되고 나무칼로 만들어 가지고 인제 (+ 칼을)들고 이파리를 다 쳐버리고 또 요만큼만 묶어 가지고 이 것이 요렇게 묶어 가지고 아, 요렇게 묶는 것은 스무단을 가지고 한 단, 크게 한 단씩 이 것이 한 단, 아주 정말로 힘이 쉰 사람이라야 이 것을 삼을 두 단을 졌다 말아야.}

10402 # 그레 무꺼 가지고 인제 아: 그건 또 개인 익히도 모타고 동네사람 마 합똥을 해가지고 저 사네 어데 물 조은데 가서 구테~이를 파고 인제 그레 쫘 불로 떼가지고 돌글 그다 쳐여어 돌글 달과 가지고 인제 사물 이켜야 이켜 가지고.{그렇게 묶어 가지고 인제 아, 그것은 또 개인은 익히지도 못 하고 동네 사람이 합똥을 해 가지고 저 산에 어디 물이 좋은 곳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인제 그 때쫘 불을 떼 가지고 돌을 그 곳에 처넣어 돌을 달구어 가지고 인제 삼을 익혀야 익혀 가지고.}

10402 @ 예:, 그라문 사물 그레 가지고 도'오'레 불 떼가지고 도를 달가 가지고 사물 이켜 가지고 그 다오메 삼물 물 소게 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예, 그러면 삼을 그렇게 해 가지고 돌에 불을 떼 가지고 돌을 달구어 가지고 삼을 익혀 가지고 그 다음에 삼을 물 속에 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10402 # 그레 가지고 사물 마~이 하먼 다' 무레 여:면 또 안데고 서꼬 이걸 인제 하로 머 이만한 한 단, 네 식꾸가 업스면 네 혼자 빼길 이걸 사물 빼끼야 텐다 마리아.{그레 가지고

삼을 많이 하면 다 물에 넣으면 또 안 되고 섞고 이 것을 인제 하루 뭐 이만한 한 단, 내 식구가 없으면 내 혼자 벗길, 이 것을 삼을 벗겨야 된다 말이야.}

10402 # 계를 나오도록 껍뎀기를 베끼는데 이켜가지고 베낄만하면 네 혼자 베낄 만한 한 단 무레 가따 푸옥 다마야 데에.{겨를대가 나오도록 껍질을 벗기는데 익혀 가지고 벗길 만하면 내 혼자 벗길 만한 한 단 물에 가져다 푸옥 담구어야 되지.}

10402 # 그 다암 나머지는 또 피 전부 다 말려야 되지.{그 다음 나머지는 또 껍질을 전부 다 말려야 되지.}

10402 # 이거 저거 세기 안 가고 안 썩도록 바:썩 말려가지고 딱 무꺼서 인제 저장해 노코 그 또 이거 무레 다만 거 이놈 다 베끼면 이 말라는 것 또 제분 무레 가따 다마서 그 또 뿌르면 이놈 가따 다 베끼고 그레 인제 다 베끼무는 글 때는 인제 베졌는 걸 전부 또 말랴 말랴가지고 말랴가지고 인제 무꺼서 딱 저장해노코는 다 베껴따 시프른 다 저장해노코는 머 우리는 안 사마찌마는 아느로는 인제 삼 삼는다고 그레 사물.{이 것 저 것 색이 안 가고 안 썩도록 바썩 말려 가지고 꼭 묶어서 인제 저장해 놓고 그 또 이 것 물에 담아놓은 것 이 놈을 다 벗기면 이 말린 것 또 두 번째로 물에 가져다 담아서 그 또 불으면 이 놈을 가져다 다 벗기고 그렇게 인제 다 벗기면 그 때는 인제 버졌는 것을 모두 또 말려 말려가지고, 말려가지고 인제 묶어서 딱 저장해 놓고는 다 벗겼다고 싶으면 다 저장해 놓고는 뭐 우리는 안 삼았지마는 안으로는 인제 삼을 삼는다고 그렇게 해, 삼을.}

10402 @ 음:.{음.}

10402 # 여 광지리 하고 이거 징게따리라 그지:.(여기 광주리 하고 이 것을 지게다리라 그러지.}

10402 # 징게따리라 여 두 날 파늘 해노코 여 남글 꼬바 노코 여거 이레 텅겨라 여거다 사물 여거 양조게 그러노코 이거 하나씩 하나씩 아~이 이거또 또 쟈야 데 이거 너부이~까.{지게다리라는 것을 여기 두 날 판을 해 놓고 여기 나무를 쏘아 놓고 여기 이렇게 된 것이라, 여기 다 삼을 여기 양 쪽에 걸어놓고 이 것 하나씩 하나씩 아니 이 것도 또 찢어야 돼, 이 것이 넓으니까.}

10402 @ 음:.{음.}

10402 # 가느, 아주 곱게 할라면 아주 가늘게 쟈:고 까 우리 머 농초네 일 하는 사람 입을 라고 하면 머 툭툭해야 되이~까 글 때는 굴따콤하게 쟈고 인제 그레 쟈가지고 또 말려서 저장 다 해노코는 글 때부터는 인제 징게따리라 카는 거 소오 노코 사물 인제 삼는데 광지리 하나 가따 노코 그 머 아느로 주로 인제 여 무르파게 여 데가지고 쟈는 걸 이블 또 이블 안 데마 안 데.{가늘고 아주 곱게 하려면 아주 가늘게 찢고, 마 우리 뭐 농촌에 일 하는 사람이 입으려고 하면 뭐 툭툭해야 되니까 그 때는 곱게 찢고 인제 그렇게 찢어가지고 또 말려서 저장을 다 해 놓고는 그 때부터는 인제 지게다리라 하고는 것을 세워 놓고 삼을 인제 삼는데 광주리 하나 가져다 놓고 그 뭐 안으로 주로 인제 여기 무르팍에 여기 놓아가지고 찢었는 것을, 입을 또 입을 안 대면 안 돼.}

10402 # 입 데가지고 또 요레 요 가능걸 또 고걸 반 쟈야데고 머리도 쟈가지고 요노를 요다 데고 이레 비비면 인제 이거 비비면 요 딱: 꼬여뽀다 마리아.{입 대어 가지고 또 요렇게 이 가는 것을 또 그것을 반으로 찢어야 되고 머리도 찢어 가지고 이 놈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비비면 인제 이 것이 비비면 요기에 꼭 꼬여 버린다 말이야.}

10402 # 요 고마.{여기 고만.}

10402 # 땡겨도 그레 떠러지지도 안하지 고레고레 해뿌만 요만치 요레라도.{당겨도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지, 그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이 만큼 이렇게라도.}

10402 # 그레 가지고 그 마는 걸 한테 전부 다 이어야 데여.{그렇게 가지고 그 많은 것을 한 곳에 전부 다 이어야 되지요.}

10402 @ 아:{아.}

10402 # 다 살마네 살마가지고 살마가지고 이거또 명메로 멘 그거 또 열 무데기로 아, 아~이레 이거 이거 바디 구무데로 인제 멘그러야 데.{다 삶아 내어 삶아 가지고, 삶아 가지고 이것도 명처럼 똑 같게 그 것을 또 열 무더기로 아, 아니라 이 것, 이 것 바디 구멍대로 인제 만들어야 돼.}

10402 # 수무 구무 수무 구멍 거트면 수무 무데기를 다 해 노코 그 모레 쪼메콤 언저 노코 이거 한테 인제 다 나르는 게지.{스물 구멍, 스물 구멍 같으면 스물 무더기를 다 해 놓고 그 모래를 조금씩 얹어 놓고 이 것을 한 곳에 인제 다 나르는 것이지.}

10402 @ 음:{음.}

10402 # 그레 나나 가지고 멘 이거또 거 볼로 헤노코 이거또 멘 그거 명 그 메드시 멘 그레 메야 데에.{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똑 같이 이 것도 그 볼로 피워 놓고 이 것도 똑 같이 그 것 명 그 것 매듯이 그렇게 매어야 돼.}

10402 # 풀로 미겨가지고 거 풀 안 미기면 이게 고만 히미 업서가지고 짜지를 모타고 그레 인제 그레 하는데 사미 게일 히미 드는 게 이거는 순' 무레 드러 고만 머 이거 머 머 베 짜가지고도 그거는 무레 계속해 이서야 데.{풀로 먹여 가지고 그 풀을 안 먹이면 이 것이 고만 힘이 없어가지고 짜지를 못 하고 그렇게 인제 그렇게 하는데 삼이 제일 힘이 드는 것이 이 것은 순 물에 들어 고만 뭐 이 것 베를 짜 가지고도 그 것은 물에 계속해 있어야 돼.}

10402 # 그레 무레 해야 이게 고바지고 그런데 우 우리는 우리 클 때 겨울게도 멘 삼베온 이버서요.{그렇게 물에 해야 이 것이 고와지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클 때 겨울에도 민삼베 옷을 입었어요.}

10402 # 이거 명 명은 그클 머 바테 땅거 명는 거 한다꼬 마~이 모 가이끼네.{이 것 명, 명은 그렇게 밭에 다른 것 먹는 것 한다고 많이 못 가니까.}

10402 # 사드로는 언가~이 헤 노아도 이거 끼리가 긴 이거 다리가 기기 때미네 이기 만타 마리아.{삼드로는 어지간이 해 놓아도 이 것 길이가 긴 이 것 다리가 길기 때문에 이 것이 많다 말아야.}

10402 @ 음:{음.}

10402 # 그레노~이 인제 주로도 겨울게도 삼베온 입꼬.{그렇게 하니 인제 주로 겨울에도 삼베옷을 입고.}

10402 @ 아 그럼 삼 삼는다는 게 결구근 삼 그거 찌저 가지고 인는 걸 이야기하지예.{아, 그럼 삼 삼는다는 것이 결국은 삼 그것 찢어 가지고 잇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10402 # 예, 마저.{예, 맞어요.}

10402 # 잇는 걸 으예 이레 마저 저 이우는 거로 그 여기는 삼는다.{잇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마주 저렇게 잇는 것으로 그 것을 여기서는 삼는다.}

10402 @ 아 저는 또 이게 삼 삼는다는 거 삼 부레다가 아 하하.{아, 저는 또 이 것이 삼 삼는다는 것이 삼을 불에다가 아 하하.}

10402 # 부레 아 무레 삼는다는 거 그거 무레 저게 카는 거는 삼'는다, 이거는 삼'는다 고 보고는 쪼끔 ㅎㅎ 그런 거 구벼리 마저 잘 갈께레요, 여게는 인제 삼 삼'는다.{불에 아,

물에 삶는다는 것 그 것은 물에 저렇게 하는 것은 삶는다(쌈'는다), 이 것은 삼는다(삼:는'다), 그 것 보고는 쪼끔 호호 그런 것 구별이 맞아 잘 갈 것이예요, 여기는 인제 삼을 삼는다.)

10402 @ 그 마리 다름니까예?(그 말이 다른가요?)

10402 # 그러면 인제 이 동네 다 하머는 사물 메헤가지고 네혼자 삼기 차 시가~이 마~이 간다 마리오.{그러면 인제 이 동네 사람이 다 하면은 삼에 매여 가지고 내 혼자 삼기가 참으로 시간이 많이 간다 말이요.}

10402 # 그러면 이 동네 아느로 온 우레 마카 사마다 그마 와가지고 인제 우레는 인제 머이를 삼든동 사흘 삼든지 삼:고, 그럼 또 돌려가며 인제 쭈:욱: 인제 삼:고 전부 다 그레찌. {그러면 이 동네 안 사람으로 온 우리에게 모두 삶아다오 그러면 와 가지고 인제 우리는 뭐이틀을 삶든지 사흘을 삶든지 삶고, 그럼 또 돌려가며 인제 쪽 인제 삶고 전부 다 그랬지.}

10402 # 호호호.{호호호.}

10402 @ 아:: 그 아녀자드리 삼 사 사물라그라면 여기에 무르파기 마~이 아파게습니다. {아, 그 아녀자들이 삼을 삼으려면 여기에 무르팍이 많이 아팠겠습니다.}

10402 # 별::거 가지고 네중에는 허러가지고 마 마구 씨커머져뿌지 인제 오래들 마~이 사므[x만x] 이거 또 [x오데도 또 이게x] 안 텐다마, 안 지편다마.{별정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훔어 가지고 마구 시커멓게 되어버리지, 인제 오래 많이 삼으[x면x] 이 것도 또 [x어디도 또 이 것이x] 안 되지만, 안 잡힌다.}

10402 # 이거 인제 사례 데고 해야 인제 그거 또 전부 또 이베 하나하나 다 드러가야 데. {이 것 인제 살에 대고해야 되고 인제 그 것 또 전부 또 입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돼.}

10402 # 이거 켈라그라면 소느로 가지고 묻 제고 한 꼬티는 이베다 데고 땡기고 하나는 요레 땡기고 고레 이음 야칸 요레 반 딱 따게저, 그 가는 거도.{이 것 찢어려고 그러면 손을 가지고 못 찢고 한 끝은 입에다 대고 당기고 하나는 이렇게 당기고 그렇게 이으면 약간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저. 그 가는 것도.}

10402 # 그러가지고 요레 데고 한 꺾따기씩 요레 이리 비비면 고 세끼 꼬드시 고레 탁: 꼬여뿐다.{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고 한 꺾데기씩 요렇게 이렇게 비비면 그 세끼 꼬듯이 그렇게 탁 꼬여 버리지.}

10402 @ 음:, 그 그러니까 삼: 이걸 저: 바껴 사:물 버'끼고 바껴서 처으메 삼떼를 썬:서 그 다으메 부레 삼꼬: 그 다으메 그 꺾질 버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주로 남자가 하고 그 다으메 인제 사물 인제 실 그거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인꼬하는 이런 삼는 거 하고 이거는 전부 다 이른 안여자가 합니까?(음, 그러니까 삼 이 것을 저 바깥 삼을 벗기고 밖에서 처음에 삼대를 꺾어서 그 다음에 불에 삶고 그 다음에 그 꺾질을 벗기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주로 남자가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삼을 인제 실 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잇고 하는 이런 삼는 것하고 이 것은 전부 다 일은 안여자가 합니까?)

10402 # 그러지 그런 거는 주로 남자가 하지.{그렇지, 그런 것은 주로 남가가 하지.}

10402 # 안 여자가, 예.{안 여자가, 예}

10402 # 우리는 남자드른 그걸 할쥬 모리고 모리'니까 글 때는 그레 하고 남자른 삼 사물 때는 남자드른 전부 이거 아마 뜨거워도 인자 폴로 비쥬.{우리는 남자들은 그 것을 할 쥬를 모르고 모르니까 그 때는 그렇게 하고 남자는 삼을 삼을 때는 남자들은 전부 이 것 아무리 더워도 인제 폴을 뺐쥬.}

10402 # 폴로 비야 인제, 폴로 비다가 씨러와야 인제 네넌 농사를 진는다 마라.{폴을 베야

인제, 풀을 베다가 썰어 놓아야 인제 내년 농사를 짓는다 말이야.}

10402 # 그게 머 아느로 삼 사물 때는 우리는 그 뜨거워도 하로 풀 녀썸씩 비다가 인제 저레 하고 이레찌.{그 것이 뭐 안으로 삼을 삼을 때는 우리는 그 더워도 하루 풀을 녀 썸씩 베다가 인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

10402 @ 그런데 음, 그러면 이: 그 싸 이 베를 이거또 쪼 그거 삼베 짜는 거또 무명 짜는 거나 비슷합니까?{그런데 음, 그러면 이, 이 베를 이 것도 그 것 삼베 짜는 것도 무명을 짜는 것과 비슷합니까?}

10402 # 그거하고 똑: 간꼬 인제 머가 틀레노 그먼 멍 물레 이거 잔는 거 하고 그거 저게 이 실 이 이 이거는 시른 이거는 다 이서 이시~이 이거는 물레 돌려면 인제 요거 인제 사미 사메다 켜:노아까네 요건 머 저게 이레 썸: 녀썸하다 마레.{그 것하고 똑 같고 인제 뭐가 틀리느냐 하면 똑 같이 물레 이 것 잔는 것 하고 그 것 저 것이 이 실, 이 것은 실은 이 것은 다 이어져 있으니까 이 것은 물레를 돌리면 인제 요 것 인제 삼이 삼에다 찢어 놓았으니까 요 것은 뭐 저 것이 이렇게 조금 녀썸하다 말이야.}

10402 # 그럼 여다 물레 데고 이거 멀:리 저 그러노코 삼빱데끼 저거다 무레 가따 다마가 저고 헤노코는 돌려야 데.{그럼 여기에다 물레를 대고 이 것을 멀리 저기에 걸어 놓고 삼소쿠리 저기에다 물에 가져다 담아가지고 해 놓고는 돌려야 돼.}

10402 # 무레 돌려면 이게 실메로 타라라 감겨가지고 그럼따 이따 가라가 인제 이레 올리고 인제 이거 이런 감게또록 하는 게지, 올린다 거지, 그레 올리고 그레 가지고 이거는 상순 무레라.{물레를 돌리면 이 것이 실처럼 타르르 감겨 가지고 그럼 조금후에 가려서 인제 이렇게 올리고 인제 이 것을 이렇게 감기도록 하는 것이지, 올린다 그러지 그렇게 올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것은 늘 순전이 물이다.}

10402 # 그레가주고 또 돌겨시라고 또 이서 돌겨지라는 거 이거 돈:다꼬 해가지고 이거 마저 한 여'자 여자짜리 인자 니게라 저저 두게르 해가지고 복파네 인제 남글 하나 헤노코 인제 아글 해가지고 일로 하나 노코 일로 하나 노코 노아가지고느 양짜 인자 꼬제~이를 그니 군데 꼬바서 이걸 사, 이거 인제 이거 돌렸는 거 이걸 가즈고 그다 또 다 감아야 데.{그렇게 해 가지고 또 돌겼이라고 또 있어 돌겼이라는 것 이 것 돈다고 해 가지고 이 것 맞어, 한 여섯 자 여섯 자 자리 인제 네 개라, 저 두 개를 해 가지고 한 가운데 인제 나무를 하나를 해 놓고 인제 아귀를 해 가지고 이리로 하나를 놓고 이리로 하나를 놓고 놓아 가지고는 양 쪽에 인제 꼬챙이를 그 네 군데 꼽아서 이 것을 싸서, 이 것을 인제 이 것을 돌렸는 것, 이 것을 가지고 그기에다 또 다 감아야 돼.}

10402 # 가므면 이제 또 이만 헤지지.{감으면 이제 또 이 만큼 크지지.}

10402 # 이능거 가지고 무레 가서 다마 가지고 그런 머 저 썸 부 머 이레 썸데기 썸데기 거를 다 베껴야 데.{이런 것 가지고 물에 가서 담아 가지고 그런 뭐 저 썸 뭐 이렇게 썸질, 썸질 그것을 다 벗겨야 돼.}

10402 # 무레 가지고 데고 치데고 하면 그거 썸데기 벌거지면 이게 보:하진다 마리아.{물에 가지고 가서 대고 문지르고 하면 그 것 썸질이 벗겨지면 이 것이 보얹게 된다 말이야.}

10402 # 인제 그거는 기양 헤노으면 또 온 입또 모타고 안데고 그제 순 무레 드러 삼은 물 아~이먼 안 데.{인제 그 것은 그냥 해 놓으면 또 옷 입지도 못 하고 안 되고 그 것이 순전히 물에 들어, 삼은 물이 아니면 안 돼.}

10402 # 삼 무레 그레 해가지고 인제 아께 명메로 이거또 멍 그레해 가지고 인제 베트레 인제 베짜고 베짜고 ***.{삼을 물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아까처럼 이 것도 똑같이 그렇

게 해 가지고 인제 베틀에 인제 베짜고 베짜고 ***.}

10402 @ 음:, 그람 이거 주로 물레에 거 하는 거는 무명이든 어: 삼베든 무명 물레 돌리: 거는 이거는 실: 곱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땜 왜 그러케 합니까?{음, 그러면 이 것 주로 물레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무명이든 삼베든, 무명 물레를 돌리는 것은 이 것은 실을 곱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합니까?}

10402 # 아이레 이거는 으: 사를 이거 저 꺼 꺾때기 베껴서~이 또 켜나서~이 이게 실그치 도로로 말려 아~인꼬 고마 이레 이레 넘적하게 기양 이따 마리아.{아니래요, 이 것은 으 삼을 이 것 저 꺾질을 벗겨서니까 또 찢어나서니까 이 것이 실같이 도르르 말려 안 있고 고만 이렇게 이렇게 넘적하게 그냥 있다 말아야.}

10402 # 그레 인자 실거치 도로로 가게라꼬 이거는 인제 야 사문 그레하는 게고, 며~는 이거 이거 숨거치 이레 데시~:이 이건 실로 멩그러야 데~이까 이거는 물레 헤가지고 인제 이레 해야 되는 거라.{그렇게 인제 실같이 도르르 감기라고 이 것은 인제 늘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명은 이 것, 이 것 숨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것은 실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것은 물레를 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10402 @ 거 둘다 물레는 다 해야 데는거지예.{그 둘 다 물레는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10402 # 필리 이리 물레는 다 해야 데지.{필히 이렇게 물레는 다 해야 되지.}

10402 @ 거 거 베트른 똑 같습니까?{그 베틀은 똑 같습니까?}

10402 # 베트른 멩 똑가튼 베트레 멘 그 베트레 하는데요.{베틀은 맨 똑 같은 베틀에 맨 그 베틀에 하는데요.}

10402 @ 거 아네 어어: 예를 들어서 무명할 때 베틀:에도 바디도 인꼬.{그 안에 어 예를 들어서 무명할 때 베틀:에도 바디도 있고.}

10402 # 바디 인꼬.{바디가 있고.}

10402 @ 고 그 다투메 북또 인꼬 그런데 삼베도 멘 그러.{그 다음에 북도 있고 그런데 삼베도 맨 그렇습니까?}

10402 # 고 똑 가테.{그 똑 같아요.}

10402 # 예, 그 또 그 인제 이거 베 이거 멘는 거 가마는 거는 그 도토마리라 그러고 또 그 또 비게라꼬 또 하나 이서 고레 멘드웁는 고 베 상간에 또 여가지고 그것 그거 업심 베 짜도 모타고 그거 다.{예, 그 또 그 인제 이 것 베 이 것 매는 것을 감아 놓은 것은 그 것을 도투마리라고 그러고 또 그 또 비게라고 또 하나가 있어 그렇게 만들었는 그 베 사이에 또 넣어가지고 그 것 그 것이 없으면 베를 짜도 못 하고 그 것이다.}

10402 @ 비게는 머 하는데 씌니까?{비게는 무엇 하는데 씌니까?}

10402 # 비게는 인제 이거 북 여파 드가따 하면 인제 이거 시리 한테 이스마 안테자나 이거 부글 카는 거 이레 상 북파네 여어 노으면 이제 예 이거 시리 이레 올라와따가 또 일레 내려가따 하면 인제 부글 인제 떠가꼬 인자 바디로 짜'고 이거또 순: 발로 해야 데.{비게는 인제 이 것 북을 넣었다 들어갔다 하면 인제 이 것 실이 한 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 이 것 북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늘 가운데에 넣어 놓으면 이제 이 것 실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내려갔다 하면 인제 북을 인제 떼어가지고 인제 바디로 짜고 이 것도 순 발로 해야 돼.}

10402 # 발 발조정이레야 이거 인제 이게 사미 인제 이레 북 북 드가도록 이레 딱 열려코 아물려코 순' 발로 가지고 다 해여.{발, 발조정이러야 이 것 인제 이 것이 삼이 인제 이렇게 북, 북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딱 열려지고 아물리고 순전히 발로 가지고 다 해요.}

10402 @ 그 혹시 그 베트'레'에' 에 그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베트::레' 그 기구 베틀 이름 머어 아시는 거 이르면 한번 쯤 해주시소.{그 혹시 그 베틀에 그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베틀에 그 기구 베틀 이름에 대해 뭐아시는 것 있으면 한 번 쯤 말씀해주십시오.}

10402 @ 아까 부기라든지 바디 말고 또 다른 거 베트레 머 어떻게 이습니까?(아까 북이라든지 바디 말고 또 다른 것 베틀에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402 # 아::, 그거.{아, 그 것.}

10402 @ 발로 이러케 *.{발로 이렇게 *.}

10402 # 발로 하는거 거는 인제 그 아: 그거는 싱남기라 그러는데 그건 또 신나무로 해야 데.{발로 하는 것, 그 것은 인제 그 아, 그 것은 신나무라 그러는데 그 것은 또 신나무로 해야 돼.}

10402 # 낭기 또 그거 더 그거 나무 가지고 하는데 낭글 그거 안 부러지고 잘: 후어지는거 그레 후어지는 거 인제 도토마리 너머로 이레 헤가지고 꼬바노코 저 우에 그 우에 또 그거 이름 먼동 몰따, 그게.{나무 또 그 것, 그 것 나무 가지고 하는데 나무를 그 것이 안 부러지고 잘 휘어지는 것, 그렇게 휘어지는 것, 인제 도투마리 너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꽃아 놓고 저 위에 그 위에 또 그 것은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 것이.}

10402 # 헤헤헤 흐흐, 그거 도: 도라가면 인제 올라 가따 내려 가따 이레 하는데 그레 인제 끈 메가저고 바레다 거러노코 순 찰 때는 이거 발쪼디지.{헤헤헤 흐흐, 그 것 돌아가면 인제 올라 갔다 내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인제 끈을 매어 가지고 발에다 걸어 놓고 순전히 찰 때는 이 것은 발 하는 대로지.}

10402 # 발로 자꾸 잘 노라야 이거 붉 부기 인제 빨리 드러가고 하는데.{발로 자꾸 잘 놀아야 이 것 북, 북이 인제 빨리 들어가고 하는데.}

10402 @ 그 삼베도 그러머는 베 짜가지고 삼 무레 다시 또 시십니까?(그 삼베도 그러머는 베를 짜 가지고 삼 물에 다시 또 씻습니까?)

10402 # 하이고 순 그거는 물 아~이면 무레 드가야 인제 그는 까주 그거 참 색까리 조코 그레 세기 나지, 무레 안드가면 그건 안데는기라.{아이고, 순 그 것은 물 아니면 물에 들어가야 인제 그 것은 아주 그 것이 정말 색깔이 좋고 그래야 색이 나지, 물에 안 들어 가면 그 것은 안 되는 것이라.}

10402 @ 이거또 아까처럼 머 젼물에다가 함미까?(이 것도 아까처럼 뭐 젼물에다가 함미까?)

10402 # 이거또 젼물에 전부 젼물 아~이면 이거 때가 안 가자네, 비누가 업시이~까.{이것도 젼물에 전부 젼물 아니면 이 것 때가 안 가잖아, 비누가 없으니까.}

10402 @ 그럼 이건 찌는 게 그냥 머 젼무레 그냥 시서서 한분 시서서 그냥 함니까 아니면 그냥 무레 좀 오래 담구어둡니까?(그럼 이 것은 씻는 것이 그냥 뭐 젼물에 그냥 뭐 젼물에 그냥 씻어서 한 번 씻어서 그냥 함니까 아니면 그냥 물에 좀 오래 담귀 둡니까?)

10402 # 제무레 쯤 더 쯤 머: 쯤 다마나따가 이거 오슬 명오시나 삼베오시나 이거 빨 때는 향'상 그거 젼물리레 데요.{젼물에 조금 더, 쯤 뭐, 쯤 담아 놓았다가 이 것 옷을 명옷이나 삼베옷이나 이 것 빨 때는 항상 그 것 젼물이라야 되요.}

10402 # 그 젼물로 바타가즈고 해야 때가 잘 가고 비누만 오세그치 비누만 이시면 비누만 칠해가 문때만 데는데 비누가 업시까이 순 그거는 젼물로 바찌.{그 젼물로 받아 가지고 해야 때가 잘 지고 비누만 요사이같이 비누만 있으면 비누만 칠해서 문지르만 되는데 비누가

없으니까 순전히 그 것은 잣물로 받지.}

10402 @ 그 젠무레 쫘 담귀두야 텐다 그지예, 다마두:야.{그 잣물에 쫘 담귀 두어야 된다 그렇지요, 담아 두어야.}

10402 # 쫘금 다마따가 인제 인제 저레.{쫘금 담아 두었다가 인제 인제 저렇게.}

10402 @ 그 아까 인제 그 사른 그라른 쫘 빨리 심습니까, 삼씨는?{그 아까 인제 그 삼은 그러면 쫘 빨리 심습니까, 삼씨는?}

10402 # 삼 삼:는'게'?{삼 삼는 것이?}

10402 @ 아니 그거 땅에다가 숭굴 때:.{아니 그 것을 땅에다가 심을 때.}

10402 # 아:, 숭굴 때?{아, 심을 때?}

10402 # 그거는 그게:: 한 몇개월 가야되죠.{그 것은 그게 한 몇 개월 가야 되죠.}

10402 # 보메 가라가지고 지금 지그른 인제 이거 비:가조고 인제 이키~이까.{봄에 갈아 가지고 지금 지금은 인제 이 것 베 가지고 인제 익히니까.}

10402 @ 어데 이거는 봄 이른 보메 심습니까? ****{어디 이 것은 봄, 이른 봄에 심습니까?} ****

10402 # 보메 아주 이른 보메.{봄에 아주 이른 봄에.}

10402 @ 그럼 해동하고 나서.{그럼 해동을 하고 나서?}

10402 # 땅 고마 노그먼 이 봄보리 갈 때 글 때쫘 데면 이걸 가라조야 인제 또 그:으 한 몇개월 커야 그만침 커야 크지거든 글 때도 또 비료가 업시~ 머 비료도 업꼬 비료만 이시면 엄청나게 커져쁘지마러.{땅 고만 녹으면 이 봄보리를 갈 때 그 때쫘 되면 이 것을 갈아 주어야 인제 또 그 한 몇 개월 커야 그만큼 커야 커지거든 그 때도 또 비료가 없으니까 뭐 비료도 없고 비료만 있으면 엄청나게 커져버리지마는.}

10402 @ 그럼 이걸느 주로 바테 심습니까 앙그러마 어디에 쫘 모스는 땅에?{그럼 이 것은 주로 밭에 심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쫘 못 쓰는 땅에?}

10402 # 모쓰는 땅에 가면 이걸 안 데지.{못 쓰는 땅에 가면 이 것은 안 되지.}

10402 # 이거는 아주 논도 조은데 밭도 아주 참 따~이 조은데에야 인제 이게 아주 잘 텐다.{이 것은 아주 논도 좋은데 밭도 아주 정말 땅이 좋은 곳이어야 인제 이 것이 아주 잘 된다.}

10402 @ 금 어제든 그 땅 조코 그런데 음식 시르면 더 조은데 일판 오슬 헤이버야 되니까.{그럼 어쨌든 그 땅이 좋고 그런 곳에 곡물을 심으면 더 좋은데 일단 옷을 해 입어야 되니까?}

10402 # 그러치요 마저.{그렇지요, 맞어.}

10402 @ 음:.{음.}

10402 #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머 얹는 사라른 머 머시한 파지를 묻하지마는 또 이 이걸가지고 전문을 해가지고 또 파는 사람도 인 이서꼬.{그런데 또 이 것을 가지고 뭐 없는 사람은 뭐 무엇해서 팔지를 못 하지마는 또 이 것을 가지고 전문으로 해 가지고 또 파는 사람도 있었고.}

10403 @ 그 혹시 그 여르메 임는 이 삼베 말고 모시도 헤이버습니까?{그 혹시 그 여름에 임는 이 삼베 말고 모시도 해 입었습니까?}

10403 # 아, 모시는 우리는 여기 모시는 아 머 아주 업시~ 아주 안'헤꼬 더 판데가면 영야~쫘 가면 순 모시로만 또 삼도 안 하고 순 또 모시로 가지고 한다.{아, 모시는 우리는 여기 모시는 아, 뭐 아주 없으니까 아주 안 했고 다른 곳에 가면 영양 쪽에 가면 순 모시로만

또 삼도 안 하고 순 또 모시로 가지고 한다.}

10403 @ 호 혹시 모시는 머: 그 어 모시는 그 제배하는 거 알: 다른 사람 제배하는 거 봐
습니까?{혹 혹시 모시는 뭐, 그 모시는 그 제배하는 것 알거나 다른 사람 제배하는 것 봤습
니까?}

10403 # 몬 바서요.{못 봤어요.}

10403 # 모시하는 거는 그레 제배하는 거는 **. {모시하는 것은 그렇게 제배하는 것은 **.}

10403 @ 그 모시'이' 그 언제 숨구고 어떠케 하는지?{그 모시 그 언제 심고 어떻게 하는
지?}

10403 # 그거또 멍 이거 멍 보메 해야 인제:: 지금 마저 지금 아이 그거는 삼보다 조금 더
느껴 하데: {그 것도 맨 이 것 맨 봄에 해야 인제 지금 맞아, 지금 아니 그 것은 삼보다 조
금 더 늦게 하데.}

10403 @ 음: {음.}

10403 # 그거는 또 대구~이가 아주 굴'이'가 손가락만큼 하이~까 요런데 보이~까. {그 것
은 또 줄기가 아주 굵으니까 손가락만큼 하니까 요런데 보니까.}

10403 # 그는 굴거, 대구~이가 아주 굴거: {그 것은 굵어, 줄기가 아주 굵어.}

10403 @ 아, 삼베보다 훨씬 삼베는 그거 보며느 껍테기 벗기고 나마 아까 게르비라고 그
레찌예. {아, 삼베보다 훨씬 삼베는 그 것 보며느 껍질을 벗기고 나면 아까 겨릅이라고 그랬
지요.}

10403 # 겨릅. {겨릅.}

10402 @ 겨릅가튼 겨우는 상당히 가늘 *** 가늘고 아니 쫘 궁그리쫘? {겨릅같은 경우는 상
당히 가늘 *** 가늘고 아니 조금 비어있쫘?}

10402 @ 겨릅 아니 쫘 차습니까? {겨릅대의 안이 쫘 찻습니까?}

10402 # 쫘 차버려서. {쫘 차버렸어.}

10402 # 궁그면 그거 머 우리 바람 불고 하면 다 부러져뿌지. {비어 있으면 그것 뭐 우리
바람이 불고 하면 다 부러져 버리지.}

10402 # 그리고 그는 절때로 *** *. {그리고 그 것은 절대로 *** *.}

10403 @ 그러면 모시는 어 혹시 다른 음: 사람들 쫘 영양쫘게 하는 사람들 볼: 때 한 이
거또 여름처레 뱀니까, 모시도. {그러면 모시는 혹시 다른 사람들 쫘, 영양 쫘게 하는 사람들
을 볼 때 한 이 것도 여름 철에 뱀니까, 모시도.}

10403 # 그 그건 확실히 그건 아 안헤바노~이 그건 그건 모르씨더. {그, 그 것은 확실히 그
것은 안 했봤으니까 그 것은 그 것은 모르겠습니다.}

10403 @ 그 모르 모시가튼 경우는 이거 그 어떠케 그거 예를 드려 실 만들고 어떠케 베짜
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 모시같은 경우는 이 것, 그 어떻게 그 것 예를 들어 실을 만들고
어떻게 베를 짜는지 잘 모르십니까?}

10403 # 예, 그건 모리[니더]** 모린데. {예, 그 것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10403 # 삼하고는 삼이퍼리하고 이 데공~이하고는 영: 반테지요. {삼하고는 삼이파리하고
이 줄기하고는 영 반대지요.}

10403 # 이마 똑 삼 모시이퍼리는 귀경을 헐는데 핑장이 너버. {아마 또 삼, 모시이파리는
구경을 했는데 핑장히 넓어.}

10403 # 넙뜩:한거 이레 인는데 삼으로는 머 쫘개가지고 이거 삼하고는 영 반대다. {넓직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삼으로는 뭐 쫘개 가지고 이 것 삼하고는 영 반대다.}

10403 @ 그러치 사른 쪼뽀쪼뽀한 편인데 그 우리 어머님도 이 모시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그렇지, 삼은 쪼뽀쪼뽀한 편인데 그 우리 어머님도 이 모시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10403 # 모시는 모르지 모시는 여기 이거바늘 전부 네 안 하~이까.{모시는 모르지, 모시는 여기 이 근방에는 전부 내가 안 하니까.}

10403 @ 으 으 지여게 따라 모시하는 지역또 인꼬 삼베하는 지역또 인꼬 그러타 그지예, 음 예.{으, 지역에 따라 모시를 하는 지역도 있고 삼베를 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다 그렇지요, 음 예.}

10404 @ 으 그 다으메 그 그 우리 이 보통 아페 해뎀 명이라든지: 이: 머 삼베라든지 아까 쫘 이야기해씀니다만 길싸메 피료한 거 한 번 다시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주이시쇼.{그다음에 그 우리 이 보통 앞에 했던 명이라든지 이 뭐 삼베라든지 아까 쫘 이야기를 해씀니다만 길쌈에 필요한 것 한 번,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10404 @ 머 길쌈 하는데 피료한 도구들 가튼 거, 그러~이까 연장들 어떻게 인는지 한 번 쫘.{뭐 길쌈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 같은 것, 그러니까 연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쫘.}

10404 # 아:아:.{아.}

10404 @ 처으메 무명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 어떻게 인는지 한 번 이야기해주이쇼, 연장들.{처음에 무명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10404 # 명할 때는 별 도구는 업꼬 인제 삼할 때 토비라고 이서 톱:, 토비라는 거는 사를 빼껴서 그 쥘 때 인제 요 가늘게 실 멩글라고 쥘 때 무레 담가서 인제 그거 인제 머릿단: 톱까지고 인제 이걸 파:아: 인제 자꾸 이 홀터네야 홀터네면 이게 마구 여러 가닥이가 마~이 나오거든 나오마 그 이베 여어 한 가데기는 버러지마 이베 여코 한 가제이는 요레 켜고 또 하나는 한쪽 소느로 쥐고 있시~까 그레 가지고 인제 그 토비 하나 거 참 이따, 토비라 그지 그게.{명할 때는 별 도구는 없고 인제 삼할 때 톱이라고 있어, 톱, 톱이라는 것은 삼을 벗겨서 그 쥘 때 인제 요렇게 가늘게 실을 만드려고 쥘 때 물에 담구어서 인제 그 것 인제 머릿단을 톱을 가지고 인제 이 것을 꼭 인제 자꾸 이 것을 훑어내면 이 것이 마구 여러 가닥이 많이 나오거든, 나오면 그 것을 입에 넣어 한 가닥은 벌어지면 입에 넣고 한 가닥은 이렇게 쥘고 또 하나는 한 쪽 손으로 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그 톱이 하나가 그 참말로 있다, 톱이라 그러지 그 것이.}

10404 @ 음 그거 인자 그러니까 무레 너어 가지고 씨 과늘게 찌즐 쥘려고 할 때.{음, 그 것 인제 그러니까 물에 넣어 가지고 가늘게 쥘, 쥘려고 할 때.}

10404 # 아이~라, 다 켜가지고 인제 삼 사'물 때.{아니라, 다 찢어가지고 인제 삼 삼을 때.}

10404 @ 으흠, 삼 사'물 때.{음, 삼을 삼을 때.}

10404 # 사를 때 인제 그 토비 인제 그걸 이거 자꾸 이레: 끌거조야 그 머리가 인제 자자하게 인제 이레 이거 껴진다 마리아.{삼을 때 인제 그 톱이 인제 그 것을 이 것을 자꾸 이렇게 끌어주어야 그 머리가 인제 자잔하게 인제 이렇게 이 것이 껴진다 말아야.}

10404 @ 토브느 소네 질만한 자그만하지요?{톱은 손에 쥘만큼 자그만하지요?}

10404 # 토브느 그 머 톱:날도 아~이고 그 끝는 데는 세고 여 디에는 인제 오레 텐 거는 인제 나무 저 나무가지고 손 요레 쥐도록 멩그러따.{톱은 그 뭐, 톱날도 아니고 그 굵는 데는 쇠고, 여기 뒤에는 인제 오래 된 것은 인제 나무, 저 나무 가지고 손을 이렇게 쥐도록 만들었다.}

10404 # 고거느 히안하지 요레요레 요레 데고 요레요레.{그 것은 희한하지, 요레요레 요레 되고 요레요레.}

10404 @ 그: 으 사를 벨 때는 그러며는 날'만 사용합니까?{그 삼을 벨 때는 그러면 낮만 사용합니까?}

10404 # 그 낮만 사용해.{그 낮만 사용해.}

10404 @ 그 무명:: 딸 때는 머 소느로 땀니까 안 그러마 그거또 다른 도구가 인습니까, 연장이 인습니까, 따른 거.{그 무명을 딸 때는 뭐 손으로 땀니까 안 그러면 그 것도 다른 도구가 있습니까?}

10404 # 업서 멘 소느로 마 글 때는 주로 땅거는 업꼬 인제 데레끼라 그레제, 우리가 주로 사리가 멘그린 거.{없어, 멘 손으로 마, 그 때는 주로 다른 것은 없고 인제 데레끼(+싸리대로 만든 망태기 모양임.)라고 그랬제, 우리가 주로 싸리로 만들은 것.}

10404 # 주로 인제 그 데레끼를 미고 텅기면 인제 그 따가지고 지베 와서 말라.{주로 인제 그 데레끼를 메고 다니면 인제 거기에 따 가지고 집에 와서 말라.}

10404 @ 데레끼를 질머 지고 거기에 따 답는**.{데레끼를 짊어지고 거기에 따서 답는 **.}

10404 # 또 지폴 가지고 인제 데레끼 이레 둘러 멩그러놔시면 인자 끄늘 또 지폴 가 따아 가지고 인자 안 베끄토록 그레가 허리에 차고 허리에 딱 차고는 우에 인제 그 따다마 가지고.{또 짊을 가지고 인제 데레끼 이렇게 둘러 만들어 놓았으면 인제 끈을 또 짊을 가지고 땅아 가지고 인제 벗겨지지 않도록 그레 가지고 허리에 차고 허리에 딱 차고는 위에 인제 거기에 따서 답아 가지고.}

10404 @ 데레 데레끼는 허리에 차는 거다 거지예.{데레끼는 허리에 차는 것이다 그지요.}

10404 @ 어깨에 올려 매는게 아~이고.{어깨에 올려 매는 것이 아니고.}

10404 # 그래도 어깨에 미도 데고 차도 데고 끄~이 그레 이시~이 틈은 허리에 차도 데고 또 메가지고 하면 어깨에 미도 데고 다 할 수가 이서.{그래도 어깨에 메도 되고 차도 되고 끈이 그렇게 있으니까 틈은 허리에 차도 되고 또 메 가지고 하면 어깨에 메도 되고 다 할 수가 있어.}

10404 @ 그럼 데레끼 가튼 경우는 어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그럼 데레끼같은 경우는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404 # 그거또 너무 크면 너무 마~이 다마 노으면 이거 우리가 허리에 차 노으면 모 빼이~까 그레 어느 정도 요만하게 인자 고 인제 사라만 바가며 고레 알마께 고레 멩그러가지고.{그것도 너무 크면 너무 많이 답아 놓으면 이 것 우리가 허리에 차 놓으면 못 빼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요만하게 인제 그 인제 사람을 봐가며 그렇게 알맞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10404 @ 어떠케 혹시 노피가 한자 넘습니까, 한자 정도 됩니까?{어떻게 혹시 높이가 한자가 넘습니까, 한 자 정도 됩니까?}

10404 # 요만 요만 마자 한 자 정도 테게따.{요만큼 요만큼 맞아, 한 자 정도 되겠다.}

10404 @ 음 그 데 데레끼하고 그 다메 그 으, 또 명:을 그거 아까 이야기하셔습니다마는 명 그거 씨: 빼내는 거 그 때 쓰는 연장은 어떤게 일쭙니까?{음, 그 데레끼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또 명을 그것,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명 그것, 씨를 빼내는 것, 그 때에 쓰는 연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404 # 그게 그게 인제 그케 ** 그케 그게 인제 세'기라 그:는데 참낭글 가지고 잘 멩그

러는데 그건 머 기술짜라야 멩그고 아메나 멩그는게 아이~고 그 췌:기 인제 멩그는 사람
그거또 주로 멩그라가 파라따 말이야, 우리 명을 마이 하게 데면 그 멩글 지베 가서 사가지
고 와서 그 인제 짹쭈제라 카제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우리 우리는 짹쭈제라 그런다.{그 것
이 그 것이 인제 그렇게 ** 그렇게 그 것이 인제 췌기라고 부르는데 참나무를 가지고 잘 만
들었는데 그 것은 뭐 기술자라야 만들고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췌기를 인제 만드는
사람이 그 곳에서도 주로 만들어 팔았다 말이야, 우리가 명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것을 만드
는 집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그 인제 물레의 손잡이(짹쭈제)이라고 하제, 이 것을 돌리는
것, 이 것을 우리, 우리는 짹쭈제(+물레의 손잡이)라고 그런다.}

10404 @ 씨앗 빼넬 꺼예{씨앗을 빼내는 것이요.}

10404 # 그제 인제 돌리고 명만 여'머는 트른 이가다 트른 명씨'이'는 이 아페 다 떠러지고
인제 이 소든 소개는 인제 저 짜그르로 나가고 그레가 다 터'러가 명씨를 빼야 안그러면 소
느로 또 이거 저 엄는 사람 이거 이거또 엄는 사람 식구끼리 도라안자가지고 전부 손 손토
블 명씨를 다 받겨내야데.{그 것이 인제 돌리고 명만 넣으면 털면 이같이 털면 명씨는 이
앞에 모두 떨어지고 인제 이 숨은, 숨은 인제 저 쪽으로 나가고 그레 가지고 다 털어서 명
씨를 빼야지 안 그러면 손으로 또 이 것이 없는 사람, 이 것도 없는 사람들은 식구끼리 돌
러앉아서 전부 손, 손톱으로 명씨를 다 받겨내야 돼.}

10404 @ 소네 피도 날킨데.{손에 피도 날 것인데.}

10404 # 그 피는 안 나지 이거 이게 저 이게 소개하고 한** 어벅하이~까 머 끄게 이레 까
면 잘 버겨져요.{그 피는 안 나지, 이 것 이 것이 저 이 것이 숨하고 한** 어병하니까 뭐
그 것이 이렇게 까면 잘 벗겨져요.}

10404 @ 툭툭 빠진다.{툭툭 빠진다.}

10404 @ 그런데 씨 인제 그 씨앗 빨가네도록 하는 게 췌기고 췌기에 그 손자비 이레 돌리
는 거.{그런데 씨, 인제 그 씨앗을 받겨내도록 하는 것이 췌기이고 췌기에 그 손잡이를 이
렇게 돌리는 것이.}

10404 # 그 췌기.{그 췌기.}

10404 # 이거 저 짹쭈제 ㅎㅎㅎㅎ.{이 것은 저 짹쭈제(+물레의 손잡이), ㅎㅎㅎㅎ.}

10404 @ 그 그 다으메 아까 그레 씨앗 빼네고 씨앗 끼하고난 다음에는 자 쓰는게 머 까지
고 또 소물 이러케 부푸러옵니까?{그, 그 다음에 아까 그렇게 씨앗을 빼내고 씨앗 빼기하고
난 다음에는 쓰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또 숨을 이렇게 부풀립니까?}

10404 # 아 그 그거 인자 그 인제 씨를 완전히 받겨내뿌고 인제 이거 실로 멩글라카면 활
로 멩그러서 머 명을 마이 가따노코 자꾸 텅구야테지.{아, 그 그것 인제 그 인제 씨를 완전
히 받겨내 버리고 인제 이거 실로 만들라고 하면 활로 만들어서 명을 많이 가져다 놓고 자
꾸 텅겨야 되지.}

10404 # 이 텅구먼 인제 아께만치로 요만하든게 이만해진다 말, ㅎㅎ 그레 인제 다 텅구가
지고 인제 그 또 이걸 실로 멩글라카면 그거가지고 그레 또 멩그러서 여 실로 뽑바네야 텐
다.{이렇게 텅기면 인제 아까처럼 요만 하든 것이 이만큼 해진다는 말, ㅎㅎ 그렇게 인제
다 텅겨 가지고 인제 그 또 이 것을 실로 만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또 만들어서
여기 실로 뽑아내야 된다.}

10404 @ 화리 있어야 텐다.{활이 있어야 된다 그죠.}

10404 # 아니 이거 트키나 활도 있어야 데고 수꾸테구~이도 이씨야 데고 그건 다 이씨야
데, 업시면 이거 하지를 몬하이~께.{아니, 이 것은 특히나 활도 있어야 되고 수수줄기도 있

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없으면 이 것을 하지를 못 하니까.}

10404 @ 그럼 머 머 피료한지 함 이야기해 주이소, 활.{그럼 뭐,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404 # 활 그거 인제 수꾸 수꾸때 왜 올라온 거 피는 게 인짜네, 우에 찢라뿌고 고 상간에 가느당 고런 거시 이서, 고 수꾸때하고 그 피리 땅바다게 해도 안 데고 여 또 머 나무판 떼기나 가따 노코 그대고 요레 쪼메콤 띠노코 고거 요레 소느로가 살살 문때면 고레 또로로 말려진다 카이.{활 그 것 인제 수수, 수수대 왜 올라온 것, 피는 것이 있잖아요, 윗 부분을 잘라버리고 그 사이에 가느다란 그런 것이 있어,그 수수대하고 그 반드시 땅바닥에 해도 안 되고 여기 또 뭐 나무판자나 가져다 놓고 그 것에 대고 이렇게 조금씩 떼어 놓고 그 것이 이렇게 손으로 살살 문지르면 그렇게 도로로 말려진다고 해.}

10404 @ 도마 비스하~이 판떼기 가따 노코, 그러면 활, 그 다으메 수꾸대, 나무판떼기 이려케.{도마 비슷한 판자를 가져다 놓고 그러면 활, 그 다음에 수수대, 나무판자 이렇게.}

10404 # 예, 나올 저게.{예, 나올 적에.}

10404 # 마저.{맞어.}

10404 @ 그럼 그러케 인자 소미 이레 머 숨 만들고 나면 인제 에 무명실 만들 때 사용하는 게.{그럼 그렇게 인제 숨이 이렇게 뭐, 숨을 만들고 나면 인제 무명실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10404 # 무울'레', 그 인제 그 그 물레가 인꼬 또 가라기라꼬 그는 세로 멩그러야 데, 그거 또 여 대장카네 지금 대장칸이라 그러는데 글 때는 베름제~이라 그레따 마리아 여는, 베름제~이한테 가서 그걸 또 세로 하나 가져고 철 세도 아주 야문 거 가지고 가가지고 이러 물렁물렁하면 또 안데 아주 야문 거를 가져가 가라글 하나 멩그러 달라고 고레 멩그러가지고 그다 그 물레다 거러 거러가지고 그리 이거 실로 이제 야 뽑아내고.{물레, 그 인제 그 물레가 있고 또 가락이라고 그 것은 쇠로 만들어야 돼, 그 것도 여 대장간에 지금은 대장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때는 대장장이라고 그랬다 말이야 여기서는, 대장장이한테 가서 그 것을 또 쇠를 하나 가지고, 그 쇠도 아주 단단한 것을 가지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물렁물렁하면 또 안 돼, 아주 단단한 것을 가져가서 가락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것에 그 물레에 걸어, 걸어가지고 그렇게 이 것을 실로 이제 뽑아내고.}

10404 @ 물레하고 그 다으메 가락, 가라근 한, 가락도 한 자 정도 됩니까?{물레하고 그 다음에 가락, 가락은 한, 가락도 한 자 정도 됩니까?}

10404 # 예, 가락.{예, 가락.}

10404 # 마저, 마저 한 자 쪼금 너물께랴요, 가라근 끼리 업스 ***** 썰기에다 그러노코 이걸 이거 하~이.{맞아, 맞아 한 자 쪼금 넘을 것이라요, 가락은 길이가 없어 ***** 썰기에다 걸어 놓고 이 것을 이 것을 하니까.}

10404 @ 끄치 완전 송곳처럼 뻐쪽하지?{끝이 완전히 송곳처럼 뽕족하지요?}

10404 # 양 짜다 고마 뻐쪽하지 복판만 약간 볼:록하고.{양 쪽이 다 고만 뽕족하지, 가운데만 약간 볼록하고.}

10404 @ 그럼 물레하고 그 그 가라기고 인제 그 다으메 베트를 베트리 인꼬 그런습니까? {그럼 물레하고 그 가락이고, 인제 그 다음에 베틀을, 베틀이 있고 그렇습니까?}

10404 # 베틀하고 인제 그 베 메든 거 베는 피리 메에 데 안 매면 풀칠 안 하면 마야 베를 몬 저 오슬 몬 헤~이꼬 베트레 언지를 못타지.{베틀하고 인제 그 베 매든 것, 베는 반드시 매야 돼, 안 매면 풀칠을 안 하면 뭐야 베를 못, 저 옷을 못 해 입고 베틀에 올리지를

못 하지.}

10404 @ 그 아, 푸 베에다가 그 풀 먹이는 거를 베 맨다하는 겁니까?{그 아, 풀, 베에다가 그 풀을 먹이는 것을 베를 맨다고 하는 것입니까?}

10404 # 예, 베 맨다.{예, 베 맨다.}

10404 @ 베 매는데 그럼 사용하는 거 머머 인습니까?{베를 매는데 그럼 사용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10404 # 베 매는데 인제 아께 네 그레제, 소'울', 술하고 인제 풀, 서수 좁쌀 그 풀로 쏘가지고 소:레다가 해 가지고 그 데고 이거 풀로 막 멘소느로 그대로 발라야데, 발라가지고 이노미 인제 으버 그레 하면 인제 고 시리 까주 고버지지 마저, 빠:닥하고 고레 멩그러가지고 바싹 말라서 인제 그 도토마리에다 가마서 가마가지고 그레 은제 베짖 때는 그마 언저 가지고 짜면 데.{베를 매는데 인제 아까 내가 그랬제, 술하고 인제 풀, 좁쌀, 좁쌀 그 풀로 쏘어 가지고 술에다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고 이 것을 풀로 그저 맨손으로 그대로 발라야 돼, 발라가지고 이 것이 인제 대강 그렇게 하면 인제 그 실이 아주 고워지지 맞아, 빠빳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바싹 말라서 인제 그 도투마리에 감아서 감아가지고 그렇게 인제 베를 짖 때는 거기에 얹어 가지고 짜면 돼.}

10404 # 명이고 삼베고 그 풀 안 미기면 안 데지, 풀로 미겨야 그거 인제 시리 데고 빠당하고, 예, 마저 그레 인제 그걸 미겨가지고 그 풀 다 그 빠질 때까지는 무레다 만날 무레다 썬꼬 저레 해야지.{명이고 삼베고 그 풀을 안 먹이면 안 되지, 풀로 먹여야 그 것이 인제 실이 되고 빠빳하고, 예, 맞아, 그레 인제 그 것을 먹여 가지고 그 풀이 다 그 빠질 때까지는 물에다 늘 물에 씻고 저렇게 해야지.}

10404 @ 풀 미기야 인제 일단은.{풀을 먹여야 인제 일단은.}

10404 @ 그러며는 그 베틀에는 그 인제 베틀에는 그 어떤:: 게 인습니까?{그러면 그 베틀에는 그 인제 베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404 @ 베틀 아네 드러가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머 바디라든지.{베틀 안에 들어가는 것 아까 이야기를 했던 뭐 바디라든지.}

10404 # 아, 바디, 바디라 카능 거는 그거 인제 이거 실로 이레 끼가지고 이레 땡기면 짜면 다닥 다닥 소리가 나, 북 이레 한분 여:면 이거 땡기고 또 이짜 여:면 또 또 땡기고 북한 번 드가면 꼭 땡겨야데지 드가따 나가따 한 짜그로 드러가는 게 아이고 이짜 와따 일로 여코 또 절로 여코 이레 그레 여코 그 인제 그레 하고 인제 베트레 인는 그 비:게 하고 그기 뭇 신나무라 카능 거 인제 발로 인제 하는 거 그하고 [x그레여x].{아, 바디 바디라고 하는 것은 그 것은 인제 이 것 실로 이렇게 꿰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짜면 다닥다닥 소리가 나, 북이 이렇게 한 번 넣으면 이 것을 당기고 또 이 쪽에 넣으면 또 또 당기고, 북이 한 번 들어가면 꼭 당겨야 되지, 들어갔다 나갔다 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쪽에 왔다가 이리로 넣고 또 저리로 넣고 이렇게 그렇게 넣고 그 인제 그렇게 하고 인제 베틀에 있는 그 비게하고 거기 뭇 신나무(+ 베틀신대를 가리키는 말임.)라고 하는 것, 인제 발로 인제 하는 것 그것하고 [x그래요.x].}

10404 @ 그럼 보통 베트레 그거 베 짖 때는 아 부근 하나만 씹니까?{그럼 보통 베틀에 그것, 베를 짖 때는 아, 북은 하나만 씹니까?}

10404 # 예, 부근 하나만.{예, 북은 하나만.}

10404 @ ** 바디는 크기가 똑 같습니까 안 그라마 조금 더 큼 것또 인꼬 자근 거또 익꼬 그런습니까?{** 바디는 크기가 똑 같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

고 그렇습니까?}

10404 # 자근거 크고저꼬 오치 고거는 고고 바디하고 요 베짜는 요 요 너비하고 똑 가트~
이까 바디는 바디도 그것또 머 메는 사람한테 사가즈고 와야 데고 고고또 상간상간 고 멘는
걸 전부 대낭기래야 데 테나무 짜개가 헨는긴데 고 바디 인제.{작은 것, 크고 작고 옹치, 그
것은 그 것 바디하고 여기 베를 짜는 요 넓이하고 똑 같으니까 바디는 바디도 그 것도 뭐
매는(+ 만드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와야 되고 그 것도 사이사이에 그 매었는 것이 모두 대
나무라야 돼, 대나무를 쪼개어서 만든 것인데 그 바디 인제.}

10404 @ 그러며는 아, 이 바디 크기가 똑 같다라는 거는 온갓 처니 늘: 거이 다 똑같다
그지예.{그러면은 아, 이 바디의 크기가 똑 같다라는 것은 옷감 천이 늘 거의 (+크기가)모
두 똑 같다 그렇지요.}

10404 # 그 머 그러치.{그 뭐 그렇지.}

10404 # 찌비 빼짜는 거는 바디나 그거마 똑 가트이~가 크고 적고 그건 업시~{집에서 베
를 짜는 것은 바디나 그 것이 마, 똑 같으니까 크고 작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10404 @ 혹시 인제 그 삼베 아까 인제 이야기할 때 그거 삼 사물때 사용하는 게 토비 인
썩꼬 어 또 머 다른 거 또 인습니까?{혹시 인제 그 삼베 아까 인제 이야기를 할 때 그 것
삼을 삼을 때 사용하는 것이 톱이 있었고 또 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10404 # 그 징계따리라고 징계따리라고 인제 양 짜 이레 낭글 통나무를 해가자 여게 다
따게고 따게가즈고 그레 사물 양짜 이레 그러노코 그 인제 하나씩 하나씩 인제 빼가지고 이
바 이블 한 짜그는 이베 드가면 요 한 꼬티 제고 손 제고 이 짜는 인제 또 마적 이어꼬 고
다 인제 비벼가지고 저게고 조거 일로 보네면 저거 저멸또 여게 와 가지고 하고 이레.{그
지계다리(+베틀다리로 추정됨.)라고 지계다리라고 인제 양 쪽에 이렇게 나무를 통나무를 해
가지고 여기에 다 쪼개고 쪼개서 그렇게 삼을 양 쪽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 인제 하나씩 하
나씩 인제 빼가지고 입에, 입을 한 작은 입에 들어가면 요 한 끝은 찢고 손으로 찢고 이 쪽
은 인제 또 마지막 끝을 잇고 거기에 다 인제 비벼 가지고 저것이고 저 것을 이리로 보내면
저 것 저 멀리 것도 여기에 와서 가지고 하고 이렇지.}

10404 @ 그거 징계따리고 그 다음 저 또 삼:: 그 뒤에는 또 그 머 무명할 때 말고 삼할
때 머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다른 도구가 인습니까, 징계따리 말고.{그 것은 징계다리고 그
다음 저 또 삼: 그 뒤에는 또 뭐 무명할 때 말고 삼할 때 뭐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다른
도구가 있습니까, 징계다리 말고.}

10404 # 삼할 때는 판 도구는 엽꼬 머 삼이퍼리 털 때 그거는 낭글 가주고 그 머 그느 칼
로 고는 이레 멩그러야 되니까 삼카리라고 그걸 삼카리라고 인제 삼: 칼, 여는 삼:이레고 그
레 삼칼 이퍼리 이레 뜨는 거, 안 그러면 또 머 인는 사라문 인제 머 탈곡끼고 나락 뚜드는
기계 마~이 하는 사라문 주로 인제 그걸 가따 노코 이 이퍼리를 털고 이퍼리 안 털면 안
데거든.{삼을 할 때는 다른 도구는 없고 뭐 삼이파리를 털 때 그 것은 나무를 가지고 그 뭐
그 것은 칼로 그 것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삼칼이라고 그 것을 삼칼이라고, 인제 삼칼,
여기는 삼이라고 그러지, 삼칼은 이파리를 이렇게 떨어버리는 것, 안 그러면 또 뭐 있는 사
람은 인제 뭐 탈곡기이고 벼를 훑는 기계, 많이 하는 사람은 주로 인제 그 것을 가져다 놓
고 이 이파리를 떨고 이파리를 안 떨면 안 되거든.}

10404 @ 그건.{그건.}

10404 @ 아까 삼카리 인꼬 그 다오메 아까: 어르신 그 머라고 하선나 하며는 그 땅에다가
이러케 네게 나무 꼬바가져 사물 이러케 감는 그걸 머라고 헨습니까?{아까 삼칼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어르신께서 그 무엇이라고 하셨나 하시는 그 땅에다가 이렇게 네 개의 나무를
꽃아서 삼을 이렇게 감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404 # 그거는 돌걸.{그 것은 돌걸.}

10404 # 돌겨지라 카는 거는 이거 사물 다: 사마가지고 이거 한테'다 감아야 데거든 그러~
이 이거 늘따:케 해가지고 인제 이거 사물 이레 사르노코 이걸 뜨거다 무레 못 쥘는다 마리
야, 그레 이노를 크게 이레 돌레헤노코는 돌레가며 그걸 다 감아야 데, 가마가지고 이노를
또 살마야 데, 아주 살마서 무레 데고 이거는 사문 물 아~이먼 안테, 물 게:속 무레 데고
치데야 그 인제 꺾테기가 그 꺾피, 삼꺾피 다 벅거지면 아네 소꼬베~이만 딱 남게 데 이
따.{돌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것 삼을 다 삼아가지고 이 것을 한 곳에 모두 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것 넓다랗게 해가지고 인제 이 것 삼을 이렇게 삼아놓고 이 것을 모두다 물에
못 쥘는다 말이야, 그래서 이 것을 크게 돌레에 감아놓고는 돌려가며 그 것을 다 감아야
돼, 감아가지고 이 것을 또 삶아야 돼, 아주 삶아서 물에 대고 이 것은 삼은 물 아니면 안
돼, 물에 계속 물에 대고 치데야 그 인제 꺾질이, 그 꺾피(+ 꺾질), 삼꺾피(+ 삼꺾질)가 다
벗겨지면 안에 속고갱이만 딱 남게 되어 있다.}

10404 @ 돌:.{돌.}

10404 # 돌걸,인제 돈다고 해서 인제 해해 돌걸 호호호.{돌걸, 인제 돈다고 해서 인제 돌
걸, 호호호.}

10404 @ 그럼 일단 머 삼은 머 물가에서 해야 되젠네예.{그럼, 일단 뭐 삼은 뭐 물가에서
해야 되겠네요.}

10404 # 예, 순 머 지배서 해도 순 무레서 인제 물 아이면 처으메 물 아이면 안 데지.{예,
순전히 뭐 집에서 해도 순전히 물에서 인제 물이 아니면 처음에 물이 아니면 안 되지.}

10404 @ 사문 그러면 겨울에는 하기 힘들겟습니다, 추워서.{삼은 그러면 겨울에는 하기
힘들겟습니다, 추워서.}

10404 # 사르는 겨울겨그로느 하먼 뚜'어져뿌려 안텐다, 호호호 야, 여르메{삼은 겨울에는
하먼 떨어져 버려서 안 된다, 호호호 예, 여름에.}

10404 @ 주로 여르메.{주로 여름에.}

10404 # 인제 머 짜는 거는 방안에서 짜~이가 글 떼 못 짜면 머 참 주로 고마 여르메 거
거기 다 하는 데기레.{인제 뭐 짜는 것은 방안에서 짜니까 그 때 못 짜면 뭐 참, 주로 고만
여름에 거의 다 하는 덕이요.}

10404 @ 여르메 머 그러면 주로 여자드리 하는 이리 삼베 삼삼고 하는 거.{여름에 뭐 그
러면 주로 여자들이 하는 일이 삼베를 삼을 삼고 하는 것이지요?}

10404 # 글치여.{그렇지요.}

10404 # 안으로는 머 온 여름 네 머 추수 머 나락 비고 서숙 비고 할 때까지는 계속 인제
그걸 사물 해야지.{안사람들은 뭐 온 여름 내내 뭐 추수, 뭐 벼를 베고 조를 베고할 때까지
는 계속 인제 그 것을 삼을 해야지.}

10404 @ 바메도 싸.{밤에도.}

10404 # 야, 하이 바르로도 [x사기나x] 어데 꼬꼐해노코 그거 호룽불 들어갈 때 그 인제
불 넣어 놓고 바~아 안자가 삼고 안 그러면 저 한테하먼 탄불은 업꼬 메 소까지에 인제 그
사네 소나무 썬근 걸 뿌리 케다가 도꾸로 짜개가 말라가지고 그놈 피워노코 그거또 피워노
면 굉장이 발꺼든 그거 피워노코 주로 삼 삼고 그레찌.{야, 아이 밤으로도 [x삭이나x] 어디
에 코굴을 해놓고 그 것을 호룽불 들어가는 곳에 그 인제 불을 넣어 놓고 방에 앉아서 삼

고, 안 그러면 전 바깥에서 하면 다른 불은 없고 맨 술가지에 인제 산에 가서 소나무 썩은 것의 뿌리를 캐다가 도끼로 쪼개어서 말려가지고 그 것을 피워 놓고 그 것도 피워 놓으면 굉장히 밝거든, 그 것을 피워 놓고 주로 삼을 삼고 그랬지.}

=1 @ 검 박 여르메 바께 그러케 이르면 불 피워 노코 하면 모기 마니 안 달라듭니까?{검 여름에 밖에 그렇게 있으면 불을 피워 놓고 하면 모기가 많이 안 달라듭니까?}

=1 # 모기 이쨌요, 모기 이쓰면 모구뿔 호호호.{모기가 있지요, 모기가 있으면 모기불 호호호.}

=1 @ 그 모기.{그 모기.}

=1 @ 모구불 노습니까?{모기불을 피웁니까?}

=1 # 모구부른 왜 그거 그랜찌만도 맨 그거또 맨 소꼴이라, 가가즈고 비다가 머 판불처럼 피워노코 그건 수복 은저 노으면 그제 인제 연기만 나지, 타능게 아이거든 그제 피어노코 인제 **. {모기불은 왜 그 것이 그렇지만은 맨 그 것도 같은 쇠꼴이라, (+ 어디에)가서 베다가 뭐 다른 불처럼 피워 놓고 그 것은 많이 없어 놓으면 그 것이 인제 연기만 나지, 타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게 피워 놓고 인제 **.}

=1 @ 모구부른 그마 아무 푸리나 언저 논습니까?{모기불은 그러면 아무 풀이나 피웁니까?}

=1 # 으 그건 아무 푸리라도 다 데지, 시프른 거만 다 살란는 게만 데, 말란뿌마 둥그르 타 뿌기 떼미네 이는 사란는 거 아주 싱싱한게레야 가파나야 인지 오래토로 실실 연기만 나오게 [x해x]. {으, 그 것은 아무 풀이라도 다 되지, 시퍼런 것만 다 살았있는 것만 돼, 말라 버리면 둥그르 (+ 빨리)타 버리기 때문에 이 것은 살았는 것, 아주 싱싱한 것이라야 가져다 놓아야 인제 오래도록 실실 연기만 나오게 [x해x].}

=1 @ 연기가 결국은 모구도 다 쏜네요.{연기가 결국은 모기도 모두 쏜네요.}

=1 # 글씨 그 머 우예데가 그런지 연기푸이~까 모기는 이제 업서지~이까 호호호.{글씨, 그 뭐 어찌다가 그런지 몰라도 연기뿐이니까 모기는 이제 없어지니까, 호호호.}

10404 @ 혹시 그 어 물레 말고 열레라는 거또 인습니까?{혹시 그 어 물레 말고 열레라는 것도 있습니까?}

10404 # 쓰 열레라 소리는 나 묻 드러반는데.{열레라는 소리는 나는 못 들어봤는데.}

10404 @ 그 혹시 그 잉아떼는 들어바습니까?{그 혹시 그 잉앗대는 들어봤습니까?}

10404 # 뭇때? 잉아떼?{뭇 대?, 잉앗대?}

10404 @ 잉아떼 그러면.{잉앗대 그러면.}

10404 @ 예.{예.}

10404 # 잉어떼가 아이고? 잉어떼 건 잉어떼라는 건 베짖 때 우에 이레 이헤 여가 또 하나 거는 게 이서 잉어떼라꼬 그건 마저.{잉앗대가 아니고? 잉앗대 그 것은 잉앗대라는 것은 베를 짖 때 위에 이렇게 위에 넣어서 또 하나를 거는 것이 있는데 잉앗대라고, 그 것은 맞어.}

10404 @예, 잉어떼{예, 잉앗대}

10404 @ 잉어떼는 어떤 게 잉어떼입니까?{잉앗대는 어떤 것이 잉앗대입니까?}

10404 # 잉어떼는 그는 머 데나무 이시면 데나무하고 하나만 하면 데, 베트레다 뿌뜨러 메 노코 인제 이게 인제 베 이거 인제 이레 버러지면 북 드가제너 이게 더 묻 올라가도록 자아 메는 게 그제 잉어떼라, 닥 고정시키는 게 그제 인제 잉어떼라.{잉앗대는 그 것은 뭐 대나무만 있으면 대나무하고 하나만 하면 되지, 베틀에다 붙들어 매어 놓고 인제 이 것이 인제

베 이 것 인제 이렇게 벌어지면 북이 들어가잖아, 이 것이 더 못 올라가도록 잡아 매는 것이 그 것이 잉앗대라, 정확히 고정을 시키는 것이 그 것이 인제 잉앗대라.}

10404 @ 그리고 그 잉어떼하고 으: 예를 드려서 인제 그거 아까 삼베든 명이든 이거 온갖 짜가지고 감는 그거는 머라고 불렀습니까?(그리고, 그 잉앗대하고 예를 들어서 인제 그 것 아까 삼베든 명이든 이 것 옷감을 짜 가지고 감는 그 것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10404 # 아 짜가지고 여 자꾸 이레 감는 거, 그럼 명베네 짜능 거는 똑 가트~이까.{아, 짜 가지고 여기 자꾸 이렇게 감는 것, 그럼 명베네, 짜는 것은 똑 같으니까.}

10404 @ 아니 삼베나.{아니 삼베나.}

10404 @ 예, 짜가지고 그러마 그냥 둥니까, 안 그러마 어디다, 그거는 머 여 도구, 그거는 도구 엄습니까?(예, 짜가지고 그러면 그냥 둥니까, 안 그러면 어디다, 그 것은 뭐 여기 도구, 그 것은 도구의 이름이 없습니까?)

10404 # 아, 여 여기에다 자꾸 가마야지.{아, 여기에 여기에다 자꾸 감아야지.}

10404 # 그거는 이게가 머 잉어떼? 이 머 이거는 모르세 모른다, 여게다 인제 그 한 필 다 짜자면 여 다 몬 가트~이 머이 감긴 거는 인저 푸러가 네노코 또 인제 고 짤만치 여 요리 여 허리 안 자바메면 베를 몬 짜이~까, 순 저 저 베트레 여 언저 노코 사람 히메 여 허리 하고 아, 허리 또 이거 또 이꾸나 북떨 카는 게 또 이서 여 어데 드레 우리 지폴 가지고 또 그레 따아가지고 멩그러서 요레.{그 것은 이 것이 뭐 잉앗대, 이 뭐 이 것은 모르겠고 모른다, 여기에다 인제 그 한 필을 다 짜자면 여기에 다 못 감으니까 먼저 감긴 것은 인제 풀어 가지고 내어 놓고 또 인제 그 짤 만큼 여기 요렇게 여기 허리에 잡아 매지 않으면 베를 못 짜니까, 순전히 저 베틀에 여기에 얹어 놓고 사람 힘에 여기 허리하고 아, 허리 또 이 것이, 또 있구나, 부티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서 여기 어디 들에서 우리가 짚을 가지고 또 그렇게 땅아가지고 만들어서 요렇게.}

10404 @ 브:슨 떠?{무슨 떠?}

10404 # 여어 허리떠 카능 거는 북띠라 카지 그게 그레 가지고 허리에다 메고 여게다 데고 여 베짜는 감는데 여다 자메'야 사라미 히미 인제 데, 자메'야 인제 이거 히믈 조야 데, 안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절로 가뿌고 베를 몬짜이~까, 이거 순 사람 히미레 히미 조아야 데, 히믈 모지레면 베를 몬 짤따.{여기에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부티라고 하지, 그 것이 그레 가지고 허리에 매고 여기에 대고 여기 베짜는 감는 데에 여기에다 잡아 매야 사람이 힘이 인제 돼, 잡아 매야 인제 이 것 힘을 주어야 돼, 안 그러면 이 것 모두 다 저리로 가버리고 베를 못 짜니까 이 것 순전히 사람의 힘이야, 힘이 좋아야 돼, 힘이 모자르면 베를 못 짤다.}

10404 @ 베는 주로 여자가 안 짜습니까?(베는 주로 여자가 안 짜습니까?)

10404 # 그러치 주로 여자가 짜지 남자는 월레 못 짜이~ 호호호{그렇지, 주로 여자가 짤지, 남자는 원래 못 짜니까, 호호호.}

10404 @그러면.{그러면.}

10404 @ 그 힘 힘미 조으면 남자가 짜는 게 더 안 난습니까?(그 힘, 힘이 좋으면 남자가 짜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10404 # 남자는 그레 짤 주를 모르니께 안 짜바스~끼네, 아무도 나는 우리도 [x안지 떠서 x] 남자 짜는 거는 기경 몬 헤바서, 호호호.{남자는 그렇게 짤 줄을 모르니까, 안 짜보았으니까, 아무도 나는 우리도 [x얹은 데서x] 남자가 베를 짜는 것은 구경을 못 해봤어, 호호호.}

10404 @ 여자드리 호리호리한 여자는.{여자들이 호리호리한 여자는.}

10404 # 그 아 그래도 다 짜에.{그 아 그래도 다 짜요.}

10404 # 이그는 머 이 머 허림마 차고 이시면 이거 머 안땅게 갈 정도든 데그더, 호호호.
{이 것은 뭐 이 뭐 허리에만 차고 있으면 이 것에 뭐 안 당겨 갈 정도만 되면 되거든, 호호호.}

10404 @ 그 에 예저네는 그 호리호리한 여자아 별로 안 조아께썸미다?(그 예전에는 그 호리호리한 여자가 별로 안 좋았겠습니까?)

10404 # 으 그아 그 글치 머 여그 참 요세나 글떼나 이그 베를 이그 모타은 사라든 또 멩 글떼도 멩 멩 마~이 이썸스.{으 그 그렇지 뭐, 여기 참 요사이나 그 때나 이 것 베를 이 것 못하는 사람은 또 맨 그 때도 늘 많이 있었지.}

10404 # 암만 이어 베운다 그래도 와가즈거 배어 가주오 한다 카능 건느 이그 이걸 베 이그 멘다 카능 그 이 풀칠하고 이 송가이 멘다 카능 이그또 사람때도 다 모하는 게고, 이그 또 은제 하는 사레미, 으데템 들 이우제라고 다 행 거 아이고 이 동네도 고마 하내이 정도 벨 메는 사레미 여그 마굼 몸 메이가 조집해라도 머 내이르 우리 썸 베 썸 메다 카마 ㄸ으 그 카우 가우 가서 은제으 그 지 빼를 마타가전 다 멘 다 메저이전 조이데지.{아무래도 이어서 배운다고 그래도 (+시집을)와 가지고 배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것, 이 것 베 이 것을 맨다고 하는 것은 그 이 풀칠을 하고 이 손을 가지고 맨다고 하는 것은 이 것도 사람마다 다 못하는 것이고, 이 것도 인제 하는 사람이, 어쨌든지 이웃이라고 다 한 것은 아니고 이 동네도 고만 한 사람 정도만이 베를 매는 사람이 여기 마구 못 매니까 저 집에라도 뭐 내일 우리집 베 좀 매어 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가가서 인제 그 집의 베를 말아가지고는 다 뺏어, 뺏어 줘야 되지.}

10404 @ 그영 기수리네예?(그럼, 기술이네요.}

10404 # 그그뜨 기수리지 아무나 그언 머.{그 것도 기술이지, 아무나 그러면 뭐.}

10404 # * *** *. {* *** *.}

10404 @ 그르 하고느 으, 하고 나며너 어뜨케 미어 베 매 주고 나며넌 품:삭 바썸미까?
{그렇게 하고는 하고 나면 어떻게 베를 매 주고 나면 품삯을 받습니까?}

10404 # 어 그머 다 읊내도 글 바더야지.{어, 그 뭐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지.}

10404 # 줄 주고 인제 그레짜.{줄을 주고 인제 그랬지.}

10404 @ 검 그 베매는 기술 그는 잘 앙가르쳐줍니까, 앙그엄머는.{그럼 그 베를 매는 기술, 그 것은 잘 안 가르쳐 줘니까, 안 그러머는.}

10404 # 아이 그 바도 그 잘 모리는 모이레 이그 인제 이그 인제 풀칠하능 게 여그서 인지 조정이 이따 카이 프이 마이 칠해도 저 안데고 저게 칠해도 안데고 인지 베를 몬 짜니까 이어 풀칠 하는데 그거 조저~이지 이그 메는 거사 머 아무 드 가 홀커 너르웜 데는데 이여 풀칠하능게 은제 그게 인지 조저~이라.{아니, 그 봐도 그 것을 잘 모르는 모양이라, 이 것 인제, 이 것 인제 풀칠을 하는 것이 여기서 인제 조정이 있다고 하니, 풀이 많이 칠을 해도 저기 안 되고 적게 칠을 해도 안 되고 인제 베를 못 짜니까 이 풀칠을 하는데 그 것 조정이 지 이 것 매는 것이야 뭐 아무나 들어 가 훑어내려오면 되는데 이 여기서 풀칠하는 것이 인제 그 것이 인제 조정(하는 기술)이다.}

10404 @ 풀량을 어느 정도 한.{풀의 양을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이.}

10404 # 울치 요레 지고 머음 머 엄머 어예 한다카능거 요고 인제 조정이라. {옳지, 요렇게 쥐고서 뭐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요 것이 인제 조정이라.}

10404 @ 그이 기수리드 그지예.{그것이 기술이다, 그지요.}

10404 # 예. 어이 기술리지.{예, 그 것이 기술이지.}

10404 @ 아따 그 참 예에, 그런 기술 하나 이썬도 참 음, 어 예저네 대우는 쯔 바드께썬다.{아따 그 참, 그런 기술 하나만 있어도 참, 예전에 대우는 쯔 받았썬습니다.}

10404 # 아 대오 바이 대오 바다찌, 먼 찌게 내 이리 마느른 베 하르 메주른 그 지으 가가 또 먼 일르 헤즈스 떠 그 쓰끄레이.{아, 대우 받아, 대우를 받았지요, 먼 저게 내 일이 많으면 베를 하루 매어주면 그 집에 가서 또 뭘 일을 해주소, 또 그랬으니까.}

10405 @ 그 다음 그 보통 그 명하고 삼베은너 한 피른 기리가 며짜나 템미까?{그 다음, 그 보통 그 명하고 삼베는 한 필은 길이가 몇 자나 됩니까?}

10405 # 그케 아께 열찌마는 고 자로 고 머 한두 자, 두 자 정도드 데겐나, 기리가 하 하한 아이 이 기리가 요웨, 요레 자로 우리 글떼 보이 머금 멩그러편지 사편지 그른 자가 이따라, 고고로 언젠 재냉겐 네고 한 피네 사십짜로 헤 가주고 사십짜로 헤 가주고 인제 한 필로 인제 고래.{그렇게 아까 넣었지마는 고 자로 그 뭐 한두 자, 두 자 정도도 되겠나, 길이가 한 아니, 이 길이가 여기 왜, 이렇게 자로 우리가 그 때 보니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샅든지 그런 자가 있더라, 그 것으로 인제 재어내는 것은 내고 한 필에 사십 자로 해 가지고 사십자로 해 가지고 인제 한 필로 인제 그렇지.}

10405 @ 사십짜가 한 필 데지여.{사십 자가 한 필이 되지요.}

10405 # 야.{예.}

10405 @ 그럼며느 하루에 그 잘 짜는 사람가튼 경우너 베틀레 안저서 한 어느 정도 찢 수 이썬미까?{그러면 하루에 그 잘 짜는 사람같은 경우는 베틀에 앉아서 한 어느 정도 찢 수 있습니까?}

10405 @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짜며너.{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짜면은.}

10405 @ 대략.{대략}

10405 # 그른데 한 필 찢데 한 일쫘일 걸린다 그등강, 그른데 하루에 이 머 며짜라 카드라, 그스 함 아느로느 요곰 머 어이 어 열짜라 카등강, 머 얼마 머머 정도 찢다카든데, 찢긴 빵 곱또 빨리 짜는 사라미 해이데, 빨리 짜는 사람 허문 이그 우리 바 바도 이그 부기 언제 드가따 나가따 하는 지 이그 잘 몰레.{그런데, 한 필 짜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고 그런든가, 그른데 하루에 이 뭐 몇 자라고 하더라, 거기서 하마 안으로는 이 것이 뭐 어 열 자라고 하든가, 뭐 얼마 정도 찢다고 하던데, 반짓 반 것도 빨리 짜는 사람이 해야돼, 빨리 짜는 사람 하면 이 것 우리가 봐, 봐도 이 것 북이 언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지 이 것을 잘 몰라.}

10405 # 이긴 북뜨가면 이겐 순 바린데 이그 발로 팔리 놀려야지 이그는 버러져따가 아부러져따 버러져따 이레해야 은제 부기 드가따 나가따 하제.{이 것은 북이 들어가면 이 것은 순 발인데 이 발로 빨리 놀려야지 이 것은 벌어졌다가 아무러졌다 벌어졌다 이렇게 해야 인제 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10405 @ 그 그안 그그뜯 아즈 승년텐 사암 잘 하고?{그 그 그것도 아주 숙련된 사람은 잘 하고?}

10405 # 아이, 야.{아니, 예.}

10405 # 으 이그또 또 이 베도 이거또 사람메도 다 찢 다 모찢다이, 막 다 몬짜꼬 또 이거또 머 작 배오 가주고 덤 먼 더디라도 찢 사암 이찌마는.{으, 이 것도 또 이 베도 이 것도 사람마다 다 찢, 다 못 찢다, 막 다 못 찢고 또 이 것도 뭐 자꾸 배워 가지고 쯔 뭐 더디더라도 짜는 사람이 있지마는.}

10405 # ** 또 나'무 베도 뜯 뜯 짜 슈스드 이꼬, 머 모짜 그 짐 몬 짜~이까, 으레 이그
쫘 짜 달라꼬 또 가따 주고 머.{** 또 다른 집의 베도 또, 또 찢 수도 있고 뭐 못 짜니까,
그 집은 못 짜니까, 으레 이 것 쫘 짜 달라고 또 가져다 주고 뭐.}

10405 @ 그라마 또 품 품삭을 주든지 가서 이를 해 주그등예.{그러면 또 품, 품삭을 주든
지 가서 일을 해 주거든요.}

10405 # 야, 예, 가고, 예, 마저.{예, 예, 가고 예, 맞어요.}

10405 @ 금 보통 그어 이 베짜는 기수른 어뜨이 시어머니한테 물려바씀미까, 앙그러며 친
정에서 이미 해가 옴니까, 보통.{그럼 보통 그 이 베짜는 기술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물려
받습니까, 안 그러면 친정에서 이미 배워서 옴니까, 보통.}

10405 # 친정에서 해 가주 운 사암드 이꼬 아주 또 여 와서 은지 시집와서 시어마이인데
인지 배우른 주로 시어마이인데 마이 마이 배우지듬 마이 아이 올 때도 아즈 배아 가주 운
사암도 이꼬.{친정에서 해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아주 또 여기 와서 인제 시집을 와서 시
어머니한테 인제 배우는 주로 시어머니한테 많이 많이 배우지 많이, 아예 올 때도 아주 배
워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10405 @ 그엄며 한 머 으 시집살이 쫘 오래해야 그 배우 다 배움미까, 앙가면 머 그그또
빨리 배움미까?{그러면 한 뭐 시집살이를 쫘 오래도록 해야 그 것을 배우, 다 배웁니까, 안
그러면 뭐 그 것도 빨리 배웁니까?}

10405 # 지그르는 머 오세 아:드른 머 음식또 모 해명은 사라몬 이찌마는.{지금은 뭐 요사
이 아이들은 뭐 음식도 못 해 먹는 사람이 있지마는.}

10405 # 글때도 이 이그 베 몬짜고 베어 이그이금 이그 모하른 인 매 향가지라, 이견 믿
맹 음식이 참 잘 모할마는 금 마 그 고막 그른 저그 텐다카그.{그 때도 이 이 것 베를 못
짜고 베 이 것, 이 것 못 하면 (지금과)똑 한 가지라, 이 것은 맨 음식이 참 잘 못하면은 그
러면 그 고만 그런 적이 된다고 하고.}

10405 # 그레가주 인제 그 다 아주 자꾸 배울라그 예쓰지 땅그는 머 머 그를 머 그르 엔
나레는 글 배우고 하꼬 할라고 애씨는그 그릉글 또 아주 전혀 그는 머 업씨~이까 아주 생
각또 안 하고 주로 은제 이글 배울라꼬 인제 예르 마이 씨고 또 마니 절 한테.{그레 가지고
인제 그 모두 아주 자꾸 배울려고 애를 쓰지, 다른 것은 뭐 글을 뭐, 글은 옛날에는 글을
배우고 학교 갈려고 애를 쓰는 것, 그런 것을 또 아주 전혀 그 것은 뭐 없으니까, 아주 생
각도 안 하고 주로 인제 이 것을 배우려고 인제 애를 많이 쓰고 또 많이 저렇게 했지.}

10405 @ 그 예저네 그 으 머 어르시는 인제 머 아폐서 베를 짜지르 아느시니까 머 짜는
부분 대해서는 잘 모르시게찌마는, 베 그 예를 드러서 삼뽕 찌 가죽 온다든지 또느 머야 그
물레질 하기 정까지느 어르시니 마니 아 해줍미까 그쵸?{그 예전에 그 뭐 어르신은 인제 뭐
앞에서 베를 짜지를 앓으시니까 뭐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마는, 베, 그 예를
들어서 삼베 찌 가져 온다든지 또는 뭐 물레질 하기 전까지는 어르신이 많이 해줍니까, 그
렇쵸.}

10405 # 물레질?{물레질?}

10405 @ 아니 물레질하기 정까지너 짜가 오거나 어어 삼때를 찌이거 찌서 오거나 또는 질
머지고 와서 또 삼 부레 그 삼꺼나.{아니, 물레질하기 전까지는 짜가(+ 찌서의 발음실수임.)
오거나 어 삼대를 찌이서, 찌서 오거나 또는 끓어지고 와서 또 삼을 불에 그 삶거나.}

10405 # 예, 그 마저여.{예, 맞아요.}

10405 @ 그렇거는 만이 껌찢까능거까지 어르시는 해주심미까?{그런 것은 많이 껌질을 까

는 것까지 어르신이 해주십니까?}

10405 # 야 그 뜨 그 꼬 그릉 거꺼진.{예, 그 그 그런 것까지는.}

10405 # 다 해 조이데 앙그럼 그 몬하고 은제 하이 주로 인제 그 껌찌만 껌테기마 베껴가 주고 고마 이 아느로 거그마 아느로 가 채금 다 저이데지, 머 말류코 이그 머이 또 켜고 하 능건 현진 다.{다 해 주어야 돼, 안 그럼 그 것을 못 하고 인제 하니 주로 인제 그 껌질만, 껌테기만 베껴가지고 고만 이 안으로 그 것만 안에서 책임을 다 저야 되지, 뭐 말리고 이것 뭐, 이 또 찢고 하는 것은 거의 다.}

10406 @ 그르심면 그때 어르시니 그 삼때 그 썩가즈고 오시고 이럼머너, 그땀 머 예저네 머 저 흑식 에 생강나는 머 일가통어 재민는 이리나 또는 힘드러면 그렁 기억뜨리 이썩미 까, 삼 머 앙가면 썩 우끼는 거라든지 삼때 그렁거 자겍할 때.{그르시면 그 때 어르신께서 그 삼대를 그 썩가지고 오시고 이르면, 그 때 뭐 예전에 뭐 저 흑시 생강나는 뭐 일같은 것, 재미 있는 일이나 또는 힘이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삼 뭐 안 그러면 썩 웃기는 것이라든지, 삼대 그런 것 작업을 하실 때.}

10406 # 어 그능 멀로 마로, 아 판 머 벨 저어는 얻꼬, 삼 할 때 주론 엔, 예능 머거지요 입 디게 뜨거불 때 하니까 무척 금 머 뜨거불 때 하니까 인지 글뎀 어드가이 애러브뎀 머 땅거는 쓰 별르 기억이 잘 안나네 올레테가주구요.{으, 그런 말로 말로, 아 다른 뭐 별 저 것은 없고, 삼을 할 때 주로 애는, 애는 먹었지요, 이 아주 더울 때 (+일을)하니까 무척 뭐 더울 때 하니까 인제 그 때는 어진간히 어려울 때 뭐 다른 것은 별로 기억이 잘 안나네요, 오래되어 가지고요.}

10406 @ 그 게릅까튼 그그는 머 아까 어 어 주로 지붕 이는데 쓰곤 다른 근로는 머 에 어 쓰는데 업썩미까?{그 겨릅같은 그 것은 뭐 아까 주로 지붕을 이는데 쓰고는 다른 것으로는 뭐 쓰는데 없습니까?}

10406 # 왜 이 저 저이 주로 은제 이 지붕 이고 은제.{왜 이 저 저 주로 인제 이 지붕을 이고 인제.}

10406 # 허제비 허수아비라 그저 오세너, 글뎀는 우리는 허제비르 그르는데 허제비할 때 고롱고 쪼메 무꺼가 요래 서우가 양짜 이레 벌려부고 고머 찢라가주고 거러노음 뭐 근 오까 세 가져 가 가무무 텐다, 주로 인제 극 그 가즈어 그글 또 마이 하고 허제비르 인제.{허수아비, 허수아비라 그러지 요사이는, 그 때는 우리는 허수아비라고 그르는데 허수아비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조금 묶어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양 쪽에 이렇게 벌려 버리고 고만 찢라 가지고 걸어 놓으면 뭐, 그 옷가지를 가져 가서 감으면 된다, 주로 인제 그 그 것을 가지고 그 것을 많이 하고 허수아비라고 인제.}

10406 @ 허제비 세우는데 애드, 애드론 그그간 머 놀곤 아 함미까?{허수아비 세우는데 애들, 애들은 그 그것을 가지고 뭐 놀곤 안 합니까?}

10406 # ** 꼬찌른 금 머찌지여, 그언.{** 쫘으면 그 멋지지요.}

10406 # 애드론 머 그 까주고 먼 노지도 몬타고 금 마 말라부른 또 매기업써 잘 빼어썩뿌 래 뚝뚝 뿌르져뿐너.{애들은 뭐 그 것 가지고 뭐 놀지도 못 하고 그 말라버리면 또 맥이 없어서 잘 부러져버려 뚝뚝 부러져 버려.}

10406 @ 그 흑신 머 애들 어 활쏘기 하는데 이릉거 할때로 그릉 그 활 이 어 화살로 쓰고 그런지는 안 썩미까?{그 흑시 뭐 애들 어 활쏘기를 하는데 이른 것을 활대로, 그럼 그 활, 이 화살로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10406 # 그 그거 그그 호.{그 그것, 그 흑.}

10406 # 그그 꼴또 안 하곰 이 송까라보다 송가락 이그 삼부니 일 들라, 그 그른데 그 금호 활때도 안, 테도 아 한드 양끄도 근 머.{그 굵지도 안 하고 이 손가락보다 손가락 이 것의 삼분의 일이 될라, 그른데 그 활대도 안, 되지도 안 한다, 아무 것도 그 뭐.}

10406 # 근 아들레 그 삼 그 베끼노흔데이 베끼 가지 이시몬 아들 그 올라가몬 금 텅기도 모템 미끄러버가즈어 머 올로소 누라 아는 사람헌테 그 발버따그므 야꺼 빼막하면 그대로 나가뻘드.{그 아이들네 그 삼을 그 벗겨놓은 곳에, 벗겨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가면 그 다니지도 못 해, 미끄러워 가지고, 뭐 (+그 위에)올라 서서 누구라도 아는 사람헌테 그 밟았다고 그러면 약간 빼막하면 그대로 나가떨어져.}

10406 # 그때미네 거이직 게락까주오는 머 절 머 별론 저걸 안 해쓰.{그 때문에 거의 겨름을 가지고는 뭐 별로 저 것을 안 했어.}

1.4.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10407 @ 어, 어르신 그엄 어 그 누에는 이 동네엔 쳐썸미까?{으, 어르신 으 그 누에는 이 동네에서는 쳄습니까?}

10407 # 아 누에어 올똥 누엔 마이 미게찌여.{아, 누에 우리도 누에는 많이 먹였지요.}

10407 # 마이 미젠니더, 지그몬 안 하지.{많이 먹였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

10407 @ 요즘 아 하지마느.{요즘은 안 하지마는.}

10407 # 글때는 마~이 미젠니더, 예.{그 때는 많이 먹였습니다, 예.}

10407 @ 그 누에를 가며 언제썸부터 해썸미까, 누에너?{그 누에를 그러면 언제썸부터 했습니까, 누에는?}

10407 # 안 너 누에도 은제 아 아주 해동해 지 찌 찌 뽕 뽕 이파리가 나와야 인제 누에가 이 은 나온내구.{아, 누, 누에도 인제 아주 해동해서 저 뽕, 뽕 이파리가 나와야 인제 누에가 나온다.}

10407 @ 그 저어기 느엿 누에 아니 이 동네에서 누에 하신 지가 어르신 절머썸 때부터 하썸미까, 언제부터 하썸썸?{그 저기 누에 아니 이 동네에서 누에 하신 지가 어른 젊었을 때부터 하썸습니까?}

10407 # 예, 내가 절물 떼어이 해꼬, 나 말러마 누 누에 아즈 고마 안 해쁘러꼬, 절물 떼는 올또 누에를 마이느 아 해도 해연 참 누에 그 그으 꼬 미게서 거따 팔고 은제 으 그 돈 가주고 인제 이룬 **시보 그레지.{예, 내가 젊을 때 했고 나이가 많아서 누에를 아주 고만 안 해버렸고, 젊을 때는 우리도 누에를 많이는 안 해도 매 년 참 누에 그 것을 먹여서 가져다 팔고 인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 그랬지.}

10407 @ 그엄 누에 또 이 여이 누에 친다 그람미까, 누에 머라, 머긴다함미까?{그럼 누에를 또 여기서 누에를 친다고 그럽니까, 누에를 뭐라, 먹인다고 합니까?}

10407 # 예, 아 여그도 땡.{예, 아 여기도 땡.}

10407 # 아 누에 친다 그레찌.{아, 누에를 친다고 그랬지.}

10407 @ 누에 치면.{누에를 치면.}

10407 # 천다거기도 하고.{친다고 그러기도 하고.}

10407 # 누에 미젠다 그기도 하고 머.{누에를 먹인다 그러기도 하고 뭐.}

10407 @ 누에 미기거나 침면 은 응게 예저네 음 고평 오래테따 그지예.{누에를 먹이거나
침면은 응 예전에 음, 그것도 오래 되었다 그지요.}

10407 # ***.{***.}

10407 # 오래테짬.{오래 되었지.}

10407 @ 그러며 이 누에는 치 가주고 주로 팔 고치 팔기만 파라썸미까, 앙 그러면느 여기
에 그걸 여기서 뭇 비단늘 짜썸미까, 짜기도 해썸미까 고치 실 까주고.{그러면 이 누에는
쳐 가지고 주로 팔, 고치를 팔기만 팔았습니까, 안 그러면은 여기 그 것을 여기서 뭇 비단
을 짰습니까, 짜기도 했습니까 고치 실을 가지고.}

10407 # 아 우리는 머 그글 음 업따보~이 이걸 이 오슬 헤이 머 푸러가주 오슨 헤 입쩐
안 헤꼬 니이 이우제넌 머드 머스한 사라문 또 켜 기양 사는 사라문 자기 미에 가주고 자
기가 그 그거뜨 드 실로 멩그라서 오슬 헤 이븐 사헤민 ** **마 인니더.{아, 우리는 뭇 그
(+ 재산이)없다 보니 이 것을 이 옷을 해, 이 것을 풀어 가지고 옷은 해 입지는 않았고 이
이웃에는 뭇 뭇한 사람은 또 좀 그냥 사는 사람은 자기가 먹여 가지고 자기가 그 그 것도
실로 만들어서 옷을 해 입은 사람이 ** **마 있습니다.}

10407 @ 그럼며느 그 음 그 보통 누에 곧 치를러며너 어 그 뽕나무가 이써야테지 안썸미
까?{그러면 그 보통 누에를 칠러면 그 뽕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407 # 뽕나무가 이서야텐드 뽕나무 글뎌 누이 멘다꼐 켜 머 인 바뚜그러름 하고 썸 머
바떼 그 쯔메금 한테는 뽕낭그로 마이 숨머찌요.{뽕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뽕나무가 그 때는
누에를 먹인다고 저 뭇 발독으로하고 뭇 발에 그 조그만 한 독에는 뽕나무를 많이 심었지
요.}

10407 @ 주로 바테 시머썸미?{주로 밭에 심었습니까?}

10407 #예 야.{예, 야}

10407 # 바테 수무고 바뚜구로 인제 마 저런테 승거가주고 인젠 머 이레끄드, 머 업씨른
누에르 몬 미게자네, 뽕낭구 업씨르 누에르 누에는 뽕아이르 판니그 땅그를 먹찌르 안 하이
까 뽕 아이면.{밭에 심고 밭독으로 인제 저런 곳에 심어 가지고 인제 뭇 이렇게 했거든, 뭇
없으면 누에를 못 먹이잖아, 뽕나무가 없으면 누에를, 누에는 누에는 뽕이 아니면 다른 잎
을, 다른 것을 먹지를 안 하니까 뽕이 아니면.}

10407 @ 그엄 누에 뽕을 그냥 뽕마 그 함미까, 앙 그암 야생뽕도 썸?{그럼 누에 뽕을 그
냥 뽕만 그렇게 함니까, 안 그럼 야생 뽕도 썸?}

10407 # 아 모지레문 저 멀리 저 아주 푸른 사네 여 보이는 점 먼 사네꺼즘 뽕 따러가이
데, 뽕 따가주 와이테이.{아, 모자르면 저 멀리 저 아주 푸른 산에 여기서 보이는 저 먼 산
에까지 뽕을 따러가야 돼, 뽕을 따 가지고 와야 돼.}

10407 @ 그어 그 야쓰 그냥 암 누에 아 아 뽕 심찌 아능꼬 야생뽕도 이서썸미까?{그, 그
야생, 그냥 아 누에 아 뽕을 심지 않고 야생 뽕도 있었습니까?}

10407 # 사네가문 마이찌여.{산에 가면 많이 있지요.}

10407 @ 그엄 머.{그럼 뭇.}

10407 @ 머 무슨 뽕이라 그럼미까, 그느.{뭇 무슨 뽕이라고 그럼니까, 그 것은.}

10407 # 그으는 삼뽕.{그 것은 산뽕.}

10407 @ 삼뽕?{산뽕?}

10407 # 예. {예.}

10407 @ 삼뽕이 조썸미까 지베서 그어 짹 길러는 뽕나무 뽕이 나썸미까?{산뽕이 좋습니

까, 집에서 그 쪽 길렀는 뽕나무 뽕이 낫습니까?)

10407 # 지비 길렁 거 홀선 나찌, 지비 길런는 거는 이 여 우리가 사다 송거시이 이퍼리가 이레 녀꼬 사네꺼는 아주 쭉지비, 쪼메끔 하지여 삼뽕은.{집에서 기른 것이 훨씬 낫지, 집에서 길렀는 것은 이 여기 우리가 사다가 심었으니 이파리가 이렇게 넓고 산의 것은 아주 좁지, 조그만하지요, 산뽕은.}

10407 @ 음 날쭈가 안난다 그지.{음, 나오는 양(+수확량)이 적다 그쵸.}

10407 # 안 나 안 나지 건 암만따바야 그언 머 누에 거 그 머 여이.{안 나, 안 나지, 그 것은 아무리 따바야 그 것은 뭐 누에 뭐 여기.}

10407 # 예기 이 마감 항그 너분거는 그 음 가따 테노므 한 마리도 그는 머 시큰 먹찌마는 저거는 덴나 데야 머경가 무 시큰 머그이까?{여기 이 만큼 넓은 것은 그 가져다 대 놓으면 한 마리도 그 것(넓은 뽕잎)은 뭐 실컷 먹지마는 저 것은 몇 날이 되어야 먹을까, 뭐 실컷 먹겠느냐?}

10407 @ 으 삼뽕 인제 모자라며 삼뽕따러도, 예.{으, 산뽕은 인제 모자라면 산뽕을 따러도, 예.}

10407 # 어어, 삼뽕따러 마이 가져.{으, 산뽕을 따러 많이 갔지.}

10407 @ 어 삼뽕 삼뽕머근 누에하고 지뽕머근 누에하고 누에가 쪼금 튼실항게 쭈 다릅니까?{으, 산뽕을 먹은 누에하고 집뽕을 먹은 누에하고 누에가 쪼금 튼실한 것이 쪼금 다릅니까?}

10407 # 그그는 그그는 누 구별음 음 모 텐니더.{그 것은, 그 것은 누에를 구별, 음 못 했습니다.}

10407 # 왜냐그면 이거 음 사 고 뽕~이 모지레 가주고 삼뽕을 가뜨 미게씨이까 마저이 이 건 먼 지비꺼 다 미게코 하옹 지비꺼 거이 미게든 이그 암 누엔 하마 거이 한 다 굴거따고 바이 데그더.{왜냐하면 이 것은 음 뽕이 모자라 가지고 산뽕을 가져다 먹었으니까, 맞어, 이것은 뭐 집의 것 거의 다 먹이고 집의 것 거의 먹이면 이 것 아마 누에는 벌써 거의 다 굶었다고 봐야 되거든.}

10407 @ 겹 뽕 그거 뽕나무는 그 아까으 바치나 앙 그암 받두게나 언덕이런데 시머노은데 머 길러 어 머 어 쭈 거르를 주고 해야뎡미까 앙 그암 심머나우머 뎡미까?{그럼 뽕 그 것, 뽕나는 그 아까 밭이나 안 그러면 밭독에나 언덕이런 곳에 심어놓았는데 뭐 길러야, 어 뭐 쭈 거르를 주고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심어놓으면 (+그냥)됩니까?}

10407 # 바뚜게 송거 놓 거는 그 우에 바테 머 그라 노이칸 비오고 하든 쭈 그 흘러 내려가이까 그으눔 앙 그라도 그는 자연지그로 머 근 먼 조하지니더, 예.{밭독에 심어 놓은 것은 그 위에 밭에서 뭐 비료를 많이 했으니까(+거루어 놓으니까) 비가 오고 하면 그 것이 흘러 내려 가니까 거기는 안 키워도 자연적으로 뭐 좋아집니다, 예.}

10407 @ 금 머 앙 고 아 그 그름 아 하오 거 안주도 그럴 앙 그러도 어 겐찬타 그지예? {그럼 아 그 거르를 안 하고 거기에 안 주어도, 안 키워도 팬찮다, 그쵸?}

10407 # 예, 예예.{예, 예 예.}

10407 언 거 뽕으영 뽕나무는 시머 노면 한 머 바로 그 해부터 머김미까, 앙 그암 쭈 지나야 뽕 그어 함미까?{으 그 뽕은, 뽕나무는 심어 놓으면 한 뭐 바로 그 해부터 먹입니까, 안 그럼 쭈 지나야 뽕을 그 먹입니까?}

10407 # 아 송거노든 그 그 해든 머 머 크진 아 하지만 머 쪼매도 미게꼬 또 한 해 지내야 은제 뽕나~이 크든 글때는 쪼금 마이 미게든지.{아, 심어 놓으면 그 해든 뭐 크지는 않

지만 뭐 조금이라도 먹었고 또 한 해가 지나야 인제 뽕나무가 크면 그 때는 조금 많이 먹이든지.}

10407 @ 그엄 뽕은 그 누에 머길 때 뽕을 거기서 뽕 입맘 따 자주 옴미까, 앙 그암며너 가직까지 쳐 자주 와서 지배서 땀미까?{그럼 뽕은 그 누에를 먹일 때 뽕을 거기서 뽕 잎만 따서 가지고 옴니까, 안 그러면 가지까지 쳐서 가지고 와서 집에서 (+ 잎을)땀니까?}

10407 # 아 은제 뽕으넌 한 해 무키면, 인제 해에 저엔 하네 무켜가주고 낭글 비는데 대궁이가 이레 이시면 이레 올라 가지, 머 가지가 추추 인제 뽕가져 나온단 마리아, 그리고 인제 에 하 낸 두 출 미게꺼든, 갈 가을 누에 미겔 때는 이퍼리마 따다가 점부 다 미게코 보메 인제 미겔 때는 점 가질은 나드르 가서 다 찌다아 지게르 질무지고 와서 그 이퍼리 하나강 따가주고 인닌 누에를 주고, 아 인제 가을 누에는 낭글 썬뽕은 상도~우 그 몬 사르나이까.{아, 인제 뽕은 한 해를 묵히면, 올 해에 저기는 한 해 묵혀 가지고 나무를 비는데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 가지, 뭐 가지가 축축 인제 번져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인제 한 해에 두 철을 먹이거든, 가을, 가을 누에 먹일 때는 잎파리만 따다가 전부 다 먹었고 봄에 인제 먹일 때는 전부 가지는 낫으로 가서 다 쳐다 지게로 쭤어지고 와서 그 잎파리 하나씩 따 가지고 (+ 집에)있는 누에를 주고, 아 인제 가을 누에는 나무를 썬 버리면 삼동에 (+ 겨울에) 그 못 살아나니까.}

10407 # 대궁이 해 나두고 이퍼림마 가르레 가주고 또 잘모 따뿌미니 또 네여네 으 뽕~이 안 데이까 가르레 가 탄 타나으 다 찌버 가주고 인제 그레 조 조꼬 인제 그.{줄기를 해서 놓아두고 잎파리만 가을에 가지고 또 잘못 따버리면 또 내년엔 뽕이 안 되니까, 가을에 가서 하나하나씩 다 집어 가지고 인제 그렇게 줌고 인제, 그.}

10407 @ 그 근 누에 그럼며느 아 어 뽕을 인젠 은 봄 봄 누에 머일 때너 가지 쳐도 데고 가을 누에느 인제 뽕이불 조심하에서 따야 텐다 그지예?{그 누에, 그러면은 아, 뽕을 인제 봄, 봄 누에 먹일 때는 가지를 쳐도 되고 가을 누에는 인제 뽕잎을 조심하여서 따야 된다, 그지요?}

10407 # 예예, 가지 철 떼고, 아, 예, 예예, 예, 마저, 예, 예.{예, 가지를 쳐서 떼고, 아, 예, 예예, 맞아, 예, 예.}

10407 @ 그엄 뽕 그어가튼 경우에 그 머 누에 비 오고 나선 뽕에 물 무등 거 주두 땀미까?{그럼, 뽕 그같은 경우에 그 뭐 누에한테 비가 오고 나서 뽕에 물이 묻은 것을 줘도 됩니까?}

10407 # 아:, 안 데지여.{아, 안 되지요.}

10407 # 절때르 물 무등 거, 그어 먼 뜸무리 즈 머 진딘무리라당간 그름 므 이서도 안 데고, 그으름 마 아주 깨끄제데지 머 금 흘기 무더도 안 데고 그 아주 깨끄데이.{절대로 물이 묻은 것, 그어 뭐 진딧물, 뭐 진딧물이라든지 그런 뭐 있어도 안 되고, 그 것은 마 아주 깨끗해야 되지, 뭐 흙이 묻어도 안 되고 그 아주.}

10407 @ 앙 그암 병이 잘.{안 그럼, 병이 잘 (+ 들고)?}

10407 # 아유 그언 머 병 오능 거 거거는 몰레도 몰르 어른들 볼 때 미게능 보이까, 이거나 뽕은 아즈 먼 음 머 무드이까 머 이 따껴뿌고 주고{아유, 그 뭐 병이 오는 것, 그 것은 몰라도 몰라, 어른들을 볼 때, 먹이는 것 보니까, 이 것(누에)이나 뽕은 아주 뭐 음 뭐가 묻으니까 뭐 이 닦아버리고 주고.}

10407 # 음 그래 머 아주 또 물끼 이시머 안데고.{음, 그렇게 뭐 아주 또 물끼가 있으면 안 되고.}

10407 @ 물끼 이쓰면 다 따껴가주고.{물끼가 있으면 다 닦아서 주고.}

10407 # 예, 다 따껴가 주고, 양 그르믄.{예, 다 닦아서 주고, 안 그러면.}

10407 # 비온다 시프르 아주 사저네 비가 마야시르 사저네 저레 주레 거르노콘 가따 거르나이 데임 물또 이드 다 물 빼여가즈다가 주고.{비가 온다 싶으면 아주 미리, 비가 맞았으면 미리 전에 줄에 (+ 뽕 가지를)걸어 놓고 가져다 걸어 놓아야 되고, 물도 이 다 물을 빼서 가져다 주고.}

10407 @ 그럼 비울꼬 가튼머느 뽕 따러 막 빨리 가야 데네.{그럼 비가 올 것 같으면 뽕을 따러 빨리 가야 되네요.}

10407 # 야, 빨리 가야 데고.{예, 빨리 가야 되고.}

10407 # 머 하다하다 비가 계속 오면 비오는데가가 썸다가 저런데 가따 인제 거러 노으면 무리 빠진다, 빠지면 주고 *****.{뭐 하다하다가 비가 계속 오면 (뽕가지를)썸다가 저런 곳에 가져다 인제 걸어 놓으면 물이 빠진다, 빠지면 주고 *****.}

10407 @ 그엄 뽕은 예를 드려서 머 봄뽕은 썸 자주 와서 여서 따니까 별로 관계 지게 질머지고 와서 하면 데는데 바지게나 그 예를 드려서 가을뽕 가트 경우는 따가 다마야 텔꺼 아임니까?{그럼 뽕은 예를 들어서, 뭐 봄뽕은 썸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따니까 별로 관계가, 지게에 젊어지고 와서 하면 되는데 바지게나, 그 예를 들어서 가을뽕 같은 경우는 따서 답아야 될 것 아닙니까?}

10407 # 다마야지.{답아야지.}

10407 @ 음, 어디에 다마 움니까?{음, 어디에 답아서 움니까?}

10407 # 그거 그거또 데레끼나 머 이제 봉세기나 이 이런데 가지고 따다마.{그거, 그 것도 망태기(+ 싸리 나무로 만든 것.)나 이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따서 답아야.}

10407 # 인제 가을 누에는 벨로 안 미겨쪄요, 머시한 사라믄 인제 쫘 자기 지베 인제 고머 조흔 오슬 인제 그그르 은제 명주오시라 그러거든 이제 누에 가 헨년 거는 그 멩주오시라 카는데 그 인제 우떼 헤이블라고, 자기집 지베서 헤이블라꼬 하는데 조으메 그느 가을 누에느 잘 안 미기지 예를 머그~이까.{인제 가을 누에는 별로 안 먹였지요, 무전한 사람은 인제 좀 자기 집에 인제 그 뭐 좋은 옷을 인제 그 것으로 인제 명주 옷이라 그러거든, 이제 누게 가지고 했는 것은 그 명주옷이라고 하는데, 그 인제 어떻게 해 입으려고 자기 집, 집에서 해 입으려고 하는데 좀처럼 그 가을 누에는 잘 안 먹이지, 애를 먹으니까.}

10407 @ 돛누에보다는 가을누에가 더 힘든다, 뽕 딸라 그러면.{봄누에보다는 가을 누에가 더 힘든다, 뽕을 따려고 그러면.}

10407 # 힘드지요, 야, 야.{힘이 들지요, 예, 예.}

10407 @ 봉세기느 머 머릅?{망태기는 뭐 무엇으로?}

10407 # 봉세기라 카는거는 인제 멘 지플가지고 멘그른기, 호호호.{망태기라고 하는 것은 인제 멘 짚을 가지고 만든게, 호호호.}

10407 @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

10407 # 머 크기는 너무 크노면 또 뽕넙 따가주고는 마~이 큰 거는 지게 질머지고 가서 가따 지게 가따 고아노코 따가지고 인제 니르오고, 안 그러면 인제 머 이윅 큼 보 그통거이 처메 그튼 큰 보 그튼 거 가따 노코 따 가주고 이 무꺼가 지게 질머지고 오고, 아 이고 오기도 하지.{뭐 크기는 너무 크면 또 뽕잎을 따 가지고는 많이 큰 것은, 지게를 젊어지고 가서 가져다, 지게를 가져다 받쳐 놓고 (+ 뽕잎을)따 가지고 인제 내려오고, 안 그러면 인제 이 큰 보자기 같은 것, 이 치마 같은 큰 보자기 같은 것을 가져다 놓고 따 가지고 이 것을

뭉어서 지게에 꿰어지고 오고 아, 이고 오기도 하지.}

10407 @ 여자들 이고 오기도 하고.{여자들은 이고 오기도 하고.}

10407 @ 그 으 그림 뽕 뽕은 그림머는 뽕만 따고 그 뽕 열매 열리지예?{그 그림 뽕, 뽕은 그러면은 뽕만 따고 그 뽕나무에 열매가 열리죠?}

10407 # 아이 마~이 열열찌여.{아, 많이 열렸지요.}

10407 @ 그 머라그럼미까?{그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10407 # 오디.{오디.}

10407 @ 오디르 머 주로 그냥 예들 간식꺼리로 따머끼만 함니까, 안 그라마 그거또 어데 따가 어디 쓰고 햐줍니까?{오디를 뭐 주로 그냥 애들의 간식 거리로 따서 먹기만 함니까, 안 그러면 그 것도 어디에 따서 어디에 쓰고 햐줍니까?}

10407 # 그거는 머 쓰진 거는 업꼬 우리또 주로 마~이 따먹꼬 그거는 가따 술 담구코 지금도 오세도 멘 그 따다가 술 다르고**. {그 것은 뭐 쓰인 것은 없고 우리도 주로 많이 따서 먹고 그 것은 가져다가 술을 담그고 지금도 요사이도 멘 그 것을 따다가 술을 담그로 **.}

10407 @ 맞습**. {맞습**.}

10407 @ 그으기 인자 그라마 누에를 그거 은자 보메 누에는 은제쫄 시작함니까, 봄누에 가통 경우너?{거기 인제 그러면 누에를 그거 인제 봄에 누에는 언제쫄 시작함니까?}

10407 # 봄 누에는 이그 은제고 마고 뽕이퍼리가 피야 텐다 카이, 뽕이피 나와야 인제 누 누에가 이거또 머 우리가 그 제조하능거또 아이고 며네서 이거 이 이거 저 누에 그거이 세 끼 알로 알로 요레 부쳐여는가 요레.{봄 누에는 이 것 언제고 말고 뽕이파리가 피야 된다고 하지, 뽕잎이 나와야 인제 누, 누에가 이 것도 뭐 우리가 그 것을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면에서 이 것, 이 것 저 누에 그 것이 새끼 알로, 알로 이렇게 붙쳤는가, 이렇게.}

10407 @ 아를.{알을 .}

10407 # 한지베 으 으마름 네가 신청하는데로 달라카면 인제 고레 인제 알로 씨르 씨런는 고느 요레 조이데, 우 우리가 머 우리 머 참 저한 사라문 지베서 이거 누에 저 끈치르 멩그 러서 고 한식 하면 고 나비가 나오그등, 그 나와가지고 둠마리며 데머는 아 알로 자기 지베서도 할 수 이서 그런데 이거 보과늘 간수를 잘 못 한타 카이.{한 집에 으 얼마큼 내가 신청하는 대로 달라고 하면 인제 그렇게 인제 알로 썰어, 썰었는 그는 이렇게 줘야 돼, 우, 우리가 뭐 우리 뭐 참 그런 사람은 집에서 이 것 누에 저 고치를 만들어서 그 한식 하면 그 나비가 나오거든, 그 나와가지고 두 마리만 되면은 알, 알로 자기 집에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것 보관을, 간수를 잘 못 한다고 할 수 있지.}

10407 @ 그엄 아를 그엄 바다와서 그 어 그 담 어떠케 함니까?{그럼 알을 그림 받아 와서 그, 그 다음에 어떻게 함니까?}

10407 # 고고 인제 고런 요레 조오 쪼가리든 요레 되면 우리 근제 우리가 신청하면 고래 나오면 고걸 따뜯:한데 요레 나두면 가마: 나두든 봉은 마 알또 머 똥 머 서숙 알래임마 알 알만큼 해, 고레 따따따따 부트서 자꾸 **. {그 것 인제 그런 이런 종이 쪽지에 든 이렇게 되면 우리 그 때 우리가 신청하면 그렇게 나오면 그 것을 따듯한 곳에 이렇게 놓아두면 가 만히 놓아두고 보면, 알도 뭐, 꼭 뭐, 조 알갱이만한 알, 알만큼 해, 그렇게 따따따따 붙어서 자꾸 **.}

10407 # 고 따뜯한데 요레 나두면 요서 누에가 생게나와 그 때 꼬물꼬물 그먼 글 때는 뽕 이퍼리 나와스마 뽕입 따다가 인제 칼로 인제 나도질헤야 데지, 하: 씨러서 약:간 주면 고 노미 인제 머꼬머꼬 차차 머그먼 인제 손가락만한 헤지지.{그 따듯한 곳에 이렇게 놓아두면

여기서 누에가 생겨 나와 그 때 꼬물꼬물거리면 그 때는 뽕 이파리가 나왔으면 뽕잎을 따다가 인제 칼로 (+ 잘게)썰어야(+ 난도질해야) 되지, 아주 썰어서 약간 주면 그 놈이 인제 먹고 먹고 차차 먹으면 인제 손가락만하게 커지지.)

10407 @ 그엄며느 으 누에가 한 얼마나 머기며년 고치가 템미까?{그러면 누에가 얼마나 먹이면 고치가 됩니까?}

10407 # 아 누에가 자물, 삼: 자물 자야 데 삼:잠 자물 세 분 자이 데는데 일쭤이레 함 부스 자지 접따, 일쭤일마네 함 분 세 분 자르는 고마 글텐 누에르어 이레 보며 근제 마 그거 또 기수리 이서야 된다, 앞 아페 이레: 들고 보면 이 거 뭇게 파:악 차가지고 노::라타, 글떼는 하마 뽕 조바야 하마 지 하마 시가~이 데른 절때로 안 머거 안 머꼬 엄 올라가서 어데 가서 자기 지블 지을라꼬.{아, 누에가 잠을, 세 잠을 자야 돼 세 잠, 잠을 세 번 자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자지 싶다, 일주일만에 세 번 자면 고만 그 때는 누에를 이렇게 보면, 그런데 뭐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 앞, 앞에 이렇게 (+ 누에를)들고 보면 이 것이 뭇가 꼭 차가지고 노랗다, 그 때는 하마 뽕을 꺾봐야 벌써 자기가 벌써 시간이 되면 절대로 안 먹어, 안 먹고 올라가서 어디에 가서 자기 집을 지으려고.}

10407 # 그래데머 은제 으 고데로 나두고 인지 저 사네 머 소까비나 여 머 저 그 참나무 줄기나 가따가 그 인제 누에 칸칸이 해놔뜬데 그 가따 꼬::옥 쏘워노면 지가 그 자기가 그 낭게 다 올라가 올라가면 인제 지블 그 전부 다 진찌.{그렇게 되면 인제 그대로 놓아두고 인제 저 산에 뭐 술가지나 여기 머 저 그 참나무 줄기나 가져다가 그 인제 누에를 위해 칸칸히 해두었던 곳에 그것을 가져다 꼭 쏘아 놓으면 자기가 그 자기가 그 나무에 다 올라가서 올라가면 인제 집을 그 전부 다 짓지.}

10407 @ 그라며느 으 삼자른 한 자른 며칠 걸립니까, 한 자른.{그러면 으, 삼잠은, 한 잠은 며칠 걸립니까?}

10407 # 글게 한 일쭤일.{그렇게, 한 일쭤일.}

10407 @ 예.{예.}

10407 # 처으멘 일쭤일 아: 마지막 짜메는 머 한 오육일 그리 자버.{처음엔 일쭤일 아, 마지막 잠은 뭐 한 오육일 그렇게 잡어.}

10407 @ 아 그러며느 으 으 한 일쭤일씩 내지 오육일씩 ** * 삼잠을 자야 *** 누에 누에 지:러' 곤치 지:러' 올라간다 그지예.{아, 그러면 으, 한 일쭤일씩 내지 오육일씩 ** * 세 잠을 자야 *** 누에, 누에 지으러 고치를 지으러 올라간다 그렇지요.}

10407 @ 그엄며느 고치 그 삼잠 자고 고치 그 올려놓으며는 그엄며느 함 메칠 지남며느 또 고치가 와으 와앙 거 *** 단단해집니까?{그러면 고치가 그 세 잠을 자고 고치를 그 곳에 올려 놓으면 그러면 한 며칠 지나면 또 고치가 왕 거 *** 단단해집니까?}

10407 # 한 일쭤일 데여.{한 일쭤일 되어요.}

10407 @ 그엄며느 일쭤일 데며느 그엄 고치 따냄니까?{그러면 일쭤일 되면 그럼 고치를 따냄니까?}

10407 # 글떼는 인제 이거 꼬지 지블 다 지안시면 이레 드러보면 아프 소 르 아무 소리 안나 처으메 은제 메칠 디내고 한 사오일 디내고 메 이레 드러보면 그 아네서 바:작 바:작 소리가 나는데 자꾸 지블 진나라고 처 처으메 할 때는 크게 머 이레 마:악 헐찌블 이레 크게 지어가지고는 처으메느 웨 차차 쪼메: 져어가 자기 지 드가 가지고 게::속 져가지고 다 져뿌만 고 아네느 그 머 저 저 누에가 아~이고 쏸테'기라, 쏸테'기라 그지 뽕테'기 가지고. {그 때는 이 것 고치가 집을 다 지었으면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 소리, 뭐 아무 소리가 안

나, 처음에 인제 며칠 지내고 한 사오일 지내고 뭐 이렇게 들어 보면 그 안에서 바:작 바:작 소리가 나는데 자꾸 집을 짓느라고 처음에 할 때는 크게 뭐 이렇게 대강 헛집을 이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는, 처음에는 왜 차차 조금 지어서 자기, 자기가 들어가지고 계속 지어 가지고 다 지어버리면 그 안에는 그 뭐 저 누에가 아니고 번데기라, 번데기라고 그러지, 번데기 가지고.}

10407 @ 끈데기?{번데기?}

10407 # 끈데기 빨간 거 그거 먹자네, 우리도 그거 마~이 머저찌마는 고레 데뿐다, 카이. {번데기 빨간 것 그 것 먹잖아, 우리도 많이 먹었지마는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하지.}

10407 @ 끈데기가 데가.{번데기가 되어 가지고.}

10407 # 고레고 인제 고레 데가지고 또 이걸 너무 오래 나도도 안 데고 글 때 한 번 따면 다:아 까가주고 또 여까꾸 *** 농허베 인제 가따 파라야 데, 가따 바치는데 이시~이까, 마저 그기 가따 팔고 또 안 그러면 마느면 지베 온 헤 온 쫌 헤 이블따 시프먼 집 쫌 나두고 그 또 물 펄펄 끓는데 그 느물 여어 가지고 그거 또 실로 메그리 네야 데.{그리고 인제 그렇게 되어 가지고 또 이 것을 너무 오래 놓아두어도 안 되고 그 때 한 번 따면 다 까 가지고 또 넣어 가지고 *** 농협에 인제 가져다 팔아야 돼, 가져다 바치는 데 있으니까, 맞어 그 곳에 가져다 팔고 또 안 그러면 많으면 집에 옷 해, 옷 쫌 해 입겠다 싶으면 집에 쫌 놓아두고 그 또 물이 펄펄 끓는데 그 것을 넣어 가지고 그 것을 또 실로 만들어 내야 돼.}

10407 @ 아, 그 끈치라 그라미꺼 고치라임니까?{아, 그 것을 끈치(+고치)라 그러니까, 고치입니까?}

10407 # 끈치.{끈치(+고치).}

10407 @ 끈치, 예 그러마 끈치 데려머는 그레 걸린다 그지예, 그러면 아까 알에서 으 알 가져 와가 알 깨어나는데 쫌 며칠 걸리지예?{고치, 예 그러면 고치가 되려머는 그렇게 걸린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알에서 알을 가져 와서 알이 깨어나는데 쫌 며칠 걸리지요?}

10407 # 한 삼, 사일 걸리지.{한, 삼, 사일 걸리지.}

10407 @ 그람 또 온도가 어떻게 쫌?{그러면 또 온도가 어떻게 쫌(따뜻해야 하나요)?}

10407 # 아, 온도가 의시미 그레도 사람 자고 삼 그 때 보미 데다 보~이 약간 저레 데야 데, 글 때는 안주 보메 되므느 불 연느 지븐 부르 다 여키 떼미네 멍 사람 자는 방하고 가치 가치 놔도야 데.{아, (+방의)온도가 의심이 되어도(+미심심쩍어도) 사람이 자고 삼, 그 때가 봄이 되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되어야 돼, 그 때는 아직 봄에 되면 불 넣는 집은 불을 다 넣기 때문에 맨 사는 자는 방하고 같이 같이 놓아 두어야 돼.}

10407 @ 쫌 따뜻해야 되네예.{쫌, 따뜻해야 되네요.}

10407 # 따뜻해야 데지.{따뜻해야 되지.}

10407 @ 그람 꼬: 그 누에가 그 언제까지 그 뽕을 써러서 줌니까?{그러면 그 누에를 그 언제까지 뽕을 그렇게 썰어서 줌니까?}

10407 # 고고 인제 처음에 나올 때는 세카마케 비도 안해, 까마코 그거 저기 써러 줄라 그러면 의시미 보면 보하이 데, 차차 차차 하로하로 틀레지지 머그마, 그레가지고 완전히 보: 할코 인제 한 한잠, 한 잠 자야 데, 한 잠 자고 두 잠째는 고만 기양 조도 데고.{그 것이 인제 처음에 나올 때는 새카맣게 보이지도 않아, (+누에가)까맣고 그 것을 썰어 주려고 그러면 유심히 보면 (+누에가)보얕게 돼, 차차 차차 하루하루 달라지지 먹으면, 그레 가지고 완전히 보얕고 인제 한 한 잠을, 한 잠을 자야 돼, 한 잠을 자고 두 잠째는 고만 그냥 쥐도 되고.}

10407 @ 그러마 두 두 잠까지가 더 힘들겐네예.{그러면 두 잠까지가 더 힘들겠네요.}

10407 # ** 이제 뽕을 씨'러 조야 되이~까.{** 이제 뽕을 썰어 줘야 되니까.}

10407 @ 그 그 뽕 먹꼬 나머는 그 꼬 누에가 뽕가튼 거는 그람 그 그또 치워조야 땀니까?
{그 뽕을 먹고 나면 그 누에가 뽕같은 것은 그람 그 것도 치워줘야 됩니까?} 10407 # 하,
뽕 마~이 누지.{하, 뽕을 많이 누지.}

10407 # 아 그거는 인제 아 메칠만큼 아, 한 삼일만큼 예,누에를 예 이런 방세기 같은 거
를 가따노코 누에르 전부 한 소느로 자야: 가지고 여기 다마 단단히 다마 노코 그거 이제
미테 깔렘던 거는 뽕으느 인제 베게 틀어네노코 더 깔아노코는 이거 누에를 그다 올려노코
그레 뽕을 주고 인제 누에 뽕은 퇴비가 그러케 조찬네.{아, 그 것은 인제 며칠만큼 한 삼일
만큼 예 누에를 이런 멍식 같은 것을 가져다 놓고 누에를 전부 한 손으로 잡아 주워 가지고
여기 담아서 단단히 담아 놓고 그 것 이제 밑에 깔렸던 것은 뽕은 인제 밖에 털어내 놓고
더 깔아놓고는 이 것 누에를 그 위에다 올려 놓고 그렇게 뽕을 주고 인제 누에 뽕은 퇴비로
그렇게 좋잖아요.}

10407 @ 아, 그람 누에 그 그 올려논는 그 거 그 머 넘쩍거한 거 그거는 머라고 부릅니
까?{아, 그럼 누에 그 것을 올려 놓는 그 것을 그 뭐 넓적한 것 그 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10407 # 아, 그거는 인제 다리를 멍그러야 데 또, 나 이 방~아 이레 멍글라 카먼 사라미
여그 인제 뽕 주고 할라카먼 이레도 노코 일로도 노코 무~이 나도뿌고 이레 노코 요 사람
뎡겨야 되니까 다데이 노코 근 멍 그거는 서숙짚, 서숙 지프로 가지고 또 새끼를 파 가지고
아 자리틀 거튼 거를 노코 또 여끄야 데, 여끄 가지고 고레 인제 발 카는데 발로 멍그러서
그레 피노코 인제 누에를 고레 차자**.{아, 그 것은 인제 다리를 만들어야 돼 또 이 방에
이렇게 만드려고 하면 사람이 여기 인제 뽕을 주려고 하면 이렇게도 놓고 이리로도 놓고
(+ 방)문을 놓아두고 이렇게 놓고, 여기에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단단히 놓고 그 만든 그 것
은 조 짚,조 짚을 가지고 또 새끼를 파 가지고 아, 자리틀(+자리를 만드는 틀) 같은 것을
놓고 또 엮어야 돼, 엮어 가지고 그렇게 인제 발:이라고 하는데 발:을 만들어서 그렇게 펴놓
고 인제 누에를 그렇게 찾아**.}

10407 @ 그러면 그 누에 올려 논는 네모 네모 반듯하게 만듭니까, 바:른?{그러면 그 누에
를 올려 놓는, 네모 네모처럼 반듯하게 만듭니까, 발:은?}

10407 # 아~이지, 끼리 기고 이 기리는 그러케 안 길고 맞아 그러가 길이는 마~이 **. {아
니지, 길이가 길고 이 길이는 그렇게 안 길고 맞아, 그레 가지고 길이는 많이 **.}

10407 @ 그 고걸 발이라 합니까?{그 그 것을 발:이라고 합니까?}

10407 # 발:.{발:.}

10407 @ 그람 발: 위에다가 올려논는다 그지예.{그러면 발: 위에다가 올려놓는다 그렇지
요.}

10407 # 야.{예.}

10407 @ 그런 거 한 방에 발: 가튼 거 올리기 위해서 아까 나무때 이레 세운다 헐는데 나
무때 그런 거를 머라고 부릅니까?{그런 것을 한 방에 발: 같은 것을 올리기 위해 아까 나뭇
대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0407 # 다'리.{다리.}

10407 @ 다리.{다리.}

10407 # 멘 사다리그치 고레 카늘 카늘 멍그러야 되니까 머 요만하고 이 칸 너더칸 한 서
너칸 요레 멍그러야 데 쏘우는 거는 다리.{멘 사다리 같이 그렇게 칸을 칸을 만들어야 되니

까 뭐 이 만하고 이 칸, 너댓 칸, 한 서너 칸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세우는 것은 다리.}

10407 @ 예, 다리, 세우는 거는 다리 그 다으메 우에 올려논는 고거는?{예, 다리, 세우는 것은 다리 그 다음에 위에 올려 놓는 그 것은?}

10407 #발:{발:}.

10407 @ 발:, 예.{발:, 예.}

10407 @ 다리하고 바를 가따 올려 노코 그레 한다 그지예.{다리하고 발:을 가져다 올려 놓고 그렇게 한다 그렇지요.}

10407 # 고레 인제 미테 또 나무는 나무때 카는 거는 아무 낭기라도 미테 두 낱을 두 낱 걸쳐야 그 우에 바:를 *. {그렇게 인제 밑에 또 나무는 나뭇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 나무라도 밑에 두 낱을 걸쳐야 그 위에 발:을 *.}

10407 @ 그럼 이거는 야쪼게 세워 논는 다리고 그 다으메 다리하고 또 다리 사이에 나무 올리는 그거는 뭐라고 그럼니까, 그냥 나무라 **** 나무때 올려가지고 그레 하는 거지예. {그럼 이 것은 양 쪽에 세워 놓는 다리고 그 다음에 다리하고 또 다리 사이에 나무를 올리는 그 것은 무엇이라고 그럼니까, 그냥 나무라 **** 나뭇대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10407 # 그는 이름 업꼬 그저 나무라 *****.{그는 이름이 없고 그저 나무라 *****.}

10407 @ 검 여기에 그거 누에: 그거 *는 깨끗하게 해야 데는데.{그럼 여기에 그 것 누에, 그 것 *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10407 # 깨끗하게 해야 데.{깨끗하게 해야 돼.}

10407 @ 그러며는 방: 가튼 경우에 누에 머기기 저네 어떠케 머 소독이나 합니까?{그러면 방 같은 경우에 누에를 머기기 전에 어떻게 뭐 소독이나 합니까?}

10407 # 인 나 또 누에는 절때로 탄 소독하면 절판이고 안테지 그레 우엔동 깨끗하게 다 썬내빼고 탄 벌기 업시 아주 소도근 안 하고 썬 썬내뿌고요.{이 또 누에는 절대로 다른 소독을 하면 절판이 나고 안 되지,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다 썬내 버리고 다른 벌레가 없이 아주 소독은 안 하고 말끔이 썬내 버립니다.}

10407 @ 그 다으메 그 음, 이: 여긴 누에라 합니까, 안 그람 니비라 그럼니까, 누비라 그럼니까?{그 다음에 그 음, 여기는 누에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니비라 합니까, 누비라 합니까?}

10407 # 누에. {누에.}

10407 @ 누에. {누에.}

10408 @ 예:, 아, 이 누에는 아까 이야기했똥 봄누에하고 가을누에 두 게임니까?{예, 아, 이 누에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봄 누에하고 가을 누에 두 가지입니까?}

10408 예, 마저요.{예, 맞아요.}

10408 # 갈누, 가을 누에는 여긴 잘 잘 안 미겨따.{가을 누에, 가을 누에은 여기는 잘 안 먹였다.}

10408 @ 던, 예. {여기, 예.}

10408 # 가을 누에도 미견다 카이, ** ** 미견 사라문.{가을 누에도 먹였다 말이야, ** ** 먹인 사람은.}

10408 @ 그람 열 그냥 가을 누에라 그럼니까 안 그람 가실 누에라 그럼니까?{그러면 여기서 그냥 가을 누에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가실 누에라고 합니까?}

10408 # 가을, 가을 누에.{가을, 가을 누에.}

10408 @ 가을 누에, 예.{가을 누에, 예.}

10410 @ 이 명주:: 아까도 어르신도 그 하섵습니다마는 조금 머 날개 사는 지비나 또는 머 예를 드려서 고츠:: 누에 끈치가 만어 가지고 오, 조금 그 내는 거어, 파는 거 고 또 좁 남아 인꺼나 또는 안 그러마 누 자녀드리나 누구한테 온 해주야 될 그런 거 이스며는 그거 까 명주 짜지예?{이 명주, 아까도 어르신도 그 (+말을)하셨지마는 조금 뭐 낮게 사는 집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 고치, 누에 고치가 많아 가지고 조금 그 것을 파는 것, 파는 것, 그 또 좀 남아 있거나 또는 안 그러면 누구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옷을 해 주어야 될 그런 것 있으면 그것 가지고 명주를 짜지요?}

10410 @ 여는 명주라 그럼니까 비단 그럼니까?{여기는 명주라고 그러십니까, 비단이라고 그러십니까?}

10410 # 명주.{명주.}

10410 @ 명주라 그러지예.{명주라 그러지요.}

10410 # 명주오시라 그러지.{명주웃이라 그러지.}

10410 @ 그럼 명주:: 그거는 명주 실:: 그거 그 명주시리라 하고 그 다으메 명주시를 그거 으, 뽕미까, 그거또 짜야 됩니까?{그럼 명주, 그것은 명주 실, 그 것은 그 명주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명주실을 그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것도 짜야 됩니까?}

10410 # 짜야데, 그것또 기구가 만체요, 그거또 그게 히미 여:간한 히미, 마~이***{짜야 돼, 그 것도 기구가 많지요, 그 것도 그 것이 힘이 여간한 힘이, 많이 ***.}

10410 @ 으:.{으.}

10410 @ 명주실 그거를 짜려면 어떻게 짬니까?

10410 # 그거 하 끈치자네 끈치, 끈치를

10410 # 소틀 하나 큰 거도 안 데고 쪼:만'한 거 요레 거러 노코 그 물 끌토록 불로 떼야 데, 여 머 글 떼는 전부 낭기지, 나무 자잔한 거도 또 이 깨가 불로 떼고 물 끌토록, 물 끌는데 이 끈치를 여'야 데, 여' 가지고 푸:웁 삼겨야 데 이거 끈치가.{술을 하나 큰 것도 안 되고 조그만한 것을 이렇게 걸어 놓고 그 물이 끓도록 불을 지펴야 돼, 여 뭐 그 때는 모두 나무지, 나무 자잔한 것도 또 이 것을 쪼개어서 불을 떼고 물이 끓도록, 물이 끓는 곳에 이 고치를 넣어야 돼, 넣어 가지고 푹 삶아야 돼, 이 것 고치가.}

10410 # 삼기면 글 떼는 절로 가지고 이리 휘익 저서면 그게 끈치에서 이 시리 지테로 올라 와, 그레 뽕겨' 올라오면 이 놈 가지고 또 물레 차려 나'야 데 이거는 저 물레보다 틀레 쪼, 아무 거또 엮꼬 요 돌리는 물레뿐~이라.{삼기면 그 때는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휘익 저으면 그 것이 고치에서 이 실이 저절로 올라 와, 그렇게 당겨져 올라오면 이 놈을 가지고 또 물레를 차려 놓아야 돼, 이 것은 저 물레보다 다르지, 아무 것도 엮고 이 돌리는 물레뿐 이라.}

10410 # 고 인제 시'레 감'겨토'록 인제 요만치 요 아네 감겨토로 은제 이 거는 끈 요레 메 가지고 푸웁 드러가도록 요 무웁'레가 둘레 이만한 물레가 이서 그거또 멘 무웁'레라.{그 인제 실에 감겨지도록 인제 이 만큼 여기 안에 감겨지도록 인제 이 것은 끈을 이렇게 매어 가지고 푹 들어가도록 이 물레를 둘레 이만한 물레가 있어서 그 것도 맨 물레라.}

10410 그레 가지고 꼬늘 그 뜨거운 무레 여'코 살르면 절', 저까락 가지고 이레 휘저'시면 저꼬 이레면 꼬~이 쭈:웁 올라온다 ** 그 그거 한 소테 그 끈'치 그 마는게 하나씩 다: 뽕'겨올라온다고 그 주리 그 인제 그거또 멘 기수리제 꼬치 그거 머 아 머 한 소테다가 그만치 푹: 여'어 나운데 그거 인제 다 올라와야 데거든 한 주레 올라오면 인제 그 물레에다가 한

저꼬티로 고다 자메 자메면 이거 돌'리고 이 저'를 가지고 이레 이레 자꾸 저꼬 돌리면 시리 그테::로 가느탄 시리 그 그테로 빠져 올라갈라고 인제 돌리면 그 다 감겨치.{그렇게 해 가지고 끈을 그 뜨거운 물에 넣고 삶으면 젓가락을,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휘저으면 젓고 이렇게 하면 끈이 그대로 올라온다, ** 그 그 것을 한 술에 그 고치 그 많은 것이 하났기 다 당겨올라온다고 그 줄이 그 인제 그 것도 맨 기술이지, 고치 그 것 뭐 술에다가 그만쯤 쪽 넣어 놓았는데 그 것 인제 다 올라와야 되거든, 한 줄에 올라오면 인제 그 물레에다가 한 젓가락 끝으로 거기에다 잡아매고 잡아매면 이 것을 돌리고 이 젓가락을 가지고 이레 이레 자꾸 젓고 돌리면 실이 그대로 가느다른 실이 그대로 빠져 올라간다고 인제 돌리면 그 답 감기지.}

10410 # 그래 다 가메면 머 우리도 글 떼 그 푸는데가 끈치 꼬, 글 떼는 이거 마저 이거 실푼다 그래따 마리아 꼬치 푼다 그래끄든.{그렇게 다 감으면 뭐 우리도 그 때 그 푸는 곳에 가서 고치 고치, 그 떼는 이 것 맞아, 이 것 실푼다고 그랬다 말이야, 고치를 푼다고 그랬거든.}

10410 @ 아 그 인제 실 뽑아내는 거를 꼬치 푼다::.{아, 그 인제 실을 뽑아내는 것을 고치를 푼다.}

10410 # 꼬치 푼다 그래, 그래 가지고 여페 인제 왜 가 이서는가 하면 그 그 저 그거 멀라꼬.{고치를 푼다고 그래, 그래 가지고 옆에 인제 왜 가서 있었는가 하면 그 그 저 그 것을 먹으려고.}

10410 @ 끈테기.{번테기.}

10410 # 음, 끈테기 그거 멀라꼬 그거 여페 이시면 머 아:들 가 이시면 나오면 그게 누에가 전혀 업서, 전부 끈테기라.{음, 번테기 그 것 먹으려고 그 것 옆에 있으면 뭐 아이들이 가서 있으면 (+ 번테기가)나오면 그 것이 누에가 전혀 없어, 모두 번테기야.}

10410 빨:가 그거 머그면 그러케 고시고 저 조아하는 그 머글라고 그 여페 가 이시면 그래가 인제 그거또 맨 물레를 자사 실로 뽑바네 가지고 맨 베트론 푹 가테, 바디하고 이거 북하고 그 푹 가텐데 인제 그테'고 맨 짜가지고 그래 짠 거 이거는 명주, 명주라 그래찌.{빨간 그 것을 먹으면 그렇게 고시고 조, 좋아하는 그 것을 먹으려고 그 옆에 가서 있으면 그래 가지고 인제 그 것도 맨 물레로 자아서 실로 뽑아내 가지고 맨 베틀은 푹 같아, 바디하고 이 것 북하고 그 푹 같은데 인제 거기에 대고 맨 짜가지고 그렇게 짠 것, 이 것은 명주, 명주라고 그랬지.}

10410 @ 그람 명주: 명주실 그거 으 끈치에서 끈치 포러, 푼다 해섬니꺼?{그럼 명주, 명주실 그 것, 으 고치에서 고치를 풀어, 푼다고 했습니까?}

10410 # 예, 예 푼다고. [예, 예 푼다고.}

10410 @ 예 끈치 푸러가지고 그 다으메 물레에다가 시를 감아 노코 그 다으메 그거루 시른 그걸로 꼬치미까?{고치를 풀어 가지고 그 다음에 물레에다가 실을 감아 놓고 그 다음에 그 것으로 끝입니까?}

10411 # 아이지, 그거또 베메로 다 말아야(+ 날아야형에 대한 우발적 발음실수임.) 데 또. {아니지, 그 것도 베처럼 다 날아야 되지 또.}

10411 @ 어, 얻.{어 어떻게?}

10411 @ 아교(+ 아까의 발음실수형으로 보임.) 웨 이거 명베 **, 이거또 베메드시 이거또 메 폴로 미기고 약간 미결꼬 이거또 다 메고 해야 데, 그래 은제 그래 푸러가지고 이거또 또 이게 부게 여차면 이거 꾸리라 그러는데 이거 또 다 감아야 데, 일이리 이 거는 전부 소

느로 가마야 데 그레가 감꼬 또 그:어 아까 삼베메로 그레 또 다 나라가지고 베 한 필 정도 데, 데면 인제 가닥을 땀 가데~이 헤가지고 다: 나라가지고 멍 이거 또 베메로 이레 메야 데, 풀 미겨가지고 메가지고 베트레 감아서 땀 그 베트레 언저가 베짜드시 땀 그레 다 짜야 데여.{아까 왜 이 것 명베 **, 이 것도 베를 매듯이 이 것도 또 풀로 먹이고 약간 먹였고 이 것도 다 매고 해야 돼, 그렇게 인제 그렇게 풀어가지고 이 것도 또 이 것을 북에 놓자면 이 것을 꾸리라고 그러는데 이 것을 또 다 감아야 돼, 하나하나 이 것은 모두 손으로 감아야 돼, 그레 가지고 감고 또 그 아까 삼베처럼 그렇게 또 다 날아 가지고 베 한 필 정도 돼, 되면 인제 가닥을 몇 가닥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날아 가지고 땀 이 것 또 베처럼 이렇게 매야 돼, 풀을 먹여 가지고 매어 가지고 베틀에 감아서 땀 그 베틀에 얹어서 베를 짜듯이 땀 그렇게 다 짜야 되요.}

40111 @ 그림 예, 풀도 먹이, 풀도 메기야 되고.{그림 예, 풀도 먹이야, 풀도 먹여야 되고.}

10411 # 베로 땀다 카는 거 **.{베로 땀다고 하는 것 **.}

10411 @ 베: 또, 그거 뭘미까, 아 명주 명주실 땀다 그럼니까?{베 또, 그 것 무엇입니까, 아 명주, 명주실 땀다고 그럼니까?}

10411 # 그거또 멍 아이 베땀다, 베땀다 이거 소를 가지고 풀치를 하고 이레 헤 가지고 베 메가주고.{그 것도 땀 아니 베땀다, 베땀다라는 것은 이 것 술을 가지고 풀칠을 하고 이렇게 헤 가지고 베를 매 가지고.}

10411 @ 베 땀다.{베를 땀다.}

10411 # 그 베 도투마리에 가마야 인제 사라미 올라안자가 이거 북 여코, 이제 바디질 하고 인제 찐다 카이, 땀 똑가치 해요.{그 똑 같이 도투마리에 감아야 인제 사람이 올라왔아서 이 것 북을 놓고, 이제 바디질을 하고 인제 찐다고 그레, 땀 똑 같이 해요.}

10411 @ 꾸리도 만드러야 되고 그 다오메 머 아까 명 남, 난다 해서**.{꾸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아까 명을 남, 난다 해서**.}

10411 # 꾸리 멍그러야지.{꾸리를 만들어야지.}

10411 # 예, 그 인제.{예, 그 인제.}

10411 @ 실 명주 난다 명주실 난다 합니까?{실, 명주 난다 명주실 난다 합니까?}

10411 # 야.{예.}

10411 # 베난다 그레.{베난다 그래요.}

10411 @ 베난다, 베나는 게 뭘미까?{베난다, 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411 # 베, 베난다 카는 거는 인제 삼베나 명:베나 아, 명:베는 명:베라고 그러고 삼베는 삼베, 그런데 이거 명주면 명주베' 그레 나라가지고 나라야 인제 그 한테 한 꼬네 인는 거 그 바디에 몇 구멍 카는 거 그거 *를 마차가 다 나라가져고 또 베로 메야 데, 풀 미겨가지고 매어 가지고 이레 베로 짜고 하지.{베, 베난다고 하는 것은 인제 삼베나 명베나 아, 명베는 명베라고 그러고 삼베는 삼베, 그런데 이 것 명주면 명주베라고 그레, 날아가지고 날아야 인제 그 한 곳에 한 끈에 있는 것, 그 바디에 몇 구멍인가 하는 것, 그 것 *를 맞추어서 다 날아 가지고 또 베를 매야 돼, 풀을 먹여가지고 매어 가지고 이렇게 베를 짜고 하지.}

10411 @ 그 인제 음, 그레가 인제 명주 짜 명주 처늘 다시 찐다 그지예.{그 인제 음, 그레 가지고 인제 명주를 짜고, 명주 천을 다시 찐다 그렇지요.}

10411 @ 그 아까 머 이야기해주셨는데 그 고치, 끈체에서 실을 명주 끈치 난다 했지예. {그 아까 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고치, 고치에서 실을 명주 고치 난다 했지요.}

10411 @ 아 *** 끈치 푼다.{아, *** 고치 푼다.}

10411 # 마저 끈치 푼다 그래.{맞아, 고치를 푼다고 그래.}

10411 @ 예, 그 끈치 풀 때는 으 한 분만 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예, 그 고치 풀 때, 으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10411 # 예 이거또 끈치 푸는 거 이거또 기수리라, ** 이거또 사람메둥 몬 푸는 기라, 이거는 물레가 이거 한 게 아무거또 업꼬 물레만 돌리면 그거 살마가 이거는 또 끈치는 살마야 이게 시리 나온다 안 살마면 절때 시리 안 나오니까.{예, 이 것도 고치 푸는 것, 이 것도 기술이라, ** 이 것도 사람마다 못 푸는 것이라, 이 것은 물레가 이 것 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물레만 돌리면 그 것 삶아서 이 것은 또 고치는 삶아야 이 것이 실이 나온다, 안 삶으면 절대로 실이 안 나오니까.}

10411 # 그 것 한 백께 그트면 백께가 실 한테다 이레 저서면 그 기술짜가 저서면 한테 전부 다 올라와요, 한 주레 한 주레 올라오면 물레데고 메가지고 물레만 돌리면 이게 쓰일 끈치가 굵던게 그게 시리 데가지고 다: 나오도록 돌리면 그게 다 감겨뿌.{그 것 한 백 개 같으면, 그 백 개가 실이 한 곳에 이렇게 저으면 그 기술자가 저으면 한꺼번에 모두 다 올라와요, 한 줄에, 한 줄에 올라오면 물레를 대고 매어 가지고 물레만 돌리면 이 것이 쓰일 고치가 굵던 것이 그게 실이 되어 가지고 다 나오도록 돌리면 그게 모두 감겨버려.}

10411 @ 거기 그 비단 아까 명주 짜는 그 베트른 삼베 아, 베틀하고 똑 같다고 했습니까? {거기 그 비단 아까 명주를 짜는 그 베틀은 삼베 아, 그 베틀하고 똑 같다고 했습니까?}

10411 # 그 메 베트른 그 베트레 짜.{그 맨 베틀은 그 베틀에 짜.}

10411 @ 예: 그라마, 그람 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트른 똑 간꼬 머 도구들도.{예, 그러면 그럼 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틀은 똑 같고 뭐 도구들도.}

10411 # ****, 맨 그 도구도 그 도구 똑 같아요.{****, 맨 그 도구도 그 도구 똑 같아요.}

10411 @ 바디나 뭐 북이나 뭐 그런거.{바디나 뭐 북이나 뭐 그런거.}

10411 # 고거 저게 바디가 조금 틀릴 거레, 고고는 아주 소물고 아주 곱게 데 인꼬, 바디 이 문 짜는 것, 고게 좀 틀리지 삼베에 하나 명베나 고 *** 아직 명주는 아주 시리 가늘고 아주 고부~이까 고 바디가 틀리지.{그 것, 저게 바디가 조금 다를 거야, 그 것은 아주 좁고 아주 곱게 되어 있고, 바디 이 문을 짜는 것은 그게 좀 다르지, 삼베에 하거나 명베나 고 *** 아직 명주는 아주 실이 가늘고 아주 고우니까 그 바디가 다르지.}

10411 @ 그럼 명주실 고거는 아주 바디가 촘촘해.{그럼 명주실 그것은 아주 바디가 촘촘해.}

10411 # 아, 촘촘해야지 이거는.{아, 촘촘해야지 이 것은.}

10411 # 여게 우리 여여 바느질한 실보다, 실보다 더 가느지.{여기 우리 여 바느질을 한 실보다, 실보다 더 가늘지.}

10411 @ 그러니까 천이 아주 곱다 그지요, 짜노면 .{그러니까 천이 아주 곱다 그렇지요, 짜놓으면.}



제2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20101	나락(+구, +다), 벼(+신)
20102	이삭	20102	이삭
20103	볍씨	20103	나락씨'이(+구), 볍씨':이'(+신)
20104	못자리	20104	모짜'리
20105	모판	20105	나락판(+기계모판), 망:
20106	쟁기	20106	*
20107	보습	20107	알소'오'부
20108	벼	20108	*
20108-0-1	-이	20108-0-1	*
20109	극쟁이	20109	나무쟁'기(+소, +구), 소'오'부(+다, +신)
20110	씨레	20110	씨':어'레
20111	번지	20111	번'지'르카는데
20112	모내기	20112	모내기는(+신), 모수문'다(+구)
20113	흙덩어리	20113	덩거'리라거지'
20114	고무래	20114	곰배'라그른다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20114-1	곰배인제
20114-2	고무래(재 용도)	20114-2	*
20114-3	고무래(흙 용도)	20114-3	곰배는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20114-4	밀개'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20114-5	*
20115	쇠스랑	20115	세소'랑(+신, +소), 소'랑(+구, +다)
20116	곡괭이	20116	모짜~이
20117	괭이	20117	괭~이는
20118	삽	20118	삽(+신, +다), 수군'포(+구)
20119	호미	20119	호매'~이
20120	농기구	20120	연장(+망치 등도 연장이고 구별하지 않음.)
20121	김		

20122 김매다
 20123 애벌 매다
 20123-1 두벌 매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20124 논두둑
 20125 밭둑
 20126 밭두둑
 20127 밭고랑
 20128 밭이랑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20128-2 이랑밧기

 20129 보리
 20129-1 가을보리
 20129-2 봄보리
 20130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20132 감부기
 20133 두엄

 20134 거름

20121 기'심
 20122 기'심맨'다
 20123 아'이맨다
 20123-1 두'불맨다
 20123-2 돌가'리한다(+밭을 맬 때), 세불'론
 맨다(+논을 맬 때)
 20124 논:뚝'
 20125 바뚜'기다
 20126 두둑
 20127 바꼬랑
 20128 *
 20128-1 바꼬랑 탄'다
 20128-2 보리' 밭른다(+이 지역에서는 잘
 안 함.)
 20129 보리
 20129-1 가:을보리
 20129-2 봄보'리
 20130 불쌀
 20131 가:을가'리
 20132 감부~'이
 20133 거름(+구), 테'비'라'꼬도 마~이 씨'
 는데(+신)
 20134 거름을 낸다(+두엄과 구별하지 않
 음.)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20202 벧단
 20202-1 벧단(한 줌정도)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20202-3 벧단(한 아룀정도)
 20203 가리(積)

 20204 가리다(積)

20201 가:을거듬'한다
 20202 나락'판
 20202-1 나락'따~이고
 20202-2 나락'판
 20202-3 무'챙'기'판
 20203 가'리르칸테 요세'는(+신), 빼까'리(+
 구, 보리는 보리빼'까'리 등으로 부름.), 으
 테기(+콩을 쌓아둔 것.)

20205	벧가리	20204	빼까'리 가린다
20206	날가리	20205	무데'기(+양이 적은 경우), 빼까'리라 (+양이 많은 경우)
20207	타작	20206	무데'기(+양이 적은 경우), 빼까'리(+ 양이 많은 경우)
20208	벼훑이	20207	떠'언'다 카'든지(+신), 뚜'든'다 카' 든지(+신), 타:작한다(+구)
20208-1	그네	20208	나락찹'께라 그지'
20209	개상	20208-1	*
20209-1	자리개	20209	태'똥'기'라 근다(+잘 사용하지 않 음.)
20209-2	자리개질	20209-1	*
20210	도리깨	20209-2	미'친다' 그레찌 저퍼요(+제?)
20210-1	도리깨장부	20210	도르'깨
20210-2	도리깨열	20210-1	도르'깨자'앙'부
20210-3	도리깨꼭지	20210-2	도르'깨열:
20211	벧짚	20210-3	꼴띠'
20211-0-1	-을	20211	집'
20211-0-2	-에	20211-0-1	지플'(+목적격 조사가 잘 실현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20212	새뺨기	20211-0-2	지'페 불라따
20213	쭈정어	20212	집헤'에'기
20214	티	20213	쭈떼'기
20215	까끄라기	20214	까'시 드러따(+눈에 들어간 티), 문 지'라 그르는데(+제?)
20216	풍구	20215	까끄래'기
20217	원두막	20216	불'무'(+대장간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지칭함.), 선풍'기(+조?, +최근, +이 곳에서 는 별로 사용하지 않음.), 풍'구'로 카'기도 하고 여:는 그'래따 카깨(+불무와 같은 도 구를 지칭함.)
20218	허수아비	20217	원:드'막
20219	흉년	20218	허수아'비라 글자네(+신, +다), 허재' 비(+구, +소)
20220	머슴	20219	승녀'이라카지(+신, 조?), 흉:년' 드러 따(+구)

20221 놓
 20221-0-1 -을
 20221-1 (놓을) 사다/얼다/부리다
 20222 품앗이
 20223 품삯
 20223-0-1 -으로

20220 머슴' 살리간다
 20221 *(사:람 한다)(+조?)
 20221-0-1 *
 20221-1 사:람 한다
 20222 숨바꿈'(+구), 푸마'시라는 거는(+신)
 20223 품
 20223-0-1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2 디딜방아
 20303 방앗공이
 20304 방아확
 20305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20307 절구
 20308 절구통

20309 절굿공이

20310 절구질

20311 겨
 20312 보릿겨

20313 왕겨

20314 등겨
 20315 검불

20316 껍질

20301 바~아깁'(+조?)
 20302 드'들'뽕아'
 20303 바'앙'꼬
 20304 호박'
 20305 물:방아깁'
 20306 연질'메'(+제?, 잘 사용하지 않음.),
 연질바~아(+제?)
 20307 절구'(+절구를 잘 사용하지 않음.)
 20308 절구'호바'기'라'카는지(+제?, 절구를
 잘 사용하지 않음.)
 20309 절구'(+제?, 절구를 잘 사용하지 않
 음.)
 20310 절구' 찧는다(+절구를 잘 사용하지
 않음.)
 20311 겨
 20312 보리 텡가리'(+보조제보자의 도움을
 받음.)
 20313 나락껍'떼'기라 그레'찌(+구), 등 게
 '(+신)
 20314 텡가리'
 20315 검'불(+북데기와 의미가 뒤바뀌어 사
 용됨.), 뽕떼'기(+검불과 의미가 뒤바뀌어
 사용됨.)
 20316 껍떼'기(+껍질과 구별이 안 됨.)

2.1.4. 곡물

20401	곡식	20401	곡'석
20402	참쌀	20402	참살
20403	멥쌀	20403	멥쌀
20404	쌀보리	20404	쌀:보리
20405	조	20405	서'수긴데'
20406	차조	20406	차조
20407	메조	20407	메조
20408	좁쌀	20408	좁'쌀
20409	작다	20409	차'다(+구), 잔잔하'다카는데(+신)
20410	조이삭	20410	서'숙'알
20411	수수	20411	수꾸(+구), 수수'라 그러지(+신)
20411-1	붉은색 수수	20411-1	수꾸'가
20411-2	장목수수	20411-2	장화수꾸
20411-3	찰수수	20411-3	찰수꾸'가 이꼬
20411-4	메수수	20411-4	메수꾸'
20412	수수깡	20412	수꾸대구~'이
20413	옥수수	20413	강낭(+구, +다, +열매와 식물의 이름 이 동일함.), 옥'수수라 하 지그므너'(+신)
20413-1	찰옥수수	20413-1	찰'강'나~아
20413-2	메옥수수	20413-2	메강낭
20414	귀리	20414	기장'
20415	메밀	20415	메'물'(+식물과 열매의 구별은 없음.)
20416	콩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19	단다
20420	떡우다	20420	띠'운'다
20421	곰팡이	20421	곰파~'이
20422	강낭콩	20422	양대
20423	콩기름	20423	콩기'름
20424	깨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1	창'깨'라그고요
20424-2	들깨	20424-2	뜯'깨

20425 고소하다

20425 고소:하'다

2.1.5. 채소

20501 채소

20501 채'소'라'고도 하'지

20502 나물

20502 나무'리라고 사용하지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1 니 나물바'테 가서'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2 나무'리라 고마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3 나무린데'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4 쫑'나무리다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5 산나물'

20502-6 나물(산, 반찬)

20502-6 산나무'리다

20503 푸성귀

20503 나무'리래

20504 다듬다

20504 따듬'는'다

20505 반찬

20505 반'차~이 만타

20506 무

20506 무꾸'(+다, +구), 무수'라 거지(+소, +신)

20507 썰다

20507 생'치'친다(+가늘게 썰었을 때), 싸'아'린다(+굵게 썰었을 때)

20508 무청

20508 무꾸이퍼'리

20509 시래기

20509 쓰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0 무꾸 쪼그래'기

20511 장다리무

20511 짱'다'리무꾸'라건다

20512 배추

20512 배:추

20513 고갱이

20513 소:꼬배~이

20514 오이

20514 무'리':(+구, +보조제보자의 도움을 받음.), 오이(+신, +다)

20515 오이지

20515 *

20516 오이소박이

20516 *

20517 가지(茄子)

20517 가지:

20518 호박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19 고'구'마

20520 감자

20520 감재'

20520-1 잘다

20520-1 자'다

20521 우엉

20521 우봉(+보조제보자 도움을 받아서 생

		각함.)
20522	파	20522 파::(+가는파는 가랑:파'라고 부름.)
20523	고추	20523 꼬치'
20524	시금치	20524 시금'치'라아'(+확인 의문문임.)
20525	미나리	20525 미나'리(+야생미나리는 돌:미'나'리라고 부름.)
20526	부추	20526 정고'지
20527	상추	20527 부'리'(+구), 상추라 거지(+신)
20528	마늘	20528 마'늘
20529	생강	20529 생강'
20530	냉이	20530 나세~'이(+구), 내~:'이라카는데(+신)
20531	달래	20531 달'리
20532	도라지	20532 도라'지라고도하지(+신, +소), 도래'라카기도하드라마느(+신, +소), 돌:개(+구, +다)
20533	더덕	20533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1 쌀'바'비라칸데(+신), 이:밥(+구)
20602	찬밥	20602 씨'근밥(+구, +다), 찬바비다(+신)
20602-1	더운밥	20602-1 뜨신'밥
20603	조밥	20603 조밥
20604	누룽지	20604 누러':영'지
20605	눌은밥	20605 누러'영'지밥(+구), 누룬'밥(+신)
20606	송늬	20606 송'냐~아
20607	뜨물	20607 뜸물(+쌀뜸물은 쌀을 쪄온 물을 가리킴.)
20608	김(蒸氣)	20608 짐'나온다
20609	갱죽(羹粥)	20609 갱:주욱'(+확인 의문문임.)
20610	싱겁다	20610 싱겁'따

20611 국수
 20612 칼국수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20613 건더기
 20613-1 국물
 20614 고명
 20615 꾸미
 20616 미역
 20617 김(海苔)
 20618 수제비
 20619 끼니
 20620 미음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20621 엇기름
 20622 식혜(食醪)
 20623 식혜(食醪)
 20624 달다(甘)
 20625 가루
 20625-0-1 -에

 20625-0-2 -을
 20625-0-3 -도
 20626 밀가루
 20627 밀기울
 20628 미숫가루

20611 국'수
 20612 칼'국'수'고
 20612-1 털'국'수'고
 20613 켜테'기
 20613-1 궁'물
 20614 꾸미
 20615 꾸미(+보조제보자 도움을 받음.)
 20616 미'역
 20617 짐:
 20618 수'제'비마저
 20619 때'를굴머따
 20620 미:엄'
 20620-1 미엄'쑈다
 20621 여절굴'
 20622 감'주(+참쌀과 멥쌀의 구별이 없음.)
 20623 시'캐'(+많이 해먹지는 않음.)
 20624 다'다
 20625 가리
 20625-0-1 가리'에(+ 우발 발화로 '갈게'형
이 등장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함.)
 20625-0-2 가리'를
 20625-0-3 미까'리'도
 20626 밀까'리'도
 20627 밀기'울
 20628 미'스까리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1	장'물
20702	된장	20702	덴장(+제?), 딴':장
20703	고춧가루	20703	꼬츠까'리(+구), 꼬치'가루'(+신)
20704	고추장	20704	꼬추'장(+신), 꼬치'장(+구)
20705	소금	20705	소금
20706	김치	20706	김'치라그고머(+신), 짬'지라거리지(+

		구), 찐지한다(+구)
20707	김장	20707 김장(+신), 찐'지담문는다(+구)
20708	깍두기	20708 깍때'기(+무우 모양이 작음.), 아 무 꾸찐'지라그래찌(+무우 모양이 매우 큼.)
20709	나박김치	20709 도옹'치'미라그러는데(+고추가루를 넣지 않음.), 무'짐'치(+고추가루를 넣음.)
20710	담그다	20710 차양'다문는다
20710-0-1	-고	20710-0-1 다무'코이'따
20710-0-2	-어라	20710-0-2 다마'아라
20711	양념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	20712 버'문다
20713	버섯	20713 버'섯
20713-0-1	-이	20713-0-1 버'서'시
20714	콩나물(재료)	20714 콩나물'(+신), 콩지름'(+구)
20714-1	콩나물(반찬)	20714-1 콩나무'리라그제요(+신), 콩지르'미 라그래따(+구)
20714-2	숙주(나물)	20714-2 녹띠지름'
20715	두부	20715 더어'부우'(+확인 의문문임.)
20716	비지	20716 막'찌마저(+구), 비'지르켄나(+신)
20716-1	비지떡	20716-1 백시'미
20717	달걀	20717 게'랄(+신), 달'걀(+구)
20718	가래떡	20718 떡골'비
20719	시루떡	20719 시리'떡
20720	송편	20720 송'편
20721	빚다	20721 맹근'다
20722	흰떡	20722 찰'떡'
20723	고물	20723 고'물도'하'지(+다), 콩꼬'물
20724	팔죽	20724 파죽':
20725	새알심	20725 새알:
20726	백설기	20726 백'떡이다카는거마저(+소), 백'찌미라 카나(+확인 의문문임.)
20727	튀밥	20727 티'밥
20728	술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29 마걸'리
20730	소주	20730 *
20731	부침개	20731 찌집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1	부뚜마'악
20802	가마솥	20802	가메솥'
20802-0-1	-을	20802-0-1	소'를 썬는다
20802-0-2	-에	20802-0-2	소'테
20803	아궁이	20803	브어:게 불런는다, 브어:글 곧친다, 브억:(+구), 아구'이라카는데(+신)
20803-0-1	-이	20803-0-1	브어:기 쫓따
20804	그을음	20804	꺼시러'미라그레지(+신), 껌저'~이라 그지
20805	불쏘시개	20805	부살'개
20806	연기	20806	영'기가
20806-1	내(煙氣)	20806-1	내'애'미'가 난다
20807	그을리다	20807	꺼시'러따
20808	부지깻이	20808	부지'깨(+신), 부지께'~이(+구, +다)
20809	부삽	20809	불가'래
20810	냄다	20810	네그랍'따
20811	냄비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	거'럭
20812-0-1	-을	20812-0-1	그'러'글
20813	뚜껑	20813	뚜껑'(+신), 뜨깨'~이(+구)
20814	주발 뚜껑	20814	뜨깨'~이
20815	사발 뚜껑	20815	*
20816	술뚜껑	20816	소두베'~이(+신), 소뜨깨'~이(+구)
20817	밥주걱	20817	뽕주께'(+구), 주거'(+신)
20818	술가락	20818	수까'락
20819	젓가락	20819	저까'락
20820	종지	20820	중'지러그래찌(+신), 종바'리(+구)
20821	보시기	20821	종바'리라고
20822	뚝배기	20822	투꾸바'리
20823	접시	20823	쟁:반'(+조?, +크기가 큰 것.), 접'시 르케찌(+크기가 작은 것.)
20824	조리	20824	조::리
20825	이남박	20825	통'바'가'치

20826	바가지	20826	고지바가'치(+신), 바가'치(+다)
20827	행주	20827	행'주
20828	행구다	20828	해'운다케찌집다(+구, +보조제보자 도움을 받음.), 행'군다(+신)
20829	설거지	20829	설거'지한다
20830	개숫물	20830	꾸정'물
20831	찌꺼기	20831	찌끄래애'기라카제요
20832	화로	20832	화:리(+보조제보자는 하리형임.)
20833	화롯불	20833	*(+화:리에 불 다머라)
20834	부젓가락	20834	부'시'(+다), 부절'(+소)
20834-0-1	-이	20834-0-1	부'시'업따
20834-1	불순가락	20834-1	부시(+잘 사용하지 않는 도구임)
20835	다리쇠	20835	*
20836	석쇠	20836	적세
20837	도시락	20837	당시'기는(+구), 도시라'기라카이요(+ 신), 뽀또'(+구)
20838	바구니	20838	둥지'리
20839	뒤주	20839	디지'(+주로 이 지역에서는 쌀독을 많이 사용함.)
20840	찬합	20840	합'
20841	강판	20841	강'판카능(+신), 풀'뜯(+구, +조?)
20842	개다리소반	20842	개'상'판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1	암뽕(+소), 큰바~을(+다)
20902	벽	20902	베르뽕'(+구), 뽕(+신)
20903	다락	20903	다락
20904	벽장	20904	뽕장(+이 동네에는 집이 작아서 이 것이 잘 없었음.)
20905	감추다	20905	감추'운다(+신), 숭'계논는다(+구)

20906	흙	20906	흙'점나따
20907	돌쩌귀	20907	도올'작
20907-1	암작	20907-1	암도올'작
20907-2	수작	20907-2	쑥도올'작
20908	미단이	20908	미:다지
20909	여단이	20909	살문(+조?, +문살이 있으므로 붙인 이름임.)
20910	덧문	20910	점문
20911	열다	20911	무늘 여'러야
20912	문고리	20912	몽꼬'리
20913	자물쇠	20913	자물'통
20914	간히다	20914	가처'이따
20915	열쇠	20915	여열'새(+신), 열때(+구)
20916	잠그다	20916	문 장군는다
20917	구멍	20917	문꾸영'
20917-1	취구멍	20917 -1	지구영'
20918	찢다	20918	째애'따
20919	구들	20919	구들'
20920	흙받기	20920	흙'손
20921	흙손	20921	흙'손
20922	흙칼	20922	흙'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20922-1	나무'칼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20922-2	흙'칼
20923	바르다	20923	바린'다
20924	장판	20924	차'리(+다), 장'판(+소)
20925	종이	20925	조~'올해가제
20926	도배	20926	도배'
20927	구석	20927	구석'
20928	굽도리	20928	구석'바린다
20929	깨끗하다	20929	마뜩'따
20930	문지방	20930	문추'바~아
20930-0-1	-에	20930-0-1	문추방'에
20931	틈	20931	문'트미나따
20932	가장자리	20932	마리끄'테
20933	가운데	20933	가운'테(+신), 복과~'이다(+구), 복판'(+구)

20934 시렁
20935 살강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9 거울
20940 걸다
20941 호롱

20934 시'라'앙
20935 현'반
20936 현'바이래여
20937 빼'다'지
20938 경'대
20939 거'우리라거지(+신), 망'경(+구)
20940 걷:다
20941 호랑(+석유를 재료로 사용)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0-1 -에
21002 기와
21003 기와집
21004 수키와
21005 암키와
21006 대들보
21007 서까래
21008 추녀
21009 처마
21010 오두막
21011 초가집
21012 이엉
21012-0-1 -에서

21013 용마름
21014 기스락
21015 낙숫물
21015-1 기스락물
21016 사닥다리
21017 용마루
21018 토방
21019 뗏돌

21001 지붕'
21001-0-1 지붕'케 올라간다
21002 흙기화
21003 기화집
21004 흙기화(+조?)
21005 기와짱(+조?)
21006 대들뽀:, 상:'양
21007 새까'리
21008 귀'새'까리
21009 해'까'레'
21010 오도막집
21011 초'가'집
21012 영'애(+영'개로도 실현됨.)
21012-0-1 영'개 베진데, 영개바라'메 올라가따
21013 용:마람
21014 지붕'끄치'다(+조?)
21015 추'망물
21015-1 추'망무리다
21016 사다리
21017 댄마리'(+기와집일 경우.)
21018 디듬'뿔(+조?, +이 지방에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돌로 만듦.)
21019 디듬'뿔기다

21020 마루
21020-0-1 -에
21021 뿔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21020 마리'
21020-0-1 마리'에 올라가지마라
21021 태:'뻔'다
21022 기둥
21023 지'치'똥
21023-0-1 지'치'똥 나아텐다
21024 꾸'울'뚝

2.3.3. 마당

21101 뜰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5 공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2 장독 뚜껑
21113 변소

21113-1 똥장군

21114 울타리
21115 담
21115-0-1 -에
21115-0-2 -도
21116 사립문
21117 뒤꼍
21117-0-1 -에
21118 바깥

21101 끝반(+조?)
21102 마당'
21103 마:이' 너'르'지여
21103-0-1 널'러'가 조:타
21104 널'퍼이텐다
21105 디지
21106 마아'구, 소마구라카기도 하교(+소)
21107 마구깁'
21108 고방(+소중한 물건을 넣어두는 곳)
21109 허까~'이다(+잘 없음.)
21110 쓰레'기다
21111 장'뚝'대, 장:'칸(+구)
21112 단지뜨깨~'이
21113 디까~'이라카고(+소), 정나~'이라카고
(+다)
21113-1 똥짱'구~이, 21113-1 똥'똥지(+단
지로 만든 것.)
21114 우따'리
21115 담
21115-0-1 다'메 올르가따
21115-0-2 담도 무르저따
21116 삼작'
21117 디안'
21117-0-1 디아'네서 논다
21118 배께 나가 노르라(+소), 배끄'테 가

21118-0-1 -에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노라라
21118-0-1 배끄'테 가 노르라
21119 모티~'이고
21120 귀서'리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2 윗마을
21203 이웃
21203-0-1 -이
21203-0-2 -에
21204 마을가다
21205 우물
21206 두레박
21207 샘(泉)
21208 가(邊)
21208-0-1 -을
21208-0-2 -에
21209 물지게
21210 가게
21211 싸다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5 잔돈

21216 에누리
21217 거스름돈
21218 거스르다
21219 꾸다(借)

21219-0-1 -어야
21220 구두쇠
21221 맡기다

21201 동:'네(+구), 마으'리라 그제(+신)
21202 우'똥네(+구), 운마'(+신)
21203 이'운
21203-0-1 이'우지 조타
21203-0-2 이'우제 가까이 산다
21204 이'웁간다
21205 우'물(+신), 웅굴'(+구)
21206 뜨래'박(+신), 뜰베'기(+구)
21207 새:'미
21208 가:
21208-0-1 웅굴가아'를
21208-0-2 웅굴'까에
21209 무지게
21210 가아'게라그고(+신), 저엄'빵(+구)
21211 싸'아다'아(+구), 헐'타'카지(+신)
21212 비'사다
21213 흥정'
21214 중:'개인
21215 잔'돈, 철또늘 가지고(+동전을 가리킴.)
21216 *
21217 거스름'똥
21218 빼다고카지 머
21219 꾸'로' 간다(+빌리다와는 의미차이가 없음.), 채'달라
21219-0-1 꺾'야'
21220 구두'세(+신), 대애'지다(+구)
21221 나둔'다(+구), 마'깁다(+신)

21222	나머지	21222	나머'지는(+신), 씨고 남'능걸(+구)
21223	덤	21223	기'양(+구), 우'수'로 주더라(+신)
21224	몫	21224	내해'애다(+구), 모가'치(+신)
21224-0-1	-을	21224-0-1	내해'애 가주간다
21225	빚	21225	비'지'는
21225-0-1	-을	21225-0-1	비'지'를
21225-0-2	-에	21225-0-2	비'지'에
21226	이차(利子)	21226	이'자
21227	심부름	21227	시'임부름 보낸다
21228	두름	21228	두름'
21228-1	축	21228-1	한'축(+신), 한동'치(+구)
21228-2	쾌	21228-2	한두'름
21228-3	접	21228-3	접
21228-4	쌈	21228-4	세'미
21228-5	두름	21228-5	두름(+두름과 두름이 혼용됨.)
21228-6	단/몫(작은 묶음)	21228-6	단:
21228-7	단/몫(서너 개 묶음)	21228-7	다:~이래, 한'단
21228-8	툇	21228-8	동'치
21228-9	모습	21228-9	하노'쿰(+구), 한'줍(+신), 함모'습 (+짚 등을 엮을 때의 단위라고 함.)
21229	컬레	21229	커'리
21230	마지기	21230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21230-1	이'백'평' 가주'고 한 마지'기(+논 은 200평, 밭은 100평을 한 마지기라 하며, 한 평은 사방 여섯 자임.)
21231	꾸러미	21231	두루'미라그래찌
21232	그루	21232	한대구~'이라 그고(+베어진 나무를 세는 단위, +다), 향'개(+조?), 향그루(+신)
21233	포기	21233	폐'기
21234	저울	21234	정'울
21235	자루(包袋)	21235	자리:'
21235-0-1	-을	21235-0-1	자리'를
21235-0-2	-에	21235-0-2	자리'에
21236	하나	21236	하'나', 하네'이
21236-1	한-개	21236-1	향'개
21236-2	한-되	21236-2	한'대

21236-3 한-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1 세-개

 21238-2 세-되
 21238-3 세-말
 21239 넷
 21239-1 네-개

 21239-2 네-되
 21239-3 네-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다섯-되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2 여섯-되
 21241-3 여섯-말
 21242 일곱

 21242-1 일곱-개
 21242-2 일곱-되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1 여덟-개
 21243-2 여덟-되
 21243-3 여덟-말
 21244 아홉

21236-3 함'말
 21237 두'우'리, 둘:(+주격형은 '두리'임.)
 21237-1 두우'개
 21237-2 두우'대
 21237-3 두'우'말
 21238 서'어'이, 서어'이
 21238-1 세'에개(+사이'개 형도 사용됨., +
 고)
 21238-2 서어'대
 21238-3 서어'말
 21239 너'어'이
 21239-1 네에'개(+니이'개 형도 사용됨., +
 고)
 21239-2 너어'대
 21239-3 너'어'말
 21240 다'서'시', 단'써(+주격형은 '다서시'
 형임.)
 21240-1 다'서'개
 21240-2 단'때
 21240-3 담'말
 21241 여'서(+주격형은 '여서시'형임.), 여'
 서시'
 21241-1 여'서'개
 21241-2 여'때
 21241-3 염'마알'
 21242 일'고(+주격형은 '일고비'형임.), 일'
 고어비'
 21242-1 일'고개
 21242-2 일'곱때'
 21242-3 일'곱'말
 21243 여'덜(+주격형은 '여덜비'형임.), 여'
 덜비'
 21243-1 여'덜'개
 21243-2 여'덜'때
 21243-3 여'덜'말
 21244 아'호(+주격형은 '아호비'형임.), 아'

	호비'
21244-1 아홉-개	21244-1 아'호'개
21244-2 아홉-되	21244-2 아'홉'때
21244-3 아홉-말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 여리, 열'
21245-1 열-개	21245-1 열'개'
21245-2 열-되	21245-2 열'대'
21245-3 열-말	21245-3 열'말'
21246 스물	21246 수'물'
21246-1 스무-개	21246-1 수'무'개
21246-2 스무-되	21246-2 수'무'대
21246-3 스무-말	21246-3 수'무'말
21247 서른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1 서'룽'개
21247-2 서른-되	21247-2 서'른'대
21247-3 서른-말	21247-3 서'름'말
21248 마흔	21248 마'흔
21248-1 마흔-개	21248-1 마'흥'개
21248-2 마흔-되	21248-2 마'흔'대
21248-3 마흔-말	21248-3 마'흙'말
21249 쉰	21249 쉰(+신), 오'오'십(+구)
21249-1 쉰-개	21249-1 오'오'시'개
21249-2 쉰-되	21249-2 오'오'십'대
21249-3 쉰-말	21249-3 오'오'십'말
21250 예순	21250 여'신(+신), 육'십(+구)
21250-1 예순-개	21250-1 육'시'개
21250-2 예순-되	21250-2 육'십'때
21250-3 예순-말	21250-3 육'십'말
21251 일흔	21251 이'른'(+신), 칠'십(+구)
21251-1 일흔-개	21251-1 칠'시'개
21251-2 일흔-되	21251-2 칠'십'때
21251-3 일흔-말	21251-3 칠'십'말
21252 여든	21252 여'든(+신), 팔'십(+구)
21252-1 여든-개	21252-1 팔'시'개
21252-2 여든-되	21252-2 팔'십'대'
21252-3 여든-말	21252-3 팔'십'말

21253	아흔	21253	구'십'(+구), 아'흔(+신)
21253-1	아흔-개	21253-1	구'시'깨
21253-2	아흔-되	21253-2	구십대'
21253-3	아흔-말	21253-3	구'십'말
21254	백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1	베'깨'
21254-2	백-되	21254-2	백'때'
21254-3	백-말	21254-3	백말
21255	이백	21255	이'백
21256	한둘	21256	한'둘'
21256-1	한두-개	21256-1	한'두'개
21256-2	한두-되	21256-2	한'두'우대
21256-3	한두-말	21256-3	한'두'우말
21257	두셋	21257	두서넛'
21257-1	두세-개	21257-1	두:서너'개
21257-2	두세-되	21257-2	두:서너'대
21257-3	두세-말	21257-3	두:서넛'말
21258	두서넛	21258	*
21258-1	두서너-개	21258-1	*
21258-2	두서너-되	21258-2	*
21258-3	두서너-말	21258-3	*
21259	서넛	21259	*
21259-1	서너-개	21259-1	서넛너더'깨(+셋에서 네 개를 의미 함.)
21259-2	서너-되	21259-2	서넛너더'때(+셋에서 네 되를 의미 함.)
21259-3	서너-말	21259-3	서넛너던'말(+셋에서 네 말을 의미 함.)
21260	네댓	21260	너더테에'시
21260-1	네댓-개	21260-1	너더테'에깨
21260-2	네댓-되	21260-2	너더테에'때
21260-3	네댓-말	21260-3	너더테'엔말
21261	대여섯	21261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21261-1	대여'서'깨
21261-2	대여섯-되	21261-2	대'여'서'때
21261-3	대여섯-말	21261-3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21262	예일'곱
21262-1	예닐곱-개	21262-1	예일'고개
21262-2	예닐곱-되	21262-2	예일'곱때
21262-3	예닐곱-말	21262-3	예일'곱말
21263	일여덟	21263	*
21263-1	일여덟-개	21263-1	*
21263-2	일여덟-되	21263-2	*
21263-3	일여덟-말	21263-3	*
21264	여덟아홉	21264	*
21264-1	여덟아홉-개	21264-1	*
21264-2	여덟아홉-되	21264-2	*
21264-3	여덟아홉-말	21264-3	*
21265	여남은	21265	여나'암'도'
21265-1	여남은-개	21265-1	여나'암'개
21265-2	여남은-되	21265-2	여나'암'대
21265-3	여남은-말	21265-3	여나'암'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2	기'리'라
21303	저고리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4	색똥저고'리
21305	두령이	21305	*
21306	무늬	21306	무'니
21307	고쟁이	21307	고재~'이
21308	바지	21308	바'지(+숨을 넣어 만든 것을 의미함.), 주'~우'(+홀바지를 의미함.)
21309	두루마기	21309	두루마'기라 그기도 하교(+소), 둘:마'기지(+다)
21310	의복	21310	오슬(+의복과 의미차이가 없음, +다),

		이'복(+옷과 의미차이가 없음.)
21311	구겨지다	21311 쭈그래'애저따
21312	옷고름	21312 오꾸'름
21313	단추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4 동'전
21315	겉	21315 겉'
21315-0-1	-에	21315-0-1 거'테
21315-0-2	-을	21315-0-2 큰'틀'
21316	홀웃	21316 호'도'시(+적삼은 홀으로 된 상의임.)
21317	겹웃	21317 바지저고리이래찌(+겹으로 된 옷은 바지(하의)와 저고리(상의)로 사용함.)
21318	잠방이	21318 *
21319	누더기	21319 누테'기(+신)
21320	거지	21320 겹배~'이
21321	구겹	21321 도옹'냥'하러 땡긴다
21322	조끼	21322 쪼끼'
21323	내의	21323 내복
21324	껴입다	21324 겨브로임는다(+신), 찌께'임는다
21325	소매	21325 사매'
21326	주머니	21326 주메~'이
21327	호주머니	21327 보개'또(+호주머니와 의미 차이가 없음.), 주메~'이(+구, 포켓과 의미 차이가 없음.), 호무머~'이라는건(+신)
21328	허리띠	21328 허리'끈(+소), 헐'끈(+다, +가죽과 형질의 차이는 없음.)
21329	땡기	21329 땡'기
21330	도포	21330 도오'포
21331	삿갓	21331 삭'갓
21331-0-1	-에	21331-0-1 삭'가'세'
21332	고깔	21332 꼬'깔'모자
21333	사모	21333 사'무'관대
21334	유건	21334 유건'(+신, +예전에는 없었음.)
21335	대님	21335 바때~'이
21336	감발	21336 *
21337	짚신	21337 집신'
21338	미투리	21338 미:트'리

21338-1 (끓신을) 삶다/만들다/트다/끓다
 21339 나막신
 21340 설피

21338-1 삼:'느'은다
 21339 나막'신
 21340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 명주'(+비단은 시장에서 사온 것을 의미함.)

21401-1 명주'실

21401-1 명주'실

21402 목화

21402 명', 명씨(+명의 씨앗을 뜻함.)

21402-1 목화'다래

21402-1 다'래'

21403 무명

21403 명:배

21403-1 무명'실

21403-1 명:실

21404 씨아

21404 세:기

21405 자세

21405 자세'

21406 물레

21406 무울'레

21407 배

21407 배'잔다

21408 길쌈

21408 질삼

21409 골무

21409 골무(+신), 골미(+구)

21410 만질'고리

21410 광지'리(+다), 당시'기'칸테(+소)

21411 가위

21411 가'위(+신), 까시'게(+구)

21411-0-1 -을

21411-0-1 까시'게를'

21411-0-2 -에

21411-0-2 까시'게예'

21412 마르다(裁)

21412 온 마른'다

21412-0-1 -고

21412-0-1 말'라'가주고'

21412-0-2 -어라

21412-0-2 말'그라

21413 형'걸

21413 형'거'플

21413-0-1 -을

21413-0-1 형'거'플

21413-0-2 -에

21413-0-2 형'거'페

21414 바늘

21414 바'늘

21415 꿰다

21415 꿰'인다

21415-0-1 -고

21415-0-1 꿰'고' 이따

21415-0-2 -어라

21415-0-2 꿰'이라

21416 바느'질

21416 바'느'질

21417 재'봉틀

21417 자'봉'터리레

21418	끈	21418	깁가'리
21419	노끈	21419	노'는(+닥나무 껍질을 사용함.), 새'끼'라그넌:데'(+삼 껍질을 사용함.)
21420	참바	21420	바:카능거는, 참'바'라고도 해찌(+품질이 좋은 바를 의미함..)
21421	매듭	21421	*
21421-1	(매듭을) <u>맷다/짚다/엮다/묶다</u>	21421-1	홀첸'다
21422	보자기	21422	보재'기
21423	이불	21423	이'불
21424	숨	21424	소'케', 소개(+소케와 뒤 섞여 사용됨.)
21425	포근하다	21425	폭신하'다
21426	홀이불	21426	혼니'불
21427	겹이불	21427	겹'니'불
21427-1	숨이불	21427-1	소'케'이'불
21428	누비이불	21428	누'엔'는'이불(+누'벤'는'이불도 실현됨.)
21429	베개	21429	비:게
21430	베갯잇	21430	비개호창'
21430-0-1	-에	21430-0-1	호차~'에
21431	목침	21431	모'웅'치'미
21432	퇴침	21432	티'치'미
21433	방석	21433	차부동'
21434	담요	21434	두데'기(+보조제보자는 두디'기 형태임, + 담요는 시장에서 산 것.)
21435	빨래하다	21435	서답썌는'다
21436	빨랫방망이	21436	서답방마~'이
21437	빨래터	21437	*, 빨래터가(+최근에 사용하는 말이며, 빨래터가 따로 없어서 그냥 그랑에 가서 함.)
21438	빨랫줄	21438	서답'줄
21439	다리미	21439	다래'비(+숯불을 담아서 쓰는 것), 아이론'(+전기로 쓰는 것)
21439-1	다림질	21439-1	서답따'린다
21440	인두	21440	윤:디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1	따'디'미'방마~이

21442 다듬잇돌
21443 다듬이질

21442 따'디'민'돌
21443 빨래뚜든'다(+따'디'미'뚜든'다 형도
사용함.)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2 설
21503 설달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21505 올해
21505-0-1 -는
21505-1 작년
21505-2 재작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6 작은설
21507 웃
21507-0-1 -을
21507-0-2 -에
21507-1 웃놀이
21508 웃가락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웃
21508-5 모
21509 단동
21509-1 외동무니
21509-2 두동무니

21501 서'얼'
21502 서'얼'
21503 서'딸'그'문'날
21504 *
21505 올'레'혜
21505-0-1 올'레'는
21505-1 저장'년'혜
21505-2 장'년'혜
21505-3 내연'
21505-4 저'맹'년'
21505-5 저어'맹'년
21506 *
21507 유까'치
21507-0-1 유까'치를
21507-0-2 유까'치에
21507-1 윤:노'리
21508 유까'치
21508-1 때: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윤'
21508-5 모'
21509 한동'
21509-1 웨'도~'이'지
21509-2 두'동'

21509-3 석동무니	21509-3 서'억'똥
21509-4 녀동무니	21509-4 녀억'똥
21509-5 막동	21509-5 막동'
21509-6 단동무니	21509-6 *
21510 보름	21510 보'름
21510-1 삭망	21510-1 초하리보'름(+삭망은 빈소에서 제사지내는 경우만을 일컬음.)
21511 추석	21511 추'서기라고(+신), 파럴대'애'보름(+구), 하'양'가'위(+구)
21512 망월	21512 *
21513 쥐불놀이	21513 달꺼순다(+놀이의 명칭이 따로 없음.)
21514 자치기	21514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21514-1 *
21514-2 긴막대	21514-2 자뎡:'데
21515 수수께끼	21515 *
21516 호미씻이	21516 푸'꾸'명는다
21517 팽과리	21517 매구
21518 장구	21518 장구
21519 겉두리	21519 새'애'참
21520 무당	21520 무:다~
21520-1 박수	21520-1 *
21521 고수레	21521 고'오'시내
21521-1 고수레!	21521-1 고'시내:
21522 점쟁이	21522 점재~'이
21523 상여(喪輿)	21523 생애(+운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구 그 자체를 의미함.), 행상'(+관을 메고 갈 때, 행상메고 간다 등으로 쓰임.)
21524 굴건	21524 굴'건'(+두건과 구별함.)
21525 제사	21525 제'에'사
21526 제기	21526 제'에기
21527 귀신	21527 귀'신(+하양이중모음 '위'), 몽'달귀'신 마저(+처녀, 총각의 구별이 없음.)
21528 도깨비	21528 도깨'비러카기도하고, 토'째'비라씨고(+소)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21601	소군'지(+ '소'를 '쇠'나 '세'등으로 발음함.)
21602	굴레	21602	소어냉'기(+ '소'를 '쇠'나 '세'등으로 발음함.)
21603	멍에	21603	소머~'에(+ '소'를 '쇠'나 '세'등으로 발음함.)
21604	길마	21604	지리'매
21605	부리망	21605	머거'리
21606	구유	21606	세'통(+ '소'를 '쇠'나 '세'등으로 발음함.)
21607	작두	21607	작'뚜
21608	꼴	21608	꼴'
21609	여물	21609	여물써'린다
21610	쇠죽	21610	세'죽
21611	쇠죽바가지	21611	통'빠'가'치
21612	수레	21612	구루'마
21613	끌다	21613	끄'은다
21613-0-1	-고	21613-0-1	끄'을고간다
21614	바퀴	21614	바'꾸
21615	새끼(繩)	21615	새끼
21615-1	새끼(짐승의)	21615-1	새'끼
21616	망태기	21616	마'양'태라꼬도(+다), 졸개~이'라꼬도
21617	떡등구미	21617	봉세'기(+보조제보자), 봉태'기
21618	거적	21618	자'근'몽석
21619	가마니	21619	가'마이
21619-1	가마니틀	21619-1	가'마이틀
21620	돛자리	21620	자'리
21621	자리틀	21621	자'리틀
21621-1	(자리틀) <u>짜다/치다/만들다/결다</u>	21621-1	자'리맨'다
21622	왕골	21622	왕'글
21623	삼태기	21623	산태'미(+아주 고풍임, +산'치라고도 함.)
21623-1	짚 삼태기	21623-1	산'치
21623-2	싸리 삼태기	21623-2	싸리산태'미

21624	명석	21624	메빵석(+작고 둥근 것), 몽석'(+길고 네모나며 큰 것)
21625	어래미	21625	얼기'미(+주로 싸리로 만듦.)
21625-1	고운체	21625-1	체'
21625-2	굵은체	21625-2	얼기'미
21626	대장장이	21626	베름재~'이라그기도하고
21627	대장간	21627	베룽깁'
21628	풀무	21628	불미'
21629	모루	21629	모래:'
21630	모루채	21630	망'치, 망'치
21631	갈퀴	21631	까꾸'리
21632	집게	21632	적'께
21633	장도리	21633	차'양'도리
21633-1	노루발	21633-1	모빠'기
21634	툽	21634	거어'두(+크기가 큰 것), 툽'
21634-0-1	-에	21634-0-1	토'베
21635	도끼	21635	도오'꾸'우
21636	자루(柄)	21636	차리'
21636-0-1	-을	21636-0-1	도꾸자'리'를'
21636-0-2	-에	21636-0-2	도꾸자리'에
21637	갈고리	21637	꼬'꾸'래~이
21638	썰기	21638	보'적
21639	송곳	21639	소'웅'곤
21639-0-1	-에	21639-0-1	소'웅'고세
21640	뽕죽하다	21640	빠쪽하'다
21641	숫돌	21641	수뜰'
21641-0-1	-에	21641-0-1	수뜰'게
21642	맷돌	21642	매뜰'
21642-1	수쇠	21642-1	말떼'기
21642-1	암쇠	21642-2	쫙'때
21643	지게	21643	지'게
21644	발채	21644	바:수가리(+구, +다), 지게라카'는데 (+신)
21645	지게 작대기	21645	지게 짹'찌(+신), 지게 짹'때'기(+구)
21646	막대기	21646	마때'기
21647	몽둥이	21647	몽'두~'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1	비짜'리
21702	광주리	21702	광지'리
21703	소쿠리	21703	소구'리
21704	함지	21704	나무방티~'이제
21705	풀비	21705	풀'비라근데(+신), 풀비짜'리(+구)
21705-1	귀알	21705-1	풀'솔:
21706	독	21706	단지, 도'기라그고(+크기가 큰 것)
21706-0-1	-에	21706-0-1	도'게
21707	물독	21707	물뚝'
21708	항아리	21708	도'기라그래
21709	단지	21709	단'지'르카기도하고, 아갈째~'이
21710	물동이	21710	물뿌지'기, 브지기
21711	빠리	21711	따베~'이
21712	옹기	21712	오옹'구
21713	표주박	21713	고지바가'치다
21714	키(箕)	21714	체~이
21715	떡살	21715	*
21716	다식판	21716	다'석'판'카능건데
21717	시루	21717	시리
21717-0-1	-을	21717-0-1	떡시리'를
21717-0-2	-에	21717-0-2	시리'에
21718	시룻밑	21718	*
21718-0-1	-에	21718-0-1	*
21719	시룻번	21719	시'리뿐
21720	부싯돌	21720	부시'뜰
21720-0-1	-을	21720-0-1	부시'또를
21721	부시	21721	부시:'
21722	부싯깃	21722	*
21723	담배	21723	담:'배'푼는다
21724	담뱃대	21724	담배'때:
21725	담배설대	21725	대설:'때, 설:'때
21726	담배통	21726	대꼬바'리

21727 물부리
 21728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2 가락지
 21733 비녀
 21734 참빗
 21734-0-1 -을
 21734-0-2 -에
 21735 열레빗
 21736 세숫대야
 21737 비누
 21738 도투마리
 21739 활대
 21740 잉앗대
 21741 부티
 21742 도롱이

21727 대물뽀'리
 21728 담배쌈:'지(+구), 담배주메~'이(+신)
 21729 부'채
 21730 토시'
 21731 베'루
 21732 까락'찌
 21733 비네'
 21734 챔'빔
 21734-0-1 챔'비슬
 21734-0-2 챔'비세
 21735 열금'빔
 21736 대'야라구테여(+신), 세수'때(+구)
 21737 비'노, 비'누(+신), 사'아'분(+구)
 21738 도'투마리
 21739 신:나무'
 21740 이~애'때
 21741 부:테
 21742 우'장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2 이마빼기
 21803 눈자위
 21804 검은자위
 21805 흰자위
 21806 눈꺼풀
 21807 거적눈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9 속눈썹
 21809-0-1 -이

21801 이'매
 21802 이매빠'기, 이매빼'기(+보조체보자)
 21803 누'날
 21804 누'날
 21805 흰창
 21806 눈까죽'
 21807 꺼정'누~이다
 21808 눈:썹'
 21808-0-1 눈:서'비
 21809 송'눈'서비라그지여
 21809-0-1 송'눈'서비

21810 눈두덩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3 돋보기
 21814 주름살
 21814-0-1 -이
 21815 앳되다
 21816 수염
 21817 구레나룻
 21817-0-1 -을
 21818 코
 21818-0-1 -이
 21819 콧수염
 21820 코딱지
 21821 콧구멍
 21821-0-1 -을
 21821-0-2 -에
 21822 콧물
 21823 입술
 21823-0-1 -에
 21824 다물다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7 휘파람
 21828 침
 21829 삼키다
 21830 가래(痰)
 21831 뱀다
 21832 혀
 21833 혓바늘
 21834 콧볼
 21835 귀고리
 21835-1 귀걸이
 21836 귀지
 21837 귀이개

21810 *
 21811 아'양'경
 21812 양경쩍'
 21813 도빼'기
 21814 주름'살
 21814-0-1 주름사'리
 21815 *
 21816 췌:'미
 21817 구'리췌미
 21817-0-1 구'리췌미를
 21818 코:
 21818-0-1 코가
 21819 코췌:
 21820 코따테'기
 21821 콧구멍'
 21821-0-1 콧구멍'으
 21821-0-2 콧구멍'에
 21822 코:물
 21823 민: 입수구'리(+아래), 운입수구'리(+위), 입수구'리
 21823-0-1 입수구'리에
 21824 다무'러라
 21826 턴:니
 21826 어'금'니
 21827 히파람
 21828 침
 21829 생'킨다
 21830 가래
 21831 뱀는'다
 21832 해(+소), 해빠'다기라그지(+다)
 21833 혀바'늘
 21834 귀뺨'(+귀뺨'으로도 실현됨.)
 21835 귀거'리
 21835-1 귀거'리(+소), 귀마'개(+다)
 21836 귀뺨'
 21837 귀후부'개

21838	소리	21838	마아'리 잘 들랜다
21839	엿듣다	21839	가마'이든느'다(+구), 여쁜'느'다(+신)
21840	귀청	21840	귀고'마'기'가
21841	귀밑	21841	귀'미'테'(+소), 볼테기다(+다)
21841-0-1	-을	21841-0-1	귀'미'테'
21842	관자놀이	21842	관'자'노리
21843	기미	21843	게기'름
21844	주근깨	21844	주'근'깨
21845	턱	21845	텍'
21846	턱수염	21846	텍'썤'애'미
21847	뺨	21847	볼(+신), 볼테기(+구), 뺨암(+신)
21847-1	볼	21847-1	볼테기
21848	가름하다	21848	개름하'다(+신)
21849	보조개	21849	보'조'기'라그래따
21850	머리카락	21850	머리카'라기
21851	비듬	21851	비'드미라그래썰
21852	기계충	21852	기계:충
21853	정수리	21853	숭'꼴(+어린 아이의 정수리를 의미함)
21854	대머리	21854	데미'리다(+신), 무너데가'리다(+구, +비칭)
21855	고수머리	21855	꼬스매:애머'리
21856	가르마	21856	가르'페
21856-1	가르마 <u>타다/가르다/하다</u>	21856-1	탄다
21857	가마	21857	가'매(+하나는 외가'매, 두 개는 쌍가'매)
21857-1	가마(鼎)	21857-1	가매술'
21857-2	가마(轎)	21857-2	가'아'매
21857-3	가마(질그릇)	21857-3	옹구'꼴
21857-4	가마(가마니)	21857-4	가'마~이
21858	뒤통수	21858	다'통'시
21859	뒷덜미	21859	단'모'기'다
21860	목	21860	모간'지(+목과 의미 차이가 없음.)
21861	떡살	21861	멕'살

2.6.2. 상체

21901	어깨	21901	에'깨
21902	밀치다	21902	친다
21903	겨드랑	21903	자다랑땀'
21904	등	21904	덩떠'리
21905	가슴	21905	가'슴
21906	걸리다	21906	다'미 마첸'다
21907	갈비뼈	21907	갈'비'뼈
21908	허파	21908	허'폐' 드간'다
21909	쓸개	21909	썰:개
21910	콩팔	21910	콩'팔
21910-0-1	-에	21910-0-1	콩'파'테
21910-0-2	-을	21910-0-2	콩'파'틀
21911	팔	21911	팔'
21912	팔꿈치	21912	팔꾸머'리
21913	팔짱끼다	21913	팔짱'찌고 간다
21914	손톱	21914	손톱'
21915	오른손	21915	오'른'손
21916	왼손	21916	웨엔'손
21917	다르다	21917	틀렌'다
21917-0-1	-아서	21917-0-1	틀레'서
21917-1	틀리다	21917-1	틀레'따
21918	왼손잡이	21918	웬자바래'기
21919	엄지손가락	21919	엄:지'
21920	집게손가락	21920	*
21921	가운뎃손가락	21921	*
21922	약손가락	21922	약송까'라기다
21923	새끼손가락	21923	새끼송까'락
21924	생인손	21924	생'손' 알:른다
21925	사마귀	21925	사'아'마구
21926	손아귀	21926	소나'구(+손으로 쥐는 힘을 의미함.), 송까'락새
21927	손목	21927	숨목'
21928	뺨	21928	뺨'
21929	허리	21929	허'리

21930	지팡이	21930	지폐~'이는(+곰게 다듬은 것), 짹째' 기(+짚고 다니는 것의 총칭)
21931	옆구리	21931	여꾸'리
21932	간지럽다	21932	간지럽'따
21933	간지럼	21933	간지러'블' 탄다
21934	잔허리	21934	개'애'미장대~'이가타
21935	근육	21935	*
21936	배꼽	21936	배꾸무', 배충'(+어린 아이의 배꼽)
21937	목물	21937	등'물한다

2.6.3. 하체

22001	복사빠	22001	복상씨'이'
22002	발가락	22002	발까'락
22003	발바닥	22003	발빠'닥
22004	발톱	22004	발툽'
22005	냄새	22005	내'애'미(+구, +다), 내'앰'새난다(+ 신)
22006	고린내	22006	꼬랑'내 난다
22007	굳은살	22007	꾸'덕'살
22008	정강이	22008	종'개~이
22009	종아리	22009	종:아'리
22010	장딴지	22010	자'양'딴'지
22011	회초리	22011	호:차리
22012	무릎	22012	무르'팍, 무릅'
22012-0-1	-을	22012-0-1	무르'파글
22012-0-2	-에	22012-0-2	무르'파게'
22013	오금	22013	오금재~'이
22014	엉덩이	22014	엉:디~이
22015	궁둥이	22015	궁디~이
22016	볼기	22016	*
22017	멍	22017	멍드러따
22018	멍울	22018	덩거리가 만첸'다(+멍울이 만져진다 는 의미임)
22019	가랑이	22019	가래~'이

22020	사이	22020	다리 사'이에 이따(+신), 복과'네(+구, +다)
22021	살	22021	사타'리
22021-0-1	-이	22021-0-1	사타'리가
22021-0-2	-을	22021-0-2	사타'리를
22022	사타구니	22022	*
22023	가래툰	22023	가'리'말
22023-0-1	-을	22023-0-1	가'리'마를'
22024	허벅다리	22024	신:다'리'
22025	넙적다리	22025	넙떡'다'리'라그래자나, 넙쩍다'리'
22026	가부좌(跏趺坐)	22026	양'반'다리
22026-1	가부좌(跏趺坐) <u>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u>	22026-1	양'반'다'리'한다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22101	가'양'기(+신), 고'뿔'(+구, +다)
22102	기침	22102	기'침
22103	채채기	22103	채'치기
22104	사레	22104	쌔'알'
22104-1	(사레) <u>들리다/만나다/걸리다</u>	22104-1	들레따
22105	딸꾹질	22105	깔따'구, 따꾸'쩔한다카는데(+신)
22106	트림	22106	트'림'한다
22107	곰보	22107	곰보'(+확인의문문임)
22108	천연두	22108	손
22109	여드름	22109	이'드름
22110	학질	22110	*
22110-1	하루거리	22110-1	초'학'
22110-2	이틀거리	22110-2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22110-3	매늘'집
22111	홍역	22111	호'역
22112	볼거리	22112	볼치기
22113	땀띠	22113	땀'때
22114	두드러기	22114	두드레'기
22115	버짐	22115	버'짐(+버'즘이라고도 발음함.)
22115-1	마른버짐	22115-1	마린버'짐(+버'즘이라고도 발음함.)

22115-2 진버집	22115-2 진버'집(+버'즘이라고도 발음함)
22115-3 도장 버집	22115-3 돈:니비다(+동전 모양이라 붙여진 이름), 돈버'지미라
22116 문둥이	22116 문:디다
22116-1 문둥병	22116-1 *
22117 부스럼	22117 현:디(+종기가 아물 정도가 된 상태)
22117-1 종기	22117-1 조웅'기
22118 고름	22118 고름
22119 콧기다	22119 고옴'는다
22120 난쟁이	22120 난:재~이
22121 사팔뜨기	22121 헐꺼등'누~이라, 헐끄등'누~이라그기 도하고
22122 언청이	22122 허체~'이
22123 소경	22123 보'웅'사
22123-1 당달봉사	22123-1 당'달봉:사
22124 애꾸	22124 *
22125 눈곱	22125 농'꼴(+신), 농꼴째'기(+구)
22126 다래끼	22126 데레'끼,
22126-1 다래끼(눈 위쪽)	22126-1 데레'끼고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22126-2 데:지비
22127 절름발이	22127 절뚝'빠'리(+구), 절룩'빠리(+신)
22128 콧사등이	22128 콧세'
22129 귀머거리	22129 귀머거'리라고(+상향이중모음 '위')
22130 말더듬이	22130 말서'슴는'사람
22131 병어리	22131 버버'리
22132 잠꾸러기	22132 장꾸러'어'기
22133 줄리다	22133 자부랍'따
22134 하품	22134 하'품
22135 졸음	22135 조르문(+보통 자부랍따고 하고, 졸음 이라는 명사형은 최근에 사용한다고 함.)
22135-0-1 -을	22135-0-1 *
22135-0-2 -에	22135-0-2 *
22136 잠꼬대	22136 잠티'정'도(+다, +구), 장'꼬'대(+소)

2.7. 육아

22201	입덧	22201	입'구'친다
22201-0-1	-을	22201-0-1	입'구'출
22202	갓난아이	22202	간난나'기'라'꼐(+신), 아기(+구)
22203	어린아이	22203	어리내'라그지
22204	경기(驚氣)하다	22204	정'기
22205	눅히다	22205	누페'엔다
22206	계집아이	22206	따'라:, 지집아'(+비)
22207	예쁘다	22207	고옵'따, 이:쁘다(+신), 잘생'겐따그기 도하고
22208	사내아이	22208	머시마'
22209	아우	22209	동상'(+구, +지칭어임.), 아'우'라능근 (+신)
22209-1	아우보다	22209-1	동상'본다
22209-2	아우 타다	22209-2	전'쫑'드런따
22210	야위다	22210	말'런따, 예비다(+뜻은 알고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임.)
22211	쌍둥이	22211	쌍두~'이
22212	오줌	22212	오즈'물
22213	똥	22213	똥
22214	기저귀	22214	지저'구
22215	뉘다(排便)	22215	누엔'다
22216	방귀	22216	똥'편다(+구, +상향이중모음 '위'), 방'구는요세'지(+신)
22216-1	뀌다	22216-1	편'다(+상향이중모음 '위')
22217	구린내	22217	쿨'래
22218	구리다	22218	쿨'래난다
22219	포대기	22219	두데'기
22220	기지개	22220	지'이'지게
22220-1	기지개를 <u>켜다/하다/쓰다/펴다</u>	22220-1	지'지'게'를한다
22221	거짓말	22221	거'어'진말
22222	남부끄럽다	22222	남'사'시럽따
22223	겉쟁이	22223	검'내'는아'아들(+조?), 겉째~이라고 고(+신)

22224 불쌍하다
 22225 죄암죄암
 22226 곤지곤지
 22227 따로따로
 22228 도리도리
 22229 짹짹
 22230 부라부라
 22231 걸음마

 22232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22234 곤두박질
 22235 안기다
 22236 바람개비
 22237 호드기
 22238 숨바꼭질
 22239 소꿉놀이
 22240 사금파리
 22241 연
 22241-1 방패연
 22241-2 가오리연
 22242 걸리다
 22243 고누
 22244 땅뵈기
 22245 팽이
 22246 딱지치기
 22247 구슬
 22248 그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22249 밀신개
 22250 굴렁쇠
 22251 굴리다
 22251-0-1 -고
 22251-0-2 -어야
 22252 자전거
 22253 목말

22224 불상하다
 22225 쪼막쪼마'
 22226 진진
 22227 따'로'따'로'
 22228 보리도리
 22229 짹짜꾸~'이
 22230 불미:불미
 22231 거름'마(+보조제보자는 '거름바'형으
 로 실현됨.)
 22232 아장'아'장'
 22233 잡'빠진다
 22234 꼬우두반'친다
 22235 양게'엔다
 22236 팔링게'비
 22237 흘떼'기
 22238 숨바꼭'절
 22239 동두께'비
 22240 살금파'리
 22241 연
 22241-1 *
 22241-2 가'오리연
 22242 걸렐'따
 22243 끈'뜬다
 22244 땅'따'떡'기다
 22245 빼~'이, 폐~'이라그지(+신)
 22246 뻘찌'치기
 22247 구'술
 22248 군디'
 22248-1 군디떠'고일따
 22249 군디'신
 22250 굴룽'세라그는데(+신), 동테'(+구)
 22251 구분'다
 22251-0-1 구분'고
 22251-0-2 구분'다(+조?)
 22252 자정'거'(+확인 의문문임.)
 22253 꼬'께'

22254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22256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22256-2 송곳
 22257 업살
 22257-1 (업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22258 부아

22254 말'타기한다
 22255 *
 22256 수겔'또
 22256-1 으'름탄다
 22256-2 수게'또창'
 22257 엉그름'
 22257-1 피'운다
 22258 붕'에'

2.8. 친족

22301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22302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22303 할아버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22304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22305 남편

22305-1 남편(호칭)

22306 아내

22306-1 아내(호칭)

22307 형

22307-1 형(호칭)

22308 아우

22301 아'배
 22301-1 아'배요(+구), 아부'지요(+신)
 22302 어매'
 22302-1 어'매'요
 22303 하라버지(+신), 할'배(+구)
 22303-1 할베요
 22304 할'매'
 22304-1 할'매'요
 22305 실랑(+결혼 초기), 아'무'꺼시아부'지
 (+아이를 낳았을 때), 영감이다(+늙었을 때)
 22305-1 아'무'꺼시아부'지요(+아이를 낳았을 때)
 22306 각'시(+젊을 때), 내'자'라고도(+존),
 섹'시다(+흔레를 치르는 때나 '새색시'의 의미임.), 안'사'라'미다꼬(+중년에 쓰는 말), 할마'이다(+늙었을 때)
 22306-1 할마~이
 22307 백'시'
 22307-1 형'님(+자라서 부르는 경우이며, 어릴 때는 이름을 부름.), 히'야(+유년 시절)
 22308 다'음똥상, 아'우'라카능그는(+남이

22308-1 아우(호칭)	물으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함.)
	22308-1 이름(+결혼 전에는 보통 이름을 부른다고 함.), 자네'라든지(+결혼 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테'꼬'르부르지여(+결혼 후에는 보통 택호를 부른다고 함.)
22309 누나	22309 누'나(+신), 눈'님(+구)
22309-1 누나(호칭)	22309-1 누'나(+신), 눈'님(+구)
22310 누이	22310 여'동사~'이다, 여'동상, 여'동상이찌
22310-1 누이(호칭)	22310-1 신서망떠'이라든지(+기혼일 경우), 이'르를 은제 부르고(+미혼일 경우), 이름(+이름을 부름.)
22311 자식	22311 자시'기다
22312 맏아들	22312 마'지(+다), 맏'아들도씨'지마는(+소)
22313 막내	22313 망네~'이
22314 오라버니	22314 뱅'남'
22314-1 오라버니(호칭)	22314-1 오'라'베
22315 오빠	22315 오'라'베
22315-1 오빠(호칭)	22315-1 오'라'베요
22316 언니	22316 언'니라구(+신), 형'니미다(+구)
22316-1 언니(호칭)	22316-1 형'님(+구), 히'야(+유년 시절), 언'나라뀐(+신)
22317 아버지	22317 아'드리다
22317-1 아버지(호칭)	22317-1 애'비야(+장가를 가서 애를 낳은 후에 부르는 명칭이며, 그 전에는 이름을 부르는 게 일반적임.)
22318 어머니	22318 매'늘
22318-1 어머니(호칭)	22318-1 세'사'라마, 에'미'야(+애기가 있을 경우)
22319 손자	22319 손'자
22320 손녀	22320 손'녀
22321 사위	22321 만사'우다(+만사위다라는 의미임.)
22321-1 사위(호칭)	22321-1 김서방(+성과 서방을 합쳐서 부름.)
22322 외손자	22322 위:손'자
22323 외손녀	22323 위:손'녀
22324 꾸짖다	22324 꾸지름한다(+신), 머'러근'다(+다), 야

22324-0-1 -고	아'단'친다(+구)
22324-1 나무라다	22324-0-1 머'러그'고
	22324-1 꾸'지'름'한다그는(+신), 나무래'앤
22325 총각	다(+소), 머'러그'다(+다), 흥'게'한다(+신)
22326 처녀	22325 총각
22327 혼인	22326 처'자
	22327 겨'론'시긴다그런데(+신), 시'집'장가
22327-1 혼인식	(+다), 호인'(+소)
22328 혼인 잔치	22327-1 흘'레식
22329 장가가다	22328 큰'일'잔치한다
22329-1 시집가다	22329 장'게'간다
22330 혼숫감	22329-1 시'직'간다
22331 함	22330 혼수'품'(+확인 의문문임.)
22332 겹사돈	22331 함:
22333 새색시	22332 겹사'돈
22333-1 새색시(호칭)	22333 세'세'테'기
22334 시아버지	22333-1 새'대'기'라불러여테지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4 시'아'버'지
22335 시어머니	22334-1 시'아'변'님
22335-1 시어머니(호칭)	22335 시'어'머'니다
22336 비위	22335-1 시'어'면'님'뇨
22337 아주버니	22336 비우'
22337-1 아주버니(호칭)	22337 시'아'즈'변'님
22338 서방님	22337-1 시'아즈'변'님
22338-1 서방님(호칭)	22338 시동상
22339 도련님	22338-1 아즈베'엠
22339-1 도련님(호칭)	22339 시'동'사~이
	22339-1 데'련님'뇨, 아즈뵤'(+장가를 안 간
22340 형님	나이가 있는 시동생)
22340-1 형님(호칭)	22340 동'서
22341 시누이	22340-1 형'님
2341-1 시누이(호칭)	22341 시'이'누
22341-2 아가씨	22341-1 예'엑'시'야
22341-3 아가씨(호칭)	22341-2 시'누
22342 올케	22341-3 엑'시'
	22342 동사'댁(+구), 올'케'라그는데(+신)

22342-1	올케(호칭)	22342-1	세데'가
22343	매형	22343	새'형'님
22343-1	매형(호칭)	22343-1	매영'카는테(+신), 새형'님'뇨(+구), 자영'(+신)
22344	매제	22344	제'에'메
22344-1	매제(호칭)	22344-1	신서'방(+성과 서방을 합쳐서 부 름.)
22345	큰아버지	22345	백'뿌'어른(+소, +확인의문문임.), 큰' 아'베(+다)
22345-1	큰아버지(호칭)	22345-1	백'뿌'어른(+소), 큰'아'베(+다)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22345-2	자근아'베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22345-3	자근아'베
22346	큰어머니	22346	큰'으'메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1	큰'으'메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22346-2	자그'으메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22346-3	자그'으메
22347	큰집	22347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22348	삼'촌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22348-1	짜근아'베
22349	작은어머니	22349	숭'모, 숭'몬'니미다(+존)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49-1	숭'몬'님
22350	삼촌	22350	삼'촌, 삼'촌님'(+존)
22350-1	삼촌(호칭)	22350-1	삼'촌요요'
22351	아저씨	22351	당순님(+존), 오촌, 오촌아'제
22351-1	아저씨(호칭)	22351-1	아제'요
22352	아주머니	22352	중'숭모, 중'숭문님(+존)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2-1	숭'모'
22353	조카	22353	생'질'
22354	조카딸	22354	생'질'여'
22355	고모	22355	고'모, 고'몬님'(+존)
22355-1	고모(호칭)	22355-1	고'모요(+고'모라고도 부름.)
22356	고모부	22356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22356-1	고'모분님(+성년), 고'모분님(+유 년), 고모아'제(+유년, +소)
22357	고종	22357	고'종사촌, 고종
22358	이모	22358	이'모, 이'몬님'(+존)

22358-1 이모(호칭)	22358-1 이'모요(+이'모라고도 부름.)
22359 이모부	22359 이'모부, 이'모분님(+존)
22359-1 이모부(호칭)	22359-1 아'제요(+소), 이'모부요
22360 이종	22360 이'조~이다, 이'종사촌
22361 외삼촌	22361 위'삼'촌(+상향이중모음 '위')
22361-1 외삼촌(호칭)	22361-1 위'아'제(+다)
22362 외숙모	22362 위'숭'몬'님(+존, 상향이중모음 '위'), 위'아'지'매(+상향이중모음 '위')
22362-1 외숙모(호칭)	22362-1 위'아'지'매
22363 외종	22363 웨'사'촌(+위사촌으로도 발음함.)
22364 외할아버지	22364 웨'할벤님'(+존), 위'이'할베(+상향이 중모음 '위')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22364-1 웨'할베, 웨 할베요마저(+존)
22365 외할머니	22365 위할맨님(+존, +상향이중모음 '위')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5-1 위할매(+상향이중모음 '위')
22366 장인	22366 자~'인'어른
22366-1 장인(호칭)	22366-1 자~'인'어른
22367 장모	22367 장'모(+장'몬님'이라기 고 함.)
22367-1 장모(호칭)	22367-1 장'몬님'(+존)
22368 처남	22368 만처남'(+첫째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22368-1 처남'님뇨'(+나보다 나이가 많을 때), 처남(+나보다 나이가 적을 때)
22369 처남댁	22369 처나'암댁, 처나'암댁님(+존)
22369-1 처남댁(호칭)	22369-1 처나'암댁님뇨
22370 홀아버	22370 호부레'비'(+확인의문문임.)
22371 홀어미	22371 과'부'(+확인의문문임.)
22372 계모	22372 세어메(+확인의문문임.)
22372-1 계부	22372-1 *
22373 아저씨	22373 화페'어른(+택호와 어른을 합쳐서 사 용함.)
22373-1 아저씨(호칭)	22373-1 화페'어른뇨(+택호와 어른을 합쳐 서 사용함.)
22374 아주머니	22374 남산대'기(+택호와 어른을 합쳐서 사 용함.)
22374-1 아주머니(호칭)	22374-1 남산대'기요(+택호와 어른을 합쳐 서 사용함.)

22375 사나이
 22376 영감
 22376-1 할망구
 22377 나이
 22377-0-1 -를
 22378 환갑
 22378-1 환갑 잔치
 22379 사투리

22375 자양'수다
 22376 여'보'카고(+다), 영'감(+소), 영감제~
 이(+비칭)
 22376-1 할마~이
 22377 나'명'는'다
 22377-0-1 나'를'
 22378 하'양'가'비르
 22378-1 잔치'한다그고, 향'갑'잔치'라그고'
 22379 사'투'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2 민물고기
 22403 피라미
 22404 지느러미
 22405 아가미
 22406 창자
 22407 송사리
 22408 헤엄
 22409 메기
 22410 자라
 22411 거북
 22412 미꾸라지
 22413 개구리
 22414 올챙이
 22415 두꺼비
 22416 거머리
 22417 다슬기
 22418 우렁이

22401 물꼬'기자'벌파
 22402 맹물꼬'기르카'기도하'고
 22403 참:피'리
 22404 날개'(+보조제보자의 발화형, +지느
 러미형에 대응되는 형), 지느러'미
 22405 아가'미
 22406 창'지'라근데
 22407 종미'리
 22408 휘'미친다
 22409 미'이기
 22410 자래'
 22411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22413 깨'구리, 딱'깨'구리
 22414 흘채~'이
 22415 두께'비
 22416 거'어'머리
 22417 골베~'이
 22418 *

22419	고등	22419	고디~'이(+소), 모꼴'베~'이라그른데
22420	달팽이	22420	달페~'이
22421	새우	22421	세'우, 징기'미라구(+보조제보자의 실현형)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1	세'우, 징기'미라케(+보조제보자의 실현형)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2	세'우라그데, 징기'미라(보조제보자의 실현형)
22421-3	새우(바다 대)	22421-3	세'우리
22422-4	새우(바다 소)	22421-4	세'우디카'지(+새우다카지의 발음 실수임.)
22422	새우젓	22422	세'우전
22422-0-1	-이	22422-0-1	세'우저들, 세'우저지
22423	가재	22423	까'아'제
22424	갈치	22424	칼'치'
22425	고등어	22425	고:테~'
22426	가오리	22426	가'우리
22427	가자미	22427	까잠'
22428	멸치	22428	메렐'치
22429	명태	22429	멩'테
22429-1	동태	22429-1	도웅'테
22429-2	황태	22429-2	멩'테다
22429-3	노가리	22429-3	노가'리
22429-4	복어	22429-4	멩'테라
22429-5	생태	22429-5	생'테
22430	조기	22430	조'기
22431	도미	22431	도'미
22432	뱀장어	22432	베미자~'우
22433	낙시	22433	낙'시'(+마늘만을 가리킴.)
22434	미끼	22434	메'끼
22435	낙싯대	22435	낙'스'페
22436	얼레	22436	*
22437	조개	22437	조개'
22438	소라	22438	소라'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1	벌거'지
22502	날벌레	22502	날:벌거'지(+소, +제?)
22503	파리	22503	파레~'이
22503-1	쉬파리	22503-1	똥'파레~'이
22504	쉬슬다	22504	구'우'데기씨'러따
22505	가시	22505	구'우'데기(+구더기형과 차이가 나타 나지 않으며 뜻도 같음.)
22506	진딧물	22506	똥물'(+구), 진딧'무르그라는데(+신)
22506-1	(진딧물이) <u>끼다/얹다/생기다</u>	22506-1	뜨물찌'이따(+보조제보자), 똥물지' 이따
22507	잠자리	22507	치'이'레~이, 칠'베~이(+보조제보자)
22508	방아깨비	22508	황글레
22508-1	암컷	22508-1	황글레'고
22508-2	수컷	22508-2	떼떼떼떼'기라고
22509	메뚜기	22509	나랑메떼'기
22510	여치	22510	말'메요~'이(+확인의문문임.), 보리메 요~'이, 예:치, 참'메요~'이라근다
22511	사마귀	22511	버마제'비도(+소), 사:마구(+다)
22512	벌	22512	버'어'리
22512-1	(벌을) <u>치다/기르다/키우다</u>	22512-1	키'운다
22513	땅벌	22513	구물'땡뻘
22514	나비	22514	나'비, 범'나비(+다), 호'랑나비(+소)
22515	하루살이	22515	하리사'리
22516	풍뎅이	22516	무'우'당, 무'우'당이'시드
22517	모기	22517	모구
22518	장구벌레	22518	갈'구'세~이
22519	매미	22519	메:요~'이
22520	개똥벌레	22520	개똥벌'게
22521	반딧불	22521	개똥'불(+구), 반디'뿌르(+신)
22522	거미	22522	거'무
22523	굼벵이	22523	구'움베~이
22524	구더기	22524	구'우'데기
22525	노래기	22525	노랑각'시
22526	그리마	22526	기'림'자

22527	지네	22527	지'네
22528	개미	22528	개:미
22529	바구미	22529	바'아'게미
22530	진드기	22530	부던'지
22531	벼룩	22531	베'레기
22532	이	22532	이'가'
22532-1	서캐	22532-1	썰'기'
22532-2	빈대	22532-2	빈테'
22533	송충이	22533	소남벌'거지라고(+구), 송추~'이라카 고(+신)
22534	귀뚜라미	22534	뀌따라'미(+상향이중모음 '위')
22535	누에	22535	누'에
22536	고치	22536	꼰'치
22537	번데기	22537	꼰테'기
22538	지렁이	22538	끄얼'퀘~이, 거'세~이(+신)
22539	회충(蛔蟲)	22539	끄어퀘~'이(+보조제보자), 헤충'(+신)
22540	소금쟁이	22540	열째~'이
22541	망개	22541	물방'구

2.9.3. 가축

22601	가축	22601	짐승'이라 그래뜨시폰데
22602	암소	22602	암'소'
22603	송아지	22603	소안'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4	워'어미
22605	황소	22605	황'소'
22606	길들이다	22606	지'를 드려야텐'다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22606-1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22606-2	워::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라)	22606-3	*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라)	22606-4	어'테'어'테'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22606-5	물'러:물'러
22607	쇠고기	22607	세'에'고기, 소'고기라카'는데(+신)
22608	고기(肉)	22608	고'기
22609	둘치	22609	들'짜:

22610	꼬리	22610	꼬'리라 그는데, 꿩'지
22611	망아지	22611	망'가지
22612	당나귀	22612	당'나구
22613	갈기	22613	*
22614	돼지	22614	데'에'지
22614-1	멧돼지	22614-1	산떼'에지
22615	주둥이	22615	주디~'이
22616	돼지 머리	22616	데'지데'가리(+제사용과 식용의 구별 이 없음.)
22617	돼지우리	22617	데지우'리
22617-1	오래오래	22617-1	꿀'꿀'꿀'
22618	개(犬)	22618	게:
22618-1	수캐	22618-1	수'께:
22618-2	암캐	22618-2	암'께
22619	강아지	22619	강'안'지
22620	염소	22620	염:세'
22621	고양이	22621	고'야~이, 고네~'이라끄는(+신, +소)
22621-1	수고양이	22621-1	순'고야~이
22621-2	암고양이	22621-2	암'고야~이
22622	토끼	22622	토'꾸:(+신), 토께~'이(+다, +구)
22623	거위(鵞)	22623	기'우
22624	암탉	22624	암'달'
22625	병아리	22625	빼'야::리
22626	모으다	22626	모'은다
22627	수탉	22627	장딸'
22627-0-1	-이	22627-0-1	장딸'기 운다
22628	벼슬(鷄冠)	22628	달구베'실
22629	부리	22629	주데~'이(+다), 주두~'이(+소), 주디~' 이(+구, +소)
22630	모이	22630	모이'
22630-0-1	-을	22630-0-1	모이'를' 준'다
22630-1	모이다	22630-1	모이인'다
22631	닭털	22631	달터'리
22632	닭똥	22632	달구똥'
22633	어리	22633	달구둥'주리(+ '어리'와 '둥우리'의 구 별이 안 됨.)

22634 닭장
22635 등우리
22636 날개
22637 깃
22637-0-1 -을

22634 달집'
22635 달구둥'지리
22636 날'개
22637 기'터'리
22637-0-1 기터'리를'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를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22715 박쥐
22716 거꾸로
22717 다람쥐
22718 새(鳥)
22719 꿩지
22720 솔개
22721 독수리
22722 제비(燕)
22723 두루미
22724 소쩍새
22725 꿩

22701 범:(+고), 호:레~'이
22702 살'개~'이
22703 예'수
22704 원:세~이, 잔'네비띠'
22705 사'슴
22706 놀:게~'이
22706-0-1 놀:게~'이가
22706-0-2 놀:게~일
22707 고'슴도'치
22708 다'지기
22709 족찌'비
22710 구'우리, 배'미
22711 도'움'배'미
22712 능'구:리
22713 살'모세는
22714 세'끼지다, 세'양'지다(+다)
22715 뿔:찌다
22716 까'꿀로
22717 다람'지
22718 날'짐'승', 세'가
22719 꼬'랑데기다
22720 똥'장괘~이
22721 독'수리
22722 껌:비
22723 항:세
22724 소' 짹세
22725 꿩'

22726 장끼
 22727 까투리
 22727-1 꺼병이
 22728 종달새
 22729 빠꾸기
 22730 기러기
 22731 뜸부기
 22732 올빼미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5 텃

 22735-0-1 -을
 22736 올가미

22726 수'꽁, 쟁'끼(+다)
 22727 까'치꽁, 암'꽁이라그기도 하고
 22727-1 꿈'빼'아'리, 꿈'빼'아'리
 22728 종'달새
 22729 뿌'꽁세
 22730 기'리:기
 22731 무달'
 22732 오'베미
 22733 까:치, 까체~'이(+다, +구)
 22734 딱'따구리
 22735 꾀:차'께, 꾀'차께, 트'를', 틀'(+모든
 도구 즉, 텃을 가리킴.)
 22735-0-1 차'께를
 22736 몽'노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22803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22805 봉선화
 22806 파리

 22807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22809 시들다
 22810 질경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1 빨기

22801 진'달래라 그레(+신), 창꼰'(+구)
 22802 개:꼰(+철쭉의 뜻임.)
 22803 민'들레'
 22804 달구베'슬
 22805 봉'수나
 22806 파:리(+열매를 뜻함.), 팔:낭'기다(+식
 물 이름을 뜻함.)
 22807 해바라기
 22808 꾀:메'아리가
 22809 시드레저'따
 22810 뽕짱'우, 질:괘~'이카'기도 하고
 22810-1 뽕'장우
 22810-2 뽕'장우나물
 22811 따'이'

22812 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썸바귀
 22815 고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20 억새
 22821 갈대
 22822 이끼
 22823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22825 수세미
 22826 덩굴
 22827 덩불
 22827-1 가시덤불
 22828 잔디

22812 참'비듬
 22813 세'비듬
 22814 스'구세
 22815 꼬'질께, 신'방구라카나
 22815-1 꼬'질께
 22815-2 꼬'질께나'물이다
 22816 꼬'사:리
 22817 *
 22818 까'치바'늘
 22819 뚜:께'비찰'밥
 22820 세:, 으'복세(+신)
 22821 갈떼'
 22822 청떼'
 22823 피마'지
 22824 도:론
 22825 수세'미
 22826 *
 22827 듸불, 칠똥'부리 감'겨:따
 22827-1 까'시듸'불
 22828 떼'딴:지, 떼:

2.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2 솔방울
 22903 관솔
 22904 솔가리
 22905 그러모으다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8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22910 상수리

22901 소나무
 22902 솔뽕구'리
 22903 소까'지
 22904 갈비
 22905 끈'다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8 꿀'밤:, 도'트리라그지(+신, +도트리
 라고 그러지의 뜻임.)
 22909 떡'갈나무
 22910 꿀'밤:(+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꿀밤
 임.)

22911	웃	22911	온'진:
22911-0-1	-으로	22911-0-1	온'트로
22912	버드나무	22912	버더나'무
22913	느티나무	22913	느트나'무
22914	그림자	22914	그'늘'(+조?)
22914-1	그늘	22914-1	거'늘
22915	숲	22915	수'우
22915-0-1	-을	22915-0-1	수를',
22915-0-2	-에	22915-0-2	수'에
22916	시원하다	22916	시워'언'하다(+신), 시원'타(+구)
22917	철레	22917	철:레'나무
22918	촛	22918	촛기'이'
22918-0-1	-에	22918-0-1	촛'기'에
22919	가지(枝)	22919	가'지(+신), 가재~'이(+구)
22920	끝	22920	꼬'치다, 끝'
22920-0-1	-이	22920-0-1	꼬'치
22920-0-2	-에	22920-0-2	꼬'테
22920-0-3	-을	22920-0-3	꼬틀'
22921	삭정이	22921	가재~'이(+살아있든 죽었든 모두 같은 어형이라고 함.)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22921-1	딴'다
22922	나무	22922	나무, 나무해온다
22922-0-1	-을	22922-0-1	낭'글(+구), 소나무를'(+신)
22922-0-2	-에	22922-0-2	나무에(+신), 낭'게
22923	나무하다	22923	나무'하'러 간다(+신), 낭'글하'러 간다(+구)
22924	그루터기	22924	미똥'치(+굵은나무를 뜻함.)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22924-1	끝떼'기(+가는 나무도 해당됨.)
22925	등걸	22925	동가'리(+가는 나무 또는 길이를 짧게 자른 나무), 뚝베'기(+굵고 큰 나무)
22926	장작	22926	똥그'리
22927	꽤다	22927	깨'엔'다
22928	부스러기	22928	뿌시레'기라 그지(+술가지 등의 부스러기도 포함됨. +제?)
22929	숯	22929	수경'
22929-0-1	-이	22929-0-1	수꺼~'이

22929-0-2 -을
 22929-0-3 -에
 22930 불잉걸
 22931 씹

 22932 앞
 22932-0-1 -을
 22932-1 앞사귀
 22933 가랑잎
 22934 뿌리

22929-0-2 수경'얼
 22929-0-3 수경'에
 22930 알'불
 22931 씹'기(+나무의 줄기 나는 경우), 초
 기(+곡식의 씨앗에서 나는 경우)
 22932 이프'리
 22932-0-1 이프'리를
 22932-1 입사'구(+신, +소)
 22933 푸까랑'입(+갈입형은 없음.)
 22934 뿌레'기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2 돌배
 23003 복숭아
 23004 꽃감
 23005 홍시
 23006 고욤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0 오얏
 23010-0-1 -을
 23011 석류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4 꼭지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2 풋밤
 23015-3 알밤
 23015-4 쌍둥밤
 23016 보늬

23001 능금(+구), 사'과(+신)
 23002 돌'배
 23003 봉'사~이라 그제, 뽕'상(+구)
 23004 꼬:감'
 23005 홍'시감, 홍'시라카지
 23006 고:욤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0 오약'
 23010-0-1 오약을
 23011 성'유
 23012 모:게
 23013 과::실
 23014 꼭'찌
 23015 밤:
 23015-1 밤소~'이
 23015-2 푸'른밤
 23015-3 알'바미다
 23015-4 쌍'두~이밤
 23016 버물, 보'네라 그러(+보조제보자의
 발화형임.)

23017	호두	23017	추'자, 호도라 그제(+신)
23018	가래(楸子)	23018	*
23019	개암	23019	깨'소곰, 깨금'
23020	머루	23020	덜구'
23021	다래	23021	다레'
23022	칭미래덩굴	23022	고무딸:
23023	으름	23023	어'름
23024	참외	23024	참웨'에', 참위:(+상향이중모음으로 실현됨.)
23025	딸기	23025	딸: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1	양'딸: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2	*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3	*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4	베:미딸'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5	*
23025-6	딸기(산, 야생)	23025-6	나무딸'
23026	뱀딸기	23026	이'게베미따'라
23027	마름(菱)	23027	*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1	산꼭두베'기(+다), 산데'베기다
23102	기슭	23102	산뻘'달
23102-0-1	-에	23102-0-1	산뻘'다레
23103	골짜기	23103	산꼴짝'
23104	메아리	23104	*
23105	고함	23105	과아'물
23105-1	(고함) <u>치다/지르다/하다</u>	23105-1	지린다
23106	묘	23106	미:
23107	뿔자리	23107	미:터'
23107-1	광중	23107-1	광'네

23108 구덩이
23109 비탈
23110 가파르다
23111 언덕
23112 낭떠러지

23113 들(野)
23113-0-1 -에
23114 벌
23115 갈림길

23116 헤어지다
23117 바위
23117-0-1 -을
23117-0-2 -에
23118 돌(石)
23118-0-1 -을
23118-0-2 -에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0-1 -를
23121 진흙
23121-1 찰흙

23108 구데~'이를'
23109 벤'달, 벤'달
23110 까'파르게텐데(+신), 깨끝말'다(+구)
23111 언더'그는, 언더'기다
23112 낭떠'르지, 들'기지, 벼'랑', 응터'기
력하고
23113 들:, 들:판(+신)
23113-0-1 들:게
23114 들:기
23115 갈'림길, 갈:림'찢(+신, +보조제보자
의 영향으로 실현된 것으로 말함.)
23116 헤'진다
23117 방'구
23117-0-1 방'구를
23117-0-2 방'구에
23118 돌:
23118-0-1 돌:글
23118-0-2 돌:게
23119 자갈'
23120 모'레(+신), 몰'게'미(++고)
23120-0-1 모레를(+신), 몰게'미를'(+고)
23121 진:흙'
23121-1 진:흙'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2 거품
23203 개운하다
23204 도랑
23204-1 봇도랑
23205 둑

23206 잠기다
23207 개울

23201 물:
23202 거'푸미
23203 깨빈'하다(+신), 서:원'하'다(+구)
23204 거'랑'(+또랑보다 폭이 넓음.)
23204-1 보또랑'
23205 바뚜'기(+발이 많은 환경적 영향, +
다), 제방'(+신), 천'바~'이다(+다, +구)
23206 잠게'따'
23207 거'라~'이라(+보또랑'이나 또랑보다

		는 넓지만 제보자의 경우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음.)
23208	내(川)	23208 거어'리다(+ '걸이다'형임.), 내:까'아도(+신), 큰'거랑'
23209	미역 감다	23209 모'요하'리 간다(+신), 목'까'쁘러 간다(+구)
23210	발가숭이	23210 빨가두~'이
23211	목욕하다	23211 몽'물'한다(+ '미역 감다'형과 구별됨.)
23212	수채	23212 물:구'영
23213	개골창	23213 도랑'
23214	시궁창	23214 *
23215	웅덩이	23215 구데~'이(+구, 일반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웅덩이의 개념으로도 사용함.), 물꾸'데~'이(+구, 물이 찬 곳), 웅'디~'이(+신)
23216	수렁	23216 친구'데' 빠'저따
23217	늪	23217 친구'데~'이다
23217-0-1	-에	23217-0-1 친구데'
23218	배(船)	23218 배:
23219	나루터	23219 나루'터'
23220	돛	23220 돛'
23220-0-1	-에	23220-0-1 도테'에':
23221	돛대	23221 *
23222	돛배	23222 도'판배:다
23223	돛 줄	23223 *
23224	돛 줄	23224 *
23225	거루	23225 나루륜'배'
23226	상앗대	23226 *
23227	개(필)	23227 게빨'
23228	물	23228 *
23228-0-1	-으로	23228-0-1 *
23229	밀물	23229 밀'물(+썰물과 개념이 헷갈려서 정확히 잘 모름.)
23230	썰물	23230 썰'물(+밀물과 헷갈려서 정확히 잘 모름.)

23231 가라앉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23231 까'라안는다
23232 거'물
23233 해에'녀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설빏하다
23308 노을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23310 해거름
23311 땅거미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위

23315 추위
23316 가을
23316-0-1 -에
23317 겨울
23317-0-1 -에
23318 얼음
23319 오늘
23320 내일
23321 모레
23322 글피
23323 그글피
23324 어제

23301 세'복
23302 세'복밥
23303 아치'메, 아침나'절(+아침 시간 주위를 가리킴.)
23304 아침'뺨'
23305 저영'심
23306 저녁'
23307 슬푸'웃:'하'다
23308 뽕'썰
23308-0-1 뽕'썰'를 보'고이따
23309 뽕뚜구리하'자네
23310 해거'름'
23311 어덟사'리가 든'다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우가 오레간'다(+제보자가 신형인 더위와 헛갈림.)
23315 추'부가
23316 가을'
23316-0-1 가을'게'
23317 겨'울
23317-0-1 겨울에
23318 어'러미
23319 오'늘
23320 네'일
23321 모:레
23322 거'모레
23323 *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5	거저'께:
23326	그그저께	23326	*
23327	훗날	23327	*
23328	하룻날	23328	초하'룻날'
23329	이튿날	23329	초이'튼'날
23330	사흘날	23330	초사'알
23331	나흘날	23331	초나'알
23332	닷셋날	23332	초다'세
23333	엿셋날	23333	초여'세'
23334	이렛날	23334	초이'레
23335	여드렛날	23335	초여'드레
23336	아흐렛날	23336	초아'흐'레
23337	열흘날	23337	초여'얼'
23338	하루	23338	하'루
23339	이틀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0	사'알
23341	나흘	23341	나'알
23342	닷새	23342	다'세
23343	엿새	23343	여'세
23344	이레	23344	이'레
23345	여드레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6	아'흐레
23347	열흘	23347	여'럴
23348	한나절	23348	한'나'절'헤'따
23348-1	반나절	23348-1	반:나'절(+반나절의 의미로 사용했 지만 한나절의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함. + 조?)
23349	그믐	23349	그'문날
23349-1	그믐께	23349-1	그문저'어'께
23350	지금	23350	지금
23351	아직	23351	안'주
23352	이제	23352	인제'에::(+비 정상적으로 길어진 형 태임.)
23353	이미	23353	벌서
23354	요즈음	23354	오세
23355	금방	23355	금'방(+신), 쫓'끔저'네(+구, +다)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	베'테'
23401-0-1	-이	23401-0-1	베'치
23401-0-2	-을	23401-0-2	벤틀'
23402	따스하다	23402	따시'다
23403	아지랑이	23403	아지레~'이
23404	응달	23404	거라'~아간다(+처소격 조사와 결합형.), 음'다리(+신, +조?), 음'지(+구, +다, +조?)
23405	양달	23405	양'지
23406	비(雨)	23406	비빠~'우리
23407	가랑비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09	안:개
23410	논개	23410	*
23411	무지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2	소넝'기
23413	갑자기	23413	가'악'쭈'에
23414	홍수	23414	물'랄리만네'따(+집이 떠나려 가서 피해를 입은 것을 뜻함.), 수에다아'따(+들판이 떠나려 가는 것을 뜻함.), 홍'수가나'따(+물이 많이 내려가는 것을 뜻함.)
23415	번개	23415	븐들'개
23416	천둥	23416	천'동
23417	벼락	23417	베'락
23418	무섭다	23418	무습'따
23419	함박눈	23419	함방'눈
23420	싸락눈	23420	싸'랑'눈
23421	발자국	23421	발'짜죽
23422	진눈깨비	23422	진'가'리누~이'라칸'다
23423	우박	23423	우:박'
23424	고드름	23424	고드'름
23425	햇무리	23425	헨:물'
23426	달무리	23426	달'물
23427	둥글다	23427	똥그'라'타

23428	은하수	23428	은나'수
23429	금성	23429	세벽별'
23430	가뭄	23430	가뭄'(+가뭄형은 사용하지 않음.)
23431	마르다	23431	마린'다
23431-0-1	-어서	23431-0-1	말'러서
23432	위	23432	머'리 우'이다, 머'리우:'
23433	아래	23433	미'테(+구, +다), 아레엔'똥'네(+신)
23434	왼쪽	23434	웬:쪽'
23435	오른쪽	23435	오른쪽'(+바른쪽형은 실현되지 않음.)
23436	결	23436	*
23436-0-1	-에	23436-0-1	여'페
23437	회오리바람	23437	돌게빠'람
23438	북풍	23438	북'서풍'
23439	남풍	23439	가을:바'람, 남'서풍'
23440	동풍	23440	세'빠'람
23441	서풍	23441	하'느바'람

- =2 검:버'섯(노인의 검은 점.)
- =2 고로'따(+ 좀더 시든 상태가 심한 경우)
- =2 과~'에아이껴(+ 광어를 뜻함.)
- =2 구'릉
- =2 구'술치기(+ 놀이 이름)
- =2 구무라근다(+ 구멍, + 이 어휘에 대해 제보자가 조금은 혼란스러워 함.)
- =2 깍'짜
- =2 꼬'께'한다
- =2 꼬'꼴'(+ 나무를 재료로 사용)
- =2 꿀수꾸'라 그래따(+ 줄기가 빨리 꺾어지는 종)
- =2 낙'수주리라카기도하고
- =2 날'다람지(+ 구, + 청설모를 뜻함.)
- =2 담배과~이다(+ 새로 나온 팽이)
- =2 더보~'오':(+ 덩노형임.)
- =2 데래'끼(+ 찌리나무로 만들어 허리에 차고 다니며 물건을 담을 수 있게 만든 것.)
- =2 독'세'
- =2 드'들포'(+ 그림 319의 덧3에 해당함.)
- =2 들'뽕승이다
- =2 등'잔(+ 호랑을 엮어 쓸 수 있게 만든 도구)
- =2 뚝'뽕들

=2 떠'이'
 =2 메'빵'서'근(+ 짚으로 둥글게 만든 것.)
 =2 메마'리(장다리무에 달린 씨)
 =2 모태'+ 후미진 즉, 안 보이는 곳)
 =2 물오리(+ 기러기보다 체구가 작음.)
 =2 미별'+ 묘가 많이 있는 곳을 뜻함.)
 =2 미주구리(+ 물가자미의 일본계 외래어임.)
 =2 바'다고끼라그지(+ 바다에 사는 물고기)
 =2 발'자'치면'다(+ 어린애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
 =2 발짜'치면다(+ 걸음을 처음 시작할 때)
 =2 보'치미(+ 참나무의 한 종류임.)
 =2 보'탕(+ 장작을 켤 때 도끼의 받침대 나무를 뜻함.)
 =2 보'탕씨'레기(+ 도끼 받침대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를 뜻함.)
 =2 봉'승(+ 묘의 봉분을 뜻함.)
 =2 봉세기든지(+ 짚으로 만든 것임.)
 =2 비단깨'구리
 =2 빠'진다(+ 해나 달이 지는 것을 의미함.)
 =2 사'소(+ 상의에 입는 내의)
 =2 산'점'승이라가
 =2 산게'골(+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을 뜻함.)
 =2 삼'발
 =2 세'메(+ 새를 잡아 먹으며 매보다 작다고 함.)
 =2 생'감(+ 익지 않은 감을 뜻함.)
 =2 소이까'리(+ 손으로 잡아꿀 수 있도록 길게 만든 줄, '소'를 '쇠'나 '세'등으로 발음함.)
 =2 수'채'구'영이다(+ 마구에 오줌을 받는 곳)
 =2 수레'탕(+ 미꾸라지와 메기를 넣어 끓인 추어탕)
 =2 수양'버덜
 =2 시게뽕'상(+ 돌복숭아로 신맛이 강해서 붙여진 이름임, + 보조제보자는 '시레뽕상'이라고 발음함.)
 =2 실:뽕구'리다(+ 실을 감아두는 도구)
 =2 실꾸'리(+ 실을 감아두는 도구)
 =2 싸'굽하지요(+ 쓰다라는 뜻임.)
 =2 썩:뻬'기(+ 썩은 그루터기를 뜻함.)
 =2 아시본'다'도'+ 신)
 =2 안개가찌'따(+ 안개가 끼었다의 표현임.)
 =2 알토:'~이라 그라고
 =2 약'과~이(+ 약초 캐는데 쓰는 괄이)
 =2 온치'레'+ 옷칠을 한 것.)
 =2 웅각(+ 관을 덮는 덮개)
 =2 접'시'뿌리라고 해야지 마찌 접따(+ 접시에 기름을 담아 사용)
 =2 중'참(+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음식)

=2 중허'리
 =2 지일'배(+ 산능금을 뜻함.)
 =2 지칭'구
 =2 집 빼까'리(+ 짚가리를 말함.)
 =2 짱충배기(+ 발이 아프지 않게 곱게 삼은 신)
 =2 찌'이'따(+ 눈곱이 끼다형임.)
 =2 차'암'이라카고(+ 새참과 중참을 합쳐서 부르는 말)
 =2 차'암나무라 카른(+ 떡갈나무, 보치미 나무를 모두 참나무라고 함.)
 =2 창'꾼나무
 =2 청'깨'구리
 =2 청'주
 =2 청살'피(+ 신, + 청설모를 뜻함.)
 =2 체운다(+ '붕'에'체운다'는 '부아나게한다'형에 대응되는 예임.)
 =2 초'룽'(+ 외출시 들고다니는 조명 도구)
 =2 초뿔'로(초)
 =2 추'막(+ 마루의 끝부분)
 =2 팽'대~'이
 =2 팽데~'이'이찌(+ 무'우'당 벌레보다 크기가 큼.)
 =2 풀'똥(+ 쑥이나 풀 등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작은 돌을 뜻함.)
 =2 혼'과~'이라그르데(+ 아주 작은 모양으로 좁은 곳에 사용함.)
 =2 후우'양'카능거는(+ 갓을 쓸 때 날씨가 추워서 춥지 않으라고 목에 쓰는 것으로서 갓 안에 씌.)



제3편 음운

3.1. 음운 체계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1	테'가아'(+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1-0-2	테(輪)-보다	31001-0-2	테보다'(+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2-0-1	태(胎)-이/가	31002-0-1	태'가(+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2-0-2	태(胎)-보다	31002-0-2	태보다'(+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3-0-1	떼(群)-이/가	31003-0-1	떼가'(+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3-0-2	떼(群)-보다	31003-0-2	떼:보다'(+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4-0-1	때(時)-이/가	31004-0-1	때가(+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4-0-2	때(時)-보다	31004-0-2	때보다(+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5-0-1	틀(機)-이/가	31005-0-1	터리'(+이 지역에서는 '으'와 '어'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5-0-2	틀(機)-보다	31005-0-2	틀보다
31006-0-1	털(毛)-이/가	31006-0-1	터'리'(+이 지역에서는 '으'와 '어'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6-0-2	털(毛)-보다	31006-0-2	털보다'
31007-0-1	글(文)-이/가	31007-0-1	거'리'(+이 지역에서는 '으'와 '어'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7-0-2	글(文)-보다	31007-0-2	글보다
31008-0-1	걸(옷)-이/가	31008-0-1	거'리'(+이 지역에서는 '으'와 '어'의 변별 기능이 없음.)

31008-0-2	걸(𨮒)-보다	31008-0-2	거'얼'보'다'
31009-0-1	기(旗)-이/가	31008-0-1	기'가
31009-0-2	기(旗)-보다	31009-0-2	기보다'아
31010-0-1	귀(耳)-이/가	31010-0-1	귀'가'(+상향이중모음 '위')
31010-0-2	귀(耳)-보다	31010-0-2	귀보다'아(+상향이중모음 '위')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1	시'가
31011-0-2	시(生時)-보다	31011-0-2	시보다'
31012-0-1	쉬(蠅卵)-이/가	31012-0-1	시:가'아
31012-0-2	쉬(蠅卵)-보다	31012-0-2	시:보다'아
31013-0-1	쇠(鐵)-이/가	31013-0-1	썰'가'
31013-0-2	쇠(鐵)-보다	31013-0-2	썰보다'아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1	웨'국이'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4-0-2	웨국뽀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31015-0-1	웨국이이'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5-0-2	웨'국'뽀다'
31016-0-1	쉬:다(休)-이/가	31016	시'인다
31016-0-2	쉬:다(休)-보다		
31017-0-1	쇠:다(설을~)-이/가	31017	원'다(+상향이중모음 '위')
31017-0-2	쇠:다(설을~)-보다		
31018-0-1	베(布)-이/가	31018	삼'베'운(+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이 없음.)
31018-0-2	베(布)-보다		
31019-0-1	배(船)-이/가	31019	베(+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이 없음.)
31019-0-2	배(船)-보다		
31020-0-1	배(腹)-이/가	31020	베(+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

31020-0-2	배(腹)-보다	별이 없음.)
31021-0-1	(떡)메-이/가	31021 떡'메(+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별이 없음.)
31021-0-2	(떡)메-보다	
31022-0-1	매(鞭)-이/가	31022 매(+이 지역에서는 '에'와 '애'의 변 별이 없음.)
31022-0-2	매(鞭)-보다	
31023-0-1	메:다(擔)-이/가	31023 미인'다
31023-0-2	메:다(擔)-보다	
31024-0-1	매:다(繫)-이/가	31024 멘'다
31024-0-2	매:다(繫)-보다	
31025-0-1	떼:다(分離)-이/가	31025 떴다
31025-0-2	떼:다(分離)-보다	
31026-0-1	때:다(炊)-이/가	31026 툼'다
31026-0-2	때:다(炊)-보다	
31027-0-1	베:다(切斷)-이/가	31027 빈다
31027-0-2	베:다(切斷)-보다	
31028-0-1	배:다(孕胎)-이/가	31028 아'아'배따(+ '아이를 배었다'라는 의 미임.)
31028-0-2	배:다(孕胎)-보다	
31029-0-1	세:다(算)-이/가	31029 세엔'다
31029-0-2	세:다(算)-보다	
31030-0-1	새:다(漏泄)-이/가	31030 쉰다
31030-0-2	새:다(漏泄)-보다	
31031-0-1	뒤(後)-이/가	31031 디'
31031-0-2	뒤(後)-보다	
31032-0-1	되(升)-이/가	31032 한'테(+ '한 되'의 의미임.)

31032-0-2 되(升)-보다

31033-0-1 게:(蟹)-이/가

31033 기:

31033-0-2 게:(蟹)-보다

31034-0-1 개:(犬)-이/가

31034 개:

31034-0-2 개:(犬)-보다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1 여'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2 여'런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5-0-3 여'러슬'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1 물껴'리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2 물'꼴'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6-0-3 물껴'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1 예'이'이'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2 예'이'이'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7-0-3 예'이'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0-1 계'획:이'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2 계'획'보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8-0-3 계'획:글'

31039-0-1 규칙(規則)-이/가

31039-0-1 귀'칙이'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2 귀'칙'보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39-0-3 귀'칙을'(+상향이중모음 '위')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1 휴'이리'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2 휴'일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0-0-3 휴'이를'(+이 지역의 어형은 고
'일 형임.)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1 교통'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2	교통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1-0-3	교통을
31042-0-1	효:자(孝子)-이/가	31042-0-1	효자가'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2	효자보다'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2-0-3	효자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0-1	웬:니리'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2	웬닐보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3-0-3	웬'니를'
31044-0-1	궤:(짝)(櫃)-이/가	31044-0-1	궤짝이'(+이 지역은 기짝으로 실현됨.)
31044-0-2	궤:(짝)(櫃)-보다	31044-0-2	궤짝보다'
31044-0-3	궤:(짝)(櫃)-을/를	31044-0-3	궤짝을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1	왜'라:니'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2	왜'란보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5-0-3	왜'란을'
31046-0-1	헛대(鷄架)-이/가	31046-0-1	헛'때'가'
31046-0-2	헛대(鷄架)-보다	31046-0-2	헛'때'보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6-0-3	헛'때'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1	위'원'망이'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2	원'망뻔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7-0-3	원막을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1	거언'투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2	거언'투'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8-0-3	곤'투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1	으'으'노니'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2	으'으'논보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49-0-3	으'으'논을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0-0-1 무'니가'
 31050-0-2 무'니보다'
 31050-0-3 무'니를'

31051-0-1 왕(王)-이/가
 31051-0-2 왕(王)-보다
 31051-0-3 왕(王)-을/를

31051-0-1 와~'이가'
 31051-0-2 와~'이보다'
 31051-0-3 와~'이를'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52-0-1 과'자가'
 31052-0-2 과'자보다'
 31052-0-3 과'자를'

3.1.3. 장모음·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2 일(一)-보다

31053-0-1 이'리'
 31053-0-2 일'보다'

31054-0-1 일:(事)-이/가
 31054-0-2 일:(事)-보다

31054-0-1 이'이'리
 31054-0-2 이'일'보다'

31055-0-1 매(鞭)-이/가

31055-0-1 메가(+이 지역에는 '에'와 '애'가 변별되지 않음.)

31055-0-2 매(鞭)-보다

31055-0-2 메보다(+이 지역에는 '에'와 '애'가 변별되지 않음.)

31056-0-1 매:(驚)-이/가

31056-0-1 메'에'가(+이 지역에는 '에'와 '애'가 변별되지 않음.)

31056-0-2 매:(驚)-보다

31056-0-2 메'에'보다(+이 지역에는 '에'와 '애'가 변별되지 않음.)

31057-0-1 밤(夜)-이/가

31057-0-1 바미'

31057-0-2 밤(夜)-보다

31057-0-2 밤'보'다

31058-0-1 밤:(栗)-이/가

31058-0-1 바'아'미

31058-0-2 밤:(栗)-보다

31058-0-2 바'암'보다'

31059-0-1 눈(眼)-이/가

31059-0-1 누~우'이'

31059-0-2	눈(眼)-보다	31059-0-2	눈'보'다
31060-0-1	눈:(雪)-이/가	31060-0-1	누~우이'
31060-0-2	눈:(雪)-보다	31060-0-2	누운'보'다'
31061-0-1	말(馬)-이/가	31061-0-1	마'리
31061-0-2	말(馬)-보다	31061-0-2	말보'다'
31062-0-1	말(斗)-이/가	31062-0-1	마'리'
31062-0-2	말(斗)-보다	31062-0-2	말보다
31063-0-1	말:(言)-이/가	31063-0-1	마아'리
31063-0-2	말:(言)-보다	31063-0-2	말'보'다
31064-0-1	손(客)-이/가	31064-0-1	소~'이
31064-0-2	손(客)-보다	31064-0-2	손보다'아
31065-0-1	손(手)-이/가	31065-0-1	소오~'이
31065-0-2	손(手)-보다	31065-0-2	숨'보'다
31066-0-1	손:(孫)-이/가	31066-0-1	소~'이
31066-0-2	손:(孫)-보다	31066-0-2	손보다'아
31067-0-1	배(梨)-이/가	31067-0-1	배'가
31067-0-2	배(梨)-보다	31067-0-2	배보다'
31068-0-1	배:(倍)-이/가	31068-0-1	배'애'가'
31068-0-2	배:(倍)-보다	31068-0-2	배'애'보'다'
31069-0-1	벌(罰)-이/가	31069-0-1	버'어'리
31069-0-2	벌(罰)-보다	31069-0-2	벌'보'다'아
31070-0-1	벌:(蜂)-이/가	31070-0-1	버'어'리'
31070-0-2	벌:(蜂)-보다	31070-0-2	버'어'리'보담'
31071-0-1	솔(松)-이/가	31071-0-1	소'리'

31071-0-2	솔(松)-보다	31071-0-2	솔'보'다'아
31072-0-1	솔:(刷)-이/가	31072-0-1	소'오'리
31072-0-2	솔:(刷)-보다	31072-0-2	소'울'보'다'
31073-0-1	줄(鉉)-이/가	31073-0-1	주'리'
31073-0-2	줄(鉉)-보다	31073-0-2	줄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0-1	주'우'리'이
31074-0-2	줄:(연장)-보다	31074-0-2	주'울'보다
31075-0-1	돌:(石)-이/가	31075-0-1	돌'기'
31075-0-2	돌:(石)-보다	31075-0-2	도'울'보다'
31076-0-1	담(牆)-이/가	31076-0-1	다미
31076-0-2	담(牆)-보다	31076-0-1	다'미
31077-0-1	담:(膽)-이/가	31077-0-2	담'보'다'
31077-0-2	담:(膽)-보다	31077-0-2	담보다'아
31078-0-1	들:(野)-이/가	31078-0-1	드'으'리'
31078-0-2	들:(野)-보다	31078-0-2	드'을'보'다
31079-0-1	달-(懸)-고		
31079-0-1	달-(懸)-더라	31079-0-1	다'드'라
31080-0-1	달-(甘)-고		
31080-0-1	달-(甘)-더라	31080-0-1	다드'라
31081-0-1	달:-(熱)-고		
31081-0-1	달:-(熱)-더라	31081-0-1	다'러'뜨라
31082-0-1	갈-(換)-고		
31082-0-1	갈-(換)-더라	31082-0-1	갈'고'이뜨라
31083-0-1	갈-(磨)-고		

31083-0-1	갈-(磨)-더라	31083-0-1	갈고'오'이뜨라
31084-0-1	갈:-(耕)-고	31084-0-1	가'알'고'이따
31084-0-1	갈:-(耕)-더라		
31085-0-1	걷-(收)-고	31085-0-1	거'꼬이'따
31085-0-1	걷-(收)-더라		
31086-0-1	걷:-(步)-고	31086-0-1	거'어'꼬이'따
31086-0-1	걷:-(步)-더라		
31087-0-1	적-(書)-고	31087-0-1	저'꼬이'따
31087-0-1	적-(書)-더라	31087-0-1	적뜨'라
31088-0-1	적:-(小)-고		
31088-0-1	적:-(小)-더라	31088-0-1	저'억'뜨라

3.2. 음운 과정

3.2.1. 활용

1) 기초항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막'찌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막'꼬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막뜨'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마'그니까'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32001-0-5	마'갈따
32002-0-1	흐르-(流)[ㅡ]-지	32002-0-1	흐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32002-0-2	흐르'고
32002-0-3	흐르-(流)[ㅡ]-더라	32002-0-3	흐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32002-0-4	흐르'니까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32002-0-5	흘'르따

32003-0-1	오-(來)[ㄱ]-지	32003-0-1	오'지
32003-0-2	오-(來)[ㄱ]-고	32003-0-2	오'고
32003-0-3	오-(來)[ㄱ]-더라	32003-0-3	오'드'라
32003-0-4	오-(來)[ㄱ]-으니까	32003-0-4	오'니'까
32003-0-5	오-(來)[ㄱ]-아/어(왔/었다)	32003-0-5	왔따
32004-0-1	듣-(聞)[ㄷ 변]-지	32004-0-1	듣'찌
32004-0-2	듣-(聞)[ㄷ 변]-고	32004-0-2	듣'꼬
32004-0-3	듣-(聞)[ㄷ 변]-더라	32004-0-3	듣뜨'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32004-0-4	드른'니'까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32004-0-5	드'를따
32005-0-1	많:-(多)[ㄴᄇ]-지	32005-0-1	마'안'치
32005-0-2	많:-(多)[ㄴᄇ]-고	32005-0-2	마'양'코
32005-0-3	많:-(多)[ㄴᄇ]-더라	32005-0-3	마'안'트라
32005-0-4	많:-(多)[ㄴᄇ]-으니까	32005-0-4	마'아'느니'까
32005-0-5	많:-(多)[ㄴᄇ]-아/어(왔/었다)	32005-0-5	마'아'나따
32006-0-1	맡-(任)[ㅌ]-지	32006-0-1	맡'찌
32006-0-2	맡-(任)[ㅌ]-고	32006-0-2	맡'꼬
32006-0-3	맡-(任)[ㅌ]-더라	32006-0-3	마뜨'라
32006-0-4	맡-(任)[ㅌ]-으니까	32006-0-4	마'트니까
32006-0-5	맡-(任)[ㅌ]-아/어(왔/었다)	32006-0-5	마'탈따
32007-0-1	알:-(知)[ㄹ]-지	32007-0-1	아'알'찌
32007-0-2	알:-(知)[ㄹ]-고	32007-0-2	아알'고
32007-0-3	알:-(知)[ㄹ]-더라	32007-0-3	아'알'뜨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32007-0-4	아:니까'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32007-0-5	아랴따'(+확인 의문문임.)
32008-0-1	감:-(閉眼)[ㄱ]-지	32008-0-1	깜'찌'이
32008-0-2	감:-(閉眼)[ㄱ]-고	32008-0-2	깡'꼬'오
32008-0-3	감:-(閉眼)[ㄱ]-더라	32008-0-3	깜'뜨'라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32008-0-4	까'무'니까
32008-0-5	감:-(閉眼)[ㄱ]-아/어(왔/었다)	32008-0-5	까'덜'따

32009-0-1	벗-(脫)[ㅅ]-지	32009-0-1	벗'찌
32009-0-2	벗-(脫)[ㅅ]-고	32009-0-2	벗'꼬
32009-0-3	벗-(脫)[ㅅ]-더라	32009-0-3	벗뜨'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32009-0-4	벗'스'니까'
32009-0-5	벗-(脫)[ㅅ]-아/어(왔/었다)	32009-0-5	벗'썬'따
32010-0-1	옴-(可)[ㄹ]-지	32010-0-1	옴'찌'이
32010-0-2	옴-(可)[ㄹ]-고	32010-0-2	옴'코'
32010-0-3	옴-(可)[ㄹ]-더라	32010-0-3	옴'트라
32010-0-4	옴-(可)[ㄹ]-으니까	32010-0-4	옴'른'니까
32010-0-5	옴-(可)[ㄹ]-아/어(왔/었다)	32010-0-5	옴'라'따
32011-0-1	입-(着衣)[ㅂ]-지	32011-0-1	입'찌
32011-0-2	입-(着衣)[ㅂ]-고	32011-0-2	입'고
32011-0-3	입-(着衣)[ㅂ]-더라	32011-0-3	입뜨'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32011-0-4	입'브니까'
32011-0-5	입-(着衣)[ㅂ]-아/어(왔/었다)	32011-0-5	입'벌따
32012-0-1	바꾸-(換)[ㅌ]-지	32012-0-1	박꾸'지
32012-0-2	바꾸-(換)[ㅌ]-고	32012-0-2	박꾸'우고'
32012-0-3	바꾸-(換)[ㅌ]-더라	32012-0-3	박꾸'우드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32012-0-4	박꾸'우니까'
32012-0-5	바꾸-(換)[ㅌ]-아/어(왔/었다)	32012-0-5	박꾸'왁따
32013-0-1	덮-(覆)[ㅍ]-지	32013-0-1	덱'찌
32013-0-2	덮-(覆)[ㅍ]-고	32013-0-2	덱'꼬
32013-0-3	덮-(覆)[ㅍ]-더라	32013-0-3	덱뜨'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32013-0-4	덱'푸니:까'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32013-0-5	덱'펼따'
32014-0-1	묻:-(問)[ㄷ 변]-지	32014-0-1	무'운'찌
32014-0-2	묻:-(問)[ㄷ 변]-고	32014-0-2	무'웁'꼬
32014-0-3	묻:-(問)[ㄷ 변]-더라	32014-0-3	무'운'드라
32014-0-4	묻:-(問)[ㄷ 변]-으니까	32014-0-4	무'ړن니까'
32014-0-5	묻:-(問)[ㄷ 변]-아/어(왔/었다)	32014-0-5	무'ړ따

32015-0-1	낮:-(癒)[ㄴ변]-지	32015-0-1	나'알'찌
32015-0-2	낮:-(癒)[ㄴ변]-고	32015-0-2	나'아'꼬
32015-0-3	낮:-(癒)[ㄴ변]-더라	32015-0-3	나'알'뜨라
32015-0-4	낮:-(癒)[ㄴ변]-으니까	32015-0-4	나'으:니까'
32015-0-5	낮:-(癒)[ㄴ변]-아/어(왔/었다)	32015-0-5	나'알따
32016-0-1	닫-(閉)[ㄷ]-지	32016-0-1	닫'찌
32016-0-2	닫-(閉)[ㄷ]-고	32016-0-2	닫'꼬
32016-0-3	닫-(閉)[ㄷ]-더라	32016-0-3	닫뜨'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32016-0-4	다'드니까'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32016-0-5	다'덜따
32017-0-1	쫓-(追)[ㅈ]-지	32017-0-1	쫓'찌
32017-0-2	쫓-(追)[ㅈ]-고	32017-0-2	쫓'꼬
32017-0-3	쫓-(追)[ㅈ]-더라	32017-0-3	쫓뜨'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32017-0-4	쫓'츠니'까'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32017-0-5	쫓'찰따
32018-0-1	베:-(枕)[베]-지	32018-0-1	베'에'지
32018-0-2	베:-(枕)[베]-고	32018-0-2	베'어'꼬
32018-0-3	베:-(枕)[베]-더라	32018-0-3	베'에'드라
32018-0-4	베:-(枕)[베]-으니까	32018-0-4	베'으'니까'
32018-0-5	베:-(枕)[베]-아/어(왔/었다)	32018-0-5	베'어따
32019-0-1	깨:-(破)[깨]-지	32019-0-1	깨'엔찌
32019-0-2	깨:-(破)[깨]-고	32019-0-2	깨'고
32019-0-3	깨:-(破)[깨]-더라	32019-0-3	깨드'라
32019-0-4	깨:-(破)[깨]-으니까	32019-0-4	깨'으'니까'
32019-0-5	깨:-(破)[깨]-아/어(왔/었다)	32019-0-5	깨'엔'따
32020-0-1	펴-(伸)[펴]-지	32020-0-1	펴'언'찌
32020-0-2	펴-(伸)[펴]-고	32020-0-2	펴'고
32020-0-3	펴-(伸)[펴]-더라	32020-0-3	펴드'라
32020-0-4	펴-(伸)[펴]-으니까	32020-0-4	펴'니'까'
32020-0-5	펴-(伸)[펴]-아/어(왔/었다)	32020-0-5	펴'에따

32021-0-1	발-(明)[ㄹ]-지	32021-0-1	발'찌
32021-0-2	발-(明)[ㄹ]-고	32021-0-2	발'꼬
32021-0-3	발-(明)[ㄹ]-더라	32021-0-3	발뜨'라
32021-0-4	발-(明)[ㄹ]-으니까	32021-0-4	발'그'니까'
32021-0-5	발-(明)[ㄹ]-아/어(왔/었다)	32021-0-5	발'그아따
32022-0-1	쌌-(烹)[ㄹ]-지	32022-0-1	쌌'암'찌
32022-0-2	쌌-(烹)[ㄹ]-고	32022-0-2	쌌'양'꼬
32022-0-3	쌌-(烹)[ㄹ]-더라	32022-0-3	사'암'뜨라(+예사소리는 조사자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음.)
32022-0-4	쌌-(烹)[ㄹ]-으니까	32022-0-4	쌌'뜨'니까'
32022-0-5	쌌-(烹)[ㄹ]-아/어(왔/었다)	32022-0-5	쌌'머따
32023-0-1	을-(吟)[ㄹ]-지	32023-0-1	을'찌
32023-0-2	을-(吟)[ㄹ]-고	32023-0-2	을'꼬
32023-0-3	을-(吟)[ㄹ]-더라	32023-0-3	얼뜨'라
32023-0-4	을-(吟)[ㄹ]-으니까	32023-0-4	을'뜨'니까'
32023-0-5	을-(吟)[ㄹ]-아/어(왔/었다)	32023-0-5	을'퍼따
32024-0-1	발-(踏)[ㄹ]-지	32024-0-1	바'알'찌
32024-0-2	발-(踏)[ㄹ]-고	32024-0-2	바'알'꼬
32024-0-3	발-(踏)[ㄹ]-더라	32024-0-3	바'알'뜨라
32024-0-4	발-(踏)[ㄹ]-으니까	32024-0-4	발'브'니까'
32024-0-5	발-(踏)[ㄹ]-아/어(왔/었다)	32024-0-5	발'바따
32025-0-1	하-(爲)[ㅏ 변]-지	32025-0-1	하'지
32025-0-2	하-(爲)[ㅏ 변]-고	32025-0-2	하'고
32025-0-3	하-(爲)[ㅏ 변]-더라	32025-0-3	하드어'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32025-0-4	하'니까'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32025-0-5	해'애'따
32026-0-1	맏-(結)[ㅏ]-지	32026-0-1	맏'찌
32026-0-2	맏-(結)[ㅏ]-고	32026-0-2	맏'꼬
32026-0-3	맏-(結)[ㅏ]-더라	32026-0-3	맏뜨'라(+ '맏뜨라'의 발화실수 형임.)
32026-0-4	맏-(結)[ㅏ]-으니까	32026-0-4	메'드'니까'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32026-0-5	메'저따
32027-0-1	없:-(無)[ㅁ]-지	32027-0-1	어'읍'지
32027-0-2	없:-(無)[ㅁ]-고	32027-0-2	어'읍'고
32027-0-3	없:-(無)[ㅁ]-더라	32027-0-3	어'업'뜨라
32027-0-4	없:-(無)[ㅁ]-으니까	32027-0-4	어'업'스니까
32027-0-5	없:-(無)[ㅁ]-아/어(왔/었다)	32027-0-5	업'서'따
32028-0-1	앉-(坐)[ㄴ]-지	32028-0-1	안'찌
32028-0-2	앉-(坐)[ㄴ]-고	32028-0-2	앙'꼬
32028-0-3	앉-(坐)[ㄴ]-더라	32028-0-3	안뜨'라
32028-0-4	앉-(坐)[ㄴ]-으니까	32028-0-4	안주'니까'
32028-0-5	앉-(坐)[ㄴ]-아/어(왔/었다)	32028-0-5	안'절따
32029-0-1	비비-(刮)[ㅣ]-지	32029-0-1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32029-0-2	비비'이고
32029-0-3	비비-(刮)[ㅣ]-더라	32029-0-3	비'비드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32029-0-4	비'브'니까'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32029-0-5	비벼'어따
32030-0-1	끄-(消)[ㅡ]-지	32030-0-1	끄지
32030-0-2	끄-(消)[ㅡ]-고	32030-0-2	끄'고'
32030-0-3	끄-(消)[ㅡ]-더라	32030-0-3	끄드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32030-0-4	끄'니'까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32030-0-5	꼰따
32031-0-1	꺾-(折)[ㄱ]-지	32031-0-1	꺾'지
32031-0-2	꺾-(折)[ㄱ]-고	32031-0-2	꺾'고'
32031-0-3	꺾-(折)[ㄱ]-더라	32031-0-3	꺾뜨'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32031-0-4	꺾'꼬'니까'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32031-0-5	꼬'꼰따
32032-0-1	신:-(履)[ㄴ]-지	32032-0-1	시인'찌
32032-0-2	신:-(履)[ㄴ]-고	32032-0-2	시잉'꼬
32032-0-3	신:-(履)[ㄴ]-더라	32032-0-3	시'인'뜨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32032-0-4	시'느'니까'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32032-0-5	시'넌따
32033-0-1	보-(視)[ㄴ]-지	32033-0-1	보'지
32033-0-2	보-(視)[ㄴ]-고	32033-0-2	보'고
32033-0-3	보-(視)[ㄴ]-더라	32033-0-3	보'드'어'라
32033-0-4	보-(視)[ㄴ]-으니까	32033-0-4	보'니까'
32033-0-5	보-(視)[ㄴ]-아/어(왔/었다)	32033-0-5	받따
32034-0-1	추-(舞)[ㅈ]-지	32034-0-1	추:지
32034-0-2	추-(舞)[ㅈ]-고	32034-0-2	추'고'
32034-0-3	추-(舞)[ㅈ]-더라	32034-0-3	추'드'으'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32034-0-4	추'니'까'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32034-0-5	쫄따
32035-0-1	피우-(吸煙)[ㅍ]-지	32035-0-1	피'우:지'
32035-0-2	피우-(吸煙)[ㅍ]-고	32035-0-2	피'우:고'
32035-0-3	피우-(吸煙)[ㅍ]-더라	32035-0-3	피'우드라'
32035-0-4	피우-(吸煙)[ㅍ]-으니까	32035-0-4	피'우니까'
32035-0-5	피우-(吸煙)[ㅍ]-아/어(왔/었다)	32035-0-5	피'워따
32036-0-1	서-(立)[ㅅ]-지	32036-0-1	서'지
32036-0-2	서-(立)[ㅅ]-고	32036-0-2	서'고'
32036-0-3	서-(立)[ㅅ]-더라	32036-0-3	서드'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32036-0-4	서'니까'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32036-0-5	설:따
32037-0-1	기-(匍腹)[ㄱ]-지	32037-0-1	기:지:
32037-0-2	기-(匍腹)[ㄱ]-고	32037-0-2	기'고'
32037-0-3	기-(匍腹)[ㄱ]-더라	32037-0-3	기'드'라
32037-0-4	기-(匍腹)[ㄱ]-으니까	32037-0-4	기'니'까'
32037-0-5	기-(匍腹)[ㄱ]-아/어(왔/었다)	32037-0-5	기'일'따
32038-0-1	이-(戴)[ㅇ]-지	32038-0-1	이'지
32038-0-2	이-(戴)[ㅇ]-고	32038-0-2	이'고
32038-0-3	이-(戴)[ㅇ]-더라	32038-0-3	이드'라
32038-0-4	이-(戴)[ㅇ]-으니까	32038-0-4	이'니까'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32038-0-5 열따
32039-0-1	아니-(否)[ㅣ]-지	32039-0-1 아이'이'지
32039-0-2	아니-(否)[ㅣ]-고	32039-0-2 아~이'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32039-0-3 아~이'드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32039-0-4 아니'니'까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32039-0-5 아'넌따
32040-0-1	되-(升)[ㅅ]-지	32040-0-1 데'지'이
32040-0-2	되-(升)[ㅅ]-고	32040-0-2 데'고'
32040-0-3	되-(升)[ㅅ]-더라	32040-0-3 데'드'라
32040-0-4	되-(升)[ㅅ]-으니까	32040-0-4 데'니'까'
32040-0-5	되-(升)[ㅅ]-아/어(왔/었다)	32040-0-5 데'옐'따
32041-0-1	있-(有)[ㅅ]-지	32041-0-1 일'찌
32041-0-2	있-(有)[ㅅ]-고	32041-0-2 익'꼬
32041-0-3	있-(有)[ㅅ]-더라	32041-0-3 이뜨'라
32041-0-4	있-(有)[ㅅ]-으니까	32041-0-4 일슨'니'까'
32041-0-5	있-(有)[ㅅ]-아/어(왔/었다)	32041-0-5 이'세따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놀'지
32042-0-2	놓-(放)[ㅎ]-고	32042-0-2 녹'꼬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3 놀트'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노'으'니까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32042-0-5 나'한따
32043-0-1	훔-(扱)[ㅈ]-지	32043-0-1 흘'찌
32043-0-2	훔-(扱)[ㅈ]-고	32043-0-2 혹'고
32043-0-3	훔-(扱)[ㅈ]-더라	32043-0-3 흘뜨'라
32043-0-4	훔-(扱)[ㅈ]-으니까	32043-0-4 흘'트'니까
32043-0-5	훔-(扱)[ㅈ]-아/어(왔/었다)	32043-0-5 흘'털따
32044-0-1	굽:-(麗)[ㅂ 변]-지	32044-0-1 고'옹'지
32044-0-2	굽:-(麗)[ㅂ 변]-고	32044-0-2 고'옹'꼬
32044-0-3	굽:-(麗)[ㅂ 변]-더라	32044-0-3 고'옹'드라
32044-0-4	굽:-(麗)[ㅂ 변]-으니까	32044-0-4 고'오'브'니까

32044-0-5	굽:-(麗)[기]-아/어(왔/었다)	32044-0-5	고'오'받따
32045-0-1	쥐:-(握)[기]-지	32045-0-1	쥐'이'지(+상향이중모음 '위')
32045-0-2	쥐:-(握)[기]-고	32045-0-2	지'이'고'
32045-0-3	쥐:-(握)[기]-더라	32045-0-3	쥐'이'드'라(+상향이중모음 '위')
32045-0-4	쥐:-(握)[기]-으니까	32045-0-4	지'이'니'까
32045-0-5	쥐:-(握)[기]-아/어(왔/었다)	32045-0-5	지'일따
32046-0-1	가-(去)[ㅏ]-지	32046-0-1	가'지
32046-0-2	가-(去)[ㅏ]-고	32046-0-2	가'고'오
32046-0-3	가-(去)[ㅏ]-더라	32046-0-3	가'드'어'라
32046-0-4	가-(去)[ㅏ]-으니까	32046-0-4	가'니까'
32046-0-5	가-(去)[ㅏ]-아/어(왔/었다)	32046-0-5	간따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32047-0-1	먹'꼬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47-0-2	머'걸따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32048-0-1	뜯'꼬'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48-0-2	뜨'뜯'따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32049-0-1	가꼬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49-0-2	가'터'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32050-0-1	약'꼬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0-0-2	야'펼'따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32051-0-1	흩'꼬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1-0-2	흐'뜯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32052-0-1	날'고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	32052-0-2	나'랴따 왔/었다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32053-0-1	우'울'고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	32053-0-2	우'ړ따 왔/었다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32054-0-1	이'일'고
32054-0-2	일:-(洵)-아/어도, -아/어서, -	32054-0-2	이'ړ따 왔/었다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32055-0-1	어'얼'고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	32055-0-2	어'ړ따 왔/었다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32056-0-1	너'영'꼬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	32056-0-2	너'뉘따 왔/었다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32057-0-1	숨'꼬'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	32057-0-2	수'뉘'따 왔/었다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32058-0-1	시'익'꼬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	32058-0-2	시'이'워따 왔/었다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32059-0-1	눅'꼬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	32059-0-2	누'뉘따 왔/었다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32060-0-1	지'익'꼬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	32060-0-2	지'뉘따 왔/었다

32061-0-1	밈:-(憎)-지, -고, -더라	32061-0-1	믹'꼬
32061-0-2	밈:-(憎)-아/어도, -아/어서, -	32061-0-2	미'버따 왔/었다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32062-0-1	녹'꼬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	32062-0-2	노'편따 /었다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32063-0-1	지'익'꼬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	32063-0-2	저'얼따 왔/었다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32064-0-1	북'고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	32064-0-2	버'얼따 왔/었다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32065-0-1	우'욱'고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	32065-0-2	우'섰따 왔/었다
32066-0-1	짓:-(呖)-지, -고, -더라	32066-0-1	지'익'꼬
32066-0-2	짓:-(呖)-아/어도, -아/어서, -	32066-0-2	지'섰따 /었다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32067-0-1	꼭'고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	32067-0-2	꼬'벌따 /었다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32068-0-1	낙'코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	32068-0-2	나'알따 /었다
32069-0-1	땅:-(辯)-지, -고, -더라	32069-0-1	땅'코
32069-0-2	땅:-(辯)-아/어도, -아/어서, -	32069-0-2	따'알다 왔/었다

32070-0-1	끊-(切)-지, -고, -더라	32070-0-1	꿇'코
32070-0-2	끊-(切)-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070-0-2	끄'넌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32071-0-1	괜창'코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 -왔/었다	32071-0-2	괜차'넌따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32072-0-1	일'꼬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072-0-2	일'건따
32073-0-1	뺨:-(澁)-지, -고, -더라	32073-0-1	떠'얼'꼬
32073-0-2	뺨:-(澁)-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073-0-2	떨'번따
32074-0-1	옴:-(遷)-지, -고, -더라	32074-0-1	오웁'꼬
32074-0-2	옴:-(遷)-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074-0-2	올'먼따
32075-0-1	똥:-(貫)-지, -고, -더라	32075-0-1	뜨'을'고
32075-0-2	똥:-(貫)-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075-0-2	뜰'번따
32076-0-1	꿘-(跪)-지, -고, -더라	32076-0-1	꾸'을'고
32076-0-2	꿘-(跪)-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076-0-2	꾸'런'따
32077-0-1	닿-(扨, 연필 심이)-지, -고, - 더라	32077-0-1	딸'코
32077-0-2	닿-(扨, 연필 심이)-아/어도, - 아/어서, -왔/었다	32077-0-2	따'런따
32078-0-1	닿:-(煎, 술에서 장이)-지, -고, - 더라	32078-0-1	딸'코
32078-0-2	닿:-(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	32078-0-2	따'런따

-아/어서, -았/었다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32079-0-1	짜'고'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았	32079-0-2	짜'번'따
	/었다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32080-0-1	말'고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았	32080-0-2	마'런따
	/었다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32081-0-1	쓰'고'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았	32081-0-2	쓸따
	/었다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32082-0-1	오르'고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	32082-0-2	올'랄따
	왔/었다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32083-0-1	바쁘'고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	32083-0-2	바'쁜따
	왔/었다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32084-0-1	고프'고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	32084-0-2	고'팠'따
	왔/었다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32085-0-1	쏘'고'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았	32085-0-2	쏠따
	/었다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32086-0-1	꾸'고'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았	32086-0-2	뀔따
	/었다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32087-0-1	머물'고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32087-0-2	머무'런따

-왔/었다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32088-0-1	따등'꼬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	32088-0-2	따드'덜따

왔/었다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32089-0-1	전'디고'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	32089-0-2	전'덜따

왔/었다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32090-0-1	말'리고'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	32090-0-2	말련'따

왔/었다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	32091-0-1	찌'이'고'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	32091-0-2	찌'일따

/어서, -왔/었다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32092-0-1	마'시'고'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	32092-0-2	마'세따

왔/었다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32093-0-1	시'이'고'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	32093-0-2	시이다

왔/었다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32094-0-1	포개'애고'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	32094-0-2	포깁'따

-왔/었다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32095-0-1	뚜'들'고'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	32095-0-2	뚜드'렐따

-왔/었다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32096-0-1	켜'고'
-----------	-------------------	-----------	------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	32096-0-2	켜따
	왔/었다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32097-0-1	시이'고
32097-0-2	썰:-(바람을)-아/어도, -아/어	32097-0-2	시'일따
	서, -왔/었다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32098-0-1	시이'고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	32098-0-2	시'일따
	/었다		
32099-0-1	쉬:-(饅)-지, -고, -더라	32099-0-1	시'이'고
32099-0-2	쉬:-(饅)-아/어도, -아/어서, -	32099-0-2	시'일따
	왔/었다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32100-0-1	히'고'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	32100-0-2	히'일따
	/었다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32101-0-1	볶'꼬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	32101-0-2	봌'꼰따
	/었다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32102-0-1	아앙'꼬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	32102-0-2	아'넌따
	왔/었다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32103-0-1	묵'고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	32103-0-2	무'덜따
	/었다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32104-0-1	부울'고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	32104-0-2	부'ړ넌따
	왔/었다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32105-0-1	빠'알'고'(+발음실수로 '빨'의

모음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짐.)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	32105-0-2	빠'런'따
	왔/었다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32106-0-1	죽'고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	32106-0-2	주'벌따(+주건따의 발음실수임.)
	/었다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32107-0-1	거'꼬'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	32107-0-2	거'런따
	왔/었다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32108-0-1	가'물'고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	32108-0-2	가'무'런따
	왔/었다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32109-0-1	조'울'고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	32109-0-2	조'런따
	왔/었다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32110-0-1	썰'고'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	32110-0-2	씨'런'따
	/었다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32111-0-1	가양'꼬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	32111-0-2	가'말따
	왔/었다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32112-0-1	더'등꼬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	32112-0-2	더'드먼따
	왔/었다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32113-0-1	꾸'우'꼬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	32113-0-2	꾸'벌따
	왔/었다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32114-0-1	무겁'고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	32114-0-2	무거'별따
	왔/었다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32115-0-1	이'월따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	32115-0-1	일'꼬
	왔/었다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32116-0-1	뻥'고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	32116-0-2	뻥'선따
	/었다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32117-0-1	까'막'코'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	32117-0-2	까만'따
	왔/었다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32118-0-1	역'코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	32118-0-2	여'얼따
	/었다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32119-0-1	꼬'오고'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	32119-0-2	꿔'얼'따
	왔/었다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32120-0-1	은'꼬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	32120-0-2	은'절따
	/었다		
32121-0-1	귀찮-(噁)-지, -고, -더라	32121-0-1	귀창'코(+상향이중모음 '위')
32121-0-2	귀찮-(噁)-아/어도, -아/어서, -	32121-0-2	귀차'넌:따(+상향지중모음 '위')
	왔/었다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32122-0-1	발'기고'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	32122-0-2	발'결따
	왔/었다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32123-0-1	말'꼬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23-0-2	말'건따
32124-0-1	굵:- (膿)-지, -고, -더라	32124-0-1	고웅'꼬'
32124-0-2	굵:- (膿)-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24-0-2	골'만따
32125-0-1	굵:- (太)-지, -고, -더라	32125-0-1	구울'꼬'
32125-0-2	굵:- (太)-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25-0-2	굴'건따
32126-0-1	얇:- (薄)-지, -고, -더라	32126-0-1	야알'꼬'
32126-0-2	얇:- (薄)-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26-0-2	얇'받따
32127-0-1	쑤-(春)-지, -고, -더라	32127-0-1	설'꼬
32127-0-2	쑤-(春)-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27-0-2	설'건따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32128-0-1	일'코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28-0-2	이'런따
32129-0-1	핥-(舐)-지, -고, -더라	32129-0-1	할'꼬
32129-0-2	핥-(舐)-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29-0-2	할'털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32130-0-1	짧'꼬'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30-0-2	짧'번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32131-0-1	노'울'래고'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31-0-2	놀래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32132-0-1	자'고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32-0-2	잔따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32133-0-1	모:하고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32133-0-2	모:헐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32134-0-1	모르'고
32134-0-2	모르-(不知) -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32134-0-2	몰'랄따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32135-0-1	아푸'고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35-0-2	아'팔따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32136-0-1	크'고'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36-0-2	큰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32137-0-1	꼬'고'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32137-0-2	꼭'아따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32138-0-1	쭈'고'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38-0-2	쭈따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32139-0-1	마추'우고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39-0-2	마차'알따
32140-0-1	테우-(悟)-지, -고, -더라	32140-0-1	테'우고'
32140-0-2	테우-(悟)-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40-0-2	테'윌따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32141-0-1	이'이'고 라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32141-0-2	이'일따 어서, -왔/었다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32142-0-1	갈기'고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42-0-2	갈걸따 왔/었다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32143-0-1	기다'리고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43-0-2	기다'릴따 -왔/었다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32144-0-1	세'에'고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44-0-2	세'엔따 왔/었다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32145-0-1	빼'고'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 /었다	32145-0-2	뺨:따 /었다
32146-0-1	켜-(툼을)-지, -고, -더라	32146-0-1	켜'고
32146-0-2	켜-(툼을)-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46-0-2	켜'일따 왔/었다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32147-0-1	디'이'고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47-0-2	디'일따 왔/었다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32148-0-1	시'이'고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48-0-2	시'일따 왔/었다
32149-0-1	할퀴-(擻)-지, -고, -더라	32149-0-1	할키'이고
32149-0-2	할퀴-(擻)-아/어도, -아/어서, -	32149-0-2	할켄'따

왔/었다

32150-0-1 눈:- (焦)-지, -고, -더라 32150-0-1 눈'욱'꼬

32150-0-2 눈:- (焦)-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50-0-2 눈'를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32151-0-1 깨달'코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51-0-2 깨달'걸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32152-0-1 마력'꼬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
어서, -왔/었다 32152-0-2 매려'월따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32153-0-1 부끄럭'꼬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
서, -왔/었다 32153-0-2 부끄러'왓따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32154-0-1 가깝'꼬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4-0-2 가까'월따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32155-0-1 지푸'고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55-0-2 지'펼따

32156-0-1 긋:- (劃)-지, -고, -더라 32156-0-1 꼬'으고'

32156-0-2 긋:- (劃)-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56-0-2 꼬'얼따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32157-0-1 싹'고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157-0-2 씨'세따

32158-0-1 찡-(搗)-지, -고, -더라 32158-0-1 찹'코

32158-0-2 찡-(搗)-아/어도, -아/어서, -
32158-0-2 찹'어따

왔/었다

32159-0-1	꺠-(擻)-지, -고, -더라	32159-0-1	꺠'꼬
32159-0-2	꺠-(擻)-아/어도, -아/어서, -	32159-0-2	꺠'곺따

왔/었다

32160-0-1	꺡:-(飢)-지, -고, -더라	32160-0-1	꺡웁'꼬
32160-0-2	꺡:-(飢)-아/어도, -아/어서, -	32160-0-2	꺡'만따

왔/었다

32161-0-1	꺢:-(似)-지, -고, -더라	32161-0-1	꺢양'꼬
32161-0-2	꺢:-(似)-아/어도, -아/어서, -	32161-0-2	꺢'몸따

왔/었다

32162-0-1	꺣-(厭)-지, -고, -더라	32162-0-1	꺣'코'
32162-0-2	꺣-(厭)-아/어도, -아/어서, -	32162-0-2	꺣'곺따

왔/었다

32163-0-1	꺤-(𨾏)-지, -고, -더라	32163-0-1	꺤'고'
32163-0-2	꺤-(𨾏)-아/어도, -아/어서, -	32163-0-2	꺤'곺따

왔/었다

32164-0-1	꺥:-(注)-지, -고, -더라	32164-0-1	꺥'꼬
32164-0-2	꺥:-(注)-아/어도, -아/어서, -	32164-0-2	꺥'넌다

왔/었다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32165-0-1	타'고'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	32165-0-2	탈따

왔/었다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32166-0-1	마르'고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	32166-0-2	말'곺따

-왔/었다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32167-0-1	씩'꼬'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	32167-0-2	씨벗따

왔/었다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32168-0-1 슬프'고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32168-0-2 슬'편따
-왔/었다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32169-0-1 기'뻔따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32169-0-1 기쁘'고
-왔/었다

32170-0-1 쏘-(蜚, 벌이)-지, -고, -더라 32170-0-1 쏘'고'

32170-0-2 쏘-(蜚, 벌이)-아/어도, -아/어 32170-0-2 쏘따
서, -왔/었다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32171-0-1 주'고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 32171-0-2 존따
왔/었다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32172-0-1 키'우고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 32172-0-2 키'워따
서, -왔/었다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32173-0-1 가두'우고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32173-0-2 가뵈'따
-왔/었다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32174-0-1 뽀수'우고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32174-0-2 뽀사'알따
-왔/었다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32175-0-1 나누'우고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32175-0-2 나나'알따
-왔/었다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32176-0-1 쏘'기고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32176-0-2 쏘'결따

-왔/었다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32177-0-1 끼'고'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 32177-0-2 끼'일따
왔/었다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32178-0-1 티'고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 32178-0-2 티'일따
왔/었다

32179-0-1 괴:- (滄)-지, -고, -더라 32179-0-1 괴이'이'고
32179-0-2 괴:- (滄)-아/어도, -아/어서, - 32179-0-2 괴연'따
왔/었다

32180-0-1 여위-(癯)-지, -고, -더라 32180-0-1 애'비고'
32180-0-2 여위-(癯)-아/어도, -아/어서, 32180-0-2 애'별따
-왔/었다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32181-0-1 맥'꼬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 32181-0-2 매편따
왔/었다

32182-0-1 꺾:- (尻)-지, -고, -더라 32182-0-1 꺾'이'고(+상향이중모음 '위)
32182-0-2 꺾:- (尻)-아/어도, -아/어서, - 32182-0-2 꺾'일따(+상향이중모음 '위')
왔/었다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32183-0-1 고'치고'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32183-0-2 고'철따
-왔/었다

32184-0-1 싣:- (載)-지, -고, -더라 32184-0-1 시'일'꼬
32184-0-2 싣:- (載)-아/어도, -아/어서, - 32184-0-2 시'ړ따
왔/었다

32185-0-1 얻:- (得)-지, -고, -더라 32185-0-1 어'억'꼬'
32185-0-2 얻:- (得)-아/어도, -아/어서, - 32185-0-2 어:덜따

왔/었다

32186-0-1	빻-(粉碎)-지, -고, -더라	32186-0-1	빻'코'
32186-0-2	빻-(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6-0-2	빻'알따
32187-0-1	파랗-(碧)-지, -고, -더라	32187-0-1	파아락'코
32187-0-2	파랗-(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7-0-2	파랗'타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32188-0-1	다리'고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8-0-2	달'랄따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32189-0-1	푸'고'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89-0-2	펼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32190-0-1	누'고'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0-0-2	놀따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32191-0-1	드으'럭'꼬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1-0-2	드러벌따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32192-0-1	거두'우고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2-0-2	거달'따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32193-0-1	끓'코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3-0-2	끄'럴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32194-0-1	이'기고'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94-0-2	이'결다

-왔/었다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32195-0-1	부시'이고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32195-0-2	부시'일따
	-왔/었다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32196-0-1	잡'빠지고'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	32196-0-2	잡'과절따
	어서, -왔/었다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32197-0-1	이릭'키고'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	32197-0-2	이리'컬따
	어서, -왔/었다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32198-0-1	땡'기고'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32198-0-2	땡결따
	-왔/었다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32199-0-1	버'리고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32199-0-2	버'ړ따
	-왔/었다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32200-0-1	훔'치고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32200-0-2	훔'철따
	-왔/었다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32201-0-1	지'고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	32201-0-2	절따
	왔/었다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32202-0-1	외'에'고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32202-0-2	외'옐따
	-왔/었다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32203-0-1	사기'이고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	32203-0-2	사걸'따

서, -았/었다

32204-0-1	썩-(腐)-지, -고, -더라	32204-0-1	썩'꼬
32204-0-2	썩-(腐)-아/어도, -아/어서, -	32204-0-2	썩'겼따

았/었다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32205-0-1	질'고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	32205-0-2	지'렘따

았/었다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32206-0-1	까불'고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	32206-0-2	까부'렘따

-았/었다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32207-0-1	드'물'고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	32207-0-2	드'물'렘따

-았/었다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32208-0-1	주울'고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	32208-0-2	주'렘따

았/었다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32209-0-1	시임'꼬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	32209-0-2	시'렘따

았/었다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32210-0-1	쓰다듬'꼬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	32210-0-2	쓰다'렘따(+쓰다듬렘따의 발음

서, -았/었다

실수임.)

32211-0-1	샤:납-(猛)-지, -고, -더라	32211-0-1	사낙'꼬
32211-0-2	샤:납-(猛)-아/어도, -아/어서, -	32211-0-2	사나'렘따

-았/었다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32212-0-1	가벼'꼬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	32212-0-2	가벼'렘따

-왔/었다

32213-0-1 젓:- (撈)-지, -고, -더라 32213-0-1 저억'꼬

32213-0-2 젓:- (撈)-아/어도, -아/어서, - 32213-0-2 저'얼따
왔/었다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32214-0-1 두꺼'꼬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32214-0-2 두꺼'별따
-왔/었다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32215-0-1 무르'고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32215-0-2 물'런따
-왔/었다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32216-0-1 분지르'고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 32216-0-2 분질'런따
서, -왔/었다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32217-0-1 베'우고'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32217-0-2 베'월따
-왔/었다

32218-0-1 다리-(熨)-지, -고, -더라 32218-0-1 다'리고'

32218-0-2 다리-(熨)-아/어도, -아/어서, 32218-0-2 다'런따
-왔/었다

32219-0-1 후비-(窰, 귀를)-지, -고, -더 32219-0-1 후'비'고'
라

32219-0-2 후비-(窰, 귀를)-아/어도, -아/ 32219-0-2 후'별따
어서, -왔/었다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32220-0-1 아리'이고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32220-0-2 아'런따
-왔/었다

32221-0-1 그리-(畵)-지, -고, -더라 32221-0-1 그'리'고'

32221-0-2	그리-(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1-0-2	그'런'따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32222-0-1	저'리고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2-0-2	저'런따
32223-0-1	불리-(憎)-지, -고, -더라	32223-0-1	불'리고'
32223-0-2	불리-(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3-0-2	불'런따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32224-0-1	뜨시'고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4-0-2	뜨센'따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32225-0-1	끓'리고'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5-0-2	끓'런따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32226-0-1	누'비고'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6-0-2	누'별따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32227-0-1	구'기고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7-0-2	구겨'얼따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32228-0-1	비'이'고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8-0-2	비'일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32229-0-1	씨'키'고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29-0-2	씨'결따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32230-0-1	매'고'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0-0-2 매따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32231-0-1 매'고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1-0-2 맬'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32232-0-1 띠'고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	32232-0-2 띠'일따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32233-0-1 다양'꼬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	32233-0-2 다'뉘따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32234-0-1 가력'꼬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	32234-0-2 가려'뉘따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32235-0-1 때'리고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	32235-0-2 때'ړل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32236-0-1 어둑'꼬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	32236-0-2 어드'윰따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32237-0-1 작'꼬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	32237-0-2 자'뉘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32238-0-1 차'고'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	32238-0-2 찰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32239-0-1 모:지래고'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 32239-0-2 모지랴'따
어서, -왔/었다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32240-0-1 부리'고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32240-0-2 불'런따
-왔/었다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32241-0-1 따르'으고'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32241-0-2 따라'안따
-왔/었다

32242-0-1 쪼:- (啄)-지, -고, -더라 32242-0-1 쪼옥'꼬
32242-0-2 쪼:- (啄)-아/어도, -아/어서, - 32242-0-2 쪼'안따
왔/었다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32243-0-1 두'고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 32243-0-2 둔따
왔/었다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32244-0-1 시'키고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32244-0-2 씨'꼰따
-왔/었다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 32245-0-1 쪼'끼고'
더라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 32245-0-2 쪼'꼰따
아/어서, -왔/었다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32246-0-1 던'지고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32246-0-2 던'꼰따
-왔/었다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32247-0-1 모이'고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32247-0-2 모연'따
-왔/었다

32248-0-1	만지-(搯)-지, -고, -더라	32248-0-1 만'지고
32248-0-2	만지-(搯)-아/어도, -아/어서, -	32248-0-2 만'절따
	-왔/었다	
32249-0-1	쪼:- (曬)-지, -고, -더라	32249-0-1 쪼'옥꼬'
32249-0-2	쪼:- (曬)-아/어도, -아/어서, -	32249-0-2 쪼'알따
	왔/었다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32250-0-1 비틀'고'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	32250-0-2 비트런따
	-왔/었다	
32251-0-1	돕:- (助)-지, -고, -더라	32251-0-1 도:꼬
32251-0-2	돕:- (助)-아/어도, -아/어서, -	32251-0-2 도'알따
	왔/었다	
32252-0-1	썸-(咀)-지, -고, -더라	32252-0-1 썸'익꼬'
32252-0-2	썸-(咀)-아/어도, -아/어서, -	32252-0-2 썸'벌따
	왔/었다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32253-0-1 미끄럭'꼬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	32253-0-2 미끄러'벌따
	서, -왔/었다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32254-0-1 닻'꼬'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	32254-0-2 닻'알따
	왔/었다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32255-0-1 눌'리고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	32255-0-2 눌'런따
	-왔/었다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32256-0-1 주무'르고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	32256-0-2 주무'런따
	서, -왔/었다	

32257-0-1	메우-(塡)-지, -고, -더라	32257-0-1 메'우고'
32257-0-2	메우-(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7-0-2 메'윌따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32258-0-1 고시'고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8-0-2 고서'윌따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32259-0-1 내리'이고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9-0-2 내'ړ따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32260-0-1 구불'고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0-0-2 구부ړ따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32261-0-1 멘들'고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1-0-2 멘드'ړ따
32262-0-1	늪-(老)-지, -고, -더라	32262-0-1 늪'꼬
32262-0-2	늪-(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2-0-2 늪'걸따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32263-0-1 알'코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3-0-2 아'ړ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32264-0-1 따루'우'고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4-0-2 따랴'따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32265-0-1 사'고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5-0-2 살따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32266-0-1	치'우고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6-0-2	치'윘따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32267-0-1	부'러지고'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7-0-2	부'르절따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32268-0-1	다'치고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8-0-2	다'첼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32269-0-1	느'리고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69-0-2	느'렘따
32270-0-1	무치-(和,나물을)-지, -고, -더라	32270-0-1	무'치고
32270-0-2	무치-(和,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0-0-2	무'첼따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32271-0-1	조'호고'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1-0-2	좌'알따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32272-0-1	팔'고'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2-0-2	파'렘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32273-0-1	뽑'꼬'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3-0-2	뽀'뵤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32274-0-1	디'지고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4-0-2	디'절'따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32275-0-1	마'치고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5-0-2	마'천따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32276-0-1	저'리고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6-0-2	저'련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32277-0-1	휘'이고'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7-0-2	히'이따
32278-0-1	줍:- (拾)-지, -고, -더라	32278-0-1	주'욱'고
32278-0-2	줍:- (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8-0-2	주'얼따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32279-0-1	빼엑'꼬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79-0-2	빼'섰따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32280-0-1	기'울고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0-0-2	기'우련따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32281-0-1	아깝'꼬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1-0-2	아까'벌따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32282-0-1	방'각'꼬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2-0-2	방가왈따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32283-0-1	찌'고'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3-0-2	찢따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32284-0-1	노락'코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4-0-2	노랴'타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32285-0-1	푸'리고'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5-0-2	푸'런따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32286-0-1	서드르'고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6-0-2	서드'런따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32287-0-1	서'틀'고'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7-0-2	서'투'런따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32288-0-1	게으'르고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8-0-2	게우'런따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32289-0-1	따뜻:하'고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89-0-2	따뜨페'에따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32290-0-1	춡'꼬'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0-0-2	추'빈'따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32291-0-1	뜨'격'고'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1-0-2	뜨'거'빈따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32292-0-1	미지근하'고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92-0-2	미지근헤'엔따

/어서, -았/었다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32293-0-1	차'각'꼬'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32293-0-2	차가'받따
	-았/었다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32294-0-1	부럭'꼬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32294-0-2	부러'벌따
	-았/었다		

32295-0-1	알뜰-(憎)-지, -고, -더라	32295-0-1	알:뭍'꼬
32295-0-2	알뜰-(憎)-아/어도, -아/어서,	32295-0-2	알미'벌따
	-았/었다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32296-0-1	비슷:하'고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	32296-0-2	비슷해'엔'따
	어서, -았/었다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32297-0-1	새'룩'꼬'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32297-0-2	새'로'핀'따
	-았/었다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32298-0-1	서'어'럭꼬'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	32298-0-2	서'러'벌따
	서, -았/었다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32299-0-1	까:다'락'꼬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	32299-0-2	까'다'로'벌따
	서, -았/었다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32300-0-1	웨'룩'꼬'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32300-0-2	웨'로'벌따
	-았/었다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32301-0-1	아식'꼬'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	32301-0-2	아시'벌따

서, -았/었다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32302-0-1 단단하'고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 32302-0-2 단단해따
서, -았/었다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32303-0-1 늦'꼬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 32303-0-2 느'절따
았/었다

32304-0-1 남:- (餘)-지, -고, -더라 32304-0-1 나양'꼬'
32304-0-2 남:- (餘)-아/어도, -아/어서, - 32304-0-2 나'떨따
았/었다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32305-0-1 남'기고'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 32305-0-2 남'결따
서, -았/었다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 32306-0-1 너멀트'리고'
라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 32306-0-2 너멀뜨'렐따
/어서, -았/었다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 32307-0-1 쭈그'렐뜨'리고'
더라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 -아/어도, 32307-0-2 쭈그'렐뜨'렐따
-아/어서, -았/었다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32308-0-1 전주'우고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32308-0-2 전좃'따
-았/었다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32309-0-1 웨'우고'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32309-0-2 웨'윔따
-았/었다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32310-0-1 문지'리고'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0-0-2 문지'렵따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32311-0-1 가릭'키고'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1-0-2 가리'철따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32312-0-1 가르'치고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2-0-2 가'리'철따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32313-0-1 겨누'우고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3-0-2 겨나'알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32314-0-1 겨루'우고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4-0-2 겨르'알따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32315-0-1 달래'애고'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5-0-2 달렌'따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32316-0-1 뽐보'고(+뽐받교의 발음실수형임.)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6-0-2 뽐'받따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32317-0-1 어'지'레고'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7-0-2 어'지'렵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32318-0-1 달'리고'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8-0-2 달런따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32319-0-1 우'기'고'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9-0-2 우'기'לתּ -왔/었다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32320-0-1 중:얼거'리고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0-0-2 중얼거'לתּ /어서, -왔/었다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32321-0-1 지꺼'리고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1-0-2 지꺼'לתּ 서, -왔/었다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32322-0-1 다'니'고'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2-0-2 다'לתּ -왔/었다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32323-0-1 떠르'리고(+이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 어휘 대신에 늘쭈타형을 사용함.)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3-0-2 떠르'לתּ /어서, -왔/었다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32324-0-1 깨'고'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4-0-2 깨:לתּ 왔/었다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32325-0-1 시그'르'꼬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5-0-2 시그'לתּ 왔다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32326-0-1 속'꼬
32326-0-2	숫-(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6-0-2 소사'לתּ 왔다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32327-0-1 족'코'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32327-0-2	조타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32328-0-1	빨가'코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328-0-2	빨간'타
32329-0-1	끝:-(曳)-지, -고, -더라	32329-0-1	꼬'을'고
32329-0-2	끝:-(曳)-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32329-0-2	꼬'런따
32330-0-1	얇:-(薄)-지, -고, -더라	32330-0-1	야알'꼬
32330-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았 /었다	32330-0-2	얇'벌따
32331-0-1	하얇-(白)-지, -고, -더라	32331-0-1	하약'코
32331-0-2	하얇-(白)-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32331-0-2	하야'타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구'기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구'글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구'게
32332-0-4	국(羹)-으로	32332-0-4	구'국'으로(+국으로의 발음실수 임.)
32332-0-5	국(羹)-도	32332-0-5	국'또
32333-0-1	논(沍)-이/가	32333-0-1	노니
32333-0-2	논(沍)-을/를	32333-0-2	논을
32333-0-3	논(沍)-에(서)	32333-0-3	노'네
32333-0-4	논(沍)-으로	32333-0-4	노느로
32333-0-5	논(沍)-도	32333-0-5	논도
32334-0-1	쌀(米)-이/가	32334-0-1	싸'리'
32334-0-2	쌀(米)-을/를	32334-0-2	싸를

32334-0-3 쌀(米)-에(서)
32334-0-4 쌀(米)-으로
32334-0-5 쌀(米)-도

32334-0-3 싸레
32334-0-4 쌀로
32334-0-5 쌀또

32335-0-1 봄(春)-이/가
32335-0-2 봄(春)-을/를
32335-0-3 봄(春)-에(서)
32335-0-4 봄(春)-으로
32335-0-5 봄(春)-도

32335-0-1 보'미'
32335-0-2 봄'을'
32335-0-3 보'메
32335-0-4 봄으로
32335-0-5 봄도

32336-0-1 집(家)-이/가
32336-0-2 집(家)-을/를
32336-0-3 집(家)-에(서)
32336-0-4 집(家)-으로
32336-0-5 집(家)-도

32336-0-1 지'비
32336-0-2 지'블
32336-0-3 지'베
32336-0-4 집'으로'
32336-0-5 집또

32337-0-1 옷(衣)-이/가
32337-0-2 옷(衣)-을/를
32337-0-3 옷(衣)-에(서)
32337-0-4 옷(衣)-으로
32337-0-5 옷(衣)-도

32337-0-1 오'시'
32337-0-2 오'슬'
32337-0-3 오'세
32337-0-4 오스로
32337-0-5 온또

32338-0-1 방(房)-이/가
32338-0-2 방(房)-을/를
32338-0-3 방(房)-에(서)
32338-0-4 방(房)-으로
32338-0-5 방(房)-도

32338-0-1 방'이
32338-0-2 방'을
32338-0-3 방'에
32338-0-4 방'으로
32338-0-5 방'도

32339-0-1 낮(晝)-이/가
32339-0-2 낮(晝)-을/를
32339-0-3 낮(晝)-에(서)
32339-0-4 낮(晝)-으로
32339-0-5 낮(晝)-도

32339-0-1 나'지'
32339-0-2 나'슬'
32339-0-3 낮'에
32339-0-4 나스'로
32339-0-5 낮또

32340-0-1 낯(顔)-이/가
32340-0-2 낯(顔)-을/를

32340-0-1 낯'치
32340-0-2 낯'틀

32340-0-3 낮(顔)-에(서)
 32340-0-4 낮(顔)-으로
 32340-0-5 낮(顔)-도

32340-0-3 낮'테
 32340-0-4 낮'트로
 32340-0-5 낮또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5 부엌(廚)-도

32341-0-1 브'어'기
 32341-0-2 브'어'글
 32341-0-3 브'어'게
 32341-0-4 브'어'그로'
 32341-0-5 브'억'또

32342-0-1 밭(田)-이/가
 32342-0-2 밭(田)-을/를
 32342-0-3 밭(田)-에(서)
 32342-0-4 밭(田)-으로
 32342-0-5 밭(田)-도

32342-0-1 받'치
 32342-0-2 받'틀
 32342-0-3 받'테
 32342-0-4 받'트로'
 32342-0-5 받'또

32343-0-1 앞(前)-이/가
 32343-0-2 앞(前)-을/를
 32343-0-3 앞(前)-에(서)
 32343-0-4 앞(前)-으로
 32343-0-5 앞(前)-도

32343-0-1 압'피
 32343-0-2 압'풀
 32343-0-3 압'폐
 32343-0-4 아'프로'
 32343-0-5 압'또

32344-0-1 닳(魂)-이/가
 32344-0-2 닳(魂)-을/를
 32344-0-3 닳(魂)-에(서)
 32344-0-4 닳(魂)-으로
 32344-0-5 닳(魂)-도

32344-0-1 녁'시
 32344-0-2 녁'글
 32344-0-3 녁'게
 32344-0-4 녁'그로'
 32344-0-5 늑'또

32345-0-1 흙(土)-이/가
 32345-0-2 흙(土)-을/를
 32345-0-3 흙(土)-에(서)
 32345-0-4 흙(土)-으로
 32345-0-5 흙(土)-도

32345-0-1 흘'기
 32345-0-2 흘'글
 32345-0-3 흘'게
 32345-0-4 흘'그로
 32345-0-5 흘'또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1 여'드리
 32346-0-2 여'들을'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5 여덟(八)-도

32346-0-3 여'드레'
 32346-0-4 여'드로
 32346-0-5 여'들또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5 돌(週歲)-도

32347-0-1 도'리'
 32347-0-2 도'를'
 32347-0-3 도'레
 32347-0-4 도르로
 32347-0-5 돌또

32348-0-1 값(價)-이/가
 32348-0-2 값(價)-을/를
 32348-0-3 값(價)-에(서)
 32348-0-4 값(價)-으로
 32348-0-5 값(價)-도

32348-0-1 갑'씨'
 32348-0-2 갑'을'
 32348-0-3 가'베
 32348-0-4 가브로
 32348-0-5 갑또

32349-0-1 속:(內)-이/가
 32349-0-2 속:(內)-을/를
 32349-0-3 속:(內)-에(서)
 32349-0-4 속:(內)-으로
 32349-0-5 속:(內)-도

32349-0-1 소'오'기
 32349-0-2 소'오'글
 32349-0-3 소'오'게
 32349-0-4 소'오'그로
 32349-0-5 소'옥'또

32350-0-1 돈:(錢)-이/가
 32350-0-2 돈:(錢)-을/를
 32350-0-3 돈:(錢)-에(서)
 32350-0-4 돈:(錢)-으로
 32350-0-5 돈:(錢)-도

32350-0-1 도'오'니
 32350-0-2 도:늘'
 32350-0-3 도'오'네
 32350-0-4 도'온'으로'
 32350-0-5 돈'도'

32351-0-1 발(足)-이/가
 32351-0-2 발(足)-을/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4 발(足)-으로
 32351-0-5 발(足)-도

32351-0-1 바'리'
 32351-0-2 발'을'
 32351-0-3 바'레
 32351-0-4 발로'
 32351-0-5 발또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1 지'미'
 32352-0-2 짐'을'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5 짐(荷物)-도

32352-0-3 지'매
 32352-0-4 지'므로
 32352-0-5 짐도

32353-0-1 입(口)-이/가
 32353-0-2 입(口)-을/를
 32353-0-3 입(口)-에(서)
 32353-0-4 입(口)-으로
 32353-0-5 입(口)-도

32353-0-1 이'비'
 32353-0-2 이'불'
 32353-0-3 이'베
 32353-0-4 이'브로
 32353-0-5 입또

32354-0-1 낫(鎌)-이/가
 32354-0-2 낫(鎌)-을/를
 32354-0-3 낫(鎌)-에(서)
 32354-0-4 낫(鎌)-으로
 32354-0-5 낫(鎌)-도

32354-0-1 나'시'
 32354-0-2 나'슬'
 32354-0-3 나'데
 32354-0-4 나'스로'
 32354-0-5 낫또

32355-0-1 강(江)-이/가
 32355-0-2 강(江)-을/를
 32355-0-3 강(江)-에(서)
 32355-0-4 강(江)-으로
 32355-0-5 강(江)-도

32355-0-1 강'이'
 32355-0-2 강'을'
 32355-0-3 강'에
 32355-0-4 강'으로
 32355-0-5 강도

32356-0-1 젓(乳)-이/가
 32356-0-2 젓(乳)-을/를
 32356-0-3 젓(乳)-에(서)
 32356-0-4 젓(乳)-으로
 32356-0-5 젓(乳)-도

32356-0-1 저'시'
 32356-0-2 저'슬'
 32356-0-3 저'데
 32356-0-4 저'스'로'
 32356-0-5 젓또

32357-0-1 꽃(花)-이/가
 32357-0-2 꽃(花)-을/를
 32357-0-3 꽃(花)-에(서)
 32357-0-4 꽃(花)-으로
 32357-0-5 꽃(花)-도

32357-0-1 끝'치
 32357-0-2 끝'틀
 32357-0-3 끝'테
 32357-0-4 꼬'트로
 32357-0-5 끝'또

32358-0-1 팥(赤豆)-이/가
 32358-0-2 팥(赤豆)-을/를

32358-0-1 팥'치
 32358-0-2 팥'틀'

32358-0-3 팥(赤豆)-에(서)
 32358-0-4 팥(赤豆)-으로
 32358-0-5 팥(赤豆)-도

32358-0-3 팥'테
 32358-0-4 팥트'로
 32358-0-5 팥또

32359-0-1 옆(側)-이/가
 32359-0-2 옆(側)-을/를
 32359-0-3 옆(側)-에(서)
 32359-0-4 옆(側)-으로
 32359-0-5 옆(側)-도

32359-0-1 엽'피
 32359-0-2 여'풀
 32359-0-3 여'폐
 32359-0-4 여'프로'
 32359-0-5 엽'또

32360-0-1 샅(賃金)-이/가
 32360-0-2 샅(賃金)-을/를
 32360-0-3 샅(賃金)-에(서)
 32360-0-4 샅(賃金)-으로
 32360-0-5 샅(賃金)-도

32360-0-1 싸'기
 32360-0-2 싸'글
 32360-0-3 싸'게
 32360-0-4 싸'으로'
 32360-0-5 싸'도

32361-0-1 닭(鷄)-이/가
 32361-0-2 닭(鷄)-을/를
 32361-0-3 닭(鷄)-에(서)
 32361-0-4 닭(鷄)-으로
 32361-0-5 닭(鷄)-도

32361-0-1 다'리
 32361-0-2 달'글
 32361-0-3 달'게
 32361-0-4 달'그로'
 32361-0-5 달'또

32362-0-1 밖(外)-이/가
 32362-0-2 밖(外)-을/를
 32362-0-3 밖(外)-에(서)
 32362-0-4 밖(外)-으로
 32362-0-5 밖(外)-도

32362-0-1 박'끼
 32362-0-2 박'글
 32362-0-3 바'께
 32362-0-4 바'프로'
 32362-0-5 박'또



제4편 문 법

4.1. 대명사

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 내:
40101-0-1 내-가	40101-0-1 내'가'
40101-0-2 내	40101-0-2 내해'다
40101-0-3 나-를	40101-0-3 나알'
40101-0-4 나-에게	40101-0-4 내'인'테
40101-0-5 나-와	40101-0-5 내하'고
40101-0-6 나-는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1-0-7 나:도
40102 저/제-가	40102 저'어
40102-0-1 저-가	40102-0-1 저'가
40102-0-2 저-의	40102-0-2 저함'니더
40102-0-3 저-을/를	40102-0-3 저'를
40102-0-4 저-에게	40102-0-4 저한'테
40102-0-5 저-와/과	40102-0-5 저'를
40102-0-6 저-는	40102-0-6 저'는
40102-0-7 저-도	40102-0-7 저'도
40103 우리	40103 우리
40104 저희	40104 저'에
40105 너	40105 니
40105-0-1 -가	40105-0-1 니:
40105-0-2 -의	40105-0-2 니'
40105-0-3 -을/를	40105-0-3 니'
40105-0-4 -에게	40105-0-4 니한'테
40105-0-5 -와/과	40105-0-5 니하'고
40105-0-6 -는	40105-0-6 니'는
40105-0-7 -도	40105-0-7 니'도
40106 자네	40106 자네'도

40107 당신

40108 너희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채

40110 자기

40111 당신

40107 당시~'이라거(+소)

40107 여'보'(+부인이 남편에게 말할 때)

40107 자네'(+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

40108 너거

40109 가'아는

40109-1 야아'느

40109-2 자:

40110 지'말만

40111 *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40112 누구'로

40112-0-1 누가'

40112-0-2 누'우'

40112-0-3 누굴'

40112-0-4 누굴'

40112-0-5 누구하'고

40113 머'어로, 머~'이껴(+어른에게 물어
볼 때)

40113-0-1 머'어'

40113-0-2 머'하고

40113-0-3 머'어'가

40113-0-4 머'어'하고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40114 어'데

40115 은:제

40116 어'느, 어'편'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트'케'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1 그것
40122 저것
40123 여기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0120 이게
40121 그제'
40122 저게
40123 여'게를'
40124 거'게
40125 저'게'도
40126 여'게, 이'리'리'도(+ '이리로'와 '이
리도'가 뒤섞여 일어난 발음실수로 보이며
이 지역에서는 '일로'가 보편적임.)
40127 글로
40128 절'로'

4.2. 조사

1) 격조사

40201 -이/가
40202 -이/가
40203 -을/를
40204 -을/를
40205 -에게/게
40206 -보고/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8 -에
40209 -에
40210 -에서
40211 -에서
40212 -에서
40213 -으로
40214 -으로
40215 -으로
40216 -으로
40217 -와/과

40201 갑'시'
40202 코'가'(+신), 코'이'(+구)
40203 코'를
40204 무'를'
40205 사'람'인데'
40206 누'굴'보'고'
40207 누'굴'보'고
40208 지'베
40209 내앵'제
40210 큰'지'베'서
40211 서'우'레'서
40212 여'게서
40213 미까리'로
40214 지'프'로'
40215 새'끼'로
40216 어'드'로
40217 수박하고'

40218 -와/과
 40219. -보다
 40220 -처럼
 40221 -만큼
 40222 -만큼
 40223 -아/야
 40224 -아/야
 40225 -아/야
 40226 -아/야
 40226-1 -예
 40227 -아/야
 40227-1 -요
 40228 -이랑
 40229 -커녕

40218 내하'고
 40219 형보'다
 40220 되:'지'그치'
 40221 니마'꿈
 40222 만침'
 40223 봉나'마
 40224 봉나'미
 40225 여'영'수야'
 40226 눈'님
 40226-1 눈'님요(+가깝고 친한 대상)
 40227 할:배요
 40227-1 할'배요
 40228 술하'고 고'기'하고'
 40229 *

2) 보조사

40230 -은/는
 40231 -만
 40232 -도
 40233 -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할라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30 수'르는, 담배는
 40231 딸'만'
 40232 키'도', 임'물또
 40233 날매둥'
 40234 오'을버'틈
 40235 모레까지
 40236 물조'차
 40236-1 비'오'올'라
 40237 도~이야
 40238 소'릴랑'
 40239 부자라도'
 40240 니빠'께
 40241 싸가즈'고

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40243 알았어-요
 40244 했지-요?

40242 오'라꼬
 40243 아'런니더', 아'아'니더
 40244 헨'니'꺼

4.3. 종결어미

1) 명령법

40301 -아라
40302 -게
40303 -으오
40304 -으십시오
40305 -세요

40301 안'자라
40302 양'께
40303 안지'소
40304 안지'이'소
40305 안지'이소

2) 청유법

40306 -자
40307 -세
40308 -으오
40309 -십시오
40310 -세요

40306 가'자
40307 가'세
40308 가시'더
40309 가시'더
40310 가시'더

3) 의문법

40311 -니
40312 -나
40313 -오
40314 -습니까
40315 -나요
40316 -니
40317 -나
40318 -시오
40319 -십니까
40320 -세요

40311 오나
40312 오'능'강
40313 오'니'꺼
40314 오니이'꺼
40315 오'니'꺼
40316 가노
40317 가능궁
40318 가니'이꺼
40319 가시니'이꺼
40320 가시니'이꺼

4) 서술법

40321 -는다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1 명는'다
40322 머'꼬인'네
40323 잘머'꼬인니'더
40324 머'꼬인니'더
40325 머'꼬인니'더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9 -으십니다
40330 -으세요

40326 자'악'따
40327 자'아'그'네
40328 자:그~'이더
40329 자:그~'이더
40330 자:그~'이더

5) 반말

40331 -아
40332 -지

40331 아푸~'아
40332 */ 참말'로' 깔'내(+동일한 표현임.)
40332 깔:라나

6) '이다'의 종결어미

40333 -이다
40334 -이니
40335 -이네
40336 -인가
40337 -이오
40338 -이오
40339 -입니다.
40340 -입니다
40341 -이지지요
40342 -이지지요
40343 -이냐?
40344 -인가?
40345 -이오?
40346 -입니다?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이어요?

40333 생'일'이다
40334 새~'이'리가
40335 생'이'리네, 생'이'리세
40336 새~'이'링'가~
40337 새~'이'리'시더
40338 생'일'이'이꺼
40339 새~'이'리'시더
40340 새~'이'리'이꺼
40341 새~'이'리'시더
40342 새~'이'리'이꺼
40343 머'어로
40344 머'어로, 프'영공(+새 사위에게)
40345 머~'이꺼
40346 머~'이꺼
40347 머~'이꺼
40348 머'어로
40349 머~'이꺼

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0 마:니'더
40351 만:타'더
40352 명능'구나
40353 *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을라

40354 오' 램마'이세
40355 주꾸'마
40356 가' 품'세
40357 다' 칠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5 -관데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40401 머'꼬
40402 보'면서'
40403 추'버'서
40404 따신'니까
40405 이런데', 일로'
40406 오다'가
40407 가그'덩
40408 먹뜨'라돈', 스디'라도'
40409 머글'라꼬'
40410 밤새드로', 빠지드로', 새드로', 죽뚜'
로
40411 염'물수로, 이쓸'수로
40412 물쓰든
40413 보'지

4.5. 주체 존대

40501 -셔
40502 -셨소

40501 오'게(+서로 잘 알고 친한 경우)
40502 오'소'(+서로 잘 모르는 경우), 하선'
니껴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2 기어간다
40603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1 윈'는'다
40602 기:간다
40603 크'다'아
40604 생'일'이'다(+자녀와 같이 친한 아래
사람), 생이'리'세(+사위나 어려운 손 아래

	사람)
40605 오고 있다	40605 오'고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40606 머'건능강(+친구 사이), 잡사'안니껴 (+손 위)
40607 왔었다	40607 *
40608 먹더라	40608 먹뜨'라
40609 먹더냐	40609 먹따~'아
40610 만나는 친구	40610 만'나'는
40611 만난 친구	40611 만'난'
40612 만났던 친구	40612 만나뜬'
40613 만날 친구	40613 만날
40614 큰 아이	40614 큰'
40615 크던 아이	40615 크'든'
40616 컸던 아이	40616 크'뜬'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7 머께'따(+신)
40618 비가 오겠다	40618 오올'따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40701 암 머'거따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40702 안' 조타(+다), 조치 안'타(+소)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40703 깨끝 아 하'다(+구), 깨끝하'지 안'타 (+신)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40704 앙' 가따, 장게 가'지 안'아따'도'(+신)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40705 암 만'나' 바따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706 먹찌'도 앙'코'(+신), 암 머꼬'(+구, +다)
40706-1 먹도 않고	40706-1 *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40707 몸 멍는다(+신), 암 멍는다(+구, +동 일한 의미로 사용됨.)
40708 맞잖소?/안 맞소?	40708 *

4.8. 피동과 사동

1) 사동

40801	살리다	40801	살'려따
40802	늘리다	40802	늘'려따
40803	말리다1	40803	말'룰'라꼬'
40804	말리다2	40804	말'린다
40805	얼리다	40805	얼과'이 텐다
40806	녹이다	40806	노'겨이 텐다
40807	신기다	40807	싱게' 조이 텐다
40808	보이다	40808	보여'준다
40809	알리다	40809	알'려준다
40810	입히다	40810	이'퍼준다
40811	얹히다	40811	안채'이 텐다
40812	벗기다	40812	베께'애' 조이 텐다
40813	옷기다	40813	위께'엔다
40814	씩히다	40814	씩'인다
40815	숨기다	40815	숨'겨이 텐다
40816	꿇기다	40816	궁'긴'다
40817	깨우다	40817	깨'우'이 텐다
40818	돌우다	40818	도둔'다

2) 피동

40819	잡히다	40819	차페'따
40820	깎이다	40820	까께'따
40821	끼이다	40821	짱게'따
40822	떼이다	40822	띠예'따
40823	채이다	40823	차예'따
40824	닫히다	40824	다께'따
40825	들리다	40825	들리'인다
40826	엮히다	40826	어페'따
40827	바뀌다	40827	바께'따
40828	씹히다	40828	씨페'따
40829	엮히다	40829	은체'에따

40830 찍히다
40831 놀리다
40832 실리다
40833 꿔기다
40834 꺾히다

40830 찌케'에따
40831 놀레'따
40832 실러'가따
40833 꼬'너저따, 꺾케'따
40834 끝채'애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싫다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40901 심'노(+의문형 종결어미가 연결된 형태임.)
40902 시'핀는데'
40903 보소
40904 뿌러따
40905 대'앤다
40906 *, 올'라꼬'한다
40907 잠 드'른'나' 보다, 잠 드'른'능' 꼬
따
40908 추'분' 머~이따, 추'웅'감' 보다(+신)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01 시큼 머'그라
41002 마'아'이 머'거야
41003 너무 마'아'이 머'그'문'
41004 조금'만 다'고, 쪼매 머'거'도'
41005 자'주 온다
41006 빨'리 와따
41007 얼릉 머'거라
41008 *
41009 가끔' 온다
41010 머~여 가그'라
41011 나'아'중'에 간다
41012 가득: 채'운다
41013 마카 자주' 가그라(+몽땅은 최근에 쓰는 어휘라고 함.)

41014	모조리	41014	마카 비'낸다(+모조리, 전부, 몽땅 등은 최근에 쓰는 어휘이며, 마카와 의미차 이는 없음.)
41015	혼자	41015	혼'차 이따
41016	항상	41016	만날 바뿌'다
41017	똑똑히	41017	똑'또'케 바라(+신), 영'그게 바라(+ 구, +다)
41018	겨우	41018	개:구' 차머따, 억'찌'로' 차머따
41019	늘	41019	만날 느'따
41020	저절로	41020	절'로 나온다
41021	자꾸	41021	자꾸' 나온다
41022	설마	41022	설'마' 헨'는'테'
41023	하마터면	41023	하마트'른 차'아 칭'계뿐해따
41024	함께	41024	가치 간다(+구), 항'께 간다(+신)
41025	걸핏하면	41025	걸핏하'면 썩'을 낸:다
41026	공연히	41026	고~여~이 썩'낸다
41027	그냥	41027	기'양 나와따
41028	매우	41028	마:이 시:다(+구, +다), 매'우 시:다(+ 신)
41029	곧장	41029	고짱 가그'라(+신, +소), 얼릉 가그' 라(+구, +다)
41030	벌써	41030	날래' 끈내'엔네, 벌써 완'네가(+신, +소)
41031	가장	41031	가'장 크다(+신), 겔: 크다
41032	가만히	41032	가:마: 이끄'라
41033	미리	41033	먼저' 가본다, 미'리 가본다(+신)
41034	이따금	41034	드문드문' 온다

4.11. 관용적 표현

1) 관용어구

41101	여보	41101	여'보'
41102	여보세요	41102	여'보'오, 길' 쫘' 무릅시다
41103	들어가세요	41103	저언'나 끈니'테이

41104	수고하세요	41104	오'늘 욱' 바선니더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41105	오'램'마이세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41106	아침' 자:선니껴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41107	서'어른 잘 환'니껴(+설날), 폐난'하 선'니'껴
41108	여기 있습니다	41108	돈: 여'기 인니'더(+돈 여기 있어요 의 의미임.)
41109	예	41109	만니'더, 예에'
41110	아니	41110	아~'이시더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1	괜차니'더
41112	내버려 뒀	41112	나'아 도라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41113	*

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4	미' 빠진 도'게 물 부끼다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5	바늘 또'두기 소도둑 텐'다
41116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41116	안' 땐 브어게' 영기 나나

=4 과'아따(+ 괴었다의 의미임.)

=4 무체'에따(+ 묻혔다의 의미임.)

=4 하루강아'지가 범' 무서운 주로' 모른다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원장 이기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영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무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정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경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강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영목 (충 남 대 학 교)
- ◆ 위 원 최명옥 (서 울 대 학 교)
- ◆ 위 원 홍윤표 (연 세 대 학 교)

